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SECOND EDITION

**MILDRED BANGS
WYNKOOP**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SECOND EDITION
MILDRED BANGS
WYNKOOP

밀드렛 뱅스 와인쿵 (Dr. Mildred B. Wynkoop) 저

사랑의 신학

웨슬리안주의의 역동성 (증보판, 2015)

한글판

오클라호마시티 제일한인나사렛교회
(창립 50 주년 기념 출판위원회 간행, 2025 년)

목차

- 한글 번역본 발간사 - 5 쪽
- ‘와인쿱 혁명’ (Thomas A. Noble) - 7 쪽
- 와인쿱과 신뢰성 격차 (H. Ray Dunning) - 10 쪽
- 머리말 - 13 쪽
- 웨슬리의 저술에 대한 표기법 - 17 쪽
- 제 1 과: 단서 - 20 쪽
- 제 2 과: 사랑의 신학을 향하여 - 26 쪽
- 제 3 과: 신뢰성 격차 - 48 쪽
- 제 4 과: 웨슬리안주의란 무엇인가? - 65 쪽
- 제 5 과: 웨슬리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95 쪽
- 제 6 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 127 쪽
- 제 7 과: 신약성경의 인간 - 154 쪽
- 제 8 과: 죄와 거룩함 - 181 쪽
- 제 9 과: 도덕의 의미 - 200 쪽
- 제 10 과: 거룩함의 심리학 - 220 쪽
- 제 11 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 - 248 쪽
- 제 12 과: 믿음의 기능 - 263 쪽
- 제 13 과: 정결한 마음 - 294 쪽
- 제 14 과: 그리스도인 완전함 - 314 쪽
- 제 15 과: 성화 — 실체 - 352 쪽
- 제 16 과: 성화 — 여건 - 389 쪽

- ‘잃어버린 장’ (David B. McEwan) - 414 쪽
- ‘와인쿱과 거룩함에 관한 설교’ (T. Scott Daniels) - 417 쪽
- ‘기록 보관소의 메모’ (Stan Ingersol) - 418 쪽

제 17 과: 성결에 관한 설교 - 419 쪽

- ‘실로 소중한 사람’ (Diane Leclerc) - 437 쪽
- ‘와인쿱과 근본주의자들의 도전’ (Stan Ingersol) - 441 쪽

참고 문헌 - 445 쪽

사랑의 신학 한글 판 발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 - 451 쪽

사랑의 신학 (증보판)

한글 번역본 발간사

사랑의 신학 개정 증보판 한글어 번역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나사렛 교단의 성결교리의 대표적 걸작인 고 와인쿱 박사의 기념비적인 서적을 우리 교회의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돼서 우리 모두의 큰 영광이며 감사의 이유로 여깁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서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의 한어 권 나사렛 교인들의 삶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실천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년 2 월 21 일

오클라호마시티 제일한인나사렛교회
(창립 50 주년 기념 출판위원회)

옮긴 이: 이현훈

저자가 사용한 직접 인용구는 큰 따옴표 (“ ”)를, 저자 자신의 용어 중 의미전달의 중요성 및 선명성을 요하는 단락의 제목이나 구절에 대해서는 역자 임의로 작은 따옴표 (‘ ’)를 부착하고 영문 표기를 병행하였습니다. 보다 확실한 의미 전달을 위한 조치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쿱 혁명’ (THE WYNKOOP REVOLUTION)

토마스 A. 노블 (Thomas A. Noble)

나사렛 신학대학원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신학과 교수

Mildred Bangs 는 어린 시절 시애틀 제일 나사렛교회(First Church of the Nazarene in Seattle)에서 브리지 목사(Dr. Phineas Bresee)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와일리 박사(Dr. H. Orton Wiley)는 그녀의 대학 교수이자 총장이며 멘토였습니다. 그는 웨슬리적 유산을 탐구함에 있어서 좁은 종파적 지평을 넘어 ‘공 교회’ (the church catholic)라는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그녀의 이해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서 남편 랠프 와인쿱 (Ralph Wynkoop)과 함께 여행하면서 나사렛 교회 내에서 점증하는 문제, 즉 우리가 ‘진정성 결여의 문제’ (the problem of inauthenticity)라고 부르는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개인적 질문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그녀는 많은 2세대 나사렛 사람들이 다분히 1세대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부흥의 경험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성화에 대한 신학적 고정 관념으로 인해 굳어진 껍질들이 그들 각자의 실생활과 분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존적이고 일상적인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의 마법 같은 영적 경험의 ‘높은 순간’ (a high moment)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주의 적이고 흑백논리에 속하며 다소 단순하기까지 한 성결 교리는 일상적인 삶의 유혹이나 윤리적 선택, 또는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요구에 있어서 모호함과 같은 실제 생활의 복잡하고 세부적인 일들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인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결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세기 중반의 진지하지만 단순한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었고, 그 결과 이론적 교리와 기독교인의 실제 일상 생활 사이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의 영적 씨름을 통해 생성된 문제, 즉 비진정성 문제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녀를 다시금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위한 추가 연구에서 그녀는 성서 신학과 요한 웨슬리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칼빈주의를 포함하여 다른

교리적 전통에 속한 다른 사상의 흐름들이 성결 운동에서 문제가 되는 '신학적 융합' (amalgam of theology)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성경으로 되돌려 놓고 웨슬리를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이자 그의 후기 추종자들보다 더 진실한 영적 인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¹

이러한 영적, 지적 탐구에서 그녀의 주요 저서인 *A Theology of Love* (사랑의 신학)가 출현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바르트 (Karl Barth)의 주석이 "신학자들의 운동장에 폭탄처럼" 떨어졌다고 말하곤 하는데, 와인쿱의 책이 성결교회의 신학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그것과 유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이 전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 경악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신학의 기본 전제와 하나님에 대한 어법 및 사고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판은 진지했고 일부는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쿱의 *사랑의 신학*은 그 주제에 대한 최종적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완벽히 재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도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 책이 일으킨 후 폭풍은 성결교리의 핵심 신념과 특정한 방식의 은유와 모형에 내재된 식별가능한 신학적 성숙함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논쟁은 다소 분열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건전했습니다.

그녀의 신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발적이고 파괴적이며 혁명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혁명"은 보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후기 교사들의 틀에 박힌 단순화 이전에 웨슬리 자신의 대담하고 모험적이며 더 깊은 건설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20세기 후반에 반향을 일으킨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존적이며 (실존주의는 아님), 인격적이고 (단순한 개인주의는 아님), 도덕적(단순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는 아님)인 것에 대한 그녀의 초점은

¹ 이 점과 관련하여 저는 Wynkoop 박사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요한 트레두(Johan Tredoux) 목사의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곧 출판될 것으로 믿습니다)에 빚을 졌습니다.

기독교적 거룩함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그녀의 시대 및 그 세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뉴 칼리지(New College)에서 주선한 에큐메니칼 맥락의 신학 연구에 참여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더 넓은 전통에서 내 자신의 웨슬리안과 나사렛 유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와인콥의 새로 출판된 *사랑의 신학*은 나사렛 교단의 전통에 지적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신학자들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웨슬리적 전통이 공 교회의 삶과 신학에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생동감 있고 창조적인 사고가 항상 그렇듯이, 많은 분야에 걸쳐서 즉각적인 답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학의 지적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생활과 제자도와의 관련성을 회복하는 관문이 됩니다.

와인콥의 창의적 사고의 핵심은 13 과부터 16 과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처럼 놀라운 통찰력의 저자가 자신의 신학을 일상 생활과 관련시키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책의 앞부분의 내용을 살살이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향한 궁극적인 승리의 추구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와인쿵과 ‘신뢰성 격차’ (WYNKOOP AND THE CREDIBILITY GAP)

H. 레이 더닝 (H. Ray Dunning), 트레베카 나사렛 대학교 (Trevecca Nazarene University) 신학부 명예 교수

1972년 밀드렛 밴스 와인쿵(Mildred Bangs Wynkoop)이 출판한 *사랑의 신학*은 성결 신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피비 팔머(Phoebe Palmer, 1807-74) 이후로 여성이 성결 운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Palmer 여사와 마찬가지로 와인쿵 박사는 생각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여 성화 교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간 교정"이라고 부를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성결 신학이 그녀 자신이 "성결학"(holiness scholasticism)이라고 명명한 특성을 취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웨슬리 시대 이후 성결에 관한 이해의 영역에서 발전한 일종의 경직성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현상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완벽주의"(perfectionism)를 초래하여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신경증 환자, 또는 바리새인과 위선자"²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작품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진정한 웨슬리 신학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지배적이었던 고정관념적 가르침보다 훨씬 더 큰 실존적 방식으로 삶과 교차한다는 인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신뢰성 격차"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성결 신학자들의 표준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다분히 사치스러운 주장처럼 묘사되는 완전 성결이라는 용어와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 사이의 격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한 성화에 대한 주장과 바람직한 성경 해석 사이의 격차를 나타냅니다.

² Mildred Bangs Wynkoop, "Holiness Scholasticism," Trevecca Nazarene College 에서 가르치는 동안 작성 및 배포된 논문 (1966-76).

첫 번째 격차의 근원은 다루기 힘든 죄의 특성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성결운동의 부흥이 한창이던 역사적 시기는 그럴듯한 이유로 진보의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 본성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매우 낙관적인 시대로 특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세계인의 정신에서 이러한 낙관주의의 상실을 가져왔으며, 여기에는 종종 숨겨진 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인격의 깊이에 대한 보다 심오한 깨달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헨리 나이트 3세(Henry H. Knight III)가 "우리 삶에서 무의식적 동기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대한 웨슬리의 말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절망적일만큼 어리석게 보이게끔 합니다"³ 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격차는 W. M. Greathouse 가 1969 년 나사렛 신학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외부 학자들이 "성결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는 "광범위하고 깊은 성경적 근거의 부족"때문이며, 그로 인해 "성화에 대한 많은 고귀한 성경적 진리를 단순히 '두 번째 축복' (the second blessing)으로 축소시켰고,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단지 거룩함을 고백하는 작은 무리를 모으실 때까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일종의 안전장치에 대한 경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웨슬리의 기독교인의 완전성에 관한 소고)가 제공하는 평이한 설명을 사려 깊게 읽다보면 그러한 대중적인 신학이 성화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웨슬리의 관점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난 것인 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와인쿱 박사는 성결 운동의 미래가 이 격차를 좁히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시도를 그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웨슬리로부터 해석을 도출했지만, 그녀가 말한대로 그를 "전문가" (guru)가 아니라 "멘토" (mentor)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성경의 권위를 일차적으로 강조했고, 이를 근거로 웨슬리에 대한

³ Henry H. Knight III,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92), 1.

몇 가지 점, 특히 죄에 대해 물질적인 용어로 말하는 경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철학적 훈련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물질적 사고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했고 관계적 사고가 성경적 믿음과 실제 생활 모두에 더 일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 방식에 대한 모든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작업은 학구적인 신학자와 현장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동료 신학자이자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인쇄물에서 그녀를 "성결 운동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고 통찰력 있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이 그들에게 마음의 거룩함의 메시지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Wesleyan Theological Society (웨슬리 신학회)의 동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기렸고 매년 와인쿵 도서상을 제정하여 그 해의 뛰어난 출판물을 기리곤 합니다.

와인쿵 박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일부가 따라가려고 시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구적인 노력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작업에는 보다 많은 설명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추가 연구를 통한 수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문제는 현실적이었고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적한 방향은 건전했고, 아마도 성결 운동이 21 세기까지 살아남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밀드렛 와인쿵이 전통에 도전하고 성결신학의 발을 갈아엎어 새로운 고랑을 만들어낼 용기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대작의 재출판은 젊은 목회자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Wynkoop 이 한 위대한 여성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현대 성결 운동의 주요 전환점의 원천을 알게 되는 행복한 기회입니다. 밀드렛이 책을 쓰는 동안 밀드렛의 젊은 동료로서 나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를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작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말

"네 글자 단어"인 LOVE는 현대 식으로 말하여,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합리적 탐구를 무시한 채 단지 신비롭고 감정적인 모호함에 이끌린 나머지 일체의 신성 모독적인 비판으로부터 예외시 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연민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 채 단지 기술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술적이며 상투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한 자동 기계에 의해 유인되는 자동장치적인 현대 사회에서 사랑에 대한 개념은 적어도 유전 공학이 그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프로그램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사랑은 전통적인 의미에 반발하는 개념들, 즉 사랑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혼동되는 관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의 신성불가침적 모호성은 자체의 "복잡함"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마치 사랑 자체에 대한 비판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비평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동반되는 경쟁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의미'(meaning), 즉 달리 표현하자면, "의미 중의 의미" (meaning of meaning)입니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 의미는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고, 아쉬운 공허함 만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의미를 되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좌절감이 지나쳐 냉소주의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사랑은 모호한 말인데 비해, 의미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촉구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정박할 곳을 잃었고 가장 기만적인 개념이 된 나머지, 독재적인 폭군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가리키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비해, 빈곤한 영어 식 표현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한가지 단어로 번역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추구하는 의미의 종류는 사랑이 손짓하는 무지개의 끝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에 관한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이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지만 종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어의 '사랑' (love)이라는 한 단어 아래에 포함되는 많은 의미를 탐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종교적 차원에 관한 현대의 냉소주의적 인식에 대해 끊임없이 주목할 것입니다. 사랑은 "공허한 말"이며 성취되지 않은 약속과 같아서, 그것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의해 사랑의 약속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교회가 자체적으로 공언하는 식의 사랑의 유형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18 세기 영국은 오늘날의 냉소적인 세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랑의 관계에 의한 구속보다 한참 "낮은" 형태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데 익숙하였습니다. 그 사회는 궁전에서부터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잔인하고 저속하고 음습한 생활 방식을 미화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은 거의 가치가 없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무절제한 방임의 시대에 현대식으로 표현하여 "사랑의 사도" 인 요한 웨슬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가장 낮은 사랑의 의미에 직면하여 가장 높은 사랑의 관점에서 가능한 영적 가치인 거룩함을 선포했습니다.

웨슬리는 거룩함을 사랑과 동일시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해독제는 사랑 자체의 병든 이름을 회복하면서, 도덕적으로 치유하는 힘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웨슬리의 모든 생각의 원천인 성경을 사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랑을 자체의 도덕적 망명에서 구출해내고, 거룩함을 상아탑의 무의미함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만한 사랑을 생각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거룩함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한 단어를 갖고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agape)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사회적 사랑의 일반적인 범주에 전혀 속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모든 사랑을 격하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개념을 표현하는 데에 맞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를 정제된

학문적 접근없이 단지 "사랑"으로 번역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현대적 해설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전제가 서로 반대 극에 서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서로 결정적입니다. 안데르스 니그렌 (Anders Nygren)은 *Agape and Eros*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아가페와 인간의 사회적 사랑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구분하는데, 그는 후자를 에로스와 동일시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성경적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Nygren 의 심오한 통찰력은 아가페와 에로스의 대조를 고려하는 진지한 학문적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가페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든 그렇지 않든, 에로스와 아가페 사이의 질적 차이만큼은 항상 명확해야 합니다.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Daniel Day Williams)의 최근 저서인 *The Spirit and Forms of Love* (성령과 사랑의 형식)는 아가페에 대한 보다 더 성경적인 접근에 기여하였습니다. 윌리엄스의 생각에 따르면, 니그렌은 아가페와 에로스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둘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윌리엄스는 매우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 위에서 아가페와 에로스를 각각 어느 한 쪽의 특성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연관시키거나 결합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더욱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정신학" (Process Theology)은 과거의 이원론에 대한 절실한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과정적 사고의 형이상학적 기초가 신학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통찰은 성서신학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사랑, 은혜, 자연, 구원 및 대인 관계의 전 영역에서 역동적 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본성적으로 역동적인 형이상학의 토대위에서만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입장은 결코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종교적, 성경적 통찰이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히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독교적 의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한 연구는 이러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수행됩니다. 이 책에서 시도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여기에서 항목화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경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감"은 요한 웨슬리이지만, 구체적이며 소모적인 관심은 성서 신학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항상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웨슬리의 14 권으로 된 그의 전집은 그의 사상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가장 간단한 그의 언급들을 활용하였으며, 성경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가치보다는 적절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것들입니다. 오래된 '성경주의' (biblicism)의 편협성은 성경 구절의 가장 분명한 의미를 모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이 모호함입니다.

공로를 인정해야 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남편의 지원과 격려에 기꺼이 감사를 표합니다. 남편은 이 책을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저의 수년간의 지적 연구와 영적 고뇌의 기간 동안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책의 어느 부분의 성과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 M. B. W.

웨슬리의 저술에 대한 표기법

이 책 전체에 걸쳐 요한 웨슬리 자신의 저술에서 인용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대한 각주 대신에 각각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호들을 고안하였습니다. 각 인용문은 주로 네 가지 주요 출처에서 기인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부호화 하였습니다.

-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Kansas City: Nazarene Publishing House, n.d.; an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concurrent editions), 14 vols. 부호: 전집 (Works).
- *Wesley's Standard Sermons*, edited by Edward H. Sugden (London: The Epworth Press, 1921), 2 vols. 부호: 설교 (Sermons).
-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edited by John Telford (London: The Epworth Press, 1931), 8 vols. 부호: 편지 (Letters).
-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New York: Eaton and Mains, n.d.). 부호: 노트 (Notes).

사랑은 '거룩함'(Holiness)에서 '가혹함'(the Harshness)을 제거합니다.
사랑은 '완벽함'(Perfection)에서 '믿기 힘든 것'(the Incredibility)을 제거합니다.
사랑은 '믿음'(Faith)에서 '반 율법주의'(the Antinomianism)를 제거합니다.
사랑은 '순종'(Obedience)에서 '도덕주의'(the Moralism)를 제거합니다.
사랑은 '청결함'(Cleansing)에서 '영지주의'(the Gnosticism)를 제거합니다.
사랑은 '진리'(Truth)에서 '추상화'(the Abstraction)를 제거합니다.
사랑은 '진리'(Truth)에 '인격'(the Personal)을 부여합니다.
사랑은 '거룩함'(Holiness)에 '윤리'(the Ethical)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삶'(Life)에 '과정'(Process)을 부여합니다.
사랑은 '위기'(Crisis)에 '절박함'(Urgency)을 부여합니다.
사랑은 '죄'(Sin)에 '심각성'(Seriousness)을 부여합니다.
사랑은 '교케'(Fellowship)에 '완전함'(Perfection)을 부여합니다.

M. B. W.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끝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계도와 그 계도의 각 부분들이 목표로 하는 요점입니다. 그것의 기초는 믿음이며,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랑 (권집, XI, 416)

“1733년 1월 1일, 나는 ... '마음의 할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혼의 습관적인 성향이며, 이는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 마음의 형상이 새로워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집, V, 203 참조]

“같은 설교에서 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끝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 되신 분의 법은 이러하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여기에 완전한 율법의 총합,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 출판된 나의 모든 커슬들 중 첫 번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었고, 그때에도 나는 '완전' (perfection)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이며, 어떤 물질적 추가나 축소도 없습니다." (권집, XI, 367-68)

“우리는 이 종교가 세상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종교로 세워지고,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 자리를 잡고, 항상 자기 자신을 그 열매로 드러내며, 모든 유형의 청결함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John Wesley,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London: Wesleyan Conference Office, n.d., 14th edition, 4)

제 1 과: ‘단서’ (The Clue)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질문은 간단히 말하여,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체계 안에서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원리, 즉 해석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과 실제 인간 존재가 의미 있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론과 삶 사이의 명백한 모호성에 의해 제기된 수많은 지적인 질문과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정직하게 추적하는 고통스러운 정도로 느린 과정은 흥미롭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즉, 현실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발생하거나 인간의 특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역동적인 실체에 대하여 일종의 엄격한 개념을 부과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제기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류는 질문의 뿌리가 종종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의해 치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의 구조를 수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대학 시절에 결코 잊히지 않는 한 철학 강좌를 통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꺼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결론을 설명하는 데에 숨겨져 있는 기본 전제가 될만한 "이상향"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더 큰 놀라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의 자명한 진리의 토대 위에 자신의 생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중요한 편견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길 바랬고, 일단 제가 그것들을 찾고자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순진한 입장을 지녔습니다. 그 일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수익성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고의 모든 영역과 의견과 입장의 차이에 대한 비판의 통제 이론에 대한 탐색과 발견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깊은 이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면서 문제를 푸는 열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신학적, 종교적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자체가 합리성과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범주적 오류와 무비판적 전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묻는 방식에 대해 일절 대답할 수조차 없는 많은 물음의 기초가 되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오류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면, 노출이라도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신학/생명 증후군' (the theology/life syndrome)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고려할 가치가 있는 신학에 대한 건전하고 유용한 접근방식에 기여했다는 것이 저의 주의깊은 생각입니다. 그의 "해석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각 교리가 그에 의해 확인되고 정의될 때, 그 기본 의미는 변함없이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웨슬리의 생각은 주변에 아치형 통로로 된 입구가 있는 거대한 원형 홀과 같습니다. 어느 쪽에 들어가든 항상 중앙에 있는 '사랑의 전당' (Hall of Love)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돛을 올려다보면 끝없이 매력적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하는 식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의 설교와 삶 속에 퍼져 있는 각 교리를 통해 보여지는 사랑의 역류는 모든 교리를 하나의 역동적인 건축기술로 연결하고,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 위상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형 신학" (Rotunda Theology)은 "층별 계단"식 접근이 아니라, 그 형태가 순환적이며, 웨슬리의 신학적 분석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학은 체계적인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각 요소는 다른 모든 요소나 교리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각 요소마다 이전의 것과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편안하게 이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에게는 그러한 깔끔함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진 체계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웨슬리의 교리는 서로 간에 각각, 그리고 모든 사랑의 원리로부터 결코 날카롭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주제와 인용에 대한 불가피한 중복이 분명한 이 책의 연구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거의 모든 웨슬리의 구절들마다 그 요점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오히려 적게 하는 것은 불공평할 정도로), 거의 모든 주요 교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학 용어들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만지는 것은

전체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각 구절마다 거의 모든 중심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강조한 사랑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독교의 교리도 사랑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으며, 그 실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 책임감을 침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랑의 개념은 웨슬리에 의해 훨씬 축소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살아나야"하며, 그것은 신비의 안개 속에서 교리가 해체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논쟁을 없애거나 종교, 가정, 교회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창조적 긴장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폭발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성을 단지 부드럽고 방임적으로 은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해석한 사랑 또는 거룩함은 건전하거나, 심지어 강렬한 인간의 반응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모든 창조적 갈등이 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일치된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고 완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웨슬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것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웨슬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성취를 만듭니다. 그것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취합니다." 그 사랑은 관계 당사자 간의 건전한 주고받기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고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한 연구가 추구하는 신학적 해결책은 모든 생각과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강화시키고, 효과적인 기독교인의 봉사를 방해하는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활기찬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연구하는 "촉매제"(catalyst)로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웨슬리의 사랑 개념은 제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완전한 촉매제입니다. 즉, 신학과 삶이 함께 고려될 때, 웨슬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랑은 다른 개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학적, 종교적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인 사랑에 이어서 신학의 중심 진리가 다른 무엇보다

복음에 의해서 더 잘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인간의 제한적이고 이기적이며 선택적이고 왜곡된 사랑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와 인간과 함께하는 그분의 방식에 대한 이론에 투영된 사랑에 대한 인간적 개념에 반대합니다.

바로 이 무한하고, 공평하고,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인간적 사랑마저도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랑의 왜곡이며, 사랑은 자아를 자신의 헌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적 전통에서 이해되는 특별한 방식의 '선택'(election)에 관한 교리가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투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 점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의 개념이 지지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오한 도덕적, 개인적, 영적 관계성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기계적, 자동적, 또는 수학적인 "사물 조작"(thing-manipulation)과 같은 것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복음의 실재를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웨슬리가 신학적 '분파주의'(provincialism)로부터 건강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인데, 그의 추종자들 모두가 그렇게 슬기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편협한 배타주의는 영지주의적이며 매우 오래된 뿌리에서 파생됩니다. 신학적, 종교적 분파주의는 항상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는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스코틀랜드 신학 저널)에 실린 글에서 이르기, "바울이 보았듯이 이단의 문제는 그 무서운 분파주의였다" 고 말하였습니다 ("A First Century Heresy," November 1970).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자아와 자아의 자율성을 위협하거나 그 "권리"를 쉽게 침범하는 자아와는 정반대의 극에 서 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에 대한 그의 개념이나 이해에 있어서 결코 분파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웨슬리 스스로 자신을 특징짓는 것처럼, 그는 "한 책의 사람" 이었고, 그는 그 책, 즉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주의는 성경적 신학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상에 따라 본 서의 연구에는 다소 긴 성경 연구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조사한 몇 가지 교리 중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통제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교리와 삶 사이의 긴장 속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제기되는 곳마다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행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중인 특정 단어에 대한 모든 관련 성구들을 기록할 수 있고, 또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임의로 성경구절을 선택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인 그림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신학은 선택된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무겁고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간단한 본문인용 작업에서 종종 놓치는 문맥에 대한 명백한 문맥 관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없이는 성경 신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신중한 학문은 이러한 연구에서 결론 지은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속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체계" 내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새로운 틀, 즉 개인적 관계와 경험으로 끌어들이는 영적 차원을 덧붙였는데, 이러한 식의 "추가"가 교리적 균형을 위한 다른 형태의 구성을 갖추면서도 실제로 체계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전체는 변경된 구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의 본질인 사랑은 신학을 통합하는 요소이자 삶에 대한 인간화의 적용으로 작용했습니다. 신학의 구조는 웨슬리의 손 아래 인간의 가능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신학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신학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웨슬리의 공헌의 핵심은 칭의와 분명히 구별되지만 칭의에 필수적인 실행 가능한 요소로서 신학에 성화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칭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칭의

(당시에는 행위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보다 성화를 우선시하는 식으로 그 둘 사이의 카톨릭적 혼동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교정에서 성화를 행위와 혼동함으로써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칭의가 현실이 된 믿음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는 그의 관심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가 하나의 진리의 두 측면이며, 시간이나 경험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은 역동적인 활력을 통한 성화의 역사 (속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사역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으로 하나님과 화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전유'(appropriation)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단계"에서 칭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보편주의로부터 보호되는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이며, 하나님의 '선택적 법령' (selective decree,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희화화였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by faith) 것입니다.

웨슬리가 칭의와 성화를 단지 양적인 척도에서만 구별되는 수학적 가치로 간주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첫째는 칭의를 받고, 나중에는 성화를 덧붙일 수 있다는 식의). 그는 오히려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루터를 뛰어넘는 믿음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칭의를 위해 믿은 다음 나중에 성화에 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내 거룩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는 칭의에 있으며, 따라서 신앙이 시작되는 생명의 새로움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쟁점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삶에는 도덕적 경험에 필수적인 결정적 위기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한 개념만이 성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며, 이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제 2 과: '사랑의 신학' (Theology of Love)을 향하여

이 책의 주제는 사랑이 웨슬리안주의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저술을 깊이 연구한 결과, 우리는 그의 신학과 설교에서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과 성화, 온전함, 정결함, 믿음, 인간, 하나님, 구원 등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이 모든 것이 함께 흐르고 서로 얹히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필연적으로 사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웨슬리를 '성결의 신학' (a theology of holiness)보다는 '사랑의 신학' (a theology of love)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그의 주된 강조점에 더욱 충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연구하고 옹호해야 할 분명한 전제는 '웨슬리안주의' (Wesleyanism, 웨슬리에게서 힌트를 얻은 교회의 한 분파)는 가장 정통적인 순간에 기독교 신학을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교회에 기여한 신학적, 종교적 공헌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전통적인 주류 기독교에 진정한 영적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이 활력은 사랑이며, 사랑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입니다.

사랑은 요한 웨슬리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가장 강력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 중의 천국은 사랑이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종교는 없으며,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찾고 있다면 과녁을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코스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저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릇된 방향의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잘못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순간부터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보다 더 높은 승천의 길은 없습니다. (전집, XI, "Plain Account", 430)

웨슬리 사상의 신학적 핵심이 사랑이라는 전제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어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웨슬리안주의의 역동성이라고 말할 때, 필연적으로 웨슬리안주의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룩함에 대한 암시를 통해 무언가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은 역동적이며 거룩함의 특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1) 사랑은 거룩함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개념인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거룩함의 고유한 성격과 힘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리고 2)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용어를 너무 밀접하게 연결하여 서로 같지 않은 그 둘을 동일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답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사랑 사이의 적절한 신학적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웨슬리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가르쳤는지 묻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웨슬리가 이 두 단어와 그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을 단순히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동일시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이 두 단어는 은혜의 부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로 타오르는 진리의 통일성”입니다. 둘째, 이 두 용어에 적용된 “역동적”이라는 개념이 생생한 관련성을 지닌 사고의 틀, 즉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두 용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용어를 인격적 관계와 병치하면 각 용어가 훨씬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를 묶어줍니다. 이로써 거룩함과 사랑은 단순한 추상적 용어에서 역동적인 성경적 개념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거룩함과 인격적 관계, 역동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의미론적으로 교차하고 상호 관련되는 지점에서 분명한 해석학적 원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존적 용어집’ (AN EXISTENTIAL GLOSSARY)

1. 이 책에서 사용된 거룩함은 그 용어가 사용되는 곳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모호함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전에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 명사 또는 추상적인 단어로서의 거룩함은 사랑이나, 완전, 헌신, 정결케 함, 또는 다른 어떤 단어와도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수백 년의 역사가 담아낸 안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 거룩함이 신학적 맥락에 놓일 때 그것은 그것이 어떤 신학 체계에 속해 있든 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그 체계 속의 다른 모든 용어와 상호 연관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카톨릭의 거룩함은 칼빈주의의 거룩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개념적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 세 번째 범주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실존적 개입을 수반하는 종교적 용어로 사용될 때 거룩함은 살아 있는 관계들의 복합체 전체에 자율성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사랑과 완전함에 의해 그 의미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의미를 발전시킵니다. 각 용어를 보호하는 날카로운 의미론적 장벽이 해체되어 신학 용어나 사전적 개념으로 대처할 수 없는 뚜렷한 영적 실체를 남깁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범주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주의자 (철학자)는 현실주의자 (웨슬리안)를 신학적 무지 (인간은 신적인 거룩함의 기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또는 부정직한 사람 (자신의 편의에 맞게 거룩함의 의미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함은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이러한 예비 진술과 함께 또한 바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추가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웨슬리에게서 사랑과 거룩함은 동일시되는가? 아니면, 신학적으로 동일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며 그 복잡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웨슬리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 질문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이 특정한 질문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할 생각이 없었던 질문에 억지로 대답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웨슬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답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단어입니다. 공식적인 정의의 영역에서는 각각 구별됩니다. 어떤 맥락에서도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단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실존적 의미의 영역에서는 둘의 관련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상 연관되어 있지만 삶에서 생명적이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각각 서로 떨어져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집과 가정, 사람과 변호사, 기관과 학교가 동일한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거룩함과 사랑도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의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다른 범주의 생각에 서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의 특성이나 용도 또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요소가 지닌 "역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한데 모으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가 더욱 사실입니다. 어느 쪽도 동시에 양면이 될 수 없습니다. 양면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만, 동전의 뒷면은 앞면만큼이나 그 존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거룩함의 본질적인 내적 성품이며, 거룩함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웨슬리는 거룩함과 완전함을 사랑으로 일관되게 정의했습니다.

2. 이 비유의 강조점은 다분히 암시적입니다. 만일 사랑이 거룩함의 특성이고,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것, 거룩함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에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랑은 결코

"물건"(thing)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에 속한 것이라면, 거룩함은 결국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거룩함에 관한 그 무엇입니다.

3.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실체에 대한 인격적 차원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써 계시가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며, 의사소통이 의미를 갖게 되며, 합리성과 도덕성이 만나고,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중요해지며, 거룩함과 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해집니다. 계시의 도구는 무생물적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그 도구를 활용하여 전달된 의미를 드러내거나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같은 인격적 존재들에게 자신을 전달하시며, 오직 사람만이 그분의 구속적 사랑의 대상입니다.

4. 그러므로 역동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특징짓습니다. 인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덕적 자유는 조작 가능한 단순한 실체로서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인격성" (personness)이라는 역동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역동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반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자유가 전제되고 사람들이 관련됩니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응의 종류를 묘사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들을 교제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룩함과 죄를 규정합니다.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은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배제합니다. 사랑의 대상, 즉 자아 전체가 중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일 때는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자아가 중심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배제되고 죄가 나타납니다. 거룩함과 죄는 자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와 관련된 질적 평가입니다. 그것들은 인격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역동성

이러한 구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웨슬리와 진정한 성결 교리에서 사랑의 중심성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룩함의 특징입니다. 그런 진술을 암시하는 인식의 결정체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 예수님의 강림과 그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12);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6).
3.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 12:28).
4.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동일한 명령으로 자신의 주장을 절정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9-10)고 말하였습니다.
5.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시험은 사랑입니다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3-24).

이미 언급했듯이, 웨슬리의 서적을 읽으면서 사랑이 그의 전체 사역이며, 그의 사고와 신학적 해석, 인류에 대한 행동, 그리고 그가 말하거나 행한 모든 것의 주제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의 해석학입니다. 사랑에 대한 웨슬리의 모든 토론이나 언급을 대조한다면, 그 책은 그의 모든 작품을 합친 것만큼이나 클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의 잦은 언급이 시사하는 느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뭇 하러 14 권의 표준 전집과 수십 권의

다른 책들을 썼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은 다만 '사랑에 대한 해설, 정교화, 그리고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광채를 발하는 것" (many-splendored thing)이며 인간의 삶과 관계성의 모든 가능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신학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의 신학에 몰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웨슬리가 몰두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개념, 즉 '사랑 중심 성'(the centrality of love)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으며 "거룩함" 역시 성경적이며, 또한 성경이 그것을 사랑으로 특징짓기 때문에 거룩함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와 우리 사이의 이러한 연결만이 웨슬리안 신학이 "성경적" 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안전한 멘토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복음의 중심 진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그것이 신학과 삶에 미치는 함의를 만족스럽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고 웨슬리의 가르침 중에서 뭔가 교리적으로 "독특한" 것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선택한 다음 그것을 '웨슬리안적' (Wesleyan)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성결 신학을 웨슬리가 생각한 사랑보다 덜한 개념으로 제한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웨슬리안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사랑은 웨슬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험의 영역에서의 어떤 방법론보다 웨슬리의 신학을 더 결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또한 이 책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의 신학의 의미

웨슬리안주의가 사랑의 신학으로 이해되고 조우 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사랑은 그것 자체의 대중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고 웨슬리의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사랑은 대중적이며 현대적인 사랑의 개념에 대한 심각한 수정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사랑은 이러한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예로틱하고, 가부장적이고,

관대하고, 감정적인 의미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인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만 현대인의 생각 속에서 행해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구성합니다.

2. 사랑은 우리를 도덕과 윤리에 연루시킵니다.

거룩함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므로, 그것은 윤리적으로 구조화됩니다. 이것은 "도덕주의" (moralism)와는 많이 다르며 그런 종류의 피상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 신학"은 거룩함에 대한 원래의 성경적이고 참된 윤리적 의미를 부정하는 피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도덕주의로부터 거룩함을 보존합니다. 거룩함은 윤리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적 종교에는 반드시 윤리적 열매가 있습니다.

3. 사랑은 각각 그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격적입니다.

그 의미의 완전한 척도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대체로 사람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인격의 역동성의 개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적 추진력이며, 봉사를 위한 활동과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응집력입니다. 그것은 교제와 관계 및 사회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유형의 만족함 중에서 유일하게 궁극적인 만족과 성취를 가져오는 생각들이 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인격적' 이라는 단어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무언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4.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 말의 웨슬리적 의미에서)

행복은 정서적 자극이 아니라 자아 전체의 조화입니다. 거룩함은 비평가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미화된 '부적응'(maladjustment)이나 신경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과 활력, 그리고 온전함이며, '부조화와 초조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긋남의 끝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으로 곧장 나아가며 교제를 위한 올바른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그러나 치유적으로, 관계성의 동기를 분류하고 그것에 임하는 태도와 관계의 재정비를 지시합니다. 교회는 자체의 이름으로, 혹은 자체의 권위를 잘못 주장하여 교제를 파괴하는

모든 태도나 행동에 대해 심판을 내립니다. 부드럽지는 않지만 매우 차별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눈멀지 않는 방식으로 인격적 교제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예리하게 경계합니다. 그것은 법과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도덕법의 내부 구조, 즉 도덕적 완전성의 보존자입니다.

5.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참된 관계를 창조하고 보존하려는 열심을 갖고서 주변적인 문제로부터 핵심적인 것을 분류합니다. 그것은 무심코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존심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개인의 성실성을 보호합니다.

6. 사랑은 영혼을 "튼튼하게"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는 사랑을 "노예 윤리"라고 생각했는데, 약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약점을 정당화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니체의 가장 역겨운 가르침, 즉 궁극적으로 세상을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몰아넣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조용히 읽으면 기독교 사랑의 윤리에 대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비극적이고 깊은 오해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기서 니체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을 갖고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니체 식의 파괴적인 반응을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약하거나, 뼈대가 없고, 품성이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끔찍한 온유함" (The Terrible Meek)이 지닌 용기와 안정입니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은 갈라하드 경(Sir Galahad)에게 "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의 힘은 열 가지 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7.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삶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의 창조가 바로 웨슬리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평화만을 필요로 하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은 자유인과 자의식이

있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오히려 번창하는 자질을 내포합니다.

사랑은 그런 종류의 창조적 만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의 인격적 신뢰를 발견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이해하였고, 이용 가능한 방대한 서신을 통해 주어진 그의 조언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현실의 깊이에 대한 건전한 발견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은 삶을 지루하고 단조로운 평온으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하고 격동에 찬 인간의 실제 경험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의견 차이가 없는 집은 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혹은 실체가 없는 무덤이지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가장 활기차고 행복한 가정은 각 구성원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활기차고 억누를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아이디어도 저마다 별개이지만,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개인의 날카로운 성품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을 규정하는 무한한 선의를 나타내 보입니다.

8. 사랑은 '봉사 활동' (outreach)입니다.

그것은 무관심과 고립주의, 교제를 차단하는 교만과 편파성, 냉담함, 그리고 배타성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거룩함을 사회로부터의 도피, 또는 일반 시민의 관심사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함 안에 이러한 분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자기 동일시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사랑은 그 온전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the other)이 없이는 거룩함도 사랑도 기독교 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삶 속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중 하나를 다른 것과 나누는 것은 둘 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감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개인의 책임이 상실됩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전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결국 가혹함과 판단, 그리고 비판주의를 보이며, 그러한 방식의 차별과 분리의 능력은 모두 잔소리와 분열로 끝납니다.

9. 사랑은 심리 지향적입니다.

즉, 사랑이 뭔가를 말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을 통한 삶의 행동과 반응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충동심과, 사고, 편견, 관습, 문화, 지성, 정신적 특성, 유산, 성향, 건강, 성격, 인간의 스트레스와 적응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 긴장, 고통, 힘, 좌절, 기분, 그리고 다양한 행동 방식에 수반하는 각종 콤플렉스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도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실천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신학은 의미 있게 말하거나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부하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웨슬리가 그런 종류의 논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특별히 아름답고 장황한 편지들을 통해서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기독교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증거 중에서 그는 사랑이 주는 증거에 관해 가장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형상을 닮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보편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 종파나 당파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의견이나 외적인 예배 방식에 있어서 자신과 동의하는 사람들, 또는 혈연으로 동맹을 맺거나 출신이 같은 사람들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일을 오직 자비로 행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낯선 사람, 친구와 적, 선하고 온화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침없고 악한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면서 이 모든 빈약한 사랑의 경계를 뛰어 넘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 자체로 관대하고 사심이 없으며, 자신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이익이나 칭찬을 고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랑의 즐거움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애정의 ‘모체’ (the parent)가 아니라 ‘열매’ (the daughter)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가장 허용되는 종류의 자기 사랑과도 절대적으로 다르며,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규율 아래 있다면, 둘은 결코 나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서로 섞일 때까지 서로에게 더 많은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이고 차별없는 사랑은 모든 종류의 올바른 애정을 생산합니다. 온유함과 부드러움, 달콤함, 인간다움, 예의, 그리고 친근함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들의 행복에 동참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 동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평온함과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과 솔직함, 그리고 신중함을 양산해 냅니다. 질투와 의심이 없는 관대함과 개방성, 그리고 솔직함의 모체가 됩니다. 그것은 매사에 진실함을 낳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친근한 것을 믿고 희망하는 의지, 그리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무적의 인내심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범하고 적나라한 초상화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때문에 그에 대해 편견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의 특별한 의견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다소 미신적인 예배 방식을 용서하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위선적인 사랑을 허용하기보다 그의 기질과 거룩함, 또는 행복과 같은 실체를 보십시오. 차별한 이성이 더욱 상냥하고 바람직한 성품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편지, II, 376-80)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것은 기독교 교리와 삶의 모든 요소와 얽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기독교 진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웨슬리의 토론도 그를

이내 곧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속죄의 모든 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종교"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 전부가 사랑의 단면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작용합니다. 윤리는 사랑의 '유출' (outflowing)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위한 모든 것에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큰 질서'(a large order) 입니다. 웨슬리에게서 성결의 교리를 추출해내면서 사랑을 면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대동맥에서 단절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메마르고, 차갑고, 죽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장에서 사랑에 관한 웨슬리의 입장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사랑과 교제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사랑과 거룩함의 문제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거룩함' (love/holiness)의 증거는 교제이며, 그 교제는 기독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호함을 제거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헬라어는 영어처럼 삶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한 단어에 국한되지 않는데 비해, 영어는 사랑의 어떤 한 측면으로 식별되는 거의 모든 경험을 한 단어로 묶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네 개의 헬라어 단어—'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eros, storge, philia, and agape)—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에로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그것의 파생된 형태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연구에서 에로스는 사랑의 풍부한 의미에 대한 기여 때문에 생략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William Barclay)는 그의 저서, *More New Testament Words* 에서 에로스는 육체적 차원에서의 사랑이나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강렬하고 광신적인 애국심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유형의 매력과 느낌입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삶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몇 번 사용되었습니다. 가족형 사회 구조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개인적 충성심과 상호 헌신이 이 단어의 특징입니다. "형제애" 또는 "친절한 애정" ["Brotherly affection" (RSV) or "kindly affectioned" (KJV)]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필리아는 따뜻한 개인적 우정, 즉 두 사람 또는 때로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의 깊은 애정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요 5:20), 예수님에 대한 우정의 헌신 (고전 16:22),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요 11),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 20:2) 사이의 상호 우정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러한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범한 것이 바로 이 친밀한 개인적 헌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질문했을 때, 베드로에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사랑, 즉 따뜻하고 진실하며 개인적인 종류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또는 깊은 마음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데는 거의 또는 전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응집력입니다. 이 사랑은 정신적, 심리적, 영적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기 보다 인격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명하는 원칙, 또는 삶을 질서 정연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들이 그것으로부터 각각 특성을 이끌어 냅니다. 그것은 새로 주입된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사물에 도달하는 인격적 성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Christian love) 이라고 불리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신중한 성향과 자신의 자존감, 즉 올바른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신중한 정책’(considerate policy)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마 5:48 의 다소 골치 아픈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종류의 완전함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에 속해야만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말했듯이 “누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Fatherness)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식의 복수의 원리는 “눈에는 눈” 식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와 발톱”(tooth and claw) 식의 철학에 대한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그 절정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구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진실한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표준으로부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허한 이상주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모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와 태양의 모든 유익과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한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가페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즉 ‘공평한 선의’(impartial goodwill)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다른 사랑들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들에 더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전체의 특성입니다. 왜곡된 자기 지향은 다른 모든 관계를 개인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종종 가장 교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흠이 잡히게 되며, 결국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에

의해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삶의 다른 모든 관계들은 향상되고 아름다워지며 거룩해집니다.

아가페는 모든 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에로스와 스토르게와 필리아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성향과 성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은 부지런한 노력으로 성취되는 성품이 도덕적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일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라는 성경의 권면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추상적인 용어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시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실증입니다. 바울은 롬 5:8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도권은 사랑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라" (고후 5:19).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 3:16).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선택적이고 진부한 사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아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필리아적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에 투영하여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의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선택된 사람에게만 제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장 조잡하고 위험한 의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인하신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배제'(exclusion)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변호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또한 그들의 죄의 증거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이며,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사람의 체험의 일부가 될 때, 그 역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한 예정"(particular predestination)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적" (심지어 우리 친구의 형태로도)이 준 모든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모두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타격이나 불의를 가한 사람을 마치 우리에게 범법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해는 화해가 제공되는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는 비용보다 화해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상호 장벽이 되어 사람들을 서로 소외시키는 상황에 대한 공격적인 대결입니다. 그것은 범법자의 굴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그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대하게끔 합니다. 그는 나를 막기 위해 원을 그릴 수 있지만 "사랑과 나는 그를 이길만한 재치가 있어서, 우리는 그를 원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하여 보다 넓은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법령이 아니라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려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건전한 심리학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아가페와 '교제'(fellowship)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 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의 상태에 대한 많은 오해는 많은 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드시 서로에게 끌리는 교제여야만 기독교 공동체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임재에 개인적, 도덕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개방성으로부터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 7).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개방성은, 그로 인한 유익이 자신에게 돌아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주고받는 친교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깊숙한 곳에 있는 장벽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기질, 이상, 목표, 문화적 편견이 서로 첨예하게 상충되는 사람들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해 선의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복수심과 은밀한 음모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교제는 놀랍고 매력적입니다. 그러한 교제를 만들고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교제의 길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아가페와 죄’ (AGAPE AND SIN)

‘죄와 거룩함’이라는 제목 하의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랑에 대해 한 마디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자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를 특징짓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불편한 진실이 전체적인 사고 구조를 위협하곤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아가페가 매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agapésas]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딤후 4:10).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agapá] 아버지의 사랑[agápe] 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2:15)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를 대신하거나 그분이 정당한 자리에서 쫓겨날 때 "죄" (The Sin)가 발생한다는 표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가페는 바로 그 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에 대해 말한 모든 것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죄의 ‘근본적인 것’ (absolute core) 사이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의 도덕적 붕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겨냥"/aimed at (웨슬리의 용어) 함으로써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다주는 그 헌신과 그 중심, 그리고 완전한 자기 희생이 일종의 매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아와 세상에 대한 헌신은 "적그리스도"의 화신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거룩함과 죄를 만드는 것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구별을 정의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요약,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agapéseis]"는 말은 십계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정확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심각한 경고이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이며, 따라서 궁극적인 죄인데, 그 이유는 전체 인간의 종교적 기능이 인간의 유일한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에 거짓 신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롬 1:25).

인간이 인간이 되려면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또한 책임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실 안에 그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슬에 묶인 사람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충성심을 결정할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은 종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는 자신이 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 존재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누구든 그에게 적절한 신뢰와 성취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그의 주인이 될 만큼 충분히 위대하신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거절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섬길 자, 즉 주인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으로 대체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하고, 제한되고, 실수하기 쉽고, 불완전한 자아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영광과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자유의 환상에 취한 나머지 참된 성취를 상실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아가페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에로스나 스토르게, 그리고 필리아 등 다른 어떤 것도 인간 관계와 사회적 결속력의 측면에서 볼 때 악하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다른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인간 관계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표시는 아가페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향상되고

각자가 의도한 바와 같은 참된 성취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가페적 사랑은 삶의 모든 여지들에 대해 조화와 창의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은 모든 인간 관계를 혼돈과 왜곡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 장에 나오는 바울의 장엄한 구절의 핵심입니다.

웨슬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해한 성화의 의미는 인간의 삶과 인간 자체에 대한 대응방식을 아가페적 사랑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전환된 인간의 삶은 그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사랑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적대적이고 반목적인 마음에 내재하는 ‘분과 신들’(sectional gods)이 성령의 임재에 의해 정화됩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과 힘의 영역에 걸쳐서 절대적인 주님이 되셨을 때 일어납니다.

사회적 관계 속의 사랑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구조"(set)로서의 사랑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에로스와 스토르게, 필리아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만 지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성령의 사역과 조명 아래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영혼의 깊은 집합입니다. 이 깊은 수준의 인격의 토대 위에서의 ‘거래’(transactions)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각종 신학문헌의 진지한 논의에서 아가페 사랑이 항상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언급된다는 점이 저의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입니다. 그 차이는 이 연구에서 수행된 것처럼 항목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차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가페를 사랑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그 말의 독특함을 빼앗음으로써 사랑이라는 용어와의 연관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성경적 의미의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어가 필요한데, 아마도 “아가페” 자체로 해야 할 것이고, 결코 서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개념의 전체적인 함의가 완전히 탐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웨슬리의 연구에서 옛 용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용어는 사랑에 대한 대중적인 의미보다는

아가페에 대해 보다 나은 의미 상의 일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 및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문제들을 다룰 때, 이번 장에서 설명한 통찰들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드렛 와인쿱의 커서는 종종 사랑을 도덕적 원칙으로 부르는 데에
 빠르면서도 여전히 사랑의 도덕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데에도
 역시 똑같이 빠른 새로운 세대들이 환영할만한 사랑의 ‘권유’
 (appropriation)입니다. 21 세기적 배경에서 사랑은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직면하여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빨리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중요 가운데 서로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상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식간에 그 자체로 지쳐분한 패라디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와인쿱은 죄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극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격적 관계를 확립하는 사랑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깨어짐’
 (brokenness)을 감추기 위한 변장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이 참되고
 깊고 신적인 변화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서의 거룩함’ (Holiness
 as love)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적으로 상호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을 치유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신학자의 말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인쿱은 새로운
 세대가 환영하는 움직임으로서 사랑에 대한 ‘중앙 집중화’ (centralizes)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티모시 게인스 (TIMOTHY R. GAINES) 목사,

베이커스필드 케일나사렛 교회 (BAKERSFIELD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제 3 과: '신뢰성 격차' (The Credibility Gap)

우리의 문제는 신뢰성의 격차에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모든 신뢰성 격차 중에서, 기독교, 특히 웨슬리안적 교리와 일상적인 인간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며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성결 신학의 절대성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자아 자체의 불완전성은 기독교 교리의 완전성이 확증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설교할 때와 "실제적인" 설교를 할 때 다른 생각의 세계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설교는 교리적 설명에서 "핵심을 뽑아내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관념과 삶, 그리고 직업과 실천 사이에 광대하고 혼란스러운 이원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이원론은 (충성심의 측면에서) 당황스러운 부정적과 비참한 낙담을 조장합니다. 그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는 기독교 메시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그 일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로 인해 그들 스스로 초래한 헤아릴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살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말씀" (Word), 즉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었습니다 -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후 5:19). 예수님의 인성은 신뢰성 격차에 대한 하나님 편이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요한에게 있어서 성육신은 복음을 설득력 있게 하는 진리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신뢰성 격차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분은 과연 어떻게 소외되고 의심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구속의 취지 안에서 소통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실수가 많고, 극도로 결함이 있고 매사에 제한적인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출되길

바라거나, 악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개인적 욕망에 맞는 보호소와 같은 곳으로 후퇴해 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끔 하기위해, 그리고 그들이 악에서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요 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과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고후 5:18-19). 객관적인 속죄 (즉,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음")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한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관련한 살아있는 화해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신뢰의 격차로 남아 있습니다.

W. E. Sangster 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말합니다:

교사가 세상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기뻐집니다.⁴

Sangster 는 그 책이 있었으면 아마도 페티쉬가 되어 '성경숭배' (bibliolatry)에 내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조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어떤 형태의 말도 모든 살아있는 진리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조는 다만 삶에서 생겨날 뿐, 신조가 삶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만 사도들을 택하여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셨던 생애를 보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⁵

폴 컬버트슨(Paul Culbertson) 박사는 최근 신학 컨퍼런스에서 읽은 미발표 입장 보고서에서 우리의 가장 훌륭하고 깊은 학문과 은혜에 도전하고 있는 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개인적 성화에 대한 알미니안-웨슬리의 관점을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는,

⁴ W. E. Sangster, *Why Jesus Never Wrote a Book* (London: Epworth Press, 1952), 12.

⁵ Ibid., 16

개인적 관계의 관점에 있다" ("Dynamics of Personal Sanctification," *Nazarene Theology Conference*, Overland Park, Kans, Dec. 4-6, 1969)고 말하셨습니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방법을 가리키는데: 1) 필요하긴 하지만 다분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신학적 진술을 고집하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식으로 격차를 방지하든지, 아니면; 2) 성경적 방식으로 보이는 해결책, 즉 인격적 해결방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용어 (또는 단어)에 대한 관심은 결코 요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그 말씀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과 교통시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화해의 임무를 계속적으로 맡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말에 포함된 모든 것이 그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의 문제’ (THE PROBLEM OF WORDS)

요한 웨슬리는 부분적으로 말의 문제로 인한 신뢰성 격차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의 표준 설교의 서문에서 웨슬리의 논평은 인간에 대한 그의 연구 소개로서뿐만 아니라, 그 책 전체의 기초가 되는 관점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정독하는 모든 진지한 사람은 내가 참 종교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이 설교들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교하고 우아하거나 웅변적인 문체의 내용은 없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도를 가질만한 여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대중을 위한 글을 씁니다. 말하기를 즐기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진리를 유능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호기심 많은 독자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이 점을 언급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말하고자 하며, 따라서 모든 멋지고 철학적인 사변이나 당혹스럽고 복잡한 추론을 지양하며, 가능한 한 성경 원어를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현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조차 삼가고자 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단어나 일반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 특히 신학교에서나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처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익히 잘 알지만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식의 화법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단어가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집, V, 1-2)

말에 대한 말 (A WORD ABOUT WORDS)

말의 정의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그 말에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을 피우거나, 아예 묘비명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의 ‘함의’ (connotation) 입니다. 말은 생명을 드러내기도 하고, 마른 뼈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폴 리스(Paul Rees)는 다음과 같이 "찌르는" (pricking)말로 권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려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우리의 관심 밖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은 그저 "세속적"(worldly) 일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룩한 세속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말은 "거룩한"것도 "세속적인"것도 아니라고 가까이 말하십시오. 그것은 도피주의에 불과합니다(이탈릭체는 제 것).⁶

우리 중 일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말이 생각과 행동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곤 합니다. 즉 “거룩한 말”만으로 성령

⁶ Paul S. Rees, *Don't Sleep Through the Revolution* (Waco, TX: Word Books, 1969), 21.

충만한 삶과 “거룩함”의 메시지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중요성과 거룩한 ‘공격성’ (aggression)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회피”(escape)는 실제적인 오해의 영역에서의 반응입니다. 웨슬리적 전통에서는 말의 인격적 (본성과 행동, 계시,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특성을 전제하는 히브리적 함의가 항상 정적이고 형식화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 우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항상 그렇게 우세한 것은 아니므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거의 물리적으로 투영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인격적인 것이므로 행여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말에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의사 소통에 대한 관심,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을 전달하기 위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적 전제인 추상적인 관점, 또는 히브리적 관점인 인격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의사 소통과 화해에 필요한 말입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신조의 형태를 통해 “믿음” (the Faith)을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후자는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신뢰성 격차의 근원은 신앙에 관한 말로 간주되는 용어와 살아있는 사람에게 육화한 신앙으로서의 말 사이의 모호성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간극을 메우고 신조와 의미, 말과 생명을 모두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과 기독교 신조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단순한 말에 생명을 입히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위대한 기독교적 용어들은 ‘모세의 수건’ (Moses’ veil)과 같은 방어책이 될 수 있는데, 그 수건은 한때 빛나던 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한 덮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 장). 웨슬리 잉글스 (J. Wesley Ingles)는 *Christianity Today* (1958 년 10 월 27 일)에 실린 “공허한 말” (Hollow Words)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말은 냉소적인 우리 시대에 대한 조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들은 조화롭게 움직이는 입술과 마차가지로, 직접

누구가의 손을 통하여 삶에 깊이 관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하고 일상적인 체험 속에서 다시 성육신 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추상적인 단어는 우리가 생명을 쏟아 부을 때까지는 공허합니다. 명예와 영광, 희생, 충성, 사랑, 기쁨, 평화, 용기와 인내, 믿음과 신실함, 민주주의와 형제애, 정의와 자비와 같은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의미로 채우기 전까지는 모두 한낱 노래 가사나 추상적인 단어, 그리고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말씀들, 즉 은혜와 용서, 구속,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말들이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쏟아 붓기 전까지는 모두 공허한 말입니다.

위대한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일단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육체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쏟아지는 생명으로 다시금 세상을 뒤흔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 거룩함은 신학을 적절한 말, 심지어 성경의 말로 함께 묶는 것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과 교리, 위기와 과정,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개인과 사회, 세상과의 분리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참여, 선포와 화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어느 쪽의 본질적인 활력도 잃지 않고 생명력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르하르트 에벨링(Gerhard Ebeling)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역사적인 인간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붙잡혀 있으므로... 그 자신의 세계에 속한 자로 언급되고 대면해야만 합니다"⁷라고 말하였습니다.

현대인은 형체가 없는 말, 즉 진정한 의미의 살아 있는 사례들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지 않은 단순한 소리들은 "들음" 수조차 없습니다. 성결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달리, 반드시 역사 속에서 육화되어야 합니다.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개인적인

⁷ Gerhard Ebeling, *The Problem of Historic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21

경험으로서의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있습니다. 본 저자가 *Preacher's Magazine* (1958 년 10 월)에 실린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거룩함은 결코 일종의 삶의 철학처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연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피가 없이는 괴사되고 맙니다."

웨슬리안주의는 문제에 간혀 있습니다. 그 독특하고도 식별가능하며,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확실히 누군가의 삶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이 점에 있어서 물리칠 수 없으며,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의 의도하는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정교한 언어적 방어책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심오한 격언이 여기에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이 신학이 역사로부터 후퇴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폐쇄적인 고립 속에서 웅크린 채 살게 되면, 빈 조개껍질의 아름다움처럼 스스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주의는 인간의 연약함과 미성숙, 무지와 약점, 그리고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칼빈주의는 신적 진리의 절대성과 죄 많은 인간의 상대성을 분리하기 때문에 무의미함과 반복적 진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웨슬리안 신학이 가진 완전성에 결코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성 자체의 상대성은 웨슬리안주의에 대하여 항상 생생한 재해석의 과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위해서 해석자 자신의 철저한 참여와 이해,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경험 속의 신학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힘과 함께 영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이 역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선포는 그 자체가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 속한 세계와 함께 또한 역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역사성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성경 본문이나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 역시 참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⁸

⁸ Ibid., 26, 28.

웨슬리안주의는 인격적 차원, 또는 종교적 의식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또는 그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종교는 단순한 의견이나 독단적 올바름, 의식, 또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진정성을 위해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의식적인 생명력에 의존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신학이 좌우로 치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변치 않는 생명력이 사람들을 새롭고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기독교적 봉사의 차원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또한 조직과 언어의 구성 형태가 자신의 삶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웨슬리안주의, 또는 요한 웨슬리적 방법론에 기초한 신학은 그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파의 안전한 '독단주의' (dogmatism)로 다시금 정착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그것 자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규율이 아예 없는 생각과 광신주의, 또는 제어되지 않는 개인주의의 늪과 함정에 빠져 나약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마는 극좌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웨슬리가 제안한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다만 자신의 신앙의 역사적 건전성에 대해 가장 진지했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오늘날의 '유사종교' (cult), 즉 진리의 일부를 갖고서 마치 전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분파주의를 멀리했습니다. 진정한 웨슬리의 길을 따를 때, 깊은 겸손과 함께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을 동반합니다. 거기에는 진리를 가장 잘 파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의 간청이 지닌 매력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제가 스스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제 마음은 확신에 열려 있으며, 더 나은 정보를 얻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명확하게 본다고 확신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당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를 대하십시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익숙한 길에 머물러서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나와 함께 조금 수고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한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나를 때리지 말라고 간청해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나는 기껏해야 힘겹고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어려운 이름을 주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피할 수 있다면 서로를 자극하여 분노를 일으키지 맙시다.... 많은 잘못된 의견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는 진리보다는 사랑 자체가 얼마나 더 나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지만 사랑없이 죽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랑과 믿음의 모든 기쁨과 평화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모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집, V, 5-6)

이러한 염려의 그늘 속에서도 사람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이 고안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위험이란 한편으로 우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믿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좌파들은 이 작품이 실제로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고 너무 전통적이어서 유용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보수적인 중심과 성장하는 가장자리 사이의 다리로 가는 길을 가리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두가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의미론적 신뢰성 격차’ (THE SEMANTIC CREDIBILITY GAP)

"신뢰성 격차"를 위해 필요한 다리가 대 해협의 양쪽에 좋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드러난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분파적' (provincial)이라고 부르는 범주 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분파주의가 좁혀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것들을 고려하는 정당한 이유는 그것들이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더 깊은 수준의 일반적인 오해의 여지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책에서 논의되는 더 중요한 문제들로 이어지는 발판처럼 다뤄질 것입니다.

질문

웨슬리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번째 은혜의 역사' (a second work of grace)나 두 번째 위기 또는 축복' (a second crisis or blessing)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두 가지 특별한 순간들' (two special moments)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 셋, 또는 백 개가 아니라 굳이 둘일까요? 하나는 다른 하나와 어떻게 달리 인식되며, 아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것을 잃게 되며,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며, 또 잃어버린 것을 언제 회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두 번째 경험에서 주어질 은혜를 첫 번째 경험에서는 어느 정도로 허락하거나 유지하실까요? 아니면 각각 두번의 "은혜의 역사" (work of grace)에서 죄 문제의 일부만 해결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거듭날 때 완전히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한 번에 온전히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분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거듭남의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면, 왜 천국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들 뒤에, 왜 위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과 관련하여 숫자적 표시가 있는 것일까요? 위기란 무엇이며, 또 과정은 왜 있는

걸까요?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완전이란 무엇이며, 청결함, 사랑, 신앙, 그리고 성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격차의 근원

적어도 세 가지 신학적 오류를 통해 전달되는 세 가지의 관련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차례로 실수를 반영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즉, 순서 상의 특정 위치가 논리적 문제를 강요합니다.

1. 칭의와 성화를 서로 관련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일반적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다른 종류라고 말하는 반면, 웨슬리안주의는 칭의를 "거룩케 하는 은혜" (sanctifying grace)와 비본질적인 연속성을 가진 은혜의 한 종류, 즉 '새로운 주입' (a new infusion)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위기 체험' (crisis experiences)에 관하여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단' (위기/the crises)이 '목적' (완전함)이 되고 맙니다. 무비판적인 "초자연주의" (hyper-supernaturalism)는 영적 마술에 대한 가상의 믿음이라는 식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3. 그 결과, 실생활의 문제들에 있어서 은혜의 체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완전히 무시되곤 합니다. 신학적 설명에 대한 예리한 정의는 인간 존재의 오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은 신학적 확인과는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학과 삶에 대한 웨슬리의 일반적 접근을 검토하고 그의 "해석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주목하고 나면, 오늘날 웨슬리 전통에서 신학적 강조점을 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 중 일부는 웨슬리가 당시 그것들을 직면한 곳에서 자신의 사고를 구조화한 원칙들을 끊임없이 참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립의 사실성과 웨슬리의 논쟁은 성결 신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웨슬리의 원칙은 미처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정될 때 그의 전체 신학적, 종교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적어도 세 가지 관련 사고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웨슬리로부터 갈라진 "웨슬리안주의"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됩니다.

1. 기초가 되는 "길"은 히브리적 개념보다는 헬라식으로 향하는 잠재된 경향에 있습니다. 헬라어는 성경 문학과 신학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경험과 해석에서 발생하므로 언어의 의미는 그 구조 상 지울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기여한 그리스 문화에 깊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저자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말들이 그 언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모든 존재론이 기독교 신학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우주론에 있어서 이교도적 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학을 수정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스인, 특히 플라톤에게 인간은 신성한 영혼과 악한 몸의 결합입니다.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더럽힙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몸과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에 있다는 성경적 사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구원론적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곧 구원자입니다. 그것의 필연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으로부터의 도피, 사회적 무감각, 자연과 그 아름다움 또는 인간의 기쁨과 완전한 가족구성원의 경험에 대한 거부, 또한 이 책에서 생각의 발전 과정에서 언급될 다른 유형의 많은 '일탈들'(aberrations).

히브리/기독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부분들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체'(a unity, not a union of parts)입니다. 죄는 인간의 몸이나 본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 전체의 구속이며, 그의 온 존재를 은혜의 궤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죄는 '실체가 아니라 반역'(a substance but rebellion)입니다.

2.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관계적 또는 종교적 개념과 대조되는 실재와 구원의 '실체 개념' (the substance concept) 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 따라 논리적으로 죄는 유전적으로 해석되며, 이는 육체에 내재된 악이며 육체가 전파될 때 죄도 전파됩니다. 자연히 영혼의 본질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죄는 그 실체에 있고, 비합리적이며, 사람에 대해 필연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죄가 제거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스적 사고 방식에서 가상의 작전은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죄와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성경과는 다른 생각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기독교 해석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죄는 항상 종교적인 "오작동" (malfunction)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인간다움' (manhood)이 초래한 엄연한 '반역' (rebellion)이며, '소외와 도덕적 무질서' (alienation, a moral disorder)입니다.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한 쪽으로 그것은 '탐욕/성욕' (concupiscence)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교회는 죄가 유전적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출산 행위 자체도 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어거스틴은 죄를 '왜곡된 사랑' (perverted love)으로 정의했는데, 웨슬리는 이 개념으로부터 그의 '은혜의 신학' (theology of grace)을 세웠습니다.

3. 위의 입장의 부적절함과 위험성은 다음 논리적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마술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 사이의 대조입니다. 즉, 비이성적이며 일종의 심리적 돌연변이가 죄로부터의 정화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삶의 수준 이하에서 발생하고 인격적 참여와는 별개로 자아의 충동적인 반응을 변화시키는 식의 구원관을 전제로 영혼의 '실체적 변화'(a substance alteration)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교만, 그리고 다른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적 도구들이 제거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징계와 적절한 전달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인하는 억압으로 간주합니다.

도덕적 해석은 은총의 모든 단계에서 자아의 완전한 참여를 강조하며, 도덕적 완전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하며, 사랑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의 충동적인 힘의 질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멸시받거나 거부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새로운 주인을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가정들, 즉 1) 헬라 식 대 히브리식 인간 개념; 2) 죄에 대한 실질적 개념 대 관계적 개념; 3) 구원에 대한 마술적 개념 대 도덕적 개념이 웨슬리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는 매우 다른 "웨슬리안주의" (만약 그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있다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아와 죄, 거룩함, 심지어 성령에 대한 물질주의적 해석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도덕적 관계로서 구속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실제적 수준으로 축소될 때 거룩함의 전체적 구조가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됩니다. 그 위험성이 너무도 철저하여 영적으로 건전하며 심리적인 성경의 언어를 나름대로 정당한 신학적 요구에 의해 비도덕적이며, 심지어 마술적인 조작에 굴복하는 비인격적 범주로 굳어지게끔 합니다.

최근 일부 기독교계에서 영지주의 사상이 부활한 ‘존재론적 삼분법’ (Ontological trichotomy)은 히브리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가정되는 인격의 단일성 개념을 훼손합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가상의 ‘비인격화’ (depersonalizing) 라는 장벽을 제거하기는커녕, 실제로 그것을 제안하고 장려합니다. 인간이 단지 수많은 ‘실체들’ (entities)의 합체일 뿐이라면 그것은 단지 자아들의 집합체, 분열된 인격체, 또는 이중적인 마음일 뿐이며, 책임감 있고 타당하며 중앙 집중화된 자아가 아닙니다. 인격에 대한 이러한 식의 다원적 개념은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며 오직 통일된 인격에 의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인격적 특성을 내포하는 성경적 거룩함의 기초를 파괴합니다.

웨슬리안주의의 가장 심오한 확신은 성경이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비이성적이며 비인격적인 자아의 영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는 것으로서, 측정 가능한 거리 내에 있지 않는 도덕적 이질감과 영적인 소외입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핵심에 대한 도덕적 특성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에 대한 자아의 특성입니다.

거룩함과 죄가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일 뿐 계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종종 성결 교리에 대한 배신처럼 들리며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생생한 삶의 상황에서 비롯된 성경말씀이 도리어 그 생명력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석될 때 초래되는 복음의 '전위' (transvaluation)는 놀랍고도 위험합니다. 특별히 각종 성경 주석이 이러한 식의 해석학적 희생물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적 비극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비인격화하는 경향은 영적 가치에 대해 아예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식의 수량 측정에 따른 평가를 허용하는 처사입니다. 영적인 자질은 더하고 빼려고 할 때 그만 손실되고 맙니다. 매사에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수량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더하기 및/또는 빼기를 통해 수량을 계산하고 수학적 무게 및 시간 단위로 가치를 비교합니다.

매사에 '최고의 완전함' (the highest perfection)의 가치에 반대되는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 질적인 평가의 특이점입니다. 비인격적인 가치들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탁월함은 누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결혼과 같은 것은 선물이나 키스의 수를 합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척도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잘못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수학적 용어로 계산될 때, 신학과 성경, 그리고 심리학 사이에 궁극적인 긴장과 좌절, 그리고 모호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확실히 그러한 긴장과 모호함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수량만큼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은혜의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도덕적 명령에 대해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위에서 언급한 각 개념의 쌍 중 두 번째, 즉 히브리적 인간 개념과 죄와 거룩함의 관계적 개념, 그리고 구원의 도덕적 개념입니다. 이 기초는 처음부터 웨슬리의 가르침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은 신학과 삶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논리적 문제들을 해소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예상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것 없이는 현재의 모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에 우리는 악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II, 393).

웨슬리는 1789년 11월 16일 런던에서 포슨 여사 (Mrs. Pawson)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한 말, 즉 이미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편지, VIII, 184)

결론

거룩함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전심을 다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고, 삶처럼 역동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육체의 혈류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과 상황에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필요에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부여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건전한 삶이며,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자기 관심으로 추정됩니다.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이 아닌 거룩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적인 산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사랑의 논리를 따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밀드렛 와인쿱은 그러한 주장을 펴는 몇 인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녀는 청경과 요한 웨슬리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건설적인 대작인 ‘사랑의 산화’를 썼습니다.
특히 처음 몇 장에서 밀드렛은 사랑과 거룩함을 강력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상쾌함을 발견한
방법입니다! 밀드렛 와인쿱은 또한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사상가 또는 다른 유형의 사상가를 포함하여 그녀의 작업을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려는 밀드렛 자신의 시도에서 작동하는 사랑의
산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수혜자입니다.

토마스 케이 오드 (THOMAS JAY OORD),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교 (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산화 및 철학부 교수

제 4 과: '웨슬리안주의' (Wesleyanism)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신학을 명명하는 것은 그 특정한 사고방식의 관련성을 제한된 사람들로 좁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이나 결정적인 제목은 '지역주의' (provincialism)를 만들고 영속화합니다. 즉 웨슬리안주의와 루터주의, 칼빈주의, 심지어 가톨릭(단어의 보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특히 로마 가톨릭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자신의 신학을 다른 신학과 구별하고 그 구별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목초지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두는 울타리가 됩니다.

관련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들이 지닌 역사적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만한 신학적 전통에 대한 "자기 연구" (self-study)를 수행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웨슬리안주의에는 잘못된 기초와 논리로 인해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제시하는 성경적 또는 기독교적 신학의 자격기준이 될 정도로 충분히 넓은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은 그 임무의 본질 자체에 따라 정의하고, 조직하고, 정리하고, 확증합니다. '기독교 신학' (a Christian theology)이 되고자 하는 것이 또한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양한 전통에 의해 아무리 소중히 여겨지더라도 일치보다는 단지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들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장 기독교적인 확언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이름이 어떤 신학을 정의하도록 허용한 마지막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웨슬리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안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간결하고 공통된 이해를 위해 특정한 사고 방식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그것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웨슬리의 "웨슬리안주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은 그의 "가톨릭 정신" (catholic spirit), 즉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고 다른 강조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것은 그의 신학적 타협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드문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견해가 참되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견해를 전부 합쳐져 참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자신들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것에 대해 무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착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매우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생각의 자유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으며, 피차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당신의 마음도 옳습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적절하게 암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첫 번째 함축 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옳은가? ...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섬기도록 당신을 제한하고 있는가? ... 당신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옳은가? ...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가? ... 그렇다면,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당신의 마음도 옳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의견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거나 듣는 것보다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나는 나의 의견을,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오거나 나를 당신에게 데려 가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 한 마디도 듣거나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견은 한쪽과 다른 쪽에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당신의 손을 내게 내밀어 주십시오."

"나의 예배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또는 "당신의 예배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나 저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마음에서 완전히 설득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성경적이고 사도적이라고 믿는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장로교나 독립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나는 유아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침례는 물에 담그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의 견해와 다른 견해에 따른 설득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당신 자신의 설득을 따르십시오. 형식을 갖춘 기도는 특히 큰 회중에서 훌륭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기도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을 급하지 말아야 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뭇의 마음의 빛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나는 앞의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도 당신과 한 순간도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소한 요점들은 제쳐두십시오. 그것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손을 내게 내어 주십시오." (전집, V, 494-99)

웨슬리의 접근 방법

이 연구의 주된 논제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격적 참여에서 생겨났고, 그 역동성은 그 최초의 생명과 형태를 부여한 인격적 관계의 회복에 의해 연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역동성을 떠나서는 신학은 정체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위축되며, 자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칭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성결 신학"(이것은 강조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 다른 종류의 기독교적 사고가 아님)은 다른 강조점들의 경우보다 이러한 기독교적 경험의 인격적 차원을 인식할 의무가 더 큼니다. 신학에서 거룩함과 추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 차원입니다. 그것은 신학을 실행 가능하게 유지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기독교 사상에 기여한 주요 공헌은 종교개혁 신학이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인격적 참여의 개념과 경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원칙적인 면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현대적 명제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필연적인 인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사실"이 그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면의 절대적 단정은 은총의 절대성이나 인간의 도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불완전성과 관련시키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 웨슬리의 임무는 철학적 형태의 신학과 실천적 경험으로서의 종교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1756년 1월 6일자 Mr. Law에게 보낸 편지에서 웨슬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지만, 실상 그 편지는 주로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과 증언'(law and testimony)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아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는 중요한 관찰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적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철학을 더하면 종교를 망칠 뿐입니다." 나는 그 이후로 이 말을 결코 잊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집, IX, 466)

모든 웨슬리안주의가 이 점에 있어서 웨슬리 자신처럼 신중하지도 않았고 웨슬리가 신봉한 특정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 참여로서의 종교를 포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웨슬리에게 다가가기

웨슬리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훌륭하고 결정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웨슬리의 논평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유형의 경건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에 미친 영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리교는 웨슬리가 종교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몇 가지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 조직과 신조, 기관, 사회, 문학, 출판 등 여러 면에서 웨슬리에게 진 빚을 인정합니다.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강조는 여러가지 종교적 운동을 일으켰으며, 각각은 그의 이름을 특정한 신학적 동일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운동 중 일부는 웨슬리가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을 신학체계 전체의 초점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성화" 또는 "두 번째 축복"에 대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그의 신학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함으로써 다양한 지방주의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된 문헌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의 구체적인 과제는 웨슬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의 전체적인 접근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원론을 다루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판단이 가능한 보다 깊은 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웨슬리는 바울 사도와 어거스틴, 루터, 알미니우스 등 진리의 가치를 논리보다 더 크게 간주한 다른 사상가들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모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 읽을 때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그의 의도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도의 말을 해석하되 그와 모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Works*, V, 151). 그러한 식의 예의는 정직한 독자들에게 대한 의무와 같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현대적 동료인 C. S. 루이스를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비평에 관하여" (*On Criticism*)라는 에세이에서 비꼬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읽기를 바라는 것을 모두 읽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당신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당신이 말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⁹

1771년 6월 19일자 '헌팅던 백작부인' (Countess Huntingdon)에게 보낸 편지에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논의 중인 주제는 믿음과 성결에 대한 그의 입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마치 종교계 전체가 저와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제 큰 아들 중 한 명 격인 화이트필드 씨의 사례를 들어 저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주장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였습니다. 나의 설교가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⁹ Quoted by William Luther White, *The Image of Man in C. S. Lewi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75.

내가 30년 이상 설교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기간 동안 출판한 설교문들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저는 1738년에 출판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에 관한 설교, 몇 년 전에 출판된 ‘우리의 의이신 주님’ (the Lord, Our Righteousness)에 관한 설교,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출판된 ‘화이트필드 씨의 장례식’ (Mr. Whitefield’s funeral)에 관한 설교 세 편만 예로 들겠습니다 [전집, V, 7-16, 234-36, VI, 167-82]. “오, 그러나 당신은 지난 8월에 다른 모든 글과 모순되는 열 줄을 인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는 적어도 여러분만큼 나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설교에서 다시 한번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열 줄의 의미를 해석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 없이도 문제의 열 줄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 은총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줄에 담긴 감정이 옳든 그르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새로운 증인들에 의해 여전히 확인되고 있으며, 아마도 이 나라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증언하실 수 없습니다’ (편지, V, 259).

요한 웨슬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여러 가지 면의 관찰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의 사상을 편협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의 말을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몇 가지의 권고들은 웨슬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부당한 혐의를 고통스럽게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진정한 웨슬리안주의를 추구하면서 그의 주된 강조점과 특이성, 그리고 그의 성품 및 통찰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웨슬리의 고유한 사고 방식은 가장 명백한 것부터 자주 고려되지 않는 것까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A ‘웨슬리, 여러 사람 속의 한 사람’ (Wesley, a Man Among Men)

1. 웨슬리의 ‘의미론’(Semantics) - ‘평이한 말’(Plain Words)

요점을 찾아내는데 수반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생각이 왜곡된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넓은 범위의 웨슬리의 저작물들에 대한 부적절한 노출과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그의 저술에 대한 제한적 선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웨슬리를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를 오해하게끔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찬송가를 편찬함으로써 당시 그 사회 내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확대판의 서문에는 두 가지 흥미롭고 교훈적인 논평이 나오는데, 하나는 찬송가의 언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송가의 신학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웨슬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찬송가에는 독설이나 엉터리 주장이 없고, 또는 단지 운율을 맞추기 위해 넣은 말이나 비속어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칠거나 거창한 말들이 없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천박하거나 비굴한 뜻의 표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의미 없는 말이나 표현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운문과 산문 모두를 통하여 상식을 이야기하고 고정되고 결정적인 의미 외에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식 표현의 순수함과 힘, 그리고 우아함과 함께 모든 유형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최대한의 단순함과 평이함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찬송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크거나 비싸지 않으며, 진부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찬송가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큼니다. 그것은 사변적이든

실용적이든 우리의 가장 거룩한 종교의 모든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기에 충분히 크며, 그 모든 진리를 설명하고 성경과 이성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칙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송가는 부주의하게 뒤섞여 있지 않고 실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따라 적절한 제목 아래에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사실상 경험적이며 실천적인 종교성의 작은 구현입니다.¹⁰

그렇다면 웨슬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성과 직접성은 결코 천박하거나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웨슬리의 생각은 그의 언어만큼이나 단순하다고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그러한 물이해의 결론은 그가 학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의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독자 자신의 해석이 그의 의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참된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형제와 저에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찬송가를 다시 인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찬송가를 있는 그대로 인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찬송가를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곡의 의미나 구절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두 가지 호의 중 하나를 간청합니다. 즉 좋은 나쁜 든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각 장의 페이지 하단이 나 여백에 진정한 독서를 추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독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¹¹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양심적인 태도는 그의 신약 성경 노트 서문에 드러납니다.

¹⁰ John Wesley, *A Collection of Hymns for the Use of People Called Methodists* (London: Thomas Cordeux, 1821), iii-iv.

¹¹ *Ibid.*, v.

그러나 제 양심은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의도적으로 잘못 표현했거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서로에 대해 선동할 목적으로 한 줄이라도 쓴 것에 대해 제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가장 온유하고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한 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기독교 세계를 분열시킨 모든 분파들의 이름과 비성경적인 문구와 형식이 잊혀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의 스승인 그분의 발 앞에 함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을 흡수하며 그분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에 기록하는 데 동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노트, 9 항, 5 쪽)

웨슬리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결코 단어 뒤에 숨은 의미를 고의로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이중적인 의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언어는 현대식 토론에서 최고로 합당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꾸밈없는 관문이며 실제로 그것을 예상합니다. 진실은 그가 아마도 오늘날 가장 박식한 사람들과 함께 서서 그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웨슬리의 탐구 정신

웨슬리 사상의 핵심은 그의 솔직한 단어 사용과 그의 논쟁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그의 "평이한" 설교를 지시한 문화적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그의 생각과 말의 풍부함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과 문학, 역사, 과학, 정치, 여행, 사회 문제 및 의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이 현대의 공식적 학문분야의 일원으로 탄생하기 전부터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그가 종교 생활에서 개종자를 양육하려고 시도할 때 관찰력 있고 민감한 정신으로 살펴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출현으로 인류가 활발한 정신적 각성기를 맞이한 시대에 웨슬리는 그러한 계몽 정신의 본산에 있었고,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인간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웨슬리의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 신학적으로 그의 생각과 관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한 문이며, 그의 교리를 검토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웨슬리 힐(Wesley Hill)은 *John Wesley Among the Physicians* (의사들 중의 요한 웨슬리)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런던, 브리스톨, 뉴캐슬에 진료소를 열어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의학 저술 중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Primitive Physick*은 그 자체로 의사라는 칭호와 관련하여 그의 지위에 대한 가치있는 이유입니다... 이 책에는 어느 시대에서나 유용하게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일련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책은 왕립 의학 협회 회보, 13 년 1920 권의 '온천학' (Balneology)에 관한 기사에 참고 도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사의 직무를 맡게 된 특별한 이유는 그의 설교로 인해 수천 명의 삶이 변화되어 정신적 르네상스와 함께 더 높은 정신적, 육체적 표준에 대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¹²

웨슬리는 흔히 성직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많은 분야의 문제점들에 손을 댔습니다. 시릴 스콰이어 (Cyril J. Squire)는 웨슬리의 업적 중 일부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영국 브리스톨의 새 예배당인 새 방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웨슬리 가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 그는 250,000마일 이상을 탔고 45,000회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 1748 년에 그는 브리스톨의 킹스우드 (Kingswood, Bristol)에 남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233 개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출판했습니다.
- 그는 기독교 도서관을 편찬했습니다.
- 그는 4 권으로 된 영국 역사를 썼습니다.

¹² Wesley Hill, *John Wesley Among the Physicians* (London: Epworth Press, n.d.), 1, 8.

- 그는 새, 짐승, 곤충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의학 서적을 썼습니다.
- 그는 무료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 그는 치유를 위해 전기 기계를 개조하고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방적과 뜨개질 기계를 세웠습니다.
- 그는 그의 인세로 40,000 파운드를 받았지만 그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 역사가들은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 그러한 사람은 18 세기에도 기릴 자격이 있었고, 20 세기에도 사람의 관심을 끌 자격이 있습니다.

3. 웨슬리의 사회적 관심사

웨슬리는 1748 년 빈센트 페로네(Vincent Perronet)에게 감리교에 대한 그의 개념과 역사를 요약한 긴 편지를 통해 이미 과밀한 의료 활동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보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큰 이유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고, 여러가지 질병이 치유되었으며, 통증의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와 함께 질병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방문객들은 그들이 섬기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수고에 대한 현재적 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편지, II, 306).

인간의 육체적 문제를 덜어주기로 한 웨슬리의 결심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관계 및 그것에 대한 그의 책임감, 그리고 그러한 책임의식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논평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스러웠고,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 결과, 실제로 비용은 줄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여러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정이 파멸하는 것을 보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종의 절박한 편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직접 약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 7, 20 년 동안 나는 해부학과 물리학을 당지 여가 시간의 일환으로 삼았으며, 미국에 갈 때 몇 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정규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지원했습니다. 나는 약제사와 경험 많은 외과 의사를 도움으로 데려 갔고, 동시에 저의 의학지식의 깊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것을 벗어난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사례들은 의사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신도회에 알렸고, 만성 불안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급성으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다면 그 경우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과 내가 가진 최고의 약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II, 308-10)

같은 편지에서 웨슬리는 "연약하고 나이 많은 과부들"을 한 집에 모아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위해 먼저 밴드의 주간 헌금과 주의 만찬에서 모인 모든 것을 따로 떼어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부모가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야생 나귀의 새끼"처럼 길거리에서 "온갖 악덕"을 배우는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기초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영국의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돈이 부족했던 웨슬리는 "마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1 년 동안 250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편지, II, 310).

5개월 동안 때때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신도회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처방된 요법을 따르는 이들 중 71명은 오랫동안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만성 불안증을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약값은 거의 4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이 일을 계속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편지, II, 306-8)

이처럼 역동적인 특성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또는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기민함과 효율성으로 연마된 웨슬리의 행동을 어떤 관습적인 꼬리표로 분류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특정한 "웨슬리안주의"가 웨슬리의 성화 개념을 편협한 지방주의(특히 미국적인)로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의미에서 'homo unius libri' (한 책의 사람)였을지 모르지만, 그 책은 하나님의 모든 광범위한 창조의 초점이었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그 책은 결코 그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한에서 풀어줬습니다. 웨슬리의 구원 교리는 그의 가톨릭적 관심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 당대의 인물 웨슬리

웨슬리는 해당 시대의 언어를 구사하는 당대의 사람이었고, 그의 국가와 세대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역사와 의식, 종교와 함께 교회의 중요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공회 신자였고, 그것이 그의 "부모"이자 그의 멘토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18세기 영국의 선입견과 신념,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영국의 도덕적 "이상"을 초월했지만, 우리가 그가 말한 것을 해석하고자 할 때 그의 본질적인 역사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귀신’(ghosts)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진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신의 심판이며, 대중들의 회개가 지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전집, VII, 386).

그는 독립을 원하는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전혀 동정심이 없었고, 자신의 영국 "사무실"에서 "주"에서 감리교 선교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 애스버리 (Francis Asbury)를 미국 감독회장에 임명했지만, 애스버리는 미국 교회의 투표로 국민의 뜻이 선언될 때까지 그 직책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독단적이고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했지만, 대개는 논쟁과 정책에서 패배를 어느 정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은혜로움에 대한 더 멋진 예 중 하나는 헌팅턴 백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나 자신이 거의 무오류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편지, V, 259)라고 썼습니다.

B. 학자로서의 웨슬리

1. 논쟁적 인물, 웨슬리

논쟁은 웨슬리의 활동 분위기, 또는 그가 전한 메시지에 의해 만들어진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웨슬리가 일부러 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한 말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 기성 교회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진공 상태에서 말하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쟁자가 항상 자신의 주장의 배후에서 제기되는 모든 유형의 가능한 오해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웨슬리도 이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특정한 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에 걸쳐서 신학적 문헌의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필연적으로 논쟁의 산물입니다. 논쟁을 통해 문제가 명확해지고 신학적

확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웨슬리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1) 그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그를 지도자로서 차별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가치 있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웨슬리가 말한 것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대화의 한쪽 면만 듣고 그 일방적인 대화에 근거하여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균형있고 사려 깊은 의견인 것처럼 그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의 전모를 파악하고 결국 그의 생각의 진정한 중심을 찾으려면 약간의 인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웨슬리의 "개방형" 사고

위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은 웨슬리가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발견(우리가 약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음)입니다. 그는 항상 "가만히 있지" 앉았습니다. 조금 더 깊은 관찰을 통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는 기꺼이 다소 혼란스러움을 감당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상황이 요구할 때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입장을 뒤집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함"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잃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그것을 잃을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지만, 잃을 필요도 없고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지못한 양보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정보다 위기의 상대적 중요성과 그 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고, 때로는 성화의 과정을, 때로는 성화의 위기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는 것에 직면하여) 변화의 사치를 허용하는 주제를 분류할 때, 그가 교리의 "실체"와 "여건"의 차이, 즉 그가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분석의 범주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진리는 확고하며, 성경 연구와 경험을 통해 그 진리가 확고하게 증명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이 땅 위의 삶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와 같은 "근본" 진리들입니다. 반면에, 방법과 시간,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적응,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많은 질문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계시된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이며, 따라서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웨슬리는 신앙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자신의 존엄성보다 낮거나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과 진리의 실체를 혼동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 분열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이 드문 특성을 본받았더라면 얼마나 현명했을까요!

보다 진정한 웨슬리안주의를 열망하는 우리는 성결 신학과 실천의 영역에서 변함없이 성경중심적이어야 하며, 주변적인 것들 피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료함을 가지고 우리의 변함없는 교리가 무엇인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교도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는 구별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우리의 주요 교리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거룩함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종교의 '현관' (the porch), 다음은 '문' (the door), 세 번째는 '종교 자체' (religion itself)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집, VIII, 472)

아마도 웨슬리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웨슬리를 이해하기 위해 웨슬리 자신에게서 도출된 해석의 원리를 찾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역사의식에 뿌리를 둔 그의 마음과 생각의 유연성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사고 체계가 변화할 수 없고 정적인 폐쇄적인 사고 체계가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순례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의 삶과 종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단서는 그의 탐구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그의 평생의 추구는 웨슬리의 성품의 비밀을 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의 탐구를 무익하고 실패한 "의지" (will-o'-the-wisp)에 대한 탐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진실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은 진보입니다. 완전함은 정적인 "소유" (having)가 아니라 역동적인 "진행" (going)입니다. 사랑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증가해야 하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완전"합니다.

3. 웨슬리의 비판적 접근

웨슬리의 가장 골치아픈 문제는 "잠정적인" (tentative) 영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질문이 오면 "짐을 실은 질문" (loaded question)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걸쳐서 그는 질문을 분해하고, 부분적인 것은 설명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웨슬리가 명확한 사고에 대해 주장한 한 예는 그의 “Farther Appeal to the Men of Reason and religion” (이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더 깊은 호소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순간적인 변화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질문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각 부분에 대해 대답했지만, 세 번째 부분이 주목을 끌자 그 질문을 인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Q. 이러한 개선이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변화의 교리에 기초한 것보다 더 나은 위로와 복음적 중생의 확신의 기초가 아닌가요?

A. 그것보다 더 나은 기초입니다. 대체 그게 뭘 까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문법의 규칙에 따르면 ...이 교리에 기초한 기초보다 더 나은 기초를 의미해야 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자마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집, VIII, 66)

웨슬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내의 분열은 다분히 신중하지 못하고 기민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또는 신학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교와 편지, 그리고 논문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슬리든 성경이든, 인문학에서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성적인 것을 무감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보다는 기괴한 결과를 낳습니다.

4. 웨슬리의 "예지" (Foresight)

웨슬리안적 구성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요소가 이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웨슬리처럼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에게서 가장 독립적인 정신을 발견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는 전통적이고, 의식적이며, 독단적이고, 귀족적이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호의 안에 머물렀다면). 웨슬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냉정하고 전혀 감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설득력 있는 상황과 George Whitefield 의 주장만이 그를 성별되지 않은 장소, 즉 개방된 들판에서 설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 가지 약점 (그것이 사실이라면)이 결국 그의 강점으로 판명되었는데, 그것은 비록 주저하긴 했지만 필요한 목적을 위해 비전통적인 수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의 개방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관습을 어길 타당한 이유를 찾는 능력을 가리키는 '궤변' (casuistry)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그가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신에게 속한 권위가 아닌 권위를 갖고서 프란시스 애즈베리를 감독으로 임명한 그의 "불법"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안정된 상황에 새로움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이러한 위반은 숨쉬는 것까지도 적절한 규약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민감한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한 그에 대한 혐의는 그가 "교회" (The Church)에서 멀어지고 개종자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존 교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너보다 더 거룩하다" (holier than thou)고

주장하기 시작한 독립 단체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인은 다른 종파나 정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토록 오래(1789년 당시) 계속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현재의 목적 안에서 그들을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전집, VIII, 278).

그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난 사람들과 분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 국교회의 모든 교리를 고수하며, 교회의 전례를 좋아합니다.
나는 교회의 징계 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이 실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나는 내가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어떤 규칙도 고의로 어기지 않습니다. (전집, VIII 278)

그러한 "필연성" (necessities)의 사례들을 열거하자면, 웨슬리는 1)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거부당했을 때, 그는 "해외에서 설교했고"; 2) 미리 준비된 적절한 기도가 없을 때, 그는 "즉석에서 기도"하였고; 3) 그는 "영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궁핍한 사람들을 모았고; 4) 그는 한 해 동안 설교자들의 "위치/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모든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히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즉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믿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교회와 다르지 않으면 죄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

웨슬리는 합리적 삶의 두 가지 사실, 즉 모든 인간 사회에서 제도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진보를 경험하려면 예지와 그에 따른 행동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사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웨슬리는 이 문제에 대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의 논의에 대해 가장 동의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일상적인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회는 안정을 필요로 하고, 예지는 그 자체로 안정을 전제로 하며, 안정은 일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일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분별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예지가 필요합니다.¹³

웨슬리가 "예지" (화이트헤드가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선지자라고 불렀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단지 지나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웨슬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발견한 후에 이러한 인격적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웨슬리는 결코 '반항적인 사람'(rebel)이 아니었으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자극을 받은 진정한 '혁명가'(revolutionary)였습니다.

5. 웨슬리의 '목적론' (Teleology)

웨슬리의 '목적론적' (teleological)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웨슬리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변덕스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역사가 필요합니다. '역사/목적론 콤플렉스' (The history/teleology complex)는 바로 도덕적 존재의 매트릭스입니다. 인생은 일종의 '유예' (probation)기간입니다. 역사는 도덕적 발전의 작업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지만, 도덕적 선택에 의해 사랑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이 "목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룩함도 자동적이거나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구이자 관계이며, 삶의 방식과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노력의 여지들로 인해 지식을 얻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순결은 거룩함이 되고, 거룩함은 사랑과 믿음으로 완전 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¹³ Alfred North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1933), 114.

목적론은 연속성 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연결 고리 없이 단순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도약하는 변화는 목적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목적론의 필수 요소입니다. 웨슬리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의 전체 생각 속에서 역사와 자연뿐만 아니라 신학과 기독교 경험에서도 "여정의 단계들" (stages in the way)을 연결하는 진정한 관계를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독단성도 목적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복음의 호소는 구체적인 예정론의 비역사적, 심지어 반역사적 개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미 구원받거나 잃어버릴 운명이라면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웨슬리의 설교 "거저 주시는 은혜", Vol. VII, 373-86은 이 점에 대한 강력한 논증입니다). 절대적인 개인적 예정론에 대항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유의지"가 아닌)에 대한 웨슬리의 신학적 주장은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자들에 맞서서 웨슬리 자신이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룩함을 위한 강력한 방어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이 하나님의 의식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결코 분열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식의 끝인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함을 파괴하는 명백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자주 제안되는, 그 뒤를 따를 첫 번째 동기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집, VII, 376).

‘절대적 선택’ (Absolute election)은 연속성과 관계의 사실을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관계의 본질인 거룩함을 파괴했습니다. 웨슬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집한 것은 지적으로 책임감 있고 존경할 만한 사고였으며, 성화에 대한 그의 교리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과정과 칭의와 성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그의 강조를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목표로" (aims at)합니다. 웨슬리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외눈박이" (The Single Eye)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그는 감각적 쾌락과 상상력, 사람에 대한 찬양, 그리고 재물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안에서 걸을 때, 그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든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전집, VII, 299)

이 구절에서 웨슬리에게 내포된 목적론의 일부가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전될 것): 1) 하나님은 인간을 미완성으로 만드셨다는 것; 2) 인간은 마무리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 3) 마무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4)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한 재료를 공급하셨다는 것; 5) 마무리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활동과 별개로 인간 안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6) 거룩함은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자 목표라는 것 등입니다.

웨슬리의 목적론은 인간과 구원에 대한 그의 역동적인 개념의 기초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선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를 위해 한 가지, 즉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의 열매를 소망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으신 분과의 연합, 즉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 즉 한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분명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한 가지 계획, 즉 현재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의 다른 것들은 오직 이것을 향하는 한도 내에서 구하십시오. 창조주께로 인도하는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이것이 당신의 견해를 끝내는 영광스러운 지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애정과 생각과 말과 일이 이것에 종속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두려워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피하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든, 당신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자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집, V, 207-8)

‘깊이, 웨슬리의 차원’ (DEPTH, THE WESLEYAN DIMENSION)

웨슬리의 중요하고 귀중한 통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오늘날의 인식의 흐름을 예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에 대한 웨슬리의 공헌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특징지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 그대로,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의미의 영역에 놓여 있는 삶의 차원을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이 단어는 감각적 세계와 대비되는 "영적"인 영역을 대체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질적 측면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는 대상의 "사물성" (thingness)이 아닌 "인격성" (personn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 (Martin Buber)는 "나와 너" (I and Thou)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의미의 차원에 도달합니다. 이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하고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웨슬리 자신의 말로 '사랑' (love)입니다.

우리가 깊이를 말할 때 우리는 이차적 가치 (비인격적)의 세계를 뒤로하고 이차적 "가치"의 의미가 지향하는 일차적 가치 (인격적)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이차적인 수준에서 종교적 판단을 내려온 교회를 경멸적인 의미에서 "종교"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종교는 교회 전체에 잘못된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 없는 기독교" (religionless Christianity)를 주창하는 것은 종교나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본회퍼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고,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관계에 장애물이 되거나 그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올바른 관점에 놓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The Unity of the Divine Being" (신적 존재의 통일성) 이라는 설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우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 마지막 우상에 대해 웨슬리는 "다른 모든 우상보다 더 위험한 우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종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모든 종교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첫째, '의견의 종교' (a religion of opinions), 또는 '정통' (orthodoxy)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의 견해로 이루어진 체계만을 의미한다고 믿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올무에 빠집니다. 둘째는 '형식의 종교' (a religion of forms)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는 단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행위의 종교' (a religion of works), 즉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신론의 종교' (a religion of Atheism), 즉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종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전집, VII, 269)

웨슬리와 본회퍼가 많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단순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깊이의 차원이 인식되지 않을 때 웨슬리의 요점을 정확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에서 피상적인 것을 식별한 것은 종교라는 "맹목적인 거리" (blind streets)였습니다. 도덕주의는, 그 전체적인 "거룩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또한 웨슬리 자신이 이제껏 소수의 사람들처럼 그것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허하게 했습니다. 신비주의의 감정주의에 대한 깨진

약속은 그의 가장 깊은 합리적 완전성을 침해했습니다. 과도하게 "경건한" 삶 ("신성 클럽"/the Holy Club 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은 병적인 성찰과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가 점차 종교의 진정한 의미로 이해하게 된 사회적 거룩함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인간의 영적,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라는 참된 소명에 대한 교회의 무감각함이 그가 교회를 아무리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의식에 대해 자유를 얻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개혁주의 해석의 반율법주의는 그를 "성경적 거룩함"에 대한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단지 '그들의 죄' (their sins)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all sin)에서 구원하신다고 여기는 종교 해석입니다.

웨슬리에게 성화는 윤리적 관계이지, 결코 도덕주의가 아니고, 감정이나 감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며, 무언가에 대한 마술적인 '제거' (elimination/"아픈 이빨치럼")나 '추가' (addition), 심지어 성령의 추가 (종종 종교적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이고 "열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피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과 목표의 방향은 자신의 감정 상태나 종교적 행위의 양과 순종하는 규칙의 양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사랑의 질과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를 추상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성품' (temper)입니다. 그것은 단 두 마디로 '감사와 자비' (gratitude and benevolence)입니다. 창조주이자 최고의 은인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동료 피조물에 대한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결과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동료 피조물에 대한 자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되고, 시간이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참되고 진실한 도덕과 정의, 그리고 자비와 진실의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를 구속합니다. 이것이 종교이며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전집, VII, 269)

우리는 다시금 웨슬리의 "장엄한 집착" (magnificent obsession)인 사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시는 진정한 깊이로 이어지며, 사랑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절실함은 그의 설교 "Scriptural Christianity" (성경적 기독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초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11:11). 즉,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 145:9)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그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품기 마련입니다; 육신으로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의 아들이 친히 그 영혼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 즉 "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원수들, 즉 주님을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심지어는 주님을 부당하게 이용했던 사람들까지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기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전집, V, 40)

그러므로, 호기심 많고 불필요한 질문들, 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구하느라 바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시대에 걸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분의 평범한 열매들, 즉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흔히 행하시는 위대한 사업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특별한 의견이나 교리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마음과 삶을 가리킵니다. (전집, V, 38)

종교의 “깊이”는 삶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은 관계, 즉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이는 추상적인 사상에 대한 우연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사고를 통해 역동적인 사고의 용광로에서 자신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깊이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잠재적” 학습만으로 인격이 형성되거나 기록해지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거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종류의 감정적 호소나 예매 장치에 의해 유발된 감정적 흥분은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감정은 행동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감동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소비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가 단절되어 배출구 없이 정신에 다시 공급되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이 소진됩니다. 큰 도전이 불러일으킨 큰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신 이상과 행동이 분리되는 도덕적 이원론이 발달합니다. 깊이 있게 통합된 인격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정신 이상만큼이나 파괴적인 도덕적 정신 분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행동을 촉발할 수 없는 감정은 결국 도덕적 완전성을 파괴합니다. 훌륭한 설교와 높은 종교적 도전과 느낌에 노출되었지만 그 느낌을 사람들의 삶에서 기독교 사역의 일로 연결시키지 않는 회중은 무관심하고 차갑고 고립되고 위축됩니다. 잠재된 영적 힘을 봉사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선교와 봉사, 건전함을 대신하는 분열된 인격, 즉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교만한 영성을 갖게 만듭니다.

종교에 대한 웨슬리의 접근 방식에 대해 얼마든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있지만, 그가 인간의 마음이 파괴적인 “깨어짐”과 이원론으로부터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용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에게 거룩함은 우리가 “깊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웨슬리는 추상적이고 기계적이며 마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항하여 종교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깊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덜 급진적이게 만들거나 철저함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특성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결 신학의 날개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기독교 경험의 날개를 회복하여 영적 하늘의 무한한 천장을 다시 한번 탐험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인물을 웨슬리 자신의 세대와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구 정신과 예리한 사회적 감수성, 그리고 그가 참여한 가치 있는 논쟁, 명확한 사고에 대한 비판적 관심, 그리고 역동적인 종교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러 면에서 그들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게 하고 그의 전체 공헌을 해석할 수 있는 특정한 신학적, 종교적 강조점을 낳은 그의 더 깊은 가정은 무엇이였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장의 내용을 구성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료와의 관계로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함의 의미에 대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성적 존재의 속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매력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8 쪽)

제 5 과: 웨슬리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방법론적 문제

교회에 대한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 종교적 공헌은 웨슬리안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해석에 의해 존중되어 왔지만, 웨슬리의 전체 사상 및/또는 다른 "웨슬리안주의"와는 다소 중요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루터주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웨슬리안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의 영역에 있습니다. 루터나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신학 체계가 웨슬리에게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종종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한 체로, 저자의 기본 철학적 가정을 전제로, 그것에 부합하는 구절을 웨슬리의 작품에서 선별하는 식으로 신학적 체계를 정립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선택과 구성에 있어서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식으로 순전히 기존의 관점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웨슬리, 플라톤적 웨슬리, 술라이에르마허적 웨슬리, 화이트헤드적 웨슬리, 사회복음적 웨슬리, 혹은 '제 2의 축복 웨슬리' (a Second-Blessing Wesley) 식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웨슬리안주의라고 불리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신학이 양산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혹은 좋든 나쁘든 간에, 적어도 웨슬리적 신학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또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웨슬리가 동시대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많은 현대의 저자들은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웨슬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고의 형태와 그 당시 사람들의 독특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와 다른 역사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해석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신학은 희망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웨슬리안 신학입니다. 그러나 어떤 웨슬리안주의입니까? 웨슬리안 신학은 웨슬리가 권위자라고 가정하거나 심지어 그의 성경 해석이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서 웨슬리안 신학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통주의자였지만 자신을 '한 권의 책, 즉 성경의 사람' (a man of one Book—the Bible)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권위인 신조와 성경이 있으며,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미처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웨슬리가 결코 해결하지 못했고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슬리에게 창조적 통찰을 촉구하고 우리에게도 같은 정신으로 더 많은 발견을 촉구하는 "미래에 대한 개방성" 이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역동적인 통찰력을 공유하면서도 진리의 깊이에 대한 웨슬리의 개방성의 전제 하에서만 그것이 웨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공헌

웨슬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경험에, 신학을 종교에, 논리를 삶에,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연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성보다 더 실제적으로 성화를 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믿음이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죄 자체로부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만을 용인하는 당시의 칼빈주의의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웨슬리의 심오하고 역동적인 종교적 통찰력과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실체와 인간의 체험을 연결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 (personness)이 사람의 "인격"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도덕적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은혜 안에 있다는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개별 신자를 교회, 즉 집단적 교제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회의 한가운데에 두어 인간이 처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웨슬리의 주된 매력은 그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의 신학은 충분히 전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혁신가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공헌은 오히려 신학에 삶과 피를 입힌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신학을 인간으로 육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웨슬리안주의의 장점과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은 기독교 내에서 웨슬리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굳이 "웨슬리안" (Wesleyan)적 입장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신학적 절대성의 완전함을 인간 본성의 불완전성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있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이미 소개한 대로 “웨슬리안주의”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웨슬리 신학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솔직히 웨슬리 자신의 다방면에 걸친 가르침과 삶의 강조점 중 어느 한 측면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진리를 추상화하는 것은 그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의 가르침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의 중심 메시지라고 가정할 때(이 연구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한 것의 총체이어야 하며, 거룩함의 전체적 범위를 무시하거나 맹목적인 어떤 특정한 면이 아닙니다. 웨슬리와 완전성, 사회적 민감성과 봉사, 기독교론, 성례전 등과 같은 신학적 주제에 대한 그의 견해에 관한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본서의 접근 방식은 요한 웨슬리의 몇 가지 전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개념을 성결 신학과 삶에 필요한 여러 교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웨슬리안적 틀에서 심각한 문제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웨슬리가 신학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이나 기독교 사상에 대한 모든 접근 방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의 개념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유용한 논문 중 하나는 그의 "Thoughts upon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생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두 측면에 대한 생각이 신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추측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즉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함정을 피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것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구원론에 반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와 응답의 시점에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주요 신학적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조금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으로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또한 죄에 대해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온전히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통찰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함의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교회 동료들과 논리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데 더디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리 자신이 충분히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 때문에 당황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통찰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에게 성경이 더욱 실용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며, 그는 단지 신학적 일관성을 위해 논리를 택하기보다, 오히려 기꺼이 ‘한 권의 책의 사람’(a man of one Book)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MAN)

이러한 통찰은 성화에 포함된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 살펴보고자 하는 관심사입니다. 이 통찰들은 (1) 역사적, (2) 개인적, (3) 역동적, (4) 사회적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러한 특징을 항목별로 분류했는지, 또는 이 순서대로 나열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웨슬리의 주요 확언은 이러한 통찰에 비추어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 '역사적' (Historical)

웨슬리는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에 깊이 관여하며, 이 "패드"를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저 밖의 관찰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의 산물이며, 그 환경에 따른 이상과 편견을 공유하고, 그 관련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그 구조에 국한되며, 그 용어에 따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통해 필수적이고 참여하는 요소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경에 갇혀 지내거나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사업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이해, 그리고 진보와 편견이 모두 반드시 역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참여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체험' (exper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거룩함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 사용되던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그가 거룩함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거룩의 개념 전체가 급진적으로 재검토되었고, 그 당시까지 해결되지 않은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야기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역사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역사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거룩함은 거룩함 자체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거룩함의 이름으로 추상화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으며 추상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역사화" 하거나 거룩함을 역사 또는 삶 속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 성경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인격적' (Personal)

인간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든, 웨슬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간에 대한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란 도덕적, 지적, 영적, 책임감 있는 자아와 관련 있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것"(it)으로 간주되는 인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과 구별되는 단순히 육체적인 측면만 포함할 수 없으며, 이성적인 것 이하의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핵심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 속에서 옳든 그르든 하나님과 인간과 자신을 관련시킵니다. "인격성"(Personness)은 뽑아버려야 할 "충치"와 같은 '사물'(a thing)로서의 죄 개념을 배제합니다. 거룩함은 죄가 제거된 후 인격의 총합에 이식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적 사물이 아닙니다. 이 개념보다 더 낮은 개념은 인간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심지어 반율법주의적 사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성결의 높고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거룩함과 죄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닌 '상태'(a state)로서의 거룩함(웨슬리는 기계적 의미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용어)은 구원론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웨슬리 신학의 해석 원리로 일관되게 적용될 때 대부분의 어려운 특징이 명확해집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종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법적, 기계적, 수치적 수치는 영적이고 역동적인 인격적 종교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3. '역동적' (Dynamic)

사람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이라면 역동성은 그를 특징짓는 적절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사건이 그 위에 기록된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무언가를 찾고, 탐색하고, 반응하고, 욕망하고, 사랑하고, 변화하고, 선택하고 거부하고, 재구성하고, 성숙하고, 대안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변화의 과정 내내 어떤 식으로든 연속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적인 삶을 유지하는 한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급진적인 재창조의 과정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철학적 편견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고정된 개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는 그에게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과정 중" (in process)인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문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동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 자신의 반응에 대해 매우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차원을 보여 주었으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은 만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이용 가능한 광범위한 정보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며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모든 활력과 천재성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때, 거기서 안주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으며, 넘어지지 않으려면 일어서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낮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 (Go forward)는 것입니다. (전집, VII, 202)

웨슬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든,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원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질그릇"을 격하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악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모든 것에 현명하지만 여전히 온유함이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를 위한 열심"이 대단하지만, 그 열심은 항상 지식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생각과 말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단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심어 주신 지혜로운 목적에 대한 열정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즉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 모든 것을 오직 그 목적에 복종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더 가혹하고 불쾌한 열정조차도 가장 고귀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조차도 죄에 대항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규제될 때 영혼의 벽과 보루와 같아서 악한 자가 그의 영혼을 해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집, V, 263, 이탤릭체는 내 것)

바울이나 웨슬리는 인간 육체의 약점, 심지어 성화된 인간 육체의 약점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할 인간의 책임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감히 함부로 이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시작된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그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전집, X, 230-31)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본성 및 책임의 관계에 대해 다시 말하면서, 그는 '온유함' (meekness)과 같이 온화하게 들리는 미덕이 인간 인격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켜 격렬한 감정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기독교적 온유]는 과잉이든 결함이든 모든 극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하나님이 결코 은혜에 의해 없어지지 않고 적절한 규율 하에서 생성, 유지되도록 한 애정을 소멸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그것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 고른 척도를 유지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평균을 보존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전집, V, 263).

고후 4:7에서 바울이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웨슬리는 *Notes on the New Testament* (신약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 즉 신적인 빛과 사랑, 영광을 질 그릇, 즉 깨어지고 연약하며 소멸하는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즉 죽음 자체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역자들을 날카롭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능력의 탁월함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 줍니다. (P. 455)

웨슬리는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현존하는 편지들은 오늘날 잘 알려진 질병에 시달리는 남녀노소에게 가장 현명하고 놀랍도록 현대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해력이 부족한 영적 상담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도리어 의심을 품게 하는 대신, 늘어진 손을 붙들어 주고, 절름발이에게 곧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실패를 가리켜 조심없이 '죄' (sin)라고 부르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거룩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깨어진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웨슬리가 육체와 신경이 전인격에 미치는 상호 작용에 대해 깊이 이해한 것은 1771년 10월 28일자 베니스 부인 (Mrs. Bennis)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물질이라는 건반을 연주하는 구체화된 정신적 행위이므로, 악기가 조율되지 않을 때 영혼이 나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그때 느끼는 문제와 불안은 무질서한 기계장치에 의한 자연스러운 효과이며, 그만큼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더불어서도 씨름해야 하는 한, 지혜롭고 강력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모든 육체적 약점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약한 몸이 교활하고 악의적인 영들의 계락을 따르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당신이 얻게 될 것을 굳게 붙잡고, 거칠고 강한 적의 공격을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미에서)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들과 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나는 스스로 도울 수 없고, 이 전쟁에 지해도 힘도 없지만, 나는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아무도 주의 손에서 나를 뽑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맡긴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날까지 보존하십시오." (편지, V, 284-85)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베니스 부인이 처한 문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릇된 상상력을 매개로 하여 그녀를 불쾌하게 한 교회 내 누군가가 야기한 대인관계의 긴장이었습니다.

웨슬리가 현대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당대의 인간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아가 뿌리 깊은 문화적 불평등과 상호작용하는 것, 인간을 비인격화하거나 적어도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탐색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차단할 정도로 기계화된 사회, 인구 과밀 지역에서 밀집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끔찍한 외로움, 직면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의 영향으로 정서적 평온과 온전함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마약 문화로의 위험한 후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협하는 생태계의 붕괴; 전쟁, 가난, 질병, 죽음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요인들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신앙의 상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쁜 것은 예언적이고 구속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무력함 등입니다.

웨슬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대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지만, 그의 전도는 우리의 강한 손보다는 더 긴 팔을, 우리의 손가락보다 더 부드러운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어이 그 마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위기' (crisis)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구하는 전 '과정'(process)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영적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현대인의 고뇌 속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단순한 답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집증적 투사' (paranoid projec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신의 결점을 더 이상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 외부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외부적 힘으로 그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거나, 사라들, 즉 "그들" (they),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정부, 제도권, 교회 등 우리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운동이나 집단(공산주의, 파시즘, 마오이즘 등)이 포함됩니다. 또는 이 책의 주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 전부를 "육욕" (carnality)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똑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사회를 파괴하거나, 다른 집단에 권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육욕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끝낼 수도 있고, "숨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기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답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며, 그 누구도 그보다 더 강한 어조로 설명할 수 없으리 만치 죄의 원인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person)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 심지어 육체적 정신적 삶의 영역에까지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의 "뿌리를 쳐내는" (strikes at the root) 것이지만, 깨어진 인간, 부서진 몸과 마음, 왜곡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함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온 용어들 (웨슬리언들이 차용하는 용어들)은 인간이 스스로 알고 있는 오류와, 무지, 연약함, 편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에 비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최고의 성도들까지도 괴롭히고, 편견은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유용성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성 신경증이나 성격적 특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활기차고 낙관적이며 외향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울증과 변덕스러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는 충동이 항상 강하고 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자기자신에 대한 당연한 염려가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기도 합니다. 웨슬리 자신도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쇠약해지는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체 율법의 성취로 묘사하려고 했던 사랑의 완전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만큼 충분히 현명했습니다. 웨슬리의 생각에 거룩함은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각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이고 겸손한 의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과 우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까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고 일관된 변하지 않는 사랑은 그 풍성한 도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며, 인간의 타락의 여지가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꺼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과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 모두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거룩함의 특성입니다. 거룩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보화는 흙, 즉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웨슬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인간성 자체는 결코 핸디캡이 아니며 사과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버려야 할 것도 분명 아닙니다. 인간은 교제의 기초이며, 소통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상화된’ (idealized)

인간이 아니라 ‘이상적인’ (ideal)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고 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4. ‘사회적’ (Social)

위에서 설명한 역사적이며 개인적이고, 또한 역동적인 인간의 실체는 그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의 요소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똑같이 필수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웨슬리는 적어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heartwarming) 경험 이후에도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한 진정한 웨슬리안주의는 없습니다. 웨슬리에게 성결은 동료를 무시하거나 무감각하고, 또는 현실을 피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거룩함의 의미로서의 사랑의 본질이 금욕적이거나 덜 가치 있는 개념보다 우세했습니다. 웨슬리에게 거룩함의 증거는 인식 가능한 사랑의 사회적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삶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거룩함이 아니라 다만 사회적 거룩함’ (no holiness but social holiness)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주의]의 정반대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고독한 종교는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고독" (Holy Solitaries)은 '거룩한 간음' (holy adulterers)이라는 말보다 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함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입니다.¹⁴

¹⁴ G. Osborn, ed., *The Poetical Works of John and Charles Wesley* (London: Wesleyan Methodist Conference Office, 1868), I, xxii.

인격적 관계로서의 종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웨슬리의 가르침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는 증명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의 통찰력을 "거룩함"의 교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종종 간과됩니다. 이것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인격적 관계라는 관찰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 존재의 비이성적, 비도덕적, 실체적 (육체적 또는 비물질적) 수준의 어떤 단계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열쇠 (아마도 '유일한 열쇠'/the key)는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인격적인 단어이며, 확실히 인간 관계의 가장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인 성적 반응이나 생물학적-생리적 반응은 아니지만 사랑의 전체적 의미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히브리적 의미에서 그것은 인격의 가장 깊은 동기 부여의 초점입니다. 그것은 조직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원리가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찾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이며,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의 역동성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 자유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외부적 조작에 의해 침해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료와의 관계로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거룩함의 의미에 대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성적 존재의 속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매력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자유롭고, "세상에 임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 "삶과 죽음, 그리고 선과 악이 그 앞에 분명히 놓여 진다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전체적 경륜에서 충분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되 억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무나 돌이 아니라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선택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시니, 그는 과연

그의 온전한 경륜의 계획을 어떻게 자신의 계획인 "그의 뜻의 비밀"에 맞추는 것일까요? (전집, X, 232)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책임한 유치함을 버리고 존엄한 존재로 일어서서 그분께로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웨슬리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이 목적에 얼마나 적합한지 모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구원하기 위해, 삶과 죽음을 그 앞에 두신 다음, (강요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며, 하나님 자신의 이 원대한 목적에 따라, "그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의 모든 길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먼저 완전한 통치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또한 위반하는 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로 시행되는 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며 영혼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해력에 개입하여 그들 자신의 죄의 어리석음을 보여 주시며, 때로는 그들의 애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배은망덕에 대해 부드럽게 꾸짖으시고,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강요가 아닌 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하는)라고 묻는 겸손함까지 보이십니다. 그는 때때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위협과 "너희의 죄악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섞어 놓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참으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변동없이 천국이나 지옥에 위탁된다면, 대체 지혜가 어디 있으며, 것처럼 자유롭지 않은 처지 가운데서 매사에 자유로운 존재처럼 그를 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과연 배역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나 위협, 또는 폭언이나 책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내 형제들이여, 너무 기가 차니 나의 말을 허락하십시오) 공허한 희극에 불과하고, 단지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오,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같은 절차의 지혜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장치들이 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만 "그의 저주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더욱이 이 일이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다음 모든 인류가 이 설명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에 더 적합한 지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한 적절한 대상이며, 따라서 그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죄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기계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돌에 대해 정의로운 벌을 가할 수 없듯이, 당신이 보기에 죄에 빠진 사람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전집, X, 233-34)

웨슬리는 모든 신학을 인격의 틀 안에 두면서 해석학과 대화, 그리고 계시에 대한 현대적 통찰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종교와 신앙, 의미와 지식, 그리고 사랑 같은 것이 발생하는 대인 관계의 사건들은 모두 인격의 개념에서 비롯되며, 인격에 대한 풍부한 정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관찰이 이루어지고 제시될 때 그 연구를 통해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웨슬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상호 작용(웨슬리가 "교통"/intercourse 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Q. 12. 불순종이 아니고도 믿음을 잃는 것이 가능합니까?

A.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먼저 내적으로 불순종하고 마음에 죄를 짓는 경향이 있으며, 믿음을 잃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약해져서 외적인 죄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전집, 7 권, 283).

웨슬리의 작품 중 어느 것 하나를 무작위로 집어 읽어도 거기에서 반드시 그가 전제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체계 내에서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현상과 다른 점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황을 만들고, 그에게 호소하고, 그를 달래고, 그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는 교제를 기대하십니다.

확실히,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타자성" (otherness)과 초월성, 그리고 그의 주권 중 어떤 것도 상실되지 않으며, 웨슬리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시급하고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창조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갖고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근해야 하고, 그 만남에 무언가를 기여해야 하는데 그 일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의 의미이며, 누군가를 "안다"는 뜻의 구약성서의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얹"에서 가장 진정한 종류의 "대화" (dialogue)가 경험됩니다. 두 사람, 적어도 두 당사자는 각각 자신들의 존재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각각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웨슬리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서는 단순히 단어의 재배열이 목표가 아닙니다. 18 세기에 웨슬리가 의미했던 것, 즉 그의 의도를 오늘날의 단어와 관용구로 다시 말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해석학"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 즉 '대화'(dialogue)가 웨슬리가 말한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적이고 대인 관계적인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자기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종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모든 것을 위해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be saved)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아를 주고받는 것이며, 누군가의 자아의 총체가 타자의 총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 즉 관계이며, 양이 아니라 질이며, 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노트에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총합이며 기독교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아무도 그 이상 더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보다 더 적게 말하고 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까?"

웨슬리의 모든 책에서 대화는 "크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대답하지만 그것도 크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역사 너머의" (beyond history)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 즉 '역사 속에서'(in history)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성이 합쳐질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은 복잡하고 성장하는 자아를 그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위축되고, 쪼그라들며, 편견에 사로잡히고, 왜곡된 자아의 상태에서 이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만남에서 그는 결코 작은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열면 놀라운 확장과 깊이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웨슬리의 사상에서 '그것'/itness (마르틴 부버)의 독단성이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현실을 위반하는 식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거나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러한 시작과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기여' (self-contribution)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은혜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

웨슬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든 신학적 접근 방식과 첨예하게 충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선천적인 선함이나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는 웨슬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칼빈주의자도 인간의 죄와 악의 깊이를 웨슬리보다 더 급진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에 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복음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인간을 원래의 인간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대신하여 결국 인간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다움’ (manhood)을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킵니다.

웨슬리의 논문 제목인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차분하게 고려한 예정론)은 다소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그 글 속에 불은 아니더라도 뜨거운 자신의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들[칼빈주의자]은 종종, 배교자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부터 계속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한 쪽에 저항할 수 없이 행동하시고, 사탄은 다른 쪽에 저항할 수 없이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둘 중 어느 쪽이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도울 수 없거나 오히려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한다면 둘 중 어느 쪽도 전혀 행동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돌맹이를 던졌을 때 돌맹이가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는 더 이상 행동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보상이나 처벌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돌이 새총에서 튀어나간 것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새총에 맞아 쓰러진 것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할까요? 대포알이 태양을 향해 날아간 것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태양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할까요? 처벌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기계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은 정의가 설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을 정하셨다는 당신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이 행동하신다는

가정은 상과 벌에 관한 성경 교리와 다가올 심판에 관한 성경 교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전집, X, 224)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에 대한 관점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인간에게서 "인격"을 빼앗는 식의 인간에 대한 모든 개념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유기' (election and reprobation)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실성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장하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것 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이다" (God is justice) 또는 "하나님은 진리이다" (God is truth)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공의롭고 참되시지만). 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즉 추상적이며 한계가 없는 사랑, 또는 "그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분은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하시며, 모든 인류의 자녀에게 예외나 제한 없이 선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또는 선하심)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그의 모든 행위에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배신자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선하시거나 사랑스러우실 수 있을까요? (두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전집, X, 227)

웨슬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실재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너무나 열렬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시적인 형태로 표현되었고, 웨슬리가 신학을 노래로 표현할 때 그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찬송가 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관한 다음 부분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I. 웨슬리안적 입장

A. 찬송가 I (1, 2, 4 절)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주셨나이다,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제한이 없는 은혜;
모두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모두에게 거저 베푸는 선제적 은혜를 소망하라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B. 찬송가 XVI-"값없는 은혜" (Free Grace)

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세,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에 찬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네;
오직 은혜로 그가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셨네.
그분의 외아들을 주신 것은 은혜였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셨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눈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눈을 아래로 향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그의 자비를 지금 여기에 나타내신다네.

은혜로 우리 모두는 숨을 쉬며;
은혜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네;
은혜로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하며;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네.
 선에 대한 처음의 희미한 생각에서
 완전한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로만 새로워졌네,
 지옥에서 이 땅을 지나 천국으로 가네.

우리를 책망하는 자의 증거 따위는 필요치 않다네.
 거저 주어지는 은혜, 은혜는 참으로 거저일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눈을 뜨고 나를 보라;
 예수께서 부르신 우리를 보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주장하고,
 그분의 열정의 가치를 입증하고
 몇 번이고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우리를.

요한 웨슬리는 그의 노트에서 요일 4:8 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문장은 요한 웨슬리에게 온 세상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표현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거룩함이나 의로움,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그의 통치의 속성, 즉 그의 다른 모든 완전함에 더해 영광을 비추는 속성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과 대조적인 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II. 칼빈주의적 입장 - “끔찍한 법령” (Horrible Decree)

A. 찬송가

나는 한때 확실히 믿었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느꼈네;
 내가 받은 주님의 신실한 기록,
 주께서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
 천국을 사셨으니

누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한때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평화,
내 마음속의 증인.

그러나 곧 교활한 악마가
내 순진한 마음을 속였네.
어둠과 빛을 한데 섞는 방식으로;
거짓과 진실을 한데 섞어버렸네.
(그가 잘도 기억한) 자존심이
하늘로부터 그를 던져 버렸다네;
교만으로 첫 번째 범죄자가 쓰러진 채,
낙원을 잃고 말았다네.

이제 화염검으로 둘러싸인 그곳,
그 대적이 이제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내 불안한 마음에 속삭였네.
그 대답하고 주제넘은 거짓말로.
"너는 천국에서 안전하다."
유혹자는 부드럽게 말하였네,
"너는 선택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
결단코 은혜에서 다시 멀어질 수 없다고.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는 그 선물을 다시 뺏기 위해,
준 것이 결코 아니다;
네가 그것을 사용한든 안하든,
그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
너는 그의 은혜를 난파선이 되게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놓거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너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한 번 그분의 선하심을 안 사람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그릴 수 없다,

너는 결코 완전히 넘어질 수 없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없다,
선택받지 않은 바울과 달리.

"네가 계속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
그는 그의 책에서 너를 지울 수 없다
너의 영원한 이름을.
너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제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선택적 사랑 안에서.

"사람들은 아이를 놀라게 했지?
그 사랑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그 보상이 유혹이 될 수도 있다고,
범죄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해 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수렁에 빠져
죄로 인해 불타고 멸망할 것이라고
영원한 불 속에서?

아, 가련하고 어리석은 영혼이여!
그로 인해 한없이 울게되지 않았는가!
이리 오너라, 내 가슴에 안겨서
네 모든 슬픔을 잠들게 하거라.
네 눈을 안전하게 감고,
모든 위험한 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거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안식을 취하거라.
그리고 내 팔에 안겨서 편히 쉬거라.

온갖 조심하라는 명령으로;
"그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다시는 불쏘시개처럼 타들어 갈 필요가 없다,
네 슬픔과 두려움은 단호히 거부하고;

내가 주는 다른 복음을 갖거라.
오직 택함 받은 네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모든 일이 쉽게 끝날 것이다.

B. 찬송가 IX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세상의 구세주가 오시었네;
그분은 수백만의 영혼을 버리셨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조롱당했네.

"악한 세상을 벌하고 저주받을 자를 구원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보내셨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었네,
그들, 오직 그들만의 온 세상.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얻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네.
그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정하셨네.
무능력한 아담의 종족의 대부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다네,
갓 태어난 아기들로 도벳 (Tophet) 사당을 채우셨다네;
끝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보여주셨네."

이것이 바로 그 "끔찍한 법령!"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은 (오, 신성 모독을 혐오하나이다!)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나이다.

C. 찬송가 XVII

아! 온유하고 은혜로운 비둘기여;
주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시나이다,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약하는 것을,
"그것은 거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모두에게 거저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 곁을 지나쳐가나이다.
무익한 외침으로 조롱하는 그들,
주께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그 끔찍한 법령이
어디서 왔는지 합당하도다!
그들의 저주스러운 신성 모독을 용서하소서.
누가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돌려서,
그분의 동정심을 사게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셨나이까,
인류의 친구이자 구세주이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이여, 악마를 미워하라,
그가 전하는 다른 복음을-
"진리의 하나님은 그가 전하는 말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그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네.
소용없는 외침으로 조롱하였네
그리고 불충분한 은혜라고.

"의로운 신은 그들을.
파멸에 처하도록 하셨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셨네.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저주하시도록;
그들의 부족한 면과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저주,
또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기록을 믿지않은 것에 대해.

사랑의 신이 넘어진 자들 대부분을
그냥 지나치면서,

불쌍한 죄인들을 죽게 하였고,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았네."
 어찌 이들은 온화하게 말하며 칭찬하였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만 법으로 정하였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비명과 울부짖음 가운데 생각하네
 만군의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도살된 유령들을.
 갓 태어난 아기들로 가득한
 끔찍한 지옥의 그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의 간직하신 큰 뜻이 이런 것이었다네.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지키소서;
 피의 희생을 받으소서,
 죽임당한 모든 죄인을 위해!
 주의 자비의 큰 뜻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은혜는 성스럽고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표준을 들어 올리소서;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끄소서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

도덕적 책임과 진정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사실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웨슬리의 가르침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이 입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추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인간이 가진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신 유익이라는 알미니안주의적 확신에 대한 의존, 즉 "선행적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It is God that works in us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라는 말씀의 의미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It is God that of his good pleasure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라는 식으로 조금만 바꾸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of his good pleasure)라는 구절과 연결되는 이 단어의 위치는 인간에게서 공로에 대한 모든 상상을 제거하고 일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 먼저 하나님을 움직여 일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공로에 대해 자랑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그러한 모든 헛된 자만심을 차단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의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즉 오직 그의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집, VI, 508)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을 향해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며 창조주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 본성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소위 ‘자연적 양심’ (Natural conscience)이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막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빛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는 반대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조차도 "우리 자신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자신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Qui fecit nos sine nobis, non salvabit nos sine nobis)라는 합당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책, 511-13).

인격적 관계로서의 거룩함

웨슬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설교"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교회와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한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은 자신의 교파와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은혜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탐구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법을 인정하지 않고 웨슬리주의를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의 신학을 하나의 체계적인 전체로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의 능력이나 지적 완전성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성공회 신자였지만 종교적 회심의 영향으로 그의 사고에 역동적 요소가 도입되어 필연적으로 신학의 형식에 새로운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비국교도적' (the nonconformist) 영향, 신비주의자들의 깊은 영적 강조, 그리고 올더스게이트 (Aldersgate)에서의 역동적인 개인적 체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 데쉬너 (John Deschner)는 *Wesley's Christology* (웨슬리의 기독교론)에서 이를 잘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하늘로부터 직접 새로운 신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 밤 그에게서 낡은 신학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던 영향력이 낡은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에 접목된 것입니다. 낡은

가지는 그 특성을 잃지 않았지만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수액과 열매는 새것이었습니다.¹⁵

웨슬리는 이 점에서 매우 예민했습니다.

한 진지한 성직자가 우리가 영국 교회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교리는 영국 교회의 교리이며, 실제로 교회의 기본 교리는 기도문과 조항, 강론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집, I, 224-25).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녹아있는 신학, 이것이 바로 웨슬리안주의입니다. 우리는 웨슬리를 그의 신학적 배경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그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은혜 체험을 통해 그의 신학적 여정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속죄의 유익을 개인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하는 그의 새로운 차원의 신학은 점차 형식적인 신학에 반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리의 경우 신학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새로운 체계로 다듬을 시간도, 욕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저작에서 "성화의 신학" (theology of sanctification)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역동적인 영적 통찰을 기독교 신학에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마음의 뜨거움"은 성화라는 신학적 개념의 열매가 아니라, 뜨거워진 마음이 신학이 말하는 현실에 참여하면서 성화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우리가 인격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신학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했으며,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측면은 웨슬리안주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석의 원리인 하나의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통찰력과 관점은 웨슬리의 복음 제시 이면의 생각의 기초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해석의 단위에 속한 이면의 비판 이론입니다. 웨슬리의 근본적 관점, 즉 다른 관점과 동일시할 수 있게 만든 특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며, 신학과 삶의 모든 측면이 이러한 인격적 본성에 참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는

¹⁵ John Deschner, *Wesley's Christology*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69), 197.

이러한 사고 방식이 성경적이라고 느꼈고 인간의 본성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진정한 웨슬리안이라고 주장하는 "성결 교리"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회적 관심)는 그 주장에 의존하고 전체 웨슬리의 의도에서 그 관점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웨슬리 자신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도' (Intention)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특징 짓는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웨슬리인가? 그가 과연 옳았는가? 그는 신학적 권위자인가? 그 대답은 웨슬리가 '신학적 성화' (theological sanctification)의 역동성을 회복할 때 (루터가 칭의의 역동성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를 진리의 적절한 근원으로 인도하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진리를 조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이제 이 원칙을 웨슬리 교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해에 빠졌을 수 있는 잘못된 개념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웨슬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권위, 즉 성경에 호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서의 목표는 총체적인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본 저자의 권한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웨슬리안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몇 가지 교리에 웨슬리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모순을 발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에 조화와 힘과 매력을 가져다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역동성—사랑

요약하자면, 웨슬리의 궁극적인 해석학은 사랑입니다. 그의 생각의 모든 가닥과 모든 교리에 내포된 뜨거운 마음, 모든 설교의 열정, 그리고 기독교의 은혜에 대한 모든 주장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심적이어서 "웨슬리안"이 된다는 것은 아예 사랑의 신학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인간과 사랑 모두를 역동적인 틀 안에 두고 있으며,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그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천인적 경험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36 쪽)

제 6 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가 이 세상과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지가 결정됩니다. 인간 유전학의 기술적 조작과 “제조” 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회의 시스템, 정부 및 각 기관까지도 싫든 좋은 간에 인간의 자기 이해의 틀에 속해 있습니다 [Paul Ramsey의 *Fabricated Man* (조작된 인간) Yale University Press, 1970 및 William Kuhns의 *Environmental Man* (환경적 인간), Harper and Row, 1969 참조].

지구와 온 우주의 신비가 뒤로 밀려나고 인간이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의 주인이 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종교와 기도, 그리고 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종교는 단지 초창기 인류로부터 이월된 것이고, 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철학의 결과는 이미 “역효과” (backfiring) 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견하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힘을 양산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고아가 되고 겁에 질린채 마술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방향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며, 사생활과 자기 정체성의 벽을 허무는 식으로 동료들과 의사 소통을 시도하며, 자신이 지은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 초래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될수록 자신에 대해 더 적게 알게 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고 지적이고 교육받을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호기심과 불만, 그리고 온갖 유형의 매혹에 의한 이끌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갖 종류의 사물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굶주림이 그를 자신과 가족을 위해 힘들게 만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큰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두뇌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 어깨를 으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해 불만을

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얼굴을 들고 새로운 발견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진하지만 결코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정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그는 항상 과거의 업적에 조금만 발을 딛고 그 너머의 신비를 향해 무모하게 도약합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명령 가운데 매사에 성취를 위해 자신을 넘어서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충동이 자신의 내면과 지상으로만 향할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집니다. 그는 성취감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취는 항상 저 너머에 있을 뿐이며, 단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과장하여 채우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스스로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 무엇일 뿐입니다. 성취감은 성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는 뭔가 자기 자신을 너머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생물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인간에 대해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매우 많이 말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 "기독교적인" 것을 추론하고자 할 때, 인간에게 말한 것들을 "즉석에서" 포착하고, 인간에게 말한 것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피조물인지 가능한 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시드니 케이브 (Sydney Cave)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교리는 없지만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추정치는 있다"라는 말로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¹⁶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의미 있게 읽고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즉 "인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¹⁶ Sydney Cave, *The Christian Estimate of Man* (London: Gerald Duckworth and Company, 1949), 9.

인간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 다른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고 실제로 소통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에 대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무언가 심오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성적 차원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인간을 향해 쓰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표현을 상호 교환한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종교적 인간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 들어가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자발적 행위로서의 죄’(sin as a voluntary act), 또는 ‘도덕적 탈선’ (a moral defection)이 죄라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평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평입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인류의 유산인 도덕적 본성과 자유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존이라는 좁은 한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는 알팍한 추구에만 얽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명령에 의해 기독교인이 되거나 비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이끌고 충성심을 조사하며 사랑을 나누거나 보류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넬스 페레 (Nels Ferré)가 말했듯이 도덕적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로운 아들이 되려면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필수적입니다."¹⁷ 페레의 통찰의 핵심에는 반역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에만 진정한 도덕적 진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의 이해가 다른 지적인 존재와의 소통,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그 교제를 거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암시합니다.

기독교적 인간

¹⁷ Nels F. S. Ferré, *Evil and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7), 33.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체론과 관계론' (the substantial and the relational)입니다.

실체론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식별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 육체적 실체 또는 인간의 일부 기능 (예: 이성, '신성한 불꽃'/a divine spark, 창조적 능력) 또는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소유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을 비인격적 존재들과 구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은 단지 인간의 "형태" (manners)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모든 것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이든 비육체적이든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대체'(replacement)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같은 신학의 논리적 발전은 웨슬리가 반대했던 구원론에 대한 매우 '비영적이고 비도덕적인' (nonspiritual and nonmoral)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성결 신학이 종종 그러하듯이, 이 이론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식에 투영할 때, 일부 "신뢰성 격차"의 근원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인격에 새로운 '영' (spirit) 또는 성령의 실재가 마치 숫자가 더해지듯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견해에서 시작하여 그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또 그것이 발생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죄 많은 인간에게 그 새로운 영이 더해지는 관계,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식의 새로운 추가를 통해 과연 사람이 더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함으로써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관계적 관점은 이 주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식별하는 어떤 실체나 특징 또는 기능을 인간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의 인간과 그 둘 사이의 소통과 상호 반응,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취지는 것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Man is capable of God (전집, VI, 244)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태도, 즉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취하는 근본적인 입장으로서의 "자세" (posture)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지음 받은 인간(성경의 표현)은 이러한 관계적 관점을 실체적 개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in man)과 구별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웨슬리는 "형상"에 대해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형상과 관련된 그의 진술은 대개 구원 과정의 어떤 요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든 논의와 관련된 것은 영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형상"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는 구원론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적어도 이 개념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한 다음의 소개가 없이는 제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자연과 구별되는 웨슬리의 인간 개념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영만이 지상에 거하도록 설계되어 지상의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타고난 자기 운동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과 물질 사이를 적절히 구별하는 차이이며, 그것은 수천 번의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완전히,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이해력, 즉 그 앞에 놓인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애정과 열정 속에서 그것을 발휘하는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즉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자유가 없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된 것들일 뿐이며, 그는 흠이나 대리석 조각만큼도 창조주를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인간은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악이나 미덕을 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해력은 그 나뭇대로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류없이 진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에는 어떤 종류의 잘못된 편견도 없었으며 그의 모든 열정과 애정은 규칙적이었으며, 그의 정확한 이해의 지시에 따라 꾸준하고 균일하게 인도되었으며, 선한 것만 받아들이고 모든 선은 그 본질적인 선의 정도에 비례하여 수용했습니다. 그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의 이해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시에 따라 선택하거나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거짓없이 사랑하고, 일관되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가 그러하듯이)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를 끊임없이 보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입니다. (전집, VI, 242-43)

종교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가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하고, 만물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자비롭고,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는 형상, 즉 자신의 '영원성' (eternity)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순수하신 것처럼 모든 죄의 여지들에 대하여 순수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악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가 없었고 더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면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으며, 이는 사람이 생명이 된 순간부터 모든 시련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임무에 전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법 전체에 (아마도 그가 직접 죄를 지을 수 없었던) 한 가지 긍정적 인 법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에 좋게 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형벌을 덧붙였습니다. (전집, V, 54)

웨슬리의 "잃어버린 형상" (THE LOST IMAGE) 개념

그러므로 그 날에 그는 죽었으니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인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 생명을 구성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될 때 죽고,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러한 분리는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날, 그 시간 이후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그는 즉각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에서 소멸되었음을 보여 주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제 종의 처지의 두려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 쳤습니다.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지식조차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산 나무 사이에 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창 3:8).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불행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악마의 형상인 교만과 자기 의지와 멸망하는 짐승의 형상인 감각적인 식욕과 욕망에 빠졌습니다 (전집, VI, 67-68).

사랑과 의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성품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위한 모든 사람의 사랑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종결됩니다. (전집, V, 267)

웨슬리의 개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분명한 해설은 그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인간의 조건, 그리고 은혜가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단순한 자연 상태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뚫을 수 없는 두꺼운 베일이 그 위에 덮여 있으며,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귀머거리입니다. 그의 다른 영적 감각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들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그러므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세부 사항에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의 목적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으로 종교성이나 종교의 의무를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 지 여부가 아닙니다. 아니요, 복음적인 거룩함은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애정과 성품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 대한 지속적이고 감사하는 사랑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자비와 친절,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며, 그같은 식으로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흠이 없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우리를 덮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까지", 즉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거룩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전집, VI, 70-72)

하나님의 형상과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1744년 6월 26일에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가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전집, VIII, 279)이었습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믿음은 성화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A. "믿음은 성화의 조건인 동시에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짐에 따라 거룩함이 커지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거룩함이 커집니다. (Ibid.)

이 구절에서는 성화의 과정적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웨슬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역사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형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연적 형상 (영적 본성)과 정치적 형상 (통치 사명), 그리고 도덕적 형상 (거룩한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인간의 세 번째 측면이었으며, 그가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웨슬리의 이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창조 당시의 인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그의 모든 기질과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순수 자체이시므로 인간도 태초에 모든 죄의 오점으로부터 순수했습니다. (전집, VI, 66)

이는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와 대비되는 다음 인용문을 강조합니다:

구원이란 저속한 개념에 따라 단지 지옥에서 구출되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현재적 구출, 영혼의 원초적 건강, 본래의 순결의 회복, 신적인 본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 거룩함, 공의와 자비와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성품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대화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이 죄로부터의 현재적 구원을 의미한다면,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거룩함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사랑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한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영적인 친분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전집, VII, 47-48)

요한 웨슬리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인간과 사랑 모두를 역동적인 틀 안에 두고 있으며,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그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용된 구절들은 이미 일부 "웨슬리안주의"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른 강조점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전인격적 경험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위기의 지점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구원의 역동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기적 측면만을 의식하는 현대의 일부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와는 다소 급진적으로 대조됩니다.

이제 웨슬리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학의 특징이 되어야 할 인간과 그의 구속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성경에서 부지런히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연구는 이 책의 종류에 비해 지루하고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택된 성경 구절은 "증거 본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논의 중인 요점에 관한 모든 단어나 생각을 탐구할 때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유익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흠으로 된 사람

인류 (아담-인간)의 출현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영어로 된 구절을 가볍게 읽는 것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중요합니다. 이 장엄한 "새벽의 시" (Poem of the Dawn) 또는 "창조의 찬가" (Hymn of Creation) [참조: H. Orton Wiley, *Christian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2), 1: 450 이하]에서 *먼지와 형상, 모양, 창조, 만들어진, 생명의 숨* 등의 용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간과 죄, 구속, 거룩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은혜"의 모든 의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얻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창 1:26 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다음 (1:27)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두 번째 기록 (창세기 2 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장엄한 첫 번째 설명에 대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문체로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히브리어 복수형 '생명'/lives)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형성되고 (formed), 숨을 불어넣고 (breathed into), 그리고 생령이 되(becoming)*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사람이 지상에 출현한 사실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즉 이 용어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창세기 1-2 장에 제시된 중요 개념을 가리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역할은 인간과 역사, 그리고 세계에 내재된 가능한 모든 사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그의 우주의 의미는 다른 출처에서 파생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꾸밈없는 소개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종교적 의미를 확립합니다. 이 고귀한 개념은 히브리-기독교의 가르침이 현재 죄 많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 가정하는 모든 것에 선행하여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경험은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인간이 가장 비열한 순간은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착각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 창조적 긴장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유지해야만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즉 인간의 자유와 속박, 거룩함과 죄, 상상할 수 없고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과 약점으로 인한 패배를 근소화하고, 가장 신비하고 복잡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창 1:27 과 2:7 은 모순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기록은 인간이 장엄하고, 부패할 수 있고, 구속받을 수 있고, 무지하고, 타락할 수 있고, 창조적이고,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먼지’(Dust)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적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형태가 없고 입자가 미약한 특징이 있는 먼지는 해체와 분리, 애도, 죽음, 즉 신적 통일체인 ‘하나’ (the

One)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다수' (the many)를 의미했습니다.¹⁸ "먼지는 죽음의 형상이며 부패의 최종 결과이며 혐오와 증오의 대상입니다."¹⁹

개인적, 가족적, 국가적 사별, 재난, 불명예에 대한 유대인의 대응은 굶은 배움을 입고 먼지와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나를 버렸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일조한 '뱀'을 저주하여 흙으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으며 살도록 정죄하셨습니다(창 3:14). 죄에 내포된 궁극적인 타락과 쇠퇴, 그리고 거부를 이보다 더 중요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자신에게 내려진 슬픈 하나님의 "선고"(sentence)를 통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 네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라"(창 3:19)는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를 생명의 통합적 힘과 사회적 연대와의 연결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단지 멸종이 아니라 해체와 분리, 외로움, 그리고 어둠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를 육체라는 안타까운 감옥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에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속은 이 "흙으로 된 사람"(man of dust)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그는 죽음이 더 이상 쏘는 것도 없고 무덤의 승리도 없는 영생으로 옮겨질 것입니다(고전 15:55 참조). 이것으로 인간의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의 완전한 역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지는 구약성경이 어디에서나 가정하는 인격의 통일성과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생명, 즉 신적인 생명은 먼지를 흡수하여 생명체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물질주의"(materialism)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¹⁸ Alan Richardso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New York: Macmillan, 1951), 70.

¹⁹ Claude Tresmontant, *A Study of Hebrew Thought* (New York: Desclee, 1960), 6.

하나님의 호흡이 모든 피조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일과 세상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숨, 즉 영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죽음과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지가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먼지를 낳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²⁰

죄는 붕괴와 죽음과 먼지의 근원입니다. 현실의 중심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지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물질" (antimatter), 비창조성, 존재 또는 비존재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분은 생명과 힘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그분의 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실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확언이 아니라, 인간을 그 자체로는 생명을 생산해 낼 힘이 없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믿음입니다.

"흠으로 지음 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연구 전반에 걸쳐 교훈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역사"를 지닌 지상의 피조물입니다. 그의 몸은 자연의 질서와 공유됩니다. 그는 역사 속에 있으며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아래의 움직이는 생명체와는 다른 질서를 가진 '생명체' (living being)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묘사하여 동물의 삶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에 대한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인간은 창조의 가장 높은 질서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연 역사"이며, 그 순서는 대부분의 현대 과학 이론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 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며, 인간 자신과 인간과 지구와의 도덕적, 영적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창조의 전체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 눈을 뜨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의식과 양심,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여명을 지켜봅니다. 이 이야기에 내포된 절묘한 이미지 속에 심오한 심리적 역사와 분석이 묻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정교한 상징들을 지나치게 문자화 함으로서 그것들이 초래하는 어색함 때문에 보다

²⁰ Ibid., 7.

민감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잃지만 앎는다면 육체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인간의 온전함과 건강함에 대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우선, 인간은 육체입니다. 비록 먼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은 "모든 인간적 사고의 필수 조건"입니다.²¹ 몸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언어와 의사소통(인간 고유의 능력)은 사고에 의존합니다. 이 '육체-사고-언어 복합체' (body-thought-language complex)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이 수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통로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2. 두 번째로, 이해는 역동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의식은 "의도적"이며, 세상을 향한 돌파구입니다.²²

인간은 감각을 통해 주어진 것을 파악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선택하고, 조사하고, 지배합니다. "이해라는 행위는 움직임 없이는 실현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²³

인간은 역동적인 존재이며,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담은 마치 새로운 창조물처럼 자신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상은 쾌적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 (생명나무)과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3. 인간 의식의 다음 차원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격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통에는 이성적 피조물의 경우 이해가능한 관계성의 유지를 위해 항상 수반되어야 하는 도덕적 차원이 수반됩니다. 교제는 항상 상대방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교제의 상실과 소외의 고통을 방지하는 경계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숙합니다. 도덕법은 인간 존재의 기본 사실을 보호하는

²¹ Jacques Sareno, *The Meaning of the Bod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119.

²² Ibid., 121.

²³ Ibid., 122.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니다. 법은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니다.

4. 인간의 자기 이해의 네 번째 단계는 영성의 또 다른 차원인 인격적 교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기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구약성서의 인간은 21 세기의 인간들처럼 진정한 개인주의자일 수도 있지만, '개별성' (individuality)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생각에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니다. 혼자가 되는 것, 동족과 분리되는 것,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구약 시대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니다.²⁴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보완해 주었는데, 이는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니다. 그들은 함께 땅을 지배했습니니다. 그들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웠습니니다. 함께 유혹에 맞서고 마침내 유혹에 굴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니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력은 매우 강해서 아담은 그의 호손들에게 산처럼 견고한 피라미드의 '우두머리' (the head)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니다. 그 우두머리가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으로 간주되어 공동의 형벌을 받았습니니다 (아간 이야기 참조). "순수한 개인주의는 현대적 현상입니다."²⁵ 서양의 경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집단적 인격" (corporate personality) 개념은 성경적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풍부한 상징성에 대해 불쾌감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뿐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창세기 2장은 1) 인간이 지능과 통찰력, 자기 이해, 목적의식, 그리고 영성에 있어서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2)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 즉 사회 (남성과 여성)를 구성하며 살아간다는 것; 3) 그의 세계, 즉 지구는 그의 집과 그의 활동 영역, 그리고 그의 궁전이지만 그보다 더; 4)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 점에서 다른 모든 창조 질서와의 구별,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의 괴로움); 5) 인간 자신의 타락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나이다"(시 103:14). 그러나 먼지, 곧 티끌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세한 것은 먼지가

²⁴ George A. F. Knight, *A Christia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59), 27.

²⁵ Ibid., 31.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며, 그 덕분에 먼지는 존엄성을 얻게 되고 인간은 주님과 매우 유사한 관계에 서게 되며, 그 관계는 그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만들 정도로 소중하며, 또한 위험스러운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펠라기우스적 인본주의로부터 확실하게 "구출" (rescued)될 수 있으며, "흠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타락성은 인간을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어거스틴의 비관론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와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요성을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현세적 차원이 아니라 죽음과 대조되는 통합적 인격의 특성이며, 이러한 창세기의 상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정확하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의 정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심리학과 관련 신학에 대한 유용한 이해를 얻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의미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형상과 모양을 단순하고 무의미한 히브리어 병렬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발달, 죄와 타락으로부터의 회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구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톨릭 신학은 전통적으로 형상과 모양은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성화 은총, 즉 초자연적 은사로 해석되는 형상은 비록 상실되었지만 세례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이 "선물"의 명백한 실체 개념은 개신교로 하여금 이 견해를 경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A. 히브리어 단어 연구

1. '형상' (Image)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구약성경에서 이 두 용어가 매우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았다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 문학에서 잘 알려진 히브리어의 병렬적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칠십인역본’ (the Septuagint)은 이러한 구분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있으며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근거로 이 구별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건전한 성경 연구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구별이 정당하다면 신학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특정 신학적 확언에 대해 약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게세니우스 (Gesenius)에 따르면,²⁶ ‘형상’ (image)으로 번역된 단어(*צֶלֶם*)는 “그늘지다, 어둡다”라는 동사(아랍)의 동족어입니다. 이 ‘그늘’ (shadow)의 개념에서 ‘그림자’ (shade)라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그림자는 원래 물체의 윤곽에 드리워진 어두운 부분으로, 이미지였습니다. 게세니우스는 헬라어 *skia* 를 적절한 동의어로 언급했는데, Thayer 는 이를 “사물에 의해 드리워져 그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²⁷

창 9:6 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언급된 이후,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형상이 재차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 형상은 사람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우상 또는 깎거나 녹인 것 등으로 표현됩니다. 사물(삼상 6: 5, 11), 사람(겔 16: 17, 23: 14), 하나님(민 33: 52, 왕하 11: 18, 겔 7: 20)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기록과 창세기 5 장의 요약(셋과 아담의 관계에 관한 추가 진술과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권고, 창 9: 6)에서만 창조주와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사례에서 형상은 어떤 아이디어나 원형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이나 틀에 대한 확실한 적합성입니다.

2. ‘모양’ (likeness)

²⁶ Geseniu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1893)

²⁷ Joseph Henry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1886), 578.

‘모양’ (תַּמָּוֹת)은 이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비교, 모방 또는 닮음’(comparison, imitation, or becoming)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빗슨 (B. Davidson)은 이 단어가 Niphil 형으로는 ‘되다 또는 닮다’ (to be or become like)는 뜻이며, Piel 형으로는 ‘비교하다 또는 닮다 (to compare with or become like)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²⁸ 마음 속으로 ‘비유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시 50:21, 사 10:7), ‘목적하다’ (사 14:24), ‘기억하다’ (시 48:9) 등이 구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몇 가지 예입니다. 구약성경의 다른 대부분의 경우 모양은 비유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며, 두 가지를 동일시하기 보다는 서로 비교 지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바퀴 모양과 같고..."(겔 1:16), "뱀의 독과 같고"(시 58: 4), "사자와 같고"(시 17: 12), "알과 같고"(애 2: 9, 17)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법도 분명히 뒤따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8);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겔 1:5). ‘형상’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모양’도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단 한 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2) 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맥상 그의 열망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지위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할 것입니다.

전치사조차도 이미지와 형상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 1:26 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בְּצֶלְמֵנוּ/in Our image)라는 구절의 전치사 בְּ (in)는 주로 한 장소에 존재하고 머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원본의 형태를 보관하는 사본의 보관 규칙 또는 표준과 같은 의미입니다.²⁹ 그 구절과 닮은 꼴은 욥 21:11의 ‘양떼 같이’ (כְּצֹאֵן /like a flock)의 כְּ (as, like, as if)을 들 수 있습니다.³⁰

²⁸ B. Davidson, *The Analytical Hebrew and Chaldee Lexicon*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48), 151-52.

²⁹ Gesenius, op. cit., 105.

³⁰ Ibid., 440.

B. '칠십인역'(Septuagint) 단어 연구

히브리어 경전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성경을 조사한 결과,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형상'의 경우 *eikon* 을, '모양'의 경우 *homoíosis* 를 사용하였음을 발견했습니다(*Vetus Testamentum Graece*, Lipsiae Sumtipus Ernesti Bredtii, 1868). 이러한 번역과 구분은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Gesenius와 Thayer 및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C. 헬라어 단어 연구

1. 형상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eikon* (이미지)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역사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로제타 석상 (Rosetta stone)에서 이 단어는 건축 중이던 프톨레마이오스 (Ptolemy)의 동상(*eikóna*)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³¹ 다른 초기 기록에서는 공식 문서에서 개인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티에메 (Thieme)는 골 3:10과 고후 4:4과 같은 신약성경 구절에 신들의 형상들 (*eikónes*)을 세우는 고대 관습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지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단어가 분명히 상징적인 언어인) 밖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 중 하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히 10: 1). 하나는 사람이나 동물, 새, 파충류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며(롬 1:23), 또 하나는 (각 공관복음에서) 동전에 새겨진 시저 (Caesar)의 그림을 묘사합니다(마 22: 20; 막 12: 16; 눅 20: 24).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적용됩니다(고전 11: 7). 그런 가 하면, 사람이 지상에 있는 형상을 하늘의 형상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하기 합니다(고전 15: 49). 이 모든 용례는 형상 또는 형상화된 것 중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실체를 암시합니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인간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롬 8: 29, 고후 3:18; 4:4; 골 1:15; 3:10).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드러나는 형상 개념의 구체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말하는 구절들은 현재

³¹ James Hope Moulton and George Milligan, *The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49), 183.

진행형 시제 *metamórphoustē* (변형된)와 *anakainoumenon* (개조, 갱신, 골 3: 10), 그리고 *sommorphous* (본받음, 롬 8: 29)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용법에서도 형상과 모양 사이의 동일한 구별이 발견되었습니다. Thayer 에 따르면 *Homoíōsen* 과 그 동족어는 "닮다, 비슷하다, 닮다, 대응하다, 되다 또는 된다, 한 가지를 다른 것과 비교하다 또는 비슷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³² 몰튼과 밀리건 (Moulton and Milligan)은 부분적으로 "같은 성질", "같은 계급 또는 지위" (고대 헬라어), "같은 방식으로" (히 4: 15, 7: 15)라고 말했습니다.³³ 원형을 의미하는 *eikon* 과 구별되는 *homoíoma* 의 "닮음" 또는 "형태"는 "우연적"일 수 있으며, "한 알이 다른 알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신약성경 구절을 살펴본 결과, 이 단어가 34 번에 걸쳐 포물선 형태로 비교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 7: 24; 막 4: 30; 눅 7: 31; 등). 8 번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히 4: 15), 뿔기세덱처럼(히 7: 15), "[죄 많은] 사람의 모양으로"(빌 2: 7),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약 5: 17)과 같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의 신체적, 도덕적 또는 영적 특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6~7 번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도덕적, 영적 닮음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 2) 식입니다.

다음 구절에 주목하면 구별해야 할 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뿔기세덱은 인간적 정체성이 아니라 특정한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히 7: 3).

빌 2:6-8에는 흥미로운 용어의 결합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존재론이 아닌 관계를 대조적으로 표현)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롬 8:3 에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죄 없는 식으로 죄로 얼룩진 종족의 육신을 닮았습니다.

³² Thayer, op. cit., 445.

³³ Moulton and Milligan, op. cit., 448-49.

형상과 모양 사이에는 상당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대 교회 교부들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상’ (eikon)은 항상 그것이 파생되고 그려진 원형을 가정하는 반면, ‘모양’ (likeness)을 뜻하는 homoiótes, homoíosis 및 이 계열의 단어는 존재론적 친족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유사성 또는 닮은꼴’ (a similarity or resemblance)을 표현합니다. 형상이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결코 단순히 닮은꼴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 또는 견고한 효심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세부 사항의 비교 또는 근사치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같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이 인간이 창조된 어떤 것이며,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형상과 모양은 모두 특정한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서 기자들은 인간 자체에 대해 추측하지 않고 인간 관계와 도덕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형상은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standing before God) 경험을 가리키는데 비해, 모양은 인간이 해야 할 일과 그 도덕적 경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방식일 때 의미가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단어들

성경이 단일한 형태의 인간을 가정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연구한 결과 도출된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호기심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풍부한 어휘는 주로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마음의 충동, 태도 및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과 더불어 많은 필수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잘 정의된 실체이지만, 동물과는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개인이기도 합니다. 로저 J. 윌리엄스

(Roger J. Williams)는 그의 저서, *You Are Extraordinary* (당신은 특별합니다)³⁴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기분이나 지능, 통찰력, 성향, 반응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무수한 면에서 평범함과 다른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서 독특합니다. 특히 합리주의 시대의 철학과 신학은 "인간 본성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며 고정된 것이라는 합리주의적 도그마의 비호 아래 인간 행동의 보편적 법칙"³⁵을 추구해 왔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인간에 대해 제시된 보편적인 절대 법칙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I.Q. 테스트조차도 평균으로 간주되는 것과 개인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정상성에 대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시드니 해리스 (Sydney Harris)는 "소위 '정상' 유형은 2 류 직업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일류인 사람들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통찰력 있게 말하였습니다.³⁶ 즉, 다름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이러한 역동적인 특성은 성경 공부를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形形色색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인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에 인위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너무 단순하고 흑백논리적 인간 본성의 분류를 강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덕적, 영적 쇄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향과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이나 선과 악에 대한 깔끔한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정관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정신, 육체, 영혼, 그리고 영' (mind, body, soul, and spirit)과 같이 헬라어가 제공하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플라톤주의에서 파생되어 기독교 신학으로 옮겨온 인간에 대한 친숙한 이원론적 관점이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³⁴ Roger J. Williams, *You Are Extraordinary* (New York: Random House, 1967).

³⁵ Carl E. Braaten, *History and Hermeneutics, New Directions in Theology Toda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II, 35.

³⁶ Sydney J. Harris, "Strictly Personal, Psychiatric Flaw," *Nashville Banner*, July 30, 1968. Copyright 1968 by Prentice Hall Syndicate.

구약성서 기자들은 신체의 다양한 부분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기본과 표현, 그리고 '영혼' (soul)을 특징짓는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역동적인 관점을 표현하였습니다.

‘총체’ (a totality)로서의 인간의 영혼은 심장이나 간, 신장, 그리고 장과 같은 신체의 중심 기관뿐만 아니라 혀와 귀, 그리고 눈과 같은 말초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주어진 순간에 다양한 징후 중 하나로 "영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서(52: 7, 59: 7-8)에서 두 번(롬 3: 15, 10: 15) 인용하여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라는 인간의 구성 부분, 즉 실체가 아니라, 발이 만들어 내는 용도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이 그 발로 무슨 일을 하는 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개념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에 관한 가르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용어는 이교도적 의미를 신약성경의 용법에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 인격의 통일성이 모든 곳에서 전제됩니다. 마음과 정신, 혼, 영, 양심, 육체, 그리고 육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간편히 구분할 수 있는 한낱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문법적 변형과 함께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와 혼, 그리고 영’ (body, soul, and spirit) 식의 사변적인 삼분법은 신약성경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한 개념에 양심이 어떻게 추가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플라톤 식의 이원론적 개념에 안주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은 삼위일체식 또는 삼분법적 개념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의 "운동" 또는 역동성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³⁷ J. Philip Hyatt, "The Old Testament View of Man," *Religion in Life* (Autumn 1945), 528.

히브리인은 자신의 역동성을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자아, 즉 그의 전체성은 더 큰 통일체, 즉 사회적 실체와의 관계에서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과 동양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심오한 집단 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인은 본질적으로 조상과 가족, 부족, 또는 국가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형이상학적 또는 유전적 통일성(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오해한 해석)이 아니라 인류의 핵심을 관통하는 영적 상호 연결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loins) 안에 있다거나 (히 7:10)] '아담과 더불어' (with Adamic) 죄를 짓는 것을 선이나 죄책감의 유전적 전달 이론과 같은 것으로 철학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변적인 경향을 자제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론적 질문은 성경에서 제기되거나 대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 인간은 자신에게 자신을 전달하고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성경 외적 자유의 개념들이 취해졌습니다. 가톨릭은 "이성"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그 자체로 "그 형상" (the image)이라고 가정하는 잘못 외에도, 히브리 사람이 이성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성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성은 전체 인간과 분리될 수 있는 지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책임감 있고 이성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개신교 작가들은 인간에게서 "형상"을 찾았습니다. 칼빈은 타락 이전의 무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아담 안에서 빛났던 인간 본성의 타락하지 않은 탁월함, 그러나 그 후에는 너무 타락하고 거의 소멸되어 폐허에서 혼란스럽고 훼손되고 더럽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nstitutes*, XIV, 4). 그러나 이 생각은 타락 후 인간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 (살인)은 살인자 자신의 피로 보상되거나 처벌될 것이라고 말한 창 9:6 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의 성경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후 4:4 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하며, 다시 골 1:15 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선언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히브리서를 쓴 유대인 학자는 이 개념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 1:3).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ἀπαύρασμα, ‘광채, 새벽, 빛나다 또는 빛을 발하다, 분별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이어 단어)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χαρακτήρ, 어떤 대응품 또는 “대리자”/substitute or “stand-in”와 구별되는 정확한 것을 가리키는 헬라이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 ‘character’ (성품)가 유래한 단어이며 특정 사물을 인식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속성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 (representative)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화 (personification)였습니다.

더 적절한 차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몇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롬 8:29) 미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골 1:15 절은 또한 그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처음 나신 자”라는 말씀으로 형상에 대한 은유와 연결시킵니다. 이 관계의 역동성은 또한 고후 3:18 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9-10).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의 세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케공합니다... 아무도 성령을 위해 울며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태도의 변화는 우리 편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175 쪽)

제 7 과: '신약성경의 인간' (New Testament Man)

예수님의 인간 개념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을 고려할 때, 주님께서 친히 위하시며 그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내적 욕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시대를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모두 인간에 대한 논의를 종교적 본성으로 제한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가 인간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칭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인간 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는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제시하였습니다."³⁸ 인간 본성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이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이상적 또는 본질적으로, 즉 신적인 목적에 따라 드러내는 것"과 둘째, 인간을 실제 또는 실험적으로,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³⁹.

이상적으로 말하여, 인간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 -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을 기억하면, 저자가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³⁸ G. Campbell Morgan, *The Teaching of Christ* (New York: Fleming H. Revell, 1913), 113.

³⁹ Ibid., 114.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마 4:3).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현실과 도덕적 선택의 가능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 4: 6). 그러나 그 너머에는 인간의 소명, 즉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 "이르되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 9). 여기에는 오직 명예를 지킴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지배권을 오히려 명예를 파는 식으로 얻게끔 하는 유혹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삶의 진정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통일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2-23). 다시 말해, 오직 한 마음, 즉 하나의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자신이 지음 받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double minded)으로 인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대한 야고보의 권면은 이 구절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약 1:8; 4:8)

인간에 대한 영적 관점의 우선 순위는 다음 구절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 28)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 16: 26)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눅 12:15).

‘유예 기간’(probationary)으로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알고 싶어하는 질문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보다 더 명확하게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마 22:37-40). 예수님은 도덕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헌신을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충족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삶의 근본 법칙입니다."⁴⁰ 책임 있는 선택의 근거로서 자의식을 인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으로서 인간의 삶에 대한

⁴⁰ Ibid., 121.

인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역시 감정이 아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를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선의와 배려의 신중한 균형과 방향 속에서만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상적인 관점의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실제 인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최고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이 또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악"하고 상처를 주고 살인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마 7:11)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이중적 조건, 즉 (1) 선의 능력과 (2)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부도덕하게 몰두하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인식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책임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판단 기준, 즉 그의 "말"에 의한 증거로서)이 악한 마음에 대한 생각과 결합된 다른 곳에서 더욱 생생하게 선언됩니다 -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4, 37).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의 죄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마음에서 그는 악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막 7:21; 참조, 마 15:17-20). 사람이 더럽혀졌다는 증거는 그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 3:6-7).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욕망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19-20).

예수님에 따르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한 가지 능력인 믿음의 소멸이 심판의 최종 근거가 될 것입니다 -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8). 반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에서 그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시거나 사람을 그저 "단순한 사람" (mere man)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 자신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상관없이 각 사람에 대한 그의 깊은 존경심은 결코 그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노와 성전에서 휘두르셨던 채찍은 모두 사실상 "너희는 나와 동등하다. 나의 분노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존중을 나타낸다. 이제 너희가 마땅히 될 수 있고, 또한 꼭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으로, 즉 더 쉬운 멍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모든 유형의 자기기만을 밀어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바울의 개념

인간 본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단지 다른 방향에서 그 주제를 다룰 뿐, 예수님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죄성을 배경으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의 본질이 또한 거룩함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바울의 철저한 이해는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의 비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 사람"(롬 6:6; 엡 4:22; 골 3:9), "죄의 몸"(롬 6:6), "죄의 법"(롬 7:23), "...사망의 몸"(롬 7:24), "육신의 생각"(롬 8:7), "죄의 종노릇"(롬 8:21). 또 다른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엡 2:1);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엡 4:18); "세상의 영"(고전 2:12); "내 안에 거하는 죄"(롬. 7:20); "상실한 마음"(롬 1:28); "죄"(ἁμαρτία), 그 외 여러 곳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롬 8:2); "육에 속한 사람"(정신) (고전 2:14)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좀 더 확장된 논의에서 인간의 본성과 그의 죄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A. 롬 1:18

인간의 지능의 왜곡을 통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드러납니다. 죄는 명백한 불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을 품음으로써 사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5).

여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나 무엇이 옳은가, 또는 참인가 (이성적인 존재의 적절하고 필연적인 관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 구현된 진리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개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욕망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사악한 동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 파괴의 핵심이며, 의심과 탐욕, 이기심, 그리고 결국 살인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친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선의 근원을 악으로 해석하며, 악을 선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마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막 3:22-30). 이 죄는 진리를 인식하는 힘을 파괴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구조화된 사람 만이 그러한 의심을 품고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비난은 진리를 알 수 있을만한 사람에 대한 것이며, 인간이 진리를 방해하고 억누르며, '억제하고' (κατεχόντων/suppressing) 있으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도덕적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진리의 분량은 그를 고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연인조차도 (1) 자연 계시 (보이는 것)와 (2) 직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 되심"(God-ness)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어둠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20).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력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해 도전하고 불순종하여 아담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보류하신 지혜를 기꺼이 얻으려고 한 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권세는 자신의 손으로 실제 사물을 모방하고 타락하게 숭배하는 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숭배하기 위해 절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닮은 형상이고, 그 다음에는 짐승을 닮은 형상이며, 마지막으로 파충류의 형상입니다.

바울이 제기하는 세 번째 혐의는 인간이 창조주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는 "거짓말"을 진리와 교환한 사람들 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관사는 신약성경에서 단 네 곳 중 한 곳인 "거짓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죄가 무엇인지, 즉 사람이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각적 타락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롬 1:28)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극적으로 죄를 즐기는 것(롬 1:32)까지, 그리고 거짓말을 이상과 목표로 삼는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1) 바울은 사람들이 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2)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3)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왜곡과 타락이 이러한 고의적 거부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B. 엡 4:17-19

죄의 근원과 타락의 과정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생생한 설명은 에베소서 (4:17-1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하면서 이방인의 특징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Thayer 에 따르면 '허망함' (*ματαιότητος/vanity*)은 순전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진리가 없는" 왜곡과 타락을 의미합니다.⁴¹ 이 상태는 눈이 먼 이방인의 마음(*voûs/mind*)을 특징짓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왜곡으로

⁴¹ Thayer, op. cit., 393

인해 어두워진 ‘이해’ 또는 총명’ (διάνοια/understanding)이 생깁니다. 도덕적 상태인 마음의 실명에서 비롯된 "무지"(ἄγνοια/ignorance)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ἀπαλλοτριόομαι/alienate)시켰습니다. Thayer 는 ‘소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those who have estranged themselves from God)로 번역합니다.⁴²

헬라이어 본문에서 사용된 수동태의 강도로 보아 이 소외는 의지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버린 채 부정한 것에게 가들 자신을 "포기"했고, 그 결과 완전한 도덕적 배교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깊이는 "욕심으로" 라는 마지막 구절에 도달합니다. 고의적인 일련의 부도덕한 선택에 의해 거룩한 포기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주어진 그 능력이 이제는 방탕을 사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1) 진리가 없는 마음, (2) 맹목적인 무지, (3) 도덕적 광기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 타락한 상태의 본질에 대한 더 많은 이해는 일련의 대조가 제시된 바로 뒤에 나오는 평행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엡 4:25-32).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엡 4:20). 첫 번째 대조는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덕적 선택에 따라 진리가 없는 마음 대신에, 진리로 가득 찬 마음이 있습니다 -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엡 4:21). 두 번째 대조는 마음이 굳어져서 생기는 어두워진 이해력 (엡 4:18) 대신에 심령의 새로움에 있습니다 (엡 4:23). 이 생각은 ‘옛사람과 새사람’ (old and new man)이라는 용어에 의해 증폭됩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악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무감각(엡 4:19) 대신에 선한 행위에 대한 고도의 도덕적 민감성의 대조입니다 (엡 4:25, 32). 이러한 대조는 바울이 염두에 둔 죄가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C. 골로새서

세 번째 구절은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한 바울의 개념을 조명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대조가

⁴² Ibid., 54.

있습니다. 소외된 마음 (diánoia)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골 1:22) 마음과는 정반대 극에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타락' (perversion)의 깊은 내면성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마음의 타락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음의 경향'뒤에는 진리와 절대적인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attitude)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모든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의 타락 때문에 행동의 관대함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단어 연구

대부분의 경우, 특히 바울 신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noûs* (nous) 또는 일부 동족어가 이러한 타락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단어와 파생어가 많이 있지만 *diánoia*, *phrónema* 및 *noéma* 와 같은 단어들이 그 주제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1. *noûs* (nous)는 첫째, 단순히 '마음' (mind)으로 번역되지만, 어떤 도덕적 관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법은 히브리 사상 배경에서 항상 그렇듯이 더 예리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Thayer 는 그것이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적인 능력이지만, 또한 영적 진리를 위한 능력, 신적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선을 인식하고 악을 미워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⁴³ 신약의 각 책에서 이 단어의 용법을 일일이 검토해 보면, 의미의 독특한 변곡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넘겨주었습니다 (롬 1:28). 한 다른 법이 바울의 '마음의 법'과 대항했으며 (롬 7:23),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롬 7:25). 그런 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하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롬 11:35)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⁴³ Ibid., 429.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또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롬 14:5)고 권합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 서신에서 세 번에 걸쳐 사용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자들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고 권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고 말합니다.

그 외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행해서는 안 되며 (엡 4:17),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 즉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엡 4:23). 음식과 음료의 의식적인 가치와 “거룩한” (holy) 날과 환상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골 2:18)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좋아하는 이성애 의존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의 도래와 관련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것”(살후 2:2)을 권합니다. 조잡한 물질주의(경건을 얻는 길로 가정)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딤후 6:5)의 특징이며,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딤후 3:8)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 믿음”(딤후 3:8). 디도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딤후 1:15)라고 경계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nous 는 도덕적으로 진리와 관련된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판단하고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진리와 그릇된 관련을 맺게 되면,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며, 부도덕한 결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쇠신과 변형을 필요로 하며, 진리와 올바르게 관련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총 17 개의 참고 구절 중 8 개는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고, 2 개는 갱신을 다루며, 3 개는 거듭난 자의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4 개는 같은 맥락의 기타 참조입니다.

2. νοῦς의 또 다른 동족어인 διάνοια (dianoia)는 Thayer 에 따르면 “이해, 느낌, 갈망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 ... 생각, 즉 영, 사고와 느낌의 방식”을 가리킵니다.⁴⁴

διάνοια 는 신약에서 일곱 번 사용되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포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 막 12:30; 눅 10:27).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구약의 약속은 히브리서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8:10; 10:16). 베드로는 신자의 마음을 두 번 언급합니다 -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벧후 3:1). 거듭나지 않은 정신과 관련해서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엡 2:3)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골 1:21)라는 식으로 두 번 언급됩니다. 이것으로부터 διάνοια의 기능은 마음의 구부러짐, 즉 애정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설득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것은 소유자에 의해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νόημα (Nóema)는 4 번 사용됩니다. 끝의 “ma”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생각하고 목표하는 기능 자체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에서 생각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그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고후 3:14)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고후 4:4)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브가 미혹을 받은 이유입니다 -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 3). 이 점을 기억할 때 빌립보서의 바울의 축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7). 죄의 자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 생각과 목적의식은 악이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불신은 이 기능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불신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불신은 “이 세상의 신”이 인간의

⁴⁴ Ibid., 140.

도덕적 삶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브가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이 바로 이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영어로 마음으로 번역된 네 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φρόνημα* (phrónema)인데, 동사 *φρονέω* (phronéo)가 먼저 고려됩니다.

Thayer 는 그것에 대해 "어떤 일에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내면의 의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⁴⁵ Moulton 과 Milligan 은 이 개념에 대해 "생각이 나아가는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수에리스는 마음을 바꾸고 방앗간을 떠나 떠났다" (Soueris changed her mind, left the mill and departed)는 문장의 예를 들었습니다.⁴⁶ "정신이 멀쩡하다"는 뜻의 *noún kai phronón* 은 흔히 쓰이는 문구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 약 12 번 정도 나옵니다 (롬 12:16; 고후 13:11; 갈 5:10; 빌 2:5; 3:15, 16, 19; 4:2 등). 신자들이 사물에 대해 "같은 마음" (the same mind)을 가질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고후 13:11; 롬 12:16; 빌 2:2; 2:5; 3:16 및 4:2; 딤후 2: 6).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이 두 번, 육신의 일과 지상의 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옵니다 (롬 8:5-6). 이 검토를 통해 중요성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φρονέω*의 동족어는 명사 *φρόνημα*이며, 접미사 *-μα*는 동사가 수행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향이나 마음의 집합입니다. Moulton 과 Milligan 은 *φρονεῖν* (phroneín)의 내용을 "생각과 동기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제시하며, 로마서 8:7 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되지 않으며, 참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⁴⁷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모두 같은 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소망과 열정을 알고 계십니다 -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7). 다른 두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나는

⁴⁵ Ibid., 658.

⁴⁶ Moulton and Milligan, op. cit., 676.

⁴⁷ Ibid. 11.

용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에덴동산에서의 첫 번째 계명인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롬 8: 6)이며, 이것은 가슴 아픈 대조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오랜 저주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삶과 죽음

죄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도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죽음’ (death)입니다. 인간 존재의 전체 범위가 죽음의 저주 아래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조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 로버트슨 니콜 (W. Robertson Nicoll) 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없이 죽음의 비유를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각각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 내에서 “육체적” (physical) 죽음과 함께, 그것과 다른 “영적”(spiritual)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암시하는 모든 생각들이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⁴⁸

그러나 영적 죽음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라는 데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바울이 죄의 본성에 대해 묘사하는 많은 부분에 죽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죽음은 가장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영혼의 가장 깊은 성향 또는 의도인 *φρόνημα* 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다른 모든 능력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진리를 거스르는

⁴⁸ W. Robertson Nicoll,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n.d.), 627.

고의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관한 한 죄의 핵심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죄의 저주인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든, 바울은 죽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즉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롬 5:12). 이 죽음이 죄와 공존하며 수반됩니다 (롬 5:21). 로마서에서만 여덟 번이나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로 간주됩니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모든 사람은 사형선고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6)라고 말하며,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일 3:14)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확장된 분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죽음의 의미에 관한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죽음에 대한 철학을 제기하는 것이 더 순서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앨버트 반스 (Albert Barnes)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 (로마서 5 장)은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의한 선물” (15 절), “많은 범죄”에 대한 용서로서의 “칭의” (16 절), 구속받은 자의 삶에 대한 영생에 의한 통치 (17 절), “생명의 칭의” (18 절)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죽음” (12, 17 절)과 “심판” (16, 18 절)이라는 단어는 반대입니다. 분명한 의미는, 여기서 사도가 사용한 “죽음”이라는 단어는 죄에 의해 도입된 ‘악의 기차’ (the train of evils)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대비로서 단순히 부활이나 현세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생을 묘사합니다.⁴⁹

⁴⁹ Albert Barnes, *Notes, Explanatory and Practical, on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866), 125.

대조에 대한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G. Campbell Morgan 에 의해 인정됩니다. 그는 로마서 5 장에서 다음 세 가지의 대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거저 주는 선물의 대조입니다. 죄로 인한 ‘사형 선고’에 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대비적 불균형은 "더욱 많이"라는 문구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 대조는 범죄와 거저 주시는 은혜의 문제, 따라서 심판과 칭의 사이의 대조입니다. 역시 그 대비적 불균형은 다시 "더욱 많이"라는 문구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넘쳐나는 승리는 심판이 사람들에게 대한 죽음의 통치를 의미하는 반면, 칭의는 생명에 의한 통치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대조는 ‘죽음에 의한 통치와 은혜의 통치,’ 즉 죽음을 초래하는 죄의 통치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의를 통한 은혜의 통치 사이의 대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대비적 불균형은 "더욱 넘쳐나게" 라는 구절로 표시되는데, 이는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압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⁵⁰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비 존재’ (non-existence)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열조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being gathered to one’s fathers) 즉 흠어진 영혼들과 함께 ‘산 자의 땅’ (the land of the living)과 단절된 음침하고 무의미한 존재인 스올에서 떠난 영혼과 합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⁵¹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을 끝내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국가의 교제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외로움, 개인적 성취의 종말, 완전한 좌절과 정신적 고뇌를 의미했습니다. 개인의 존재가 가족 및 사회 단위의 결합과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는 동양인의 사고 속에서 삶의 연결고리로부터의 고립은 고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의 단편 희곡인 ‘출구는 없다’ (No Exit)는 서로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이지만 그 무자비한 노출 속에서 소통이 단절되고 탈출구가 없는 지옥에서의 정신적 고뇌를 다루고 있습니다.

⁵⁰ G. Campbell Morga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9), 72-73.

⁵¹ Richardson, op. cit., 60.

신약성서 기자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죽음' (death)을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life)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운명인 절망의 최종성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어떤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를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힘은 깨어 있고 활동적이지만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적절한 조직화의 중심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의 가장 활동적인 능력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아가페' (agape)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말합니다(마 22:37-40; 롬 13:10). 그러나 동일한 기능이 그 에너지를 스스로를 위해 소비하려고 할 때 그 기능 자체가 높은 품질을 잃고, 그 표현 역시 사랑의 반대 범주인 '욕심' (lust)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이 관찰과 병행하여 깊이 관련된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연결 고리에는 영적 생명에서 파생된 거룩함, 즉 '죄 없음' (sinlessness)이 있습니다. H. 오튼 와일리 (H. Orton Wiley) 는 그의 미공개 강의 노트, "성결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Holiness)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슬리는 논증을 제시하는데, 죄가 초래하는 죽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 생명을 구성하는 연합체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될 때 죽고,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그는 즉각적인 증거를 주었는데, 현재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에서 소멸되었음을 보여 주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집, VI, 67)

요한 플레처 (John Fletcher)는 이 점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명료합니다:

‘죽었다’ (dead)는 말은 성경에서 시체와 같은 완전한 무력감에 미치지 않지만 극심한 무력감과 비활동성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고 읽습니다. 만일 누가 그러한 표현을 잉태하기에 부적합하였던 사라의 태와 아브라함의 몸이 둘 다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지독한 칼빈주의자임에 틀림없습니다.⁵²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망의 몸’ (the body of death)에 대한 그의 논의 역시 같은 맥락의 지적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바울]가 아주 죽었다면, 마른 뼈처럼 불평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⁵³

마지막으로 강력한 주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인간의 세 가지 인격과 대조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엡 2:1)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주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매우 활동적인 능력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험하는 "그리스도의 영"(롬 8:9)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엡 2:2)과 대조됩니다. "영적"(spiritual)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고전 2:16)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엡 2:3)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속하는"(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심"(엡 2:3)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령의 즉각적인 임재와 능력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결과 의를 상실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음 대신 '생명' (zoe)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개념과 조화를 이루며 이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영적 죽음과 생명은 죄와 거룩함과 동의어이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신약성경에는 죄의 본질과 그로 인한 피해에 관한 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문제의 핵심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몇 가지 분명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애정의 본성을 나타내는 마음 또는 인격은 도덕적 타락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진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도덕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이 마음이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면 타락과

⁵² John Fletcher, *The Works of John Fletcher* (London: New Chapel City Road, 1802), III, 282.

⁵³ Ibid., 283.

부패가 초래됩니다. 신적인 것에 대한 암묵적인 직관으로서의 지식은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상실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단순히 생각하는 기계, 또는 순수 이성이 도덕적으로 쌓아 올린 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활동은 항상 도덕적인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격적 책임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전인’ (the whole man)입니다.

웨슬리는 실패로 기우는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성경적 완전함에 관해 다음과 같이 Miss March 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나약함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멸의 영을 압박하는 가난하고 부서진 진흙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은 너무 불완전하여 표준 (부패에 치우치는 육체를 위해 당신의 영혼이 모든 경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의 법칙)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고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매 순간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전집, IV, 208)

웨슬리의 개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명료한 해설은 그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즉 인간 본연의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의 단순한 자연 상태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며, 꿰뚫어 볼 수 없게 하는 두꺼운 베일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듣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귀머거리입니다. 그의 다른 영적 감각은 모두 잠겨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들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으며, 그분과 전혀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영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자 마자 이 모든 세부 사항에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록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종교나 외형적인 의무를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는지가 아닙니다. 복음적 거룩함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이며, 모든 하늘에 속한 애정과 기질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하는 사랑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임을 아는 것이며, "자비와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며, 모든 대화에 흠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거룩함은 우리가 마음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위해서," 즉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기록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집, VI 권, 70-72)

사랑과 자아

웨슬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삶의 여지들에 대한 기록 대상이거나, 일련의 주어진 것들의 저장소, 혹은 수동적인 물질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내지 한낱 수용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삶에 반응하고 대응하며, 찾고, 손을 뻗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다른 반쪽을 찾는 '반구' (a hemisphere)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모든 신경기관의 기능, 및 생각, 행동, 그리고 조직은 송신기와 수신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반응할 때만 온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청중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 또한 청중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즉 외로움이 자기 주변에 다가올 때 인간의 본성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동력원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교제 또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영의 결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제 속에서 가장 깊은 갈망이 성취감을 찾습니다. 성취는 적절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부적절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충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의 성취를 추구하는 방식과 대상,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또는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자기에를 죄의 본질로 간주하여 거부합니다. 이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 24)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아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일종의 분리가 가능한 부분과 같아서 그것을 삭제 또는 정복하면 악이 파괴되거나 억제되고 그 사람에게서 거룩함이 생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매우 신중한 말씀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온전함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속에서 ‘자아’를 유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자존감을 필요로 합니다.

웨슬리는 엡 5:28 주석에서 아내에 대한 남자의 사랑의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지적합니다. 웨슬리는 “자기 사랑”은 죄가 아니라 명백한 의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랑의 본질이 아닌 왜곡된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중심을 빼앗아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자아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한 자아는 매우 공격적일 수 있지만, 또한 그 공격적인 힘 때문에 더욱 깊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아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인간의 삶의 한 차원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사회이며, 사회 안에서만 성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원치 않는 타자가 자신의 개인적 세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방어 수단으로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접촉에 대한 거부감은 적절한 성취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그 결과 자아가 병적으로 상승하여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대상이 그 신적인 권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소외’ (alienation), 즉 스스로 만든 소외는 죄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아주 좋은 해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향해 열도록 설계된 자아의 기본적인 성취 욕구를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공급을 단아버리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렬함으로 자신을 목 졸라 죽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교제로부터 자신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자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은 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결국 교제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끝내지 않고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망에 의해 지속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죄된 사랑은 정욕으로 바뀌고, 정욕은 그 대상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파괴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끔찍한 요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자아 외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혐오하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 자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 그리고 사랑을 나누라는 그의 부르심이 간절하고 긴급하게,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복음의 부름은 인간을 결코 원치 않는 관계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갈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릴수록 더욱 냉소적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자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박탈하고, 영혼을 짓밟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내와 친구에 대한 나의 사랑과 생명을 거부당하는 것인데, 뭣 하러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라는 식입니다.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은 그의 시,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생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인

프랜시스는 삶을 질질 끌며 점점 더 깊이 자기 파괴에 빠져들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시는 은신처에서 은신처로 그를 쫓는 성령의 "긴박한 발소리" (pounding feet)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열렬히 원하고 헛되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낮으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나는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고 겉으로 웃으면서도 그를 피해
 도망쳤네
 한순간 희망에 부풀었다 가도 이내 거대한 두려움의 골짜기 속으로
 곤두박질쳐 버렸지.
 나를 따라 추적해 오는 그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고'

 그 발걸음이 내 옆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다정하게 뺨친 그분의 손 그늘 일뿐 아닐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대한 프랜시스 톰슨의 일반적인 두려움과 오해는 웨슬리가 "A Farther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이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호소문)에서 제기한 질문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의 공통적인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 사랑없이 삶의 공통된 의무들 중 어떤 것 하나라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할 때, 그 사랑이 바로 그 모든 의무에 대한 참되고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집, VIII, 59)

인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 또는 자아를 질식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한하고, 좁히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사랑은 속박과 두려움의 끝입니다. 그것은 삶의 지침이며, 모든 파괴적인 것들에 대한 경계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취의 근원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구하게끔 하는 자극제입니다.

창조와 존재, 죄(사랑의 위반)와 죄로부터의 회복,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거룩함을 향한 여정,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삶의 단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의 반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유도되거나 강요되거나 강요된 반응은 사랑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아의 근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세계,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억지와 강요에 의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을 제공합니다.

아무도 성령을 위해 울며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우리 편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관련이 있으며,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혼을 올바른 방향, 즉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이 강해질수록 통합이 시작되고, 치유가 발생합니다. 지엽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널리 확장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집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종교가 전혀 없거나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하며, 만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더 나은 종교, 즉 그 종교를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종교가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 곧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복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 곧 지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신의 영혼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생명의 약이며, 무질서한 세상의 모든 악과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치료제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덕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있으며, 동시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전집, VIII, 3)

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되십시오! 그분과 그분 안에서만 행복을 찾으십시오. 먼지와 같은 것에 의해 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땅은 당신이 영원히 거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선용하고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마치 가난한 거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 느긋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해명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도록 하십시오. (전집, VII, 222)

요약 관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다고(또는 있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인 어떤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거나 단순한 추측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구분을 억지로 신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 몇 가지 논리적 문제가 그의 설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기록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히브리어 용어는 구별되며 구약성경 전체에서 혼동되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칠십인 역은 일관되게 ‘형상’ (eikon/image)을 צֶלֶם (celem)으로, ‘모양’ (homóiosis/likeness)를 דְּמוּת (demūth)로 번역합니다. 신약성경의 형상과 모양의 용법은 히브리어의 용어 사용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하며 각 해당 단어에서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을 구별한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에 대한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형상’ (matter and form), ‘본질과 실체’ (essence and substance), ‘신성과 현상’ (numina and phenomena) 사이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분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은 최고의 의미에서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good)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재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적이고 중립적이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구별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정적이거나 수동적인 인간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동적인 인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1)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며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 (2)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 (3) 인간은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고 오류와 무지가 있지만 위대한 업적과 인격의 성취, 또는 비극적인 자기 파괴와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등 세 가지가 히브리인의 인간 이해를 특징짓는 요소들입니다.

‘형상’ (Image)에는 도덕적 자질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필수적인 모든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인간은 성 베나드 (St. Bernard)가 잘 말했듯이 "지옥에서도 소진될 수 없는" 인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든, 인간은

그림자나 환상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원형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즉 그분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림자입니다. 반대로, 심한 의인화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인간이 영원하신 분에 대한 유한한 그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하는 생각이 없으며, 단지 그들 사이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교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모양' (Likeness)은 인격의 자질, 즉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잠재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에 대한 인식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모양의 실체는 상상력과 목적, 그리고 마음의 성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성경적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 그 형상의 "회복"에 관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신학은 구원의 가능성과 본질 및 시간에 대해 여러가지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인간 본성의 구조적이고 기적적인 변화 없이는 이생에서의 실제적인 구속은 명백히 불가능하며, 또한 그 이상의 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삶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론 자체가 거부됩니다.

이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을 피하기 위해 신학자들은 "형상"을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첫 번째는 타락으로 "상처"를 입은 반면, 두 번째는 아주 상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걸음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손상되지 않은 자연적 형상과 자연인을 통제하기 위해 초자연적 형상 또는 은총이 추가된 형상을 고수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초자연적 또는 성화의 은총이 회복되어 두 가지 수준의 존재 (하나는 자연적,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가 서로 융합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이 이론은 결합의 영원한 영속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경이나 경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상의 초자연적 주입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무형적입니다. 성결 신학에서 "회복된 형상" (restored image)이라는 개념은 거룩함과 죄에 대한 비인격적 사물성의 개념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이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형상이 상실되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면 구속은 경험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죽음에 이르러 형상이 회복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여기, 이 땅에서 그 사실이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생에서의 형상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곳에서의 삶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형상, 즉 "잃어버린"(lost) 형상이 이생에서 회복된다면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회심이나 성화의 순간에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무엇이 회복되며, 또한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은혜는 인간에게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단계와 관련된 심리적 변형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결국 그러한 질문들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관찰은 형상과 모양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평가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결론은 단지 축자영감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용어의 사용은 헬레니즘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역동적인 개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든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존재하고 무언가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개념은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고 보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의해 중심이 궤도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죄는 거짓 중심, 즉 자아에 갇힌 사랑입니다. 그 거짓은 항상 다면적이고, 탈중심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죄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것을 담은 실케의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실케를 건달할 수 없습니다.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선을 파괴합니다.... 거룩함은 참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쳐진 사랑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모든 자아, 그리고 쉼진력으로 모든 삶이 조화와 온전함,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190-191 쪽)

제 8 과: ‘죄와 거룩함’ (Sin and Holiness)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탐구할 때, 그 자체로 사랑인 거룩함의 절대적 반대인 죄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죄는 서로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죄는 절대적인 대조를 이루며, 대조적으로 서로에게 의미론적 빛을 던져줍니다. 죄는 거룩이나 사랑, 믿음이나 은혜 또는 그 어떤 위대한 신학적 단어처럼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추상화하여 논의될 수 없습니다. 죄는 관계적인 용어이며 전체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합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 두 용어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질 또는 특성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죄가 개인적이고 사랑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올바른 의미의 사랑은 이성적인 존재, 즉 서로에 대한 호감과 상호 반응, 그리고 책임이 가능한 존재들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랑의 기본적이고 적절한 의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합리성의 틀 안에 있는 환원 불가능한 실체입니다. 자아가 기능하지 않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영역은 거룩함이나 죄의 "거주지" (dwelling)가 아닙니다. 이성적 자아가 다른 이성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지점에서 도덕적 자질이 깨어나고 발휘됩니다. 사랑은 거룩함이든 죄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침입'(intrudes)하는 한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개입하는 율법이나 은사, 예식, 또는 방법론은 사랑이 생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룩함과 죄에 대한 성경적 대조는 각각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을 품을 수 있는 수동적이고 단순히 수용적인 개념에 맞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아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죄는 성경의 "실존적" 용어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매우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죄와 실제 죄' (original sin and actual sin) 또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두 가지 차원의 죄를 적절히 구분함에 있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플라톤적 추상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다른 어떤 중심에 대해 "굴복"

또는 헌신하는 적극적인 정신입니다.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함과 죄가 모두 나름대로 헌신적입니다. 이러한 헌신으로부터 뭔가 근원적인 특성을 취하는 행동이 발생합니다. 거룩함의 경우 그 근원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제공으로 인해 저마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 "경향" (bent) 입니다. 우리는 죄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는 우리의 도덕적 책임보다 "더 깊거나 먼 곳에 있는"(deeper down and farther back)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항상 그 자체로 인격적인 통제 센터에 의한 자아의 헌신입니다.

앞서 말한 주장들은 죄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막기" 위함이며, 이에 대해 이 장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웨슬리에게 그의 주장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룩함의 교리에 대한 합의가 뒤따를 것입니다.

웨슬리의 가르침 속의 죄

거룩함에 대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뿐이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위대한 창조주를 영원토록 알고 사랑하고 즐기고 섬기게 하는 것이 었습니다... [인간]은 고의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의 위엄에 대한 충성심을 버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옛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조건은 더 이상 "이것을 행하고 살라" (Do this and live)가 아니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and thou shalt be saved)는 것이 었습니다 (전집, VII, 229-30).

이 "원"(original)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웨슬리의 특별한 접근 방식을 보고자 합니다.

[원죄]란 아담이 낙원에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즉, 그 때문에 "은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게 될 사람은 당신이 그것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보여주기 전까지 이것만으로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져오면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불신앙이 저주스러운 죄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날에 정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전집, X, 223)

웨슬리는 인간이 죄에 연루되는 방식에 대해 추측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즉 죄가 어떻게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달되는지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즉 자식이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방식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둘 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집, IX, 335)

웨슬리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죄의 사실성과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란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자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에 대한 모든 자발적인 위반은 죄이며, 우리가 제대로 말한다면 그 외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칼빈주의를 위한 길을 만들뿐입니다. 아담의 법을 범하지 않고도 사랑을 파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가지 방황하는 생각들과 건망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것들을 함께 혼동할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Telford Ed., 편지, V, 322)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끊임없이 의지해야 할 인간 자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너무 큰 도덕적 이완이 사람의 마음에 생겨나지 않도록, 그는 "완전한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죄" 라는 사실을 상기하셨습니다. 웨슬리가 두 가지 종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혼란의 위험이 존재할 때 자신의 용어를 신중하게 정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그의 전형적인 의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명백한 모순은 실제 모순이 아니라 범주 상 오류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도 전형적입니다.

웨슬리의 성결에 대한 가르침은 죄에 대한 그의 개념과 일치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그의 정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성결 개념이었습니다. 거룩은 죄의 '대척점' (antithesis)이 아니라 (순서대로) 죄가 거룩의 대척점입니다. 거룩함은 선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죄가 거룩함의 부재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룩함은 "죄의 부재"가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아에서 흘러나와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입니다.

죄의 의미에 대한 웨슬리의 표현은 문학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만큼이나 급진적이고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 웨슬리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 여덟 편의 설교 중 하나를 읽어 보십시오.

첫째, "회개하라", 즉 자신을 알라. 이것은 믿음에 앞선 첫 번째 회개이며, 심지어 신념 또는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 자신이 죄인임을 아십시오... 그대의 속사람의 부패함을 아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본래의 의로부터 멀리 떠났으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통해 항상 "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럴 수도 없는"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바로 아십시오. 당신의 모든 능력과 영혼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부패한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부패하여 모든 기초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며... 당신은 하나님도, 세상도, 당신 자신도,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모든 선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모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신의 애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상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열정과 욕망, 혐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은 틀을 벗어나고, 정도가 지나치며, 또한 지나친 대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에는 건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상처와 타박상, 점점

더 악화되는 상처의 흔적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가장 깊은 본성의 타락입니다 (설교, VII, 81-82).

[독자들은 웨슬리의 고전적인 설교인 "Sin in Believers" (신자의 죄)와 "The Repentance of Believers (신자의 회개)를 참조하여 이 주제에 대한 더 확장되고 고려된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종교개혁 교리'(Reformation doctrine)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실제적 개념의 함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의 높은 성경관이 모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처럼 기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자신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염두에 두면 모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부조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웨슬리는 죄에 대한 종교개혁적 개념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더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그것을 심화시키고 강화시켰습니다. 죄에 너무 얽매어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절실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본성 바깥에 놓일 때,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하고자하신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도덕적, 그리고 영적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죄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합당한 구원은 현실로 존재하는 죄의 씨앗을 지금 여기에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얽매인 채로 죄를 재정의하고 여전히 같은 죄로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웨슬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단지 속이는 것, 즉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사물의 실제 본질에 반대되는 식으로 우리에게 대해 판단하거나, 우리를 실제보다 더 낮게 여기거나,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진리에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무죄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분의 정확한 지혜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나를 그리스도와 혼동할 수 없습니다. (전집, V, 54)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품은 양도되거나 전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정의할 때).

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며 영원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죄를 용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웨슬리의 성숙한 사상을 주의 깊게 다시 읽으면 펠라기우스주의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은 은혜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거룩함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한 순간이라도 제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라는 주제가 이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시점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개인적인 사귀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구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이 주십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이 이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부재한 것입니다. 이 거부는 핵심적으로 윤리적이며 인간의 이성적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파열은 종교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정신, 사회, 세상, 사람과 사물과의 모든 관계를 붕괴시키는 힘입니다.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

웨슬리의 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이 쓰여졌으므로 여기서는 구원론과 관련된 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모든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두고 있는데 대해 웨슬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오직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든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웨슬리는 이 부어 주시는 사랑을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 또는 ‘선제적 은혜’ (preventing grace)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어떤 선행에 대해서도 대가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 선행적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단순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과 책임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자원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영혼이 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본성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여, ‘자연적 양심’ (natural conscience)이라고 불리는 것이 완전히 결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선제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요구를 필요시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어느 정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만간 희미하게나마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깨우쳐줄 밝게 비추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집, VI, 512)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인류 전체와 저마다 개인의 삶 속에 미친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인격적인 측면은 죄의 의미와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정의하고 구분합니다. 이러한 영적 자유는 웨슬리가

평생을 바쳐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크든 작든, 주어진 시간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충만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서로 간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완전함은 사랑의 일관성입니다. 통합은 그 사랑의 틀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파멸과 죄,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죄, 종교적 문제

웨슬리가 이러한 사상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는 어거스틴의 통찰과 확신 중 하나인 죄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의식적으로 따랐습니다. 죄는 ‘음욕’(concupiscence)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perverted love)입니다. 음욕은 죄의 결과이지만, 왜곡된 사랑은 죄의 원인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나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적 성숙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죄는 종교적 사실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거룩함은 종교적 질병의 치유입니다. 교제는 오직 하나님 편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적 삶의 통합의 시작이며, 사회 생활과 세상, 그리고 마침내 지구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롱하는 인간과 죄에 관한 모든 이론은 웨슬리에게 최고의 경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게는 본질적이고 이성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될 정도로 죄의 지위를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깊숙이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주의적 의미에서 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다만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상실한 것일 뿐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죄의 배후에 있는 죄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눅 22: 48) 라는 본문을 토대로 한 "A Blow at the Root, or, Christ Stabbed in the House of His Friends" (뿌리에 대한 일격, 또는 친구의 집에서 찔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공하고자 했던 거룩함을 파괴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겸손한 웨슬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지나친 과장의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이 설교에 열정을 담았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 하늘 아래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으며, 이곳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장차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 위에 있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분명한 이상, 하나님의 모든 진리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사람들이 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전집, X, 364)

그는 "이방인", 로마 교회, 일부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준 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입장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만' (faith alone)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회피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 모든 빛을 무효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 참으로 그 빛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시몬 마구스 (Simon Magus)는 다시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의 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그분 안에 의와 거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원하거나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사람에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뿌리에 대한 타격," 즉 모든 종교와 모든 거룩함의 뿌리를 타격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친구의 집에서 쫓긴"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리가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거룩함을 위한 여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믿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그것을 향한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게끔 합니다 (전집, X, 366).

죄에 관한 웨슬리의 저작에는 그의 입장을 연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오고 싶은 유혹을 받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바른 질문은 '거룩함이란 인간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거룩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눈을 감는 방식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전체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거룩함과 죄

웨슬리가 강조한 사랑은 거룩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죄의 의미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죄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헌신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의식적인 행동은 그 헌신을 재확인하거나 자극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이성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욕구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강요된"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질서보다 더 책임감 있거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인간적인 욕구에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사랑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성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의해 중심이 궤도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죄는 거짓 중심, 즉 자아에 갇힌 사랑입니다. 그 거짓 사랑은 항상 다면적이고, 탈중심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죄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닮은 진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진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선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약과 수고, 그리고 준수의 의무가 전혀 없는 내가 제공하는 자유를 보라. 답답하고 제한적인 하나님 편의 규칙을 버려버리라. 지루하게 포도나무를 가꾸는 대신 그저 열매를

누리기 시작하라. 값싸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계속 사랑하면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참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자아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든 삶이 조화와 온전함,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랑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죄가 무엇이며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떤 것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특성,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다시 반응함으로써 사랑의 특성을 재정의합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도덕적 위엄의 본질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교만과 육체적 오만의 전형은 자신의 비참한 자아를 신의 자리에 허위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함과 죄, 통합과 멸망, 그리고 생명과 죽음 사이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룩함 - '새로운 애정' (THE NEW AFFECTION)

그러나 이것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남깁니다. 사랑의 끈기는 인간 정신의 가장 끊을 수 없는 유대로서,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의 강력하고 파괴할 수 없는 도덕적 생명력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도덕적 사악함과 차가운 잔인함에 빠진 인간의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사랑의 헌신을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행동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오래 된 자기 숭배의 왕조를 뒤엎는 식의 쿠데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핵심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교착 상태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너무 얇은 개념은 여기서 설명하는 진리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가장 확고하게 붙잡는 상태에서

자신을 한낱 자동장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헌신이 요구되는 충격적인 반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지만 도덕적으로 장엄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성취를 반대되는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고후 5:19). 하나님의 실재와 약속의 찬란함은 반대되는 사랑에 그들을 드리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억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밀어 넣지 않고, 낮고 값싼 사랑의 조잡함과 부패함이 눈에 보일 때까지 인간의 지친 희망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소원을 공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의 신뢰와 충성을 얻기 위해 고안된 하나님의 사랑의 시현으로 생각한 피터 아벨라드 (Peter Abelard)의 속죄 이론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지만 그것은 화해하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고유한 영역에서 행동하시며,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의무로 여기게끔 만드십니다. 이 깊고도 심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생명의 제공에 비추어 도덕적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헌신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냉정하거나, 적극적인 동기가 없이, 강압적이고, 순전히 지적인 결정을 따르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주권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거듭거듭 오시며, 대조적으로 인간이 내세우는 자신의 최고의 업적과 소유물의 궁핍함과 추함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도덕적, 영적 가치는 비교와 대조 속에서 설정됩니다. 삶과 죽음은 어둠과 죽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매력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도권을 떠나서는 결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 15:2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과 승리와 함께 그분을 사랑할 동기를 가져다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 (새로운 애정의 추방 능력)이라는 책의 제목에 진리의 진정한 척도가 있습니다.

"옛 사람" 대 "새 사람" (OLD MAN VERSUS NEW MAN)

이 장은 죄는 거룩함에 대해서만 올바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죄나 거룩함 모두 추상적으로 또는 종교 전체와 분리하여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논의는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이 용어와 관련하여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연방 수장" (federal headship)이라고 불리며, 성경신학 분야에서 "집단 인격" (corporate personality)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적 개념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몬드 제이콥 (Edmond Jacob)은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구약성서 신학)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원을 포함한 전체 집단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구성원 중 한 명을 통해 하나의 개인으로서 기능한다"는 휠러 로빈슨 (Wheeler Robinson)의 말을 인용하여 이 개념에 대한 "고전적 공식화"를 제시합니다.⁵⁴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에서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수장" (head)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치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수장은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화신이었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전체 공동체의 화신이 되거나," "개인은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는 개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⁵⁵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인종 구조에 관한 실체적이며 생물학적인 이해는 종종 로마서 5장의 바울의 언급을 근거로 죄와 죄의 전승에 대한 물질적 이론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 구절을 더 깊이 분석하면 그러한 해석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든,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비유로 직접 대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고의 틀에 집어넣습니다. 웨슬리는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담이 인류의 연방 수장 또는 대표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고,

⁵⁴ Edmond Jacob,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and Row, 1958), 154.

⁵⁵ *Ibid.*, 155.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입음으로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형상' (a type or figure)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집, IX, 332)

우리의 요점과 더 관련이 있는 토론에서 웨슬리가 반대자들의 입장 중 일부를 승인하여 인용한 추가 의견입니다:

"아담이 '공인' (a public person)이었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행동했듯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공인이었고 그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일반 대표였듯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표였습니다; 그들이 이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한 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별적으로 대표 한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서 있는 관계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전집, 333 쪽)

바울이 모든 사람을 '아담'(anthropos)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종족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그가 한 일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종족으로 태어납니다. 헌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아의 거짓되고 파괴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통치, 즉 죄의 근거지이자 통치권인 "세상 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죄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경주와 경주에 속한 각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실존적인 사실입니다. 웨슬리는 이를 잘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을 기꺼이 발견한다면, 그의 이해는 그에게 끊임없는 애도의 이유와 자신을 경멸하고 부인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을 잃어버린 슬픈 결과' 자신과 상반되는 본성의 수지와 고뇌; 불멸을 갈망하면서도 죽음에 종속되는 이유와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를 구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능력을 온전히 만족시킬 무언가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느끼면서도 그 강렬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적 결함 외에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성향에 반대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전집, VII, 510)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인 "새 사람," 그리스도의 '수장 직분' (headship)입니다. 그리스도는 "옛 사람"에 의해 권위를 빼앗긴 모든 피조물의 만아들인 '참된 수장' (true Head)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육신의 심오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의 관계에서) 참된 집단 인격으로서 인류 종족의 모든 유산과 죄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분 안에서 옛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은 그의 수장, 즉 머리 직분을 확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족 전체의 소의를 끝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참된 수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집단적 인격체'와 더불어 하나가 됩니다. 각 신자 안에는 새 종족의 총생명이 성육신되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새 사람으로서 모든 신자를 자신 안에 통합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각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수장 직분을 거짓과 죽음이라는 상반되고 파괴적이며 기만적인 방식과 대조하였습니다. 아담의 성향이 바로 이 거짓된 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너희는 그 행실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골 3: 9, 엡 4: 21-25)고 한 이상한 표현에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담으로 특징되는 삶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새롭게 일치하는 이 행위는 죄와 거룩함의 의미에 대한 생생한 해설을 구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신이 선택한 왕국 아래에서 봉사해야 할 새로운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대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 중 일부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거룩함	대	죄
마 6:24 하나님을 섬김		돈을 섬김
요 3:16 예수를 믿음		불신 (거절)
롬 1:25 하나님의 진리를 바꿈		거짓말
롬 6:13, 16 하나님께 대한 복종, 영생		죄에게 복종, 죽음
롬 6:19 너희 지체를 의와 거룩함에 복종하라		지체를 죽음의 불결함에 내줌
롬 8:2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롬 8:5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것을 생각함		육체를 좇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함
롬 8:6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체의 생각은 사망
고전 12:3 예수님...주님		예수를 저주함
갈 5:16-24 성령의 열매 (세분화)		육체의 일들 (세분화)
엡 4:25 진리를 말함		거짓을 말함
살전 4:3, 7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부정함과 도덕적 불결
벧전 1:14-15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전의 무지한 열심을 좇아 행함
갈 6:8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육체를 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요약하면, 죄와 거룩함은 비실체적 또는 수학적 차원이 아닌 영적,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최고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죄와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개인적,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단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는 인격적인 것이지 결코 수학적 덧셈이나 뺄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웨슬리안주의가 수정방안이 될만한 신학적 '일탈' (aberrations)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전통에서는 속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죄를 무게나 수, 또는 율법적인 용어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양만큼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가 "대가를 치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또 다른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원죄"만을 취소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후 일상 생활에서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만족을 느낍니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원죄"를 비인격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원칙은 저지른 죄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너무 자주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더 멀리, 더 깊숙이" 있으며 언어가 미칠 수 있는 곳이나 생각의 범위가 상상할 수 있는 곳 너머에 있는 그 무엇, 즉 어떤 식으로든 영혼의 실체에 붙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가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제거"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요구에 대한 의식적 반응에서 분리됩니다. 어떤 사고 방식도 덜 성경적이거나 더 마술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절한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개념은 마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 사이의 인과관계적 수단을 우회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임스 R. 돌비 (James R. Dolby)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과 나는 기본적으로 부정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것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자주 믿습니다....

개인적인 부정직은 교활한 질병입니다. 일단 시작되면 자신이 스스로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천천히 사람을 파괴합니다.⁵⁶

그들(또는 우리)은 도덕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성숙한 요구를 회피하는 마법 같은 방법으로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⁵⁶ James R. Dolby, I, Too, Am a Man (Waco, TX: Word Books, 1969), 3, 6.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종의 유신론적 마법을 사용합니다."⁵⁷

인간의 문제는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외계 물질의 하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불순종, 불신앙, 마음의 불순종입니다."⁵⁸

한마디로 성경적 심리학은 인격적이며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전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단위 척도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의 가장 깊고,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심오한 의미에서 윤리적입니다.

⁵⁷ Ibid., 8.

⁵⁸ Ibid.

“우리가 ‘정직함’ (integrity)과 거룩함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이 정직함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성결의 능력이 도덕의 의미이며, 성결의 완전한 척도 없이는 “종교”를 정의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성결 신학은 이 지점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인간의 완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신학은 성경의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도덕적 완전성을 간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신학이나 종교, 심지어 “성결 신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초자연적인 작용을 위해, 또는 단지 법적인 무죄 선고를 위해 도덕적 또는 개인적 정직성의 의무를 완화할 때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206 쪽)

제 9 과: ‘도덕’ (Moral)의 의미

복음의 전체는 역사와 책임감 있는 인격의 틀 안에서 설정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전달하시며, 인간은 이에 대해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태도와 결심으로 반응합니다. 복음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격, 사랑, 결정, 인격적 관계, 도덕과 같은 단어는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미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유익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이 인격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론보다 우선하며 기독교적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대 사람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 개념의 중요성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은밀하고 실제적인 개념이 성경과 웨슬리안적 신학 용어 아래에 숨겨져 있을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각종 사상 또는 신학적 절대성과 실제 삶 사이에 큰 간극, 즉 "신뢰성 격차"를 만들어 삶의 구획화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에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진실성에 필요한 건전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참된 자아를 차단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은혜의 상태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기계적 및/또는 감정적 경험에 수반되는 잘못된 확신감을 만들어 냅니다.

자아와 죄, 거룩함, 심지어 성령에 대한 물질적 해석은 구속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도덕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박탈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물질의 차원으로 축소되면 거룩함을 위한 기획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위험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고 온전하게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서의 언어가 신학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비인격적인 범주, 심지어 마술적 조작에 이끌리는 비도덕적인 범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웨슬리안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웨슬리 신학은 인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적’ (Person and personal)이라는 말은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집중된 현실을 가리키지만, 사람이 무엇인지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웨슬리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추측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람의 "마음," 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내면적 동기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다분히 소극적인 존재론에 불과한 단순한 "의식의 흐름" (streams of consciousness)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인간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진정한 대화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모든 실체에 대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사람의 도덕적 중심인 마음을 배제하고는 웨슬리나 성경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것을 '주체' (agent)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체는 마음이나 사람만큼이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몸과 마음, 마음과 정신, 양심과 의지 등 인간의 모든 것의 초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인간은 "존재합니다" (is).

인간은 자신의 유산과 문화, 그리고 현실 전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만, 그 "감옥"에 절망적으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철학과 과학을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들과는 정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사람" (new man)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궁극적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인간에 대해 무엇이든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정죄 또는 승인은 그 점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마 15: 18-20)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일정한 '위치'(location)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향'(disposition)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악을 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완전함, 정결의 문제와 신학과 실천의 다른 모든 측면을 논의할 때 인격을 지배하는 중심으로서 ‘마음’이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man/άνθρωπος)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추려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죄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간성"(humanity)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동기 부여와 생활의 중심, 즉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만드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거룩함의 중심입니다. 즉 거룩함은 마음, 즉 사람의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행하는 인격의 한 부분을 다룹니다. 죄가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거룩함도 인생에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자아의 영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웨슬리안주의의 가장 심오한 신념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리’ (distance)가 아니라 도덕적 비인격성과 영적 소외로 인한 하나님과의 ‘자기 분리’ (self-separation) 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 핵심에 있어서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자아의 특성입니다.

거룩함과 죄는 수를 세거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종 성결교리에 대한 배신처럼 들리며 실제로 이단처럼 들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생생한 상황에서 나온 성경 말씀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석될 때, 복음에 대한 평가 절하는 놀랍도록 위험한 일이 됩니다. 성경 주석이 이러한 재평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영적 비극입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비인격화하려는 경향은 종종 영적 삶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는 ‘양적인 측정’ (quantity measurements)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영적인 삶을 양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질’ (Qualities)을 더하고 빼려고 시도할 때 자질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드니 해리스(Sydney Harris)는 그의 공동기사칼럼, “Strictly Personal” (엄격하게 개인적인 것)에서 스페인의 위대한 사상가인 오르테고 Y. 가셋 (Ortego Y. Gasset)의 말을 인용하여 “양적인 영역에서는 최소값이 측정 단위이지만, 가치의 영역에서는 최고값이 측정 단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가장 작은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 양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수학과 무게, 또는 시간 단위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가치를 비교하여 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가치는 최고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인격적인 것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되지만, 인격적인 탁월함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비교됩니다. 완벽한 결혼은 선물과 키스의 총합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과 충성심과 헌신의 척도입니다. 잘못된 측정 기준으로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수학적 용어로 계산할 때, 신학, 성경, 심리학 사이에 궁극적인 긴장과 좌절, 모호함이 발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러한 긴장과 모호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에서 특정한 수량 만치의 은혜의 행위를 발견하는 데 집착하면, 그 연구자는 "은혜의 역사" (works of grace)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도덕적 명령에 대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웨슬리안 또는 성결 신학을 해석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그것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 관한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확신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인격적 관계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의지적이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인격적인 현실을 향해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목수는 못을 박습니다. 치과의사는 치아를 다룹니다. 농부는 소떼를 몰고 목초지로 나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고 실제로 강요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격적" 관계가 우세할 수 있고 실제로 우세합니다. "컴퓨터 사회"에서 개인은 기술의 노예가 되어 인류의 상류층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평균"은 평범함에 대한 이상이자 정당화입니다. 합의가 진실입니다. 관습이 왕입니다. 영리한 광고가 생각을 대신합니다. 해설자가 의견을 형성합니다. 의사결정에 신경 쓰지 않으려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흘리는 순교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그림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고와 선택과는 별개로 인간을 향해 행동한다면, 또는 구원이 인간의 의식적인 삶보다 "더 깊은 곳" (deeper down)에서,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변화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 (applied)된다면,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유혹의 힘을 온전히 느낄 필요가 없게 하는 "심리적

돌연변이”를 고대하는 것이라면 -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 “인격적인 관계”는 허구이며 성경적 구원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두 개의 자아, 즉 두 개의 “나” (Is)가 서로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의 도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적 완전성을 존중하고, 서로가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무의미한 항복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서로에게 응답할 때 인격적 관계는 현실이 됩니다. 교제를 정의하는 이 만남에서, 자아에 필수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각자의 완전성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이 관계는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의 상실로 인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아만이 진정한 교제에 내재된 자기 헌신의 요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아만이 자기 자신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인간을 향해 행동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과 교제를 위해 만드신 사람의 완전성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한다면, 그분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조차도, 그것을 강요하는 식의 “사랑”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인간의 언어를 소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잠재력, 그리고 구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해설인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해력을 빼앗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깨우치고 강화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애정을 없애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당신의 자유, 즉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마리아처럼 그분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한 집에서 다섯 명, 한 도시에서 오백 명, 한 나라에서 수천 명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그분은 도덕적 행위자에게 필수적인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시고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저항할 수 없이 역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그 사례는 무수히 많아서 아마도 지난 50년 동안 영국이나 유럽의 어떤 사례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와 관련해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저항할 수 없는 식으로 일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항할 수 없이 일하시는 인간의 영혼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무효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삶과 죽음", 즉 영생과 영벌이 놓여 있으며,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그가 한 말 중 가장 고귀한 말)인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Qui fecit nos sine nobis, non salvabit nos sine nobis/He that made us without ourselves, will not save us without ourselves)는 매우 사실입니다. (전집, VI, 280-81)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을 더 적절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이라는 단어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존재의 종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덕적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정의하면 성경적 의미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거나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옳고 그름, 선과 악, 참과 거짓과 관련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이러한 식으로 양자 간에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본성"(nature)은 성실할 수 있으며, 선 (goodness)은 도덕적 정직함으로, 악 (badness)은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정직함' (integrity)과 거룩함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이 정직함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성결의 능력이 도덕의 의미이며, 성결의 완전한 척도 없이는 "종교"를 정의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성결 신학은 이 지점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인간의 완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신학은 성경의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도덕적 완전성을 간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어떤 신학이나 종교, 심지어 "성결 신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작용을 위해, 또는 단지 법적인 무죄 선고를 위해 도덕적 또는 개인적 정직성의 의무를 완화할 때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으며, 선과 악의 도덕적 특성을 물질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in sin) 죄의 속박 아래 있고, 속고 있으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제안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고 따라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입장은 '펠라기우스주의' (Pelagianism)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주류 기독교 교리와 함께 인간이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도덕적 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선행적' (prevenient) 사역 아래서 지어진 인간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관련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빌린 것이긴 하지만 거저 제공되는 은혜에 의해 하나님을 향하거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능력" (gracious ability)이 인본주의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것으로 해석될 때, 그러한 판단은 성경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덜 유연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같은 전제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취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합리주의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반대 의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정직성에 대한 위반에 대해 옹호했습니다. 둘 다 타당하고 필요한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받아들인 철학적 기준 내에서 화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모든 논리적 사고의 특징인 반어법입니다. 철학에서는

'결정론적' (deterministic) 세계에서 어떻게 자유를 옹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반면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맥락에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인간은 자유로운가?' (Is man free?) 대신,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How free is man?)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문제를 지배적이고 구조적인 전제에 복종시키고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중요한 질문을 해결합니다. 조직신학의 범위와 도그마는 제한적이며 각각의 전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전제들이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성경 신학은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먼저 성경 연구에 기초하여 답을 찾고, 더 많은 이해와 연구를 통해 항상 비판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본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연역적 추론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웨슬리의 입장은 엄격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성경적인 연구를 시도합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적 대안들이 놓여 있는 철학적 틀과 신학적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접근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성경 저자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와 사고 방식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는 사변적이거나 추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인간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움직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변적 접근 방식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걸까요?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라는 식입니다. 웨슬리는 "자유 은총"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본질 상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자신의 거룩함을 선택할 자유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가 해석한 자유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며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도덕의 의미

기독교는 대속적 종교입니다. 그것은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삶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종교와 윤리는 원인과 결과, 또는 더 나은 표현으로 나무와 그 열매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윤리적 결과가 없는 종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선이든 악이든, 완전히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행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종교이며, 그것이 바로 신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의 “신” (god)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러한 윤리와 종교의 결합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외부로부터 도덕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진정한 도덕적 상황과 그에 따른 건전한 윤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윤리적 요구가 높은 기독교 종교는 도덕적 선택의 자유를 부정할까요, 긍정할까요?

도덕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personal) 틀 안에 있으며, 실제로 인격적인 것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도덕성은 자아의 자율적 창조물이 아니라 자아의 사회 내에서 자아가 다른 자아와 맺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진정한 것이며, 그 영역 내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필연성입니다.

거룩함과 관련하여 도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인 것은 인격적입니다.

도덕은 ‘사물성’ (thingness)과는 대조적으로 인격적인 것을 전제합니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의 인과관계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자의식적 인식에 있는 것으로 식별됩니다. 자연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이거나 인격적인 것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으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초월하여 “나” (I)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즉 “나와 너 사이, 나와 사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 (Martin Buber)가 같은 이름의 책, “나와 너” (I and Thou)에서 인간의 관계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며 의미론적으로 유용합니다. 한 마디로, 매우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있어 서든지 각각의 나는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은 인격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나'(I)는 '사물'(a thing)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 나 이외의 다른 존재에 의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존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할 자유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결정되며, 내가 곧 그 결정 자체입니다. 자의식을 가진 두 개의 '나'가 서로 마주할 때, 두 개의 개별 우주가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자의식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두 세계가 중심을 차지하려고 시도하고 긴장이 조성됩니다.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를 '그것' (it)으로 취급하고 다른 자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비도덕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나' (I)가 '당신-하나님' (Thou—God)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부버가 이 개념을 철학적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차원에서 인격적 요소를 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제 대학 교수 중 한 명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천문학은 결코 윤리학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천문학적 패턴은 비판할 수 없지만 천문학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밀 줄기에 토마토가 생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목수는 비가 새는 지붕에 못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왜 농사를 짓는가?" 또는 "왜 토마토 대신 밀을 심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목수는 설혹 아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아내를 함부로 때린데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도덕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사물성과 대조되는 인격적인 것에서입니다.

2. 인격적인 것은 도덕적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것은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으며, 의지는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단순히 기분, 본능 또는 지나가는 욕망이 아니라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구별하는 한 가지는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에 기초하여 선악 간에 옳고 그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몸에 대한 원인/결과 식 결정론이 인간 정신에 대하여 요구를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책임이 시작됩니다. "자연의 법"은 비인격적입니다. 즉, 의지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영적 삶은 그 인격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인 것과 구별됩니다. 즉 그것의 실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의지가 낮고 가장 원시적인 의식 수준에서도 인격이 작동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며, 가장 깊은 최면 상태에서도 도덕적 책임과 의지는 상실되지 않으며 기능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수술자는 환자에게 양심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 있게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일 수 있습니다.

3. 도덕적 능력은 "해야 할 일"(Ought)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상황의 긴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도덕적 인식은 바로 자기 자신이 도덕적 긴장의 중심점이라는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선택해야 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서 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승인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과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존재는 대인 관계 상황에서 이러한 윤리적 요구를 인식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적어도 그 인정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승인과 내적 평화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웨슬리는 "선한 양심은 인간에게 자신과 일치하는 행복을 가져다주며...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집, VII, 572).

4. 도덕은 다중 초점 관계입니다.

도덕적 능력과 책임은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즉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선행은 결코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자율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고, 사랑은 다중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건전한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도덕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아실현이나 인격의 실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자아 실현만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표현의 전부는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존재의 법칙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를 '실현'(realizes)하지만, 인간은 도덕적이라는 단일 식별 요소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억제되지 않은 인간의 자기 계발은 그 자체로 도덕적 성장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건전한 발달을 위한 대인관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신학도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덕적 자질은 사람에게만 내재할 수 있고 사물에는 결코 내재할 수 없습니다. 인격은 사물이 아니며, 인격의 자유를 특징짓는 관계 속에서만 도덕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발전하는 자아는 도덕적이지 않으며 진정으로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의 질을 결정하는 관계는 유기체의 각 단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나' (I)의 대인 의존성과 상호 작용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자질은 사랑의 충동입니다. 이 충동은 자아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충동" (urge)은 집단적 충동이나 성적 충동처럼 인격에 심각한 장애가 없으면 거부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고 통합되며 건전해집니다. 정신병원에는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 상태를 정신 분열증이라고 합니다. 교제의 필요성은 감정보다 훨씬 더 깊으며, 정신 건강의 기본이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인간 존재의 기본입니다. 강인함의 전형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책임감 있는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선명하게 성장하는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실제로 인격적인 차원과 관련된 모든 것의 모형인 영적인 삶에도 여전히 교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애정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추구가 사물에 안주하면 물질적인 것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함으로써, 도덕적 존재의 구현이 좌절되고 왜곡됩니다. 자아가 다른 인간에게 집착하면 도덕적 삶이 부적절하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뭔가 궁극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기괴하고 파괴적이며 추악한 도덕적 변형을 낳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옳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교제를 끊는 것은 인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도덕적 완전성을 잃고 도덕적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죄" (the sin)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임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 상호 교감과 조화로운 반응은 자연스럽고 의도된 교제와 거룩함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거룩은 이러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위기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도덕적 삶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만 도덕이 유효하고 거룩함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죄는 하나님과의 이중적 관계, 즉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둘 다 능동적입니다.

웨슬리안 신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보다 '성경적인' (biblical) 거룩함의 개념을 선호하며, '비인격적 선' (impersonal goodness)으로서의 '원초적' (original) 거룩함을 거부합니다. 거룩함 또는 도덕성은 결코 비인격적 실체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반응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죄가 실체를 가지고 있거나 신체의 병든 부분처럼 제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룩함은 형이상학적으로 조건화된 실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은 도덕적 완전성이며 죄는 도덕적 완전성의 결여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이며 도덕이 의미를 갖는 적절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 개념은 주지하다시피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닙니다. 독자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 이 책의 후반부 논의를 예상하여 한 마디 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논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지만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언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은혜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이성적 활동의 배후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헌신된'(committed) 사람입니다. 아무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편향되어’(biased)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급진적인 것이며 누군가의 인격에 급진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부도덕한’(immorally) 사랑을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려는 가능하지만). 사람은 더러운 공기가 아니면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데, 생명이 지속되는 한 호흡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도덕적 완전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포기해야 한다는 빈번한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강요된 도덕 규범에 순종하는 것이 ‘정직성’(integrity)의 구조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도덕적 판단을 다른 사람, 심지어 신의 "통제"(control)에 "항복"하면 그는 더 이상 도덕적 인 사람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칸트, 니체, 틸리히, 에리히 프롬 등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오류는 항복해야 할 법이 비인격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항복’(surrender)이라는 단어는 훈계적으로 사용되며, 그 오류는 인격적 책임에 대한 도덕적 포기로서 정확히 수동적인 개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항복’/yieldedness이라는 개념을 가르친 것 자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며, 적어도 그 대중적인 의미를 신중하게 제한하지 않고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볼 때 순종은 비인격적인 법에 도덕적 완전성을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타율’(heteronomy)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는 ‘자율’(autonomy)과 관련된 표현도 아닙니다.

기독교적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 조화와 사랑, 상호 의지의 관계이며, 그 안에 도덕적 진실성이 들어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참된 도덕의 맥락 안에 창조적으로 놓습니다. 이것은 도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랑의 표현으로 만드는 인격적 교제의 재 확립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옛 유대인의 도덕주의를 바로잡은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율법과 교회, 신조 또는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반인간적’(anti-human)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부도덕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함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창조된 가장 깊은 욕구에 따라 실제로 원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이면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도덕적 경험은 이 관계에 의해 완성되고 보존되는 것이지 결코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5. 도덕은 사랑으로 구조화됩니다.

도덕의 의미에 관하여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약속은 그가 전인적인 약속을 했다는 사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도덕적 행위를 구성하는 이 헌신은 단순히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의지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한 중심이 어떤 기준에 따라 옳은 지 그른 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할 만큼 중요한 그 어떤 것을 원했는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응집력이 바로 정직성입니다. 진정한 정직성은 진리가 선인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환상적인 단어를 정의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인격에 관한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사랑과 도덕은 서로에게서 의미를 도출합니다. 사랑은 헌신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정직함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나 단순한 의지, 감정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분열된 헌신은 분열된 마음의 표현이며 불안정한 도덕적 삶의 본질이며 도덕적 붕괴의 근원입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아가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연구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도덕의 인격화에 대한 대답입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정직함입니다. 사랑은 도덕적 완전성을 인격화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5).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헌신에서도 참된 정직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소렌 키에르케고르 (Søren Kierkegaard)의 주장이며, 그의 지적은 옳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중 "순결한 마음" (Purity of heart)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순결함 마음은 "한 가지를 의지하는 것" 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인간이 지음 받은 그분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랑은 이중성과 혼란이므로 순수하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도덕은 그 정의 자체로 '한 마음' (single-heartedness)이며 그 '한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6. 도덕적 삶은 위기-결심(Crisis-Decision)의 긴장으로 구성됩니다.

도덕의 중심에는 도덕이 가진 고유한 힘과 성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특성, 즉 '결심'(decision)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삶이 한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우유부단하게 흘러가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위기와 선택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정직함은 결단력 있는 행동에 의해 유지되며, 일련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도덕성을 잃는다고 해서 단순히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깊고 광범위한 도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관습이나 종교, 가족, 도덕, 철학 등의 뒤에 숨어 이 분명한 인격적 선택을 피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은 그 기만적인 장치를 찢어버리고 책임감 있는 인격적 선언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기만을 피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결정은 인생의 과정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이고 형성적인' (crucial and formative) 결정이 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다른 결정들에 가려질 수도 있지만,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일련의 위기 속의 결심을 통한 사건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면 그것들이 마치 계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적, 결단력, 노력, 그리고 의도적인 인정 등이 필요합니다. 내려가려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 단계마다 각각 가장자리에서 겪는 고통스러움을 만나지 않고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결심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에 필요한 평생에 걸친 '유예'(probation) 과정을 요구합니다.

7. 도덕적 정직함(Moral Integrity)이 대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하시며, 초기의 신념의 동요 단계부터 인생의 마지막 책임 있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단계가 도덕적 정직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식적이고 의지적이며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사람마다 평생 함께해야 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서고자 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일괄적으로 공식화하거나 정형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모든 단계는 예리한 의식과 명확한 이성적 통찰력, 그리고 가장 신중한 도덕적 결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식을 회피하거나 잠그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모든 힘은 성령께서 신중하고도 당당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간에 완전한 이성적 책임과 함께 수렴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도덕적 책임이 결코 완화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책임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성경에서 허용되는 순종의 가장 낮은 수준이 사실은 지금 현재 주어진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입니다. 능력은 다양할 수 있지만 책임은 항상 가능성과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성숙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뉠대로의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전부,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필요한 만큼의 믿음의 '양' (amount)에서 무게를 덜어내고 믿음의 '질' (quality)에 무게를 두었을 때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온전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믿음에는 '정도'(degrees)가 있으며, 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전집, I, 276).

거룩함에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고 추상화와 반율법주의로부터 청의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이해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규정을

우리 자신의 실제 생활과 연관시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스판 위의 자동인형이나 체스 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취급하십니다. 구속은 결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삶과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덕은 두 가지 상반된 오류로부터 거룩함을 보호합니다. 거룩함을 철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정의하면 실제적인 의미가 사라집니다. 철학적 또는 추상적 거룩함은 "완벽주의"입니다. 경험적 차원, 즉 도덕적 차원은 성경적 거룩함을 정의라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자기 의로움과 죄에 대한 쉬운 견해로부터 거룩함을 보호합니다. 거룩함은 결코 선한 의지만의 산물이 아니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될 때 우리 안에 조성되는 도덕적 분위기, 즉 영적인 여건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써 정결함이 발생하고 유지되며, 은혜의 성장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고, 교제가 깊어지고, 인격이 강화되고, 도덕적 능력이 커지고, 책임감이 더욱 지성적으로 변합니다.

거룩함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핵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둔 전인격이며,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접촉에서 그 정신과 행동과 목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개념이라면, 그것은 매우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용어와 그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관찰

도덕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고 성경적 거룩함의 개념에 부합한다면 이와 관련된 다음 몇 가지 관찰 사항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성경적 거룩함은 '비도덕주의' (amoralism)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법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인간 존재의 핵심에까지 관여하지만 항상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심오한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도덕은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도덕이 무엇이든 그것은 보호 관찰 대상인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그러한 유예상태는 칭의와 성화에 의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한 지상의 삶 동안에 계속됩니다.

2. 도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구원론에 필요한 도덕적 경험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신학에 기여한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도덕은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의 혜택은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경험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위기와 성장의 관련성은 도덕의 개념에 의해 확립되며 이어지는 책의 내용을 통해 발견될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분석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인간의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경험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에 추가되는 몇 가지 활동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도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구원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구속의 모든 측면과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도덕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삶 전체를 연결합니다. 도덕의 법칙은 인간의 창조부터 죄와 관련된 문제, 속죄를 구성하는 진리, 칭의, 성화, 영원한 구원 등 전체의 길이와 폭을 확장하는 모든 구속의 요소로 이어집니다.

“인격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회심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격은 수동적이고 타성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영에 따른 선택을 결심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을 끊임없이 맞이합니다. 은혜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8 쪽)

제 10 과: '거룩함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Holiness)

이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 인간 존재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결 신학"은 신학과 삶 사이의 참된 연결고리를 강조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참여를 기로막는 높은 장벽을 만들지 않으며, 또한 은혜에 대하여 타협하는 일체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사실 거룩함은 추상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인간의 삶 사이의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항상 삶 속에 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에 은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일반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여기서의 목적은 신학과 동일한 체계 안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유지할 신학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그 사이의 관계를 재연구하려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웨슬리의 사역 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는 그의 진짜 메시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웨슬리의 공헌과 통찰은 가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룩함이 이 땅 위에서의 삶과 문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데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부 주제의 명백한 중복을 피하면서 주제의 본질에 내재된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중복은 역동적인 사랑의 모든 측면이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것의 심리학을 논의할 때, 논의의 영역은 헬라어로 "생명"(life)을 의미하는 '정신' (psyche)이라는 용어로 표시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논의에 포함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윤리적 차원이 제안됩니다. 이 신학적 틀에서는 인간적인 문제와 신적인 문제가 적절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 관계에 병치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의 제목과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비추어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한데, 첫째, 인간은 ‘도덕적 정신’ (a moral psyche)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 인간’ (moral man)에 대한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거룩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논의를 같은 틀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이상과 가치로서의 거룩함 사이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인식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둘째,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과 같은 성경적 심리학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성경적 사용법에 대한 관찰 분야에서 지지를 얻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웨슬리안주의는 ‘펠라기우스적’ (Pelagian)이며 인본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은 웨슬리안주의적 배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립하기 전에는 전혀 논의를 진전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전적 입장, 심지어 종교개혁 신학과 동일한 신앙적 기초를 공유했습니다.

Q. 복음의 진리는 칼빈주의와 반율법주의 두가지 모두에 매우 가깝지 않습니까?

A. 실로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간격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둘 중 어느 쪽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고 죄악된 일입니다.

Q. 어떻게 하면 칼빈주의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A. (1) 모든 선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돌림으로써; (2) 모든 자연적 자유의지와 은혜에 선행하는 모든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3)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함으로써,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거나 행하는 것까지도.

Q. 도덕률폐기론을 넘어설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A. (1)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높이는 데서. (2) 영원히 기뻐함으로. (전집, VIII, 284-85)

그렇다면 이 매우 중요한 선언이 없이는 웨슬리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판단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이며, 모든 사람에 대해 거저’ (FREE IN ALL, and FREE FOR ALL)입니다. 첫째, 그것은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도, 전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가 한 일이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한 성품이나 선한 욕망, 선한 목적과 의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샴이 아니라 시냇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무료로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선함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선의 주인이며, 그가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는 모든 것이 거저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의존합니다. (전집, VII, 373-74)

언어의 문제

이 시점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언어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대화나 관심사의 각 영역은 그 분야와 관련된 특정한 이미지와 때로는 그 영역에서만 적절한 의미를 갖는 전문용어로 특징지어집니다. 거룩함에 대한 논의에서 가져온 예시를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내를 속이거나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도덕적이라는 말이 국가에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바로 앞장에서는 도덕적이라는 말이 인간의 잠재적 자질에 대한 보다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한 가지 의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덕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는 거룩함과 상관없이 없지만, 앞 장에서 설명한 의미의 도덕은 거룩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가치 영역에서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다루고 두 번째는 질을 다룹니다. 그 두가지가 같은 트랙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 그림책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비해, 또 한 사람은 "난 초록색이 싫어요. 초록색은 나를 아프게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TV 를 켜고 인권조사 발표를 들어보자"고 말하는데 비해, 또 다른 사람은 "그 연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발을 썼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들을만한 말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만일 "월요일은 죄 되다" (Monday is sinful), 또는 "금요일은 운이 없다" (Friday is unlucky)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극도로 게이이거나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설교자가 함께 종교적인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한 천문학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문학자가 설교자에게 "저는 아주 단순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설교자는 "저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아주 간단한 천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한 연사가 "나는 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더니, 느닷없이 신학과 심리학뿐 아니라 철학, 역사, 경건 문학, 과학, 해석학 분야를 넘나들며 거룩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문장마다 개념을 섞어 사용한다면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전문 용어가 심리학 용어와 결합되면 항상 혼란이 발생합니다.

저는 거룩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신학/심리학, 성서 문헌/교리 해석, 신학/체험 등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결 신학은 교과서적인 교리가 인간 경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추상적인 신학적 논의와 그것이 실현되는 실제적인 인간 본성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성화와 동일시할 때, 특히 그것이 매우

불완전한 인간에게 귀속될 때 몇 가지 의미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완전함"을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함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여기게 되면 한 순간에 완성되는 위기로서의 온전 성결의 의미는 당혹스러워집니다. 사고의 영역을 세심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 논리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 완전성은 신학의 절대성을 거부하거나 신학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웨슬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하는데 보냈으며, 그 자신이 명쾌한 사고의 대가였습니다. 신학은 하나의 영역이고 심리학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둘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둘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그 점에 대하여 이해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도 같은 문제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관찰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 "은혜의 역사" 또는 "은혜의 상태," 그리고 은혜의 "두 가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와 같은 관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청중 (또는 독자)이 내린 판단은 사실 문제를 신학적 결론과 혼동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 오류임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신학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성경 자체의 권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역사상 불필요하게 많은 피를 흘렸고 기독교의 증거가 불필요하게 흐려졌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듯이 웨슬리는 특히 이러한 혼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영역은 감정으로 가득 찬 데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빛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교파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교도, 동양인, 서양인, 고귀한 사람, 무지한 사람, 신비주의자, 또는 지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항상 이루어지며,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관용구가 요구됩니다. 때때로 성경구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문맥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갖 황홀하고, 활기차고, 사치스러운 언어가 모두 합쳐져 점차 신학에 통합되고, 성경 외적인 의미를 지닌 성경적 언어가 "정통"

(orthodox)이 됩니다. 온갖 화려한 의미와 상징으로 빛나는 시가 신학에 요약되어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의미체계가 전통의 이름으로 기록해지기도 합니다. 불씨가 사라지자 그 차가운 재는 ‘교회의 용어’ (the terminology of a church)로 안치되어 생명의 근원이 재에 있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학생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용어들에 대한 진리의 근원 여부를 조사하여 폐기하기도 하며, 이 재를 살아있는 석탄으로 만든 불의 근원을 찾고자 할 때 사람마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일부 성결 단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인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The altar sanctifies the gift)는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날 그 의미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초기 미국교회의 성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인 피비 팔머 여사 (Mrs. Phoebe Palmer)는 신학적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 중에 실수로 그 진부한 표현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그녀를 탓할 수는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구절로 "성경적" (biblical) 신학을 만들어낸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웨슬리는 이런 성향에 대해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웨슬리는 오늘날 온전한 성화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25~30 개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움과 함께 그는 현재 필수적이고 "정통적인" 용어로 간주되는 몇 가지 용어는 피했습니다.

다니엘 스틸(Daniel Steele)은 웨슬리가 성화의 경험을 의미하기 위해 무려 26 개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성령의 세례" (the baptism of or with the Spirit) 와 "성령의 충만함" (fullness of the Spirit) 은 그가 사용한 표현이 아닌데, 아마도 도덕적 본성의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는 일시적인 본성의 정서적 충만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받음" (receiving the Holy Spir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온전한 성화의 의미에서" (in a sense of entire sanctification)라는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의롭게 되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아마도 같은 이유로 "오순절의 축복" (Pentecostal blessing)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생 찰스 웨슬리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복음주의 강단에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할과 함께 거듭남과 성령의 증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⁹

웨슬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위대한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에 관하여 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모든 웅장하고 화려한 말을 피하십시오. 실제로, 당신은 그것을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함과 성화, 두 번째 축복 또는 분명한 성취와 같은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를 느꼈고, 그 이후로 교만이나 자기 의지, 분노,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충만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질문에도 겸손하고 단순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 어느 때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교만이나 불신앙, 또는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좋지 않은 성품을 다시 느낀다면, 영혼이 위협에 처하더라도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전혀 위장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영혼에 참된 건강이 될 말을 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전집, XI, 434-35, 이탤릭체 내 것)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신학적 언어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일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를 날린다고 해서 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불은 더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락의 주제는 거룩함의 필수 요소인 도덕적 삶의 심리학입니다.

⁵⁹ Daniel Steele, *Steele's Answers* (Chicago: Christian Witness, 1912), 130-31.

도덕적 삶의 심리학

거룩함의 심리학은 단순히 말하여 은혜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논의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인격의 구성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고 거룩함이 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이고자 합니다. 신학은 책으로 보는 것과 '작업복'(work clothes) 차림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질문 중 일부는 형식적인 성화의 신학과 살아있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웨슬리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번째 은혜의 역사 또는 두 번째 위기 또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 두 번의 특별한 순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한 번이나 세 번, 백 번이 아니라 두 번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뒤집으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영적 삶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순간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축복"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잃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며, 또한 잃어버린 것을 언제 회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경험에서 나중에 두 번째 경험에 주어지는 은혜를 어느 정도 보류하실까요? 아니면, 각각의 "은혜의 역사"에서 죄 문제는 단지 일부만 해결해 주시는 걸까요?

죄인과 신자 및 또는 성화 된 사람에게 적합한 종교 생활 수준이 각각 따로 있을까요? 다양한 은혜의 상태 또는 각각의 특징적인 죄의 종류 가운데 전형적인 것으로 여기는 죄의 양이나 죄에 대한 승리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적 생활 수준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춘 다음 다른 은혜의 상태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중생할 때 완전히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왜 거듭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거듭남으로 온전히 구원받았다면 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뒤로하고 도대체 왜 '위기 체험' (crisis experience)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순서* (ordo salutis) 또는 구원의 질서에 관한 것이며 조직 신학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중생의 시간적 우선순위, 칭의, 믿음, 회개 및 기타 구속의 요소와 같은 문제들이 이 분야를 구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방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한 독단적인 대화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다소 객관성이 부족한 일련의 전제에 따라 이러한 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알미니우스와 당대의 개혁 교회 사이의 주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 양자, 칭의, 성화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 장의 영역이 아니며, 단지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주목할 뿐입니다. 웨슬리의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의 총체성 안에서 우리를 향해 행동하시고 인간 본성의 총체성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으로 본다고 말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노, 사랑, 거룩, 자비, 공의와 같은 어떤 신적 속성도 하나님의 전인격과 분리되어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지와 정신, 그리고 마음과 같은 자신의 일부가 각각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전인격으로서 이러한 총체적 경험을 합니다.

거룩함과 정의, 사랑과 진노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속성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신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인간의 구속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통일성은 인간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사람 전체가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도덕의 개념이 유지되려면 인격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신적인 활동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H. 오튼 와일리(H. Orton Wiley)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 은총은 ... 인간의 존재 전체에 행사되는 것이지, 인간 존재의 어떤 특정한 요소나 능력에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가 이해의 영역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어거스틴주의는 은혜가 효과적인 소명을 통해 의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반대의 오류에 빠집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 둘보다 더욱 참된 심리학을 고수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은혜가 지성과 감정, 또는 의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서와 성품의 밑바닥과 배후에 있는 인격 또는 존재의 핵심에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을 보존합니다.⁶⁰

⁶⁰ H. Orton Wiley, *Christian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2), II, 356.

그러나 이것이 질문에 답하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와일리는 흥미롭고 유익한 대답을 제안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과 법정, 그리고 성전’ (the home, the court, and the Temple) 이라는 세 가지 비유가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각각 고유한 영역과 일치하는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전달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비유가 다른 비유와 분리된 상태에서 전체적 진리가 될 때, 즉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탄생’ (birth)이 주된 비유가 될 때,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희생되는 신학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각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신중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출생, 사랑, 또는 분리 등 자연적인 삶의 관점으로 표현됩니다.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인 죄책감과 비난, 전가, 심판, 그리고 칭의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의 예배와 관련해서는 죄와 부정함, 순결, 성결, 희생, 거룩함, 그리고 헌신과 같은 해당 영역의 전형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와일리는 구원 교리 전체를 통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용어 사용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시작이 이 책의 연구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유익하게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의와 중생, 그리고 성화 사이의 신중한 성경적 구분을 간과할 때 신학의 문제점들이 불필요하게 혼동됩니다. 각각은 다른 요소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저마다의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상 분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사건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참된 본질은 어느 하나만으로 전부를 포괄할 수 없고, 모두 함께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함께) 포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정과 법정 또는 성전예배의 비유를 통해 각각 인류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칭의 또는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구원의 중심 목적인 죄로부터의 자유, 즉 마음의 거룩함에 비하면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성화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생과 칭의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학은 반드시 이러한 진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중생, 입양, 그리고 초기 성화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와 자녀됨의 축복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수반되는 것, 즉 분리할 수 없는 축복으로 제공되며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모두 동의어는 아닙니다.⁶¹

이것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 관계에 인격 전체를 포괄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발전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넘어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체가 인간의 필요 전체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순서는 단순히 시간순이 아니라 논리적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절차가 핵심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믿음이 회개에 선행하는가, 아니면 회개에 따르는가? 순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와 유사한 더 많은 질문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 같은 단어를 분리하여 서로 연대순으로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에는 삭제할 수 없는 회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증오 없이는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한 가지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회개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전체 인격' (the total personality)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둘 다 사랑을 묘사합니다. '정결함' (Purity)은 이 모든 것의 복합체입니다. '정결케 함' (Cleansing)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즉 교제의 "법(law)"에 순종하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의 모든 접촉에 참여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며, 의지적인 순종의 행위만도 아닙니다. 정결함은

⁶¹ Ibid., 402.

영혼에 새겨진 신비로운 특성이 아니며, 시험할 수 없는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처음의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전체 인격의 복합체가 수용 또는 거부의 형태로 깨어나 일치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구속의 절차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람의 도덕적 완전성에 기여합니다.

칭의를 위한 고전적인 요건은 '믿음'(faith)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인격의 다른 부분들이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부르심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이 회개와 믿음의 모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 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세례에 참여하려면 "복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며, 따라서 신자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옛 속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속박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동일한 부르심의 지속과 심화입니다.

와일리는 다시 "중생은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으로 부여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웨슬리가 중생을 성화의 관문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⁶² 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신자들의 회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롬 12:1 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는 매우 보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영적 삶의 모든 수준에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길 역시 오직 하나로서, 그것은 전인격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인격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보다 더 효과적이고 "종교적"(religious)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는 순종의 증거입니다.

정결함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떤 후속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순종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의 한 측면을 다른

⁶² Ibid., 423.

측면과 분리하여 전체로 만들 자유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불성실한 교사가 됩니다. 믿음은 삶의 어느 한 영역이나 특정한 은혜의 상태에 속하기 위한 법칙이 아니며, 순종 역시 다른 영역의 법칙이 아닙니다. *도덕적 정직함*이 해석의 기초이며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특징지어야 합니다. 성결은 핵심적으로 윤리적일 뿐,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영역에서 구체화됩니다. 특정 신학계에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논쟁은 적어도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입니다. 첫째, 바울이 설교한 "행위" (works) 를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 잘못 이해된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투영하는 것은 우리 신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의를 가져올 수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의를 낳는 피상적인 순종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는 순종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웨슬리가 강조하는 순종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적인 순종입니다. 인간은 어떤 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두뇌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명제를 받아들일 때 그 명제와 관련하여 행동해야 하는 인격체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진정한 이원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삶에서 결코 마주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결론, 즉 인간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도입되는 주관적 개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인격에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내재하고 성령에 의해 각성하도록 부름받은 능력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행사되도록 요청할 뿐입니다. 새로운 권능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능이 적절한 관점에 놓이게 됩니다. 와일리는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발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이것은 신적인 형상,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를 이끌면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고후 3:18). 죄 안에서의 자아의 증가는 "더욱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향하며, 결국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움으로 하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 본성의 우연일 뿐이지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힘을 가진 인격을 유지하지만, 이것들은 그의 존재의 진정한 중심 인 하나님과는 별개로 행사되므로 왜곡되고 죄가 됩니다. 죄는 인간의 존재에 주입된 새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능력에 대한 편견입니다.⁶³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건전한 통찰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웨슬리는 성경적 성결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인격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민감하지만 여전히 온유함이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에 대한 열심"이 넘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항상 지식에 의해 인도되고 모든 생각과 말과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단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심어 주신 지혜로운 목적에 대한 열정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오직 그 목적에 복종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더욱 가혹하고 불쾌한 열심조차도 가장 고귀한 목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조차도 죄에 대항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통제될 때 마치 영혼의 벽과 보루와 같아서 악한 자가 그의 영혼을 해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집, V, 263)

이 단락은 "거룩함의 심리학은 단순히 말하여 은혜가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진술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은혜가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단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구속 등 모든 것이 인간에게 계시되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인간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⁶³ Ibid., 95.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에서 "은혜의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은혜의 상태" (STATES OF GRACE)

모든 질문의 기저에는 "은혜의 역사" (work of grace), "은혜의 상태" (state of grace), 또는 "축복" (blessing)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교 생활의 이중적 측면은 은혜의 상태에 의해 구조화되고 은혜의 역사가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이 성경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그것을 신학적 추론과 구별해야 하며, 경험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용례를 간단히 조사해 보면 은혜의 "상태"나 "역사"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말도 성경 외적인 의미이지만,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신약성경 주석에 따르면 은혜의 단계에 일종의 번호를 매기는 형용사로서 직접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됩니다. 물론 웨슬리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신약성경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 '전유' (appropriation)가 이러한 이중적 측면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믿으면서 다른 근거로 그 용법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주석의 한계 내에서 엄격하게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용어가 마치 정통성의 증거처럼 독단적으로 주장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가 어떤 상태나 지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창조부터 최종 구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로" (by grace) 주어집니다. 이 용어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은혜는 결코 비인격적이거나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으로서(그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 인내와 오래 참음이며, 인간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신적인 필요성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유롭게 주어지고, 그러면서도 도덕적 고려 사항에 의해 조건 지어집니다.

"사랑의 상태"나 "자비의 상태"("은혜"와 동의어인 용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은혜의 상태"의 타당성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인격적이거나 정적인 입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묘사합니다. 웨슬리안주의는 가장 높은 책임감과 지각을 갖고서 항상 이것을 주목을 하였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어떤 특정한 경험의 순간이나 심리적 경험 그 자체, 또는 은혜의 상태와 같은 것들의 결과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관념이나 말의 집합, 심지어 성경적인 말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즉 그리스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속 전체를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이 인격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체계에 내재된 반율법주의적 경향의 발전을 방지합니다. 웨슬리는 "의롭다 함을 받거나 성화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접하면서, "저마다 거의 한 순간에 행해진 일을 너무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행동 모두에 있어서 매시간 매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불쾌하게 합니다"⁶⁴ 라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웨슬리안에게 은혜는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God with men)으로 생각되며,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결코 그분의 뜻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코 단순한 힘이나 강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과 '원시적' (primitive) 거룩함에 대한 견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땅 위의 삶에서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룩함에 대한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구 사항으로 인간을 놀래키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⁶⁴ Quoted in John Fletcher, *The Works of the Reverend John Fletcher* (New York: Methodist Episcopal Conference Office, 1836), Vol. I, Preface, 9.

도덕적 가르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한 책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은 주로 내면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나 완전함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인간 스스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인격적 성장에 따라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 경험을 자극하지만 결코 그것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에 걸친 윤리적 고려 사항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모두를 특징짓는 요소입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 신학에 침투할 때 신학 자체의 비도덕적인 피상성과 비합리성이 정화됩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인간을 향해 행동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온전한 인격' (whole Person)으로 '온전한 사람들' (whole persons)을 대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자비와 정의가 아니면 은혜와 진노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각각 분리하여 말하는 지극히 대중적인 인식을 없애 줍니다. 인간의 지위나 도덕적 본성과는 별개로, 이성적인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의지 등 인격의 한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인격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부' (the whole of God)가 '인간의 전부' (the whole man)를 존중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은 잠재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계층'(layers)이 아니라 '인격체'(a Person)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여러 층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나누어 어떤 때는 성령의 일부를 받고 어떤 때는 성령의 더 많은 부분을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인격적으로 오셔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분수로 나눌 수 있는 수학적 덧셈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수학" (religious mathematics)의 모든 문제와 은혜가 그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바로 인격적 특성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 (first and second blessings)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해야 하며, 여기서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요소가 또한 제시됩니다.

인간의 인격

성화의 경험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도덕적 조정의 문제라면, 전체 과정에 대해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심리학은 항상 현대적이며 신학자는 그것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투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동할 때 그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행동합니다. 그가 행동할 때마다 그의 전 인격이 행동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이나 육체는 참으로 전 인격적 동의가 없이는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책임감 있는 행동에는 전인격이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마음, 창자, 눈, 귀, 입, 발, 정신, 영, 육체 및 기타 많은 내, 외부 기관 등 신체의 수많은 부분이 책임감 있는 행동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서 심장과 발이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행동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발이 "피를 흘리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일 때 마음이 관여하고, 따라서 당사자는 그 일에 대해 전 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면 거기에는 영과 육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각 명칭은 사람 전체의 행동과 태도를 특징짓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은 각 기관이 제안하는 일종의 상징적 행동에서 힌트를 얻어 질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을 육체와 혼과 영으로 보는 삼분법적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일부 고전적 오류는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의 일부 완벽주의는 이러한 인격의 개념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견해는 깨끗한 마음은 분열되지 않은 마음, 즉 통일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다중적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화가 아닌 갈등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은혜가 영혼과 육체를 대립시킨다는 점에서 구원을 마치 온전함과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치 흐트러진 인격이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고 '죽음' (death)이 구세주 취급을 받습니다.

웨슬리안과 우리는 성경이 칭의와 중생이 전 인격을 통합한다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인격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역동적인 전체에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통합' (unity)이며, 죽음은 '분열' (disintegration), 즉 생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붕괴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입니다. 거듭남은 전인적 성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숙과 봉사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구원받고, 전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인격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인격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은총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영구적인 "표식"을 부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 정체성과 자의식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동성과 조정, 확대, 관점의 변화, 또는 강등과 이동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모두 함께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고 지적한 예수님의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사람이 책임감 있는 피조물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인격에 가해지는 단순한 자극과 영구한 목적을 잘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자유를 가정합니다. 사람이 사람 인 한 사람은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 확장하고, 완성을 위해 도달하며,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적 "죽음"은 부동이나 정지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해체를 초래하는 활동의 방향성입니다.

인격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회심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격은 수동적이고 타성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영에 따른 선택을 결심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을 끊임없이 맞이합니다. 은혜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삶은 보통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선으로 진보하거나 퇴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격 전체에 걸친 평회의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각 사람의 지배적인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이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강등되지 않고, 도리어 강화됩니다. 인격의 본질은 도덕적 자유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욱 깊이 있게 영성화 될 뿐, 결코 비인격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성화는 인격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위한 ‘성장 모서리’(growing edge)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약속한 것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새로운 생명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불리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은혜와 인간의 자유

자아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심리적 구성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유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 도덕적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그 자유가 허구가 아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자기 초월과 자기 결정의 척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사람, 즉 영적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의 모든 매력은 인간이 다른 행동이 아닌 한 가지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은 행위의 결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한 어떤 결과에 매이게 되기를 원하는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인격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자유는 책임의 모체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개인의 변덕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결정되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끔찍할 정도로 도덕적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유의 삶을 소속이 없는 개인으로서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의식을 지닌 존재로서만, 그리고 항상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만 시작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아는 그렇게 서 있을 때만 진정한 자아입니다. 자의식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실체로서만 자신을 진정으로 안다는 뜻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자유는 다른 자아와 책임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자아입니다. 이외 다른 식의 자유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상호 관련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소통하는 ‘자아 공동체’ (a community of Selves)입니다. 인간은 상호 교제를 통해 그 신적인 삶으로 이끌릴 때만 영적 인식을 발견하며, 그 결과 삶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적 교제입니다. 다소 부수적이지만 이 논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연구의 앞부분에서 관찰한 바에 대한 언급인데, 성령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임하거나 충만하게 하는데 비해, 개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성체반과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추구하면서 이 신적인 거처를 특징짓는다는 점입니다. 몸(“산 제물”)은 성령에 의해 그 교제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삶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한 교제의 필요성에 내포된 함축된 의미와 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유지하는 관계는 가장 깊은 필요성에 의해 우리를 교제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 교제와의 분리는 곧 영적 죽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조건 하에서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예리하게 인식하도록 강요하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전적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입니다; 둘째, 그러나 성령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똑같이 가정하고 존중하며, 그러한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이는 그것이 온전함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이 두 가지 순간, 즉 이기심과 이타심이 모두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전체 율법의 성취, 즉 종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영적 건강(유일하게 적절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 전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자의식은 인격의 사회적 차원에 논리적으로 선행합니다. 참된 자아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각 자아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결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다른”(other) 자아를 몰아 낼 때만 죄가 됩니다.

신학이 자아를 부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자아를 폄하하거나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올바른 자기 평가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자기 이해와 인격의 독특성과 생명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자아만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는 온전하고 긍정적이고 강한 성격의 모든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랑의 지배 아래 있는 온전한 자아, 즉 정결한 자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게 해 주실 기회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명확한 개인적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someone else)이 되려고 하고, 외부의 규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입에 달고, 관습이라는 편안한 외피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호한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호한 간증을 하고, 모호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는 둔하고, 단조롭고, 영감이 없고, 편협하고,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정신과 마음을 닫고 사랑의 원천을 말려 버립니다.

이것은 기독교 적이지 않으며 성결 신학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말하여, 결함이 있는 인격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며, 따라서 거룩함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 제한을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온전함과 건강’(wholeness and health)이며, 회심의 첫 감동에서 삶의 마지막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거듭날 때 궁극적인 자기 인식과 자의식,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의 존중과 안전을 빼앗아간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호 사랑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 경험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그 해방의 순간은 무한히 즐거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살고, 그곳으로 몰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지된 발달조차도 정신 건강의 한 측면인데 비해, 더 이상 영적 건강이 아닙니다. 인격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어린 시절로 남는 식으로는 번성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 헌신해야 합니다.

막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가장 깊은 책임감의 세계에 속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자기 모습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초점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진정한 존엄성의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참된 사람으로 나타나고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써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그 동안 스스로 하나님을 차단했기 때문에 관점을 벗어난 행동을 해왔고, 죄 된 이기심은 이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 그리고 관심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책임감 있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신학 전통에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분리하여 하나님께 대해 옳은 것, 아니면, 이기심의 관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한창 성숙이 요구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책망하는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유아기의 특징은 자아에 대한 과장된 관심과 자아의 욕망, 그리고 겉모양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자기중심적으로 끝내는 것은 정상적인 도덕적 경험을 완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유치한 것들을 버렸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성적 존재가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참여인 사랑에 대한 논의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의 맥락에서 했습니다.

웨슬리안주의에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자기중심적 경향은 종종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go on perfection) 사람들에게서 성령 충만한 삶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영혼의 건강을 빼앗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지배적인 관심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자기 성찰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맥박이 뛰는 느낌," 부드러운 양심보다는 찢리고 "아픈" 양심, 또는 축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감정 상태 지나친 강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아는 단 한 번도 유아적 상태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숙과 도덕적 활력 및 책임감으로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유치하다" (childish)는 의미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제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며 바울이 그 말을 ‘아들’(uiós)이나 ‘자녀’(téknōn)라는 뜻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문맥상 항상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한 특성을 나타내는 어른의 의미를 가진 népios 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아이 같음" (childlikeness)과는 쉽게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현재 우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발달 정지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영적 상태를 암시합니다. 바울은 엡 4:14 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의미, 16 절)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자라는 길 뿐입니다 (15 절). 또한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17 절). 히브리서 저자는 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젖이 필요한 "귀가 둔한 자들", "젖먹이," 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비난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 5:11-14).

고전 3:1 의 다소 골치 아픈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babes in Christ)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서로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는 식으로 다투는 아이들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고전 13:11 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으나 어린아이 같은 행실을 버리고 어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유치함"은 단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절로 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와 다른 경우의 문제는 단순히 미성숙이 아니라 사랑의 결함이며, 이 두 종류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웨슬리안주의의 역동성, 즉 성화의 의미의 핵심 인 사랑이 이러한 경우에 권장되는 치료법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기꺼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중적인 인격의 측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영적 존재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시 새로운 책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능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 존재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높은 수준의" (higher level) 은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법칙입니다.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별개의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는 '전체적으로' (wholly)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하나님의 인격과 별개라는 뜻의 "은혜로"가 아닌) 사람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구원은 완전하며,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전체에 확장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거듭남은 즉시 그의 영적 삶과 자유, 개인적 발전, 심리적 일탈과 편견 및 그의 성향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포함합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단일한 경험의 단계에서 인간의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 하는 복종과 함께 신뢰와 사랑의 공표가 있어야 하며, 새 생명에 관한 평생에 걸친 도덕적 결정이 수반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서명된 계약서 이상의 헌신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비유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이 서로의 마음을 묶고 삶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하는 결혼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며 역동적이고 성취감을 주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선택의 순간에 실제적인 순종과 관련된 이러한 삶의 책임이 웨슬리안에게 두 번째 위기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서도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다른 "은혜의 역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분적으로 구원하신 다음 완전히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인격의 일부만 반응한 다음 나중에 나머지 부분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한 번은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다음 번에는 완전히 제거되거나, 처음의 은혜의 결합을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설명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첫 번째 위기에 비해 그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한 인격체인 사람의 두 가지의 필수적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 두가지 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아의 이중적인 심리적 측면을 존중합니다.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분석할 때 그것의 요소들 중 세 가지가 한데 모아져서 인간의 본성과 성화의 관계성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구성합니다. 역동적인 삶과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으로서의 칭의, 그리고 적절한 중심을 향한 삶의 질서로서의 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격 안에서 성화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칭의(거듭남)는 "적재된" (loaded) 은사입니다. 인생 자체가 은사로 가득 찬 선물입니다. 육신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 은사의 포장을 풀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미성숙함은 성숙함으로, 흐트러진 마음의 관심사는 하나의 일관된 열심으로, 그리고 소심함은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생기발랄하여 사방으로 움직이는 아이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교사"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하며, 그 학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숙, 또는 성인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가 자신의 존재 깊숙이 일절 강요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그 헌신의 대가를 깨닫는 날에 도달합니다. 헌신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뭔가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정당한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 형성적인 결정을 통하여 아이는 남자가 되고, "종" (servant)은 아들이 됩니다. 이 비유는 거의 변함없이 종교 생활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성화와 관련하여 온전함의 의미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온전함은 인격의 완전한 도덕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사려 깊고 깊이 있는 도전을 견뎌낸 사람의 성숙하고 의지적이며 개인적인 결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 형성과 영적 안정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동적인 인격에 대한 정의는 오히려 그것을 배제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완전한 헌신이 실현되는 위기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온전함' (entire)이란 영적 결단에 있어서의 전 인격을 뜻합니다. '정결케 함' (cleansing)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온전한 성화는 다음 두 가지 주요한 끈을 하나의 강한 밧줄로 엮어 줍니다.

1.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화는 그 사랑의 도덕적 분위기입니다. 성화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은 건강한 인격과 일치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 산 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종교적으로는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심리학적으로는 통합된 인격이며, 신학적으로는 정결함입니다. 위기와 과정 모두, 즉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위기와 뭔가 가치를 형성하는 결심의 순간 전후의 지속적인 삶의 과정이 모두 인식됩니다.

“‘자연과 청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도덕적 삶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계시 또는 신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곳에 서 계셨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이 도덕적 책임의 순간입니다. 은혜는 도덕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예리한 인식과 함께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두 인격은 서로 대면하면서 각각 완전성을 유지합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에 합쳐지지 않으며, 한 쪽의 청체성이 비이성적인 그림자 속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청령의 오심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의식의 ‘일식’ (an eclipse)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259 쪽)

제 11 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까요? 인간은 또 무엇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웨슬리안 복음주의가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어떤 신학 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행위자로 만드는 해법은 ‘어거스틴주의’ (Augustinian)로 분류되며, 인간의 자유 응답을 전제로 하는 해법은 ‘펠라기우스주의’ (Pelagian)로 분류됩니다.

‘웨슬리안주의’(Wesleyanism)는 원칙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펠라기우스주의의 틀 밖에 서 있지만, 이번 단락을 시작하는 질문들은 이 전통의 미묘하지만 대개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배제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웨슬리안 복장을 한 아우구스티누스/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차원과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할 때, 우리는 종종 교육 현장에서 "인간의 자유가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가?"라는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항상 인간을 전적으로 은총의 수혜자일 뿐 어떤 의미에서도 은총의 협력자가 아니라는 고전적인 어거스틴식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식의 질문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복음적 반응인 믿음과 순종 너머에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뭔가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비이성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돌연변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합법적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질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인간의 이성적 본성을 벗어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실존적 의미가 없는 어떤 전문 용어로만 지칭해야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며, 성경적인 개념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룩함이 신학이 단순한 지적 운동이 되는 것을 막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 요소라는 기본 진리입니다.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처럼, 거룩함은 구원과 관련된 신학적 추상화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화는 도덕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자체가 구속의 한 측면, 즉 중심 관심사라는 것이 우리의 연구의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연과 초자연의 개념에 근거하며,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도덕적 정직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자연 이상의 것" (other than nature)이 존재하며, 이성적 사고는 의례히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건재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연 세계와 초자연적 실재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의 가정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신의 일부가 아니며 형이상학적으로도 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며 인간과 세계는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실제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문제는 진술될 뿐이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실재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더 넓은 문제 영역을 구성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재의 관계만 고려할 뿐, 실재 그 자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

웨슬리안주의는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적절히 구별할 것을 확고하게 유지합니다. 웨슬리안주의는 하나님과 타자 사이에 정체성이 합쳐지지 않으며, 인간 안에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불꽃' (a divine spark)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줄병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성품으로만 존엄성을 얻는 쓸모없는 덩어리도 아닙니다.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지속적인 은혜로 인해 가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와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 부여한 가치를 정의롭게 하는 입장을 확립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넘어 인간을 폄하하고 불신하는 것은 인간을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신학적 입장의 일반적인 오류들 사이의 길을 주의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옹호할 때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 본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도 주장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자연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웨슬리의 다음 주장은 여기에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 입장]: 나는 지금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현재 인간의 상태에서 자연적인 자유의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는"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반대에 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만일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웨슬리의 답변]: 당신의 말은 과연 "만일 사람에게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분은 인간의 동의없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신다"일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와 함께 일"하는 바로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모든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나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인다면, 우리는 이것도 허용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하시는 일이며,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저항할 수만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감당하시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룩해야" (work out our own salvation) 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영혼에서 시작된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 (workers together with Him)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동의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간직한 자유로운 행위자 상태의 사람을 구하는 것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일까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혼란스럽고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집, X, 229-31, 이탤릭체 내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상대적 우선 순위에 대한 사변적인 질문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결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러한 모순적인 사상의 흐름이 합류하는 지점에 웨슬리안 입장의 진정한 신학적, 실천적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성결 교리의 가장 깊고 광범위한 요소들이 분명해집니다.

이 논의는 성경의 영감과 해석, 성육신, 일반적인 계시와 특히 기적, 인격과 도덕적 책임, 은혜, 믿음, 행위의 내적 의미, 성화, 복음의 사회적, 윤리적 함의와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다른 많은 신학 주제 중에서도 이 특정 연구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 주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결신학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위와 성화의 개념에 관한 것일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 웨슬리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는 (잘못된) 혐의를 받을 수 있고, 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학과 종교의 차원에서 유익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 전제에 대해서까지 살펴본 다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SUPERNATURAL)의 의미

우리는 종종 "나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단호하고 평이한 진술을 들어왔습니다. 이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른 모든 접근 방식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아래에는 불안한 사고의 맥락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종교의 진정한 요소는 이성적인 토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적 믿음의 전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며, 또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시는가? 입니다. 특히 웨슬리안 분야에서는 온전한 성화를 얻기 위해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식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질문이 제기된 이유는 그러한 질문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각각 근본적인 사고의 맥락, 즉 전제를 드러내며, 우리는 이 전제를 반드시 파악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웨슬리안 운동" (Wesleyan movement)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놓고 분열되어 있는데, 이 질문들은 웨슬리 자신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인격구조의 주관적인 변화보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는 기본적인 관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는 이 개념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의미를 더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이 둘 사이의 다양한 가능한 관계와 각 견해가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검토가 아니라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를 충분히 열어두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A. '초자연 대 자연' (The Supernatural Versus Nature)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완전한 개별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 개념에 의해 강조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가 거주하는 영역은 피조물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두 세계는 서로 다른 두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피조세계는 이해할 수 없으며 피조세계 안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계시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 활동하시지만, 이 사실은 관찰된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 계시의 자료로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구조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을 기록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결국 믿음은 비합리적입니다. 계시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신-인 인간' (the divine-human Person)이 아니라 단지 상징이며, 성경 역시 신적인 의사 소통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B. '신비주의와 초자연주의' (Mysticism and Supernaturalism)

이 구조의 반대편에는 항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철학적 신비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존재와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접촉에 대해 해명하며, 이는 항상 인간 인격의 완전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망각의 지점까지 낮아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실제로 인간의 의지를 대체합니다. 어쨌든 이성적인 생각은 신적인 생각에 양보하고 일시적으로 그것에 흡수되거나 완전히 허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식에서 인간의 인격은 황폐화되고 이성은 파괴됩니다. 의지는 신이라고 상상되는 것에 굴복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신의 활동으로 식별됩니다.

신비주의적 종교의 성향은 스스로 불건전한 방식의 삶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자아와 소통할 수 있는 자아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격의 완전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모호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반 의식'(semiconsciousness)이 지적 능력의 예리한 부분들을 깃털처럼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이성적인 반응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의식과 책임감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찰과 감정주의, 또는 반지성주의의 안개 속에서 증발해 버립니다. 물론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역사는 항상 정제되지 않는 신비주의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증명합니다.

서구에서 신비주의는 활동적인 서구 정신 앞에 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므로 서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성경적 영감 이론이 변창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옛 헬레니즘에서 이월된 것 외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여 이성에 의한 의식적 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하고 쓰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넣으셨다'고 말한 것은 그 말씀이 그의 혀 위에 놓여있을 뿐 선지자의 마음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이같은 진술의 이면에는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마음을 아예 배제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빈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는 한 결코 인간에게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다는 식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재합니다.

의식이 배제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무언가를 진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비판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또 다른 비합리주의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신의 협력과 비판적 능력과는 별개로 사람의 마음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충동이 진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계시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진리에 대한 결정의 책임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간의 비도덕적 본성에 관한 가정은 암묵적이며, 인간이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진리 판단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 '기독교적 갈등과 초자연적 인 것' (Christian Conflict and the Supernatural)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초자연과 자연 사이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는 평생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둘 사이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둘 사이의 완전한 양립 불가능성은 인간이 신과 접촉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성령은 "성령 세례"를 통해 인간의 영에 수적으로 더해지듯이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악한 인간 본성에 부과되어 그것을 통제합니다. '억압' (Suppression)은 바로 그 점에서 핵심 용어입니다. 그 말이 인간의 완전성을 상실한다는 생각을 막기 위해 사용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인간의 힘을 억제하고 진정한 자아를 부정해야 하는 신적인 속박의 여정입니다. 악한

자아가 어떻게 성령께 그것을 억제해 달라고 간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격의 분열은 영적 삶의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원론을 인정하면서 육체의 의지와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야 합니다. 성화는 성령에 의한 "소유"로 구성되며, 성령은 자아를 정복하지만 자아를 "개혁"하지 않으며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도덕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낱 무력에 의한 휴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D. '잠재의식과 초자연적인 것' (The Subconscious and the Supernatural)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견해는 위의 견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견해에서는 인간의 영적 본성, 즉 영혼은 그 자체로 옳고 그른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물질로 여겨집니다. 영혼에 작용하는 외부의 초자연적 힘으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비이성적으로 작용하거나 의식 수준 아래에서 잘못된 충동을 올바른 충동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영혼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본성은 은총에 의해 작용합니다. 이 견해에서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급진적 인 불균형은 사람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다소 덜 비판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도덕적입니다.

여기서 신학적 문제는 사람이 성화의 은총을 제대로 받으면 충동적인 본성으로부터 모든 죄의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가 있으며 변화될 수 없다는 확신을 불러 일으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동일한 견해에 근거합니다. 논의 중인 견해는 단순히 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다고 긍정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주장하는 사고의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 "예-아니오"식 논쟁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개혁할 수 없는 기본 충동과 같기 때문에 그 죄된 충동이 선해지려면 일종의 성령의 영적 작용에 의해 충동의 특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악하고 근본적인 유혹이나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요구되는 지속적인 전인격적 훈련과 영적 양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학적 헌신에 대한 불충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성화"를 통해 사실 상 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통의 사람들은 중생의 주관적 "변화"를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초래되는 인간의 삶의 현실에 대해 역시 당황합니다. 반복적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빌리 그래함 박사 (Dr. Billy Graham)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대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 17). 편협하고 이기적인 삶에 지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5:18)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유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 더 이상 오래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때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옛 죄의 길로 돌아갔다면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는 '두 번째의 기회' (the second-chance) 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⁶⁵

이 모든 견해는 자연과 초자연을 급진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두 차원의 관련성은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반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합리주의입니다.

‘이상주의’ (IDEALISMS)

⁶⁵ Billy Graham, syndicated column, "My Answer," *Nashville Banner*, July 24, 1968.

철학적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인간과 신을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개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투영체이거나 무한한 것의 유한한 경험, 또는 신적인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개인적 정체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불꽃’ (spark)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조각으로서, 그의 "구원"은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합쳐지는 것이며,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험을 통해 자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견해의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만큼이나 큼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면 그 자체로 진정한 도덕적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와 행동은 엄격하게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 제한된다면, 기독교적 관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 불가능한 제한을 두는 무언가가 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는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반역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평균 수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한 조금 더 나은 본보기일 뿐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그리스도들" (Christs)이 기대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구원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재결합이 해체된 상상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합하려고 시도할 때 논리적이며 신학적인 문제가 배가됩니다. 많은 철학이 역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동반하고 지원했지만 기독교는 기독교를 철학적 속박에 두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물리치고 성장합니다. 누구도 구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보다 실재의 본질에 관한 이론의 문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하나님 간의 형이상학적인 관계는 아마도 항상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도덕적 관계입니다. 도덕적 관련성은 형이상학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Depth)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그것은 과학에 적합한 측정이나 철학의 추상적인 고려를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 가능성을 모두 거부하는 이론을 제외하고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이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적 초자연주의’ (BIBLICAL SUPERNATURALISM)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를 분리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낯선 존재가 아니셨고 철학적 추상화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땅은 그분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사실, 히브리인의 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사이에 개입하여 그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 작용은 이성적이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덕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불순종은 엄연히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G. 캠벨 모건 (G. Campbell Morgan) 은 그리스도에 관한 주장을 논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은 어색한 단어이며, 우리가 더 많은 빛을 갖게 되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⁶⁶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인간 존재와 그 한계를 모든 인간에게 적용가능한 용어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의 영역,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이"의 영역과 연결시키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자연적" 세계를 인류의 지적인 이해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무한한 '심연' (gulf)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육신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지적 소통의 장애물이거나 그분께 대한 믿음의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 자체로 계시와 신앙에 대한 이성적 도움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진리의 전달에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 앞에서 마음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깨어진 법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든 그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설득했습니다.

지적으로 어려운 요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도 오류일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본체 안에 두 개의 완전한 본성을 지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는 성경적 설교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이러한

⁶⁶ Morgan, *The Teaching of Christ*, 42.

"기적"은 무한히 풍성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정녀 탄생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빛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의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회적 본성에 대한 단서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출처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향해 열려 있는 창문인 성경 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삼위일체 교리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실재하십니다. 교리는 지적인 변덕과 오류에 대한 경계이지 그 자체가 신성한 선포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가 신비로 덮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 인간의 도덕적 삶이 깨어 있기 때문에 비합리주의가 아니라 이성 of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연과 정신' (nature and spirit)이 만나는 지점에서 도덕적 삶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계시 또는 신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곳에 서 계셨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이 도덕적 책임의 순간입니다. 은혜는 도덕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예리한 인식과 함께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두 인격은 서로 대면하면서 각각 완전성을 유지합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에 합쳐지지 않으며, 한 쪽의 정체성이 비이성적인 그림자 속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결코 인간의 이성과 의식의 '일식' (an eclipse)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점에서 도덕적 무감각과 완전한 의식적 사고를 희미하게 만드는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강요없이 작동해야 하며, 비판적 판단력은 최고의 한계까지 높아져야 하고, 사랑은 강요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전인격적 온전함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동의하는 동안 인격의 일부가 하나님에 대해 휴면 상태, 심지어 적대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 행위에는 전 인격적 존재의 상호 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열된 부도덕한 충성심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그 존재의 핵심에 있어서까지 악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처럼 그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실재적 본성에 대한 이론을 통해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기본 철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의미,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이론, 즉 철학이 신학을 지배하고 신학적 정통성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제한된 개념이 무한대로 투영되어 "영적 세계의 자연법" (Natural law in the spiritual world)과 같은 아이디어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계시와 기적, 인간의 자유, 또는 신앙의 본질뿐만 아니라, 은혜와 성화의 개념마저도 몇 가지의 기본 전제에 의해 결정되며, 그 전제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전제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비판을 수반하는 조사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한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이며 오직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진지한 견해와 모순되는 신/인간 관계에 대한 해석을 강요하는가? 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실용성과 현실성, 또는 도덕적 진지함이 결여된 것은 사람이 진지하거나 독실하지 않고, 또는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경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모든 구원론적 진리가 실제 삶과 연관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문제로 볼 때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당황하고 낙담하거나, 정직함을 위해 거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것에 대해 심판을 내리거나 책에서 지우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희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실을 성경적 주장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성경적 해석만이 이 숭고한 진술을 일체의 부조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완전한 도덕적 오류와 ‘임시 유예’(temporal probation)적 특성이 반드시 그 개념 안에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믿음과 그 유사 개념만큼 구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나 사상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만큼 이 책의 연구에서 발췌하기 시작한 도덕의 친체적인 개념과 더 잘 연결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의 친체성과 관련하여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으며, 또한 믿음만큼 오해가 잦은 신학적 용어도 없습니다.” (268 쪽)

제 12 과: 믿음의 기능

믿음이라는 주제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 제목으로 소개됩니다. 신앙은 살아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봉사적 기능, 즉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매우 분명했고, 때때로 매우 강력한 수사학을 사용했습니다. “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이라는 설교에서 그는 우리의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끄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 심지어 기독교적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사랑의 시녀일 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끝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시작부터 만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끝이자 유일한 끝입니다. (전집, V, 462)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모든 것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른 모든 것을 삼켜 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여 순서 상 사랑이 믿음 후에 존재하므로 (고전 13 장 참조) 믿음이 사랑을 대신한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어 사랑을 필요로 할 만큼 사랑이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같은 책, 462-63)

웨슬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 논의하면서 말한 요점이 그의 신학 전체에 걸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원래 사랑의 법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창조된 거룩한 사랑을 회복하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율법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책, 464)

신학에 대한 웨슬리의 공헌이 이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행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강조에 대한 해독제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분명히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 신학의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했는데, 그가 성경적이라고 여긴 것이 바로 사랑은 행위 없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믿음에 대한 해독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 역사에 있어 웨슬리가 남긴 중요한 각주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차이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웨슬리가 "오직 믿음" (faith alone)에 대한 종교개혁의 강조에 "각주"를 달면서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믿음 대 행위" (faith versus works)만큼이나 광범위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서의 믿음과 수단으로서의 믿음은 크게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써, 각각 믿음의 의미를 되짚어 볼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서로 매우 다른 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 사상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신뢰 속에서 사랑이 길러지고 발전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경우 삶의 상황상 사랑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음 자체가 사랑의 요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목표이자 본질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웨슬리가 생각한 것처럼 믿음의 의미는 사랑과의 관계에 의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한다면, 웨슬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종교개혁의 입장보다는 가톨릭의 사랑에 대한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의혹을 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한 장에 걸친 논의를 전개하면서 내면의 모호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모든 성경적 진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결과에 의해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만큼 선명하게 개념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경험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가치 뒤에, 또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조명등이 단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만 빛을 비칠 뿐이지 믿음을 비추지 못합니다.

믿음은 중요한 가치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핵물리학의 도구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궁극적인 에너지의 단위는 인간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각적 경험의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 자체를 파괴하는 길뿐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주춧돌"이 되는 궁극적 에너지는 다만 그 하는 일들을 통해 발견될 뿐이며, 실제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역동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문제의식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대개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또는 '절차는 무엇인가요?'라는 식의 물음과 함께 마치 모든 경우에 걸쳐 믿음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험이란 단지 믿는 것에 있지않고, 매번 새로운 통찰과 관심사 및 가치관의 발견을 위한 개방성의 틀에 참여하는데 있습니다. 통찰력과 가치관, 그리고 관심사를 면밀히 조사하는 식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지적 명제나 과학적 이론을 믿는 것조차도 그러한 현상을 수반하는 호기심의 일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독립적인 심리적 정체성을 갖지 않고 다른 모든 인간의 활동을 구조화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사랑, 그리고 순종(방대한 결과들 중 두 가지만 예로 들자면)과 더불어 얹혀 있어서 그것들 없이는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앞의 것[사랑]과 실제로 분리할 수 없지만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전부'에 내포된 모든 것, 심지어 믿음의 근거이기까지 합니다"(전집, V, 22). 여기서 웨슬리는 사랑과 믿음의 본질적인 관계를 지적하지만, 그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고자 할 때 그가 믿음을 사랑과 거룩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점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그가 나눈 "대화"중 한 예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1) 사면 (구원의 시작)은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 거룩함 (구원의 지속)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3.) 천국 (구원의 완성)은 이 믿음의 상급입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 또는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여러분이 이같은 의미의 (믿음에 의한 이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 즉

구원, 사죄, 거룩, 영광) 믿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결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전집, VIII, 290)

또 다른 "대화"에 "믿음이 성화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조건인 동시에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거룩함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증가합니다"(같은 책, 279).

같은 방식으로 그는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법을 세우나요? 그것은 예전적인 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도 아닙니다. 믿음은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법,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입니다"(같은 책, 60).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것이 옳다면, 우리는 사랑이 웨슬리안주의의 역동성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신학의 초점이며 삶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사랑은 도덕적 존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은 거룩함이라는 윤리적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어떤 문제는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새롭게 제기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문제는 사랑과 거룩함의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한 연구의 다음 세 가지 구분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빛을 제공합니다:

1. 도덕의 두 가지 중심 개념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인본주의적 "자아 실현"(펠라기우스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완전성을 보존해 준다.

2. 신앙과 의지, 마음과 정신, 사랑과 순종 등 인격의 모든 측면이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전인적 심리학'(the whole-man psychology)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격의 완전성을 보존해 준다.

3. 새로운 능력의 시작이 아니라 신뢰와 애정의 변화된 방향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개념은 진정한 인간의 주도권과 책임을 잃지 않으면서 은혜의 신학을 보존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유지되고 믿음이 그 요소로 간주될 때 믿음이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문제는 믿음이 적절한 맥락을 벗어나 추상화될 때 발생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논리나 연대기 또는 심리학과 같은 어떤 원칙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고 배열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확신, 은혜, 믿음, 중생, 회개, 순종, 성화, 용서, 정결, 사랑, 칭의, 입양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해결책은 신학자의 기본 철학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배치되는 순서와 각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주목하면 저마다의 신학적 입장의 독특성을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신학은 일반적으로 회개보다 중생을 시간적으로 앞세우지만 웨슬리안주의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각 경우마다 신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조직 신학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것처럼, 귀납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다 보면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연관된 요소들이 서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요소와 분리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영적 "복합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의 요구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이 책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논리는 진리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며 구속은 도덕적 완전성에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웨슬리 신학을 구성하는 기본 확신(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확신과 이번 장의 특별한 관련성은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행동할 때("도덕적"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의 모든 측면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종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사랑도 함께 작용합니다. 문제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의 복합체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속의 진리의 다른 모든 측면이 안주하는 요소입니다. 그 안에는 전체를 적절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과 인간

구원의 다른 모든 측면의 공통 분모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전체 연구를 구속의 인간적 측면에 대한 고려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은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칼빈주의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신학이지만, 은혜를 보다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도덕적 책임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 “Salv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구원)의 첫 문단은 은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그분의 단순한 은혜, 은총 또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의 거저주는 과분한 호의, 즉 온전히 거저 베푸시는 과분한 호의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자비에 대해 조금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이 모두 거저주는 은혜였습니다. 동일한 무료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거나 소유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의 손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셨나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그의 거저 베푸시는 자비의 선물의 더 많은 사례들일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의가 발견되더라도 그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며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전집, V, 7)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믿음과 그 유사 개념만큼 구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나 사상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만큼 이 책의 연구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도덕의 전체적인 개념과 더 잘 연결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의 전체성과 관련하여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으며, 또한 믿음만큼 오해가 잦은 신학적 용어도 없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계

특히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격의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은

유형과 무형, 신성과 인간, 속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사건과 의미, 사실과 해석 사이의 합리적 연결고리입니다.

적절한 동의어로는 "전유" (appropriation)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 측면에는 객관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의 "신비로운" 영역은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완전한 진실은 항상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법정, 또는 성전에서의 제사, 전쟁 기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가족 관계 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세계와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비유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며, 다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죄와 패배, 절망과 두려움, 죽음으로 가득한 거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능력 자체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예리한 판단 근거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악을 가리켜 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능력이 더 큰 선을 위해 고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죄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덕적" 인간(이미 지정된 의미에서)이 있습니다. 구원은 도덕적 책임이 있는 죄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두 진리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일찍이 이 두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 후에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죄를 범해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과거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미래까지 이어지는 모든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세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회개가 충분히 진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쉽게 추측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적 무감각이 스며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제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원칙 없는

인간의 무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법적 무죄 판결에 내재된 인간의 위험성에 대한 교부들의 통찰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쉽고 값싸고 조잡한 생각은 심히 개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세부적인 ‘참회’(penance) 제도가 생겼는데, 이는 초대 교회의 올바른 도덕적 강조점을 간과한 상태에서 참회자가 자신의 성실성을 보이고 마침내 공로를 쌓아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능력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업화된 측면은 가톨릭 교회의 원래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행위와 합쳐지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 사이의 미세한 균형이 인간의 공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덕적 삶의 질, 즉 개인적인 측면은 비인격적인 양적 가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리를 유지하는 데에 오늘날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오류를 하나씩 공격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한 구원은 근본을 강타하고 모든 [오류]는 이것이 확립된 곳에서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당하게 기독교 종교의 튼튼한 반석과 기초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전집, V, 15)

믿음과 행위의 관계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으로’ (by faith)라는 용어는 행위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인간적 공로 제도의 남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의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는 어떤 의미에서든 인간의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과 행위 사이의 대조가 너무 커서 모든 도덕적 관련성(모든 주관적 욕망과 모든 인간적 노력)은 그 자체로 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부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은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인간의 도덕적 경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신앙의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칭의의 법의학적 의미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습니다. ‘전가된 죄’(imputed guilt)로서 불의와 그 불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 취소로서 의로움은 칭의를 추상적이며 인간과의 관련성은 물론 생명이 결여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단지 죄를 덮는데 필요한 만큼의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상품화" 됩니다. 구원에 대해 이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관련성 없는 방식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모든 주관적인 고려를 떠나서 신자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놓이게 하는 사상에 대한 지적인 동의 또는 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그렇게 여겨집니다.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러한 입장은 '반율법주의'의 위협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이 은혜와 개인의 구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지적인 확신으로만 정의되고, 행위가 신실함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 활동의 구성요인으로 여겨지는 한, 율법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참여와는 완전히 별개로 신적인 요소가 주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원의 믿음'(saving faith)은 도덕적 완전성의 개념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 예비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값싼 은혜'(cheap grace)와 '값비싼 은혜'(costly grace)를 대조하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가가 수반되는 은혜를 가리켜 바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행위"가 모든 도덕적 책임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의 역동성인 자기 헌신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한 유형의 자기 헌신은 오히려 믿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족함의 *열매* (end)입니다. 도덕적 존재가 이런 종류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십자가" 또는 자기 헌신은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진정한 '성인'(saint)은 결코 자신이 성인임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점점 더 깊은 의존을 의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존에는 순종이 포함되며, 순종하지 않으면 의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참여와는 별개의 입장이나 상태,

그리고 정결함과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존하는 것 이상의 만족과 위로를 조장하는 신학은 성경적 신학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점에 관한 현대적 통찰을 기록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플로이드 필슨 (Floyd Filson)은 *One Lord, One Faith* (한 주님, 한 신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용서를 소극적인 결과로 멈추게 하는 경향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인간을 마땅히 데려가고자 하는 곳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죄인이 슬픔과 용서를 받고자 하는 깊은 열망으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올바른 목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강한 도덕적 의무감을 주지 않는 용서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⁶⁷

제임스스튜어트(James Stewart)는 *A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의 "신비주의와 도덕" (Mysticism and Morality)이라는 장에서 믿음과 삶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항상 첫 번째 순위[중요성]의 도덕적 역동성입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삶의 주요 원천입니다. 그것은 인격을 창조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을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람, 몸과 영혼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죄를 보고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죄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온 사람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간결하게 말했듯이 그것은 죽음을

⁶⁷ Floyd Filson, *One Lord, One Fait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3), 198.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 직면하여 바울에게서 반율법주의를 찾는 것은 단순히 그의 복음을 희화화 하는 것입니다.⁶⁸

웨슬리안주의의 ‘믿음’ (FAITH)에 관한 해석

요한 웨슬리와 요한 플레처의 신학적 강조점은 당시 만연했던 반율법주의와의 논쟁을 떠나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웨슬리가 반대했던 것은 칼빈주의 자체가 아니라 (Whitefield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언하듯이) 칼빈주의의 단순한 논리에서 파생된 측면들, 즉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율법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웨슬리는 은혜와 인간의 도덕적 본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신학이 일반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던 칭의에 도덕적 차원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는 은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여기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신학을 구해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종을 보다 "크고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한 성화"는 루터가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면서 제기한 것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루터의 보다 형식적인 믿음 개념은 성화와 결합되면서 역동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웨슬리에게 있어 믿음 자체의 의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믿으라 그리하면 거룩함이 없이도 죄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집, V, 318).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목적인 수단입니다"(같은 책, 462).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같은 책, 467). 웨슬리의 저작은 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나열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입니다.

⁶⁸ James Stewart, *A Man in Christ*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54), 196.

믿음과 도덕적 삶

기독교의 의는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 사이비의, 즉 자기 의 또는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기본적인 확신을 고수하며 그 안에 신학적 일치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종교 개혁 그룹을 "성결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의견 차이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 즉 믿음의 의미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성결 신학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성결에 관한 신학의 가르침은 믿음과 행함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모든 인격이 하나의 단위로 상호 작용하는 인간 전체가 관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수동적인 인격 개념이 역동적인 인격 개념,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피조물일 때만 인간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거절됩니다. 따라서 믿음 또는 믿음의 부족 여부는 도덕적 사실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대한 반대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나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칭의의 법의학적 의미에 윤리적 차원을 추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에 의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는 전가된 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거부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거부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자 인간의 사실적 경험입니다. 의 또는 칭의는 죄책감을 제거하는 법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이번 장의 관심사인 주관적인 측면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덕적이라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도덕적 완전성의 개념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은 칭의와 믿음, 그리고 신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무조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죄에 대한 정의를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도덕적 우주를 만들고 진리의 영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다음 인간의 죄에 대해 눈웃음을 치면서 거룩함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칭의에 대해 그보다 더 이상 철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종교개혁적 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전집, V)에 대한 그의 전체 설교를 주의 깊게 읽다보면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회심의 객관적 측면인 칭의와 주관적 측면인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적 가르침의 잘못된 개념을 피하기 위해 더 세밀하게 잘라내듯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실제로 의롭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칭의의 즉각적인 열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속이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그렇지 않은 자들로 여긴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사물의 실제 본질에 반대되는 식으로 우리에게 관해 판단하거나, 우리를 실제보다 더 낮게 여기거나, 우리가 불의한데도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정확한 지혜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나를 그리스도와 혼동할 수 없습니다....

칭의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 개념은 용서, 즉 죄의 용서입니다. (전집, V, 56-57)

누구든 웨슬리안이 웨슬리의 기본 전제와 일치하고자 한다면, 그는 인격에 대한 단일한 견해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는 객관적인 관계와 주관적인 관계를 분리하여 다른 종류의 이원론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의롭지만 주관적으로는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죄 또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도덕적 존재의 죄의 특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인과 신자의 실제 죄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포함하여 도덕적 존재들의 세계에서 정직함이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직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논리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쉬운 답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 없이도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암시적으로 우리의 인격 전체가 믿음에 관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by faith)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 (that is believed)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행사하는 다른 믿음의 경험과 종류가 다를까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믿음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책임감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일까요? 이러한 문제와 함께 다른 많은 요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전유를 연관시킵니다. 적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초보적인 희미한 각성에서부터 합리적 삶의 끝에 이르기까지 전유하는 경험을 통해 그 연결 고리가 존중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반응이며, 즉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의(또는 칭의)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해를 기정사실화 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경험으로 실현할 때까지 잠정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다른 믿음의 표현에 비해 그 종류나 출처("하나님의 선물")가 다른지 여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 관한 한,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가능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속죄). 다만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인간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래의 당사자로 만듭니다. 그것은 “나(I)로부터 ‘당신’ (Thou)에게로의 순환,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상호 흐름입니다.”⁶⁹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반응과 무관한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행사할 때 인격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인간 자체의 탁월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는 자기 중심주의와 대조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헌신이며 삶에서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는 하나의 기본 전제에서 다른 전제,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태도로부터 ‘전적인 주님이신 하나님’ (God as total Lord) 에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과 사고방식 자체가 새로운 전제에서 진행되며 그것에 의해 특성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는 형식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전체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뿌리로부터의) 급진적인 혁명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Earnest Appeal” (간절한 호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믿음으로 발견한 것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웨슬리의 목적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손실을 통해 이익을 얻고, 믿음으로라도 사랑의 종교로 곧장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은 새로 태어난 영혼의 눈이며... 그것은 영혼의 귀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미각’ (palate)입니다 (표현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영혼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전집*, VIII, 4).

믿음으로 구현된 은혜

⁶⁹ Tresmontant, op. cit., 125.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는 말과 함께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마음은 이교도적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행 15: 9).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행 26: 18). 속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롬 3: 25).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롬 5: 2).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고후 1: 24).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고후 5: 7),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갈 3: 1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갈 3: 26).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엡 3: 17). 믿음은 원수의 "화전" (불화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엡 6:16). 이것들은 믿음으로 실현되는 은혜의 혜택 중 몇 가지입니다.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을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여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만 정의하고 그 혜택을 다른 삶으로 미루는 것은 주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결코 혼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결과를 수반하는 도덕적 헌신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결과, 둘 다 종종 칭의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됩니다. 가장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를 믿는 죄인의 영혼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죄책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그의 마음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권세' (the power of sin)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집, V, 11-12)

‘믿음-행위 증후군’ (THE FAITH-WORKS SYNDROME)

행위와 믿음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고 필요한(그리고 필요한) 수용성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자 상반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이것이 바로 칭의 또는 의로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속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다양한 표현의 중심적인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의도된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소외의 종식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정결함을 삶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일 1:7).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분리될 수 있다면 그 둘 중 하나만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즉, 다른 하나가 없는 믿음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할까요? 누군가의 전 인격적인 관여, 즉 그 사람의 전 존재와 행동과는 별개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인가 행위인가?’ (FAITH OR WORKS?)

‘행함’(works)을 통한 구원의 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원함이 도덕적이지 않고 법의학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배경을 이룹니다. 죄는 영적 친밀감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도덕적 완전성’(moral integrity)의 타락이라는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법과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의존, 그리고 양심에 대한 피상적이며 우연적인 법적 승인을 용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도덕이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 즉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바울과 예수님 모두 어떤 경우에도 도덕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이루며, 진리의 구조와 형태를 제공합니다(롬 2:20). 율법에 대한 순종이 무시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참된 의로움,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승인과 그분과의 정결한 교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행위 - 도덕주의’ (Works - Moralism)

한마디로, 행위 철학은 법적 무결성이 개인의 도덕적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영적인 고려를 무시함으로써 사람을 인격적인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차원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의무의 지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법이 "주님"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법을 인간의 해석에 따라, 즉 인간의 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는 쉽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내적 경험을 통해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율법의 주님’ (The Lord of the law)께서 우리의 무례함으로 인해 율법에 간히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개탄한 "행위"는 율법의 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율법의 종, 즉 우리 나름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나 몸의 자세, 머리를 가리는 것에도 있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모두 좋기만 한 결혼이나 육식과 음료를 삼가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감리교인으로서 표식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거나, 말씀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행동이나 관습에 고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교의 어느 한 부분에만 강조점을 두어 구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가 만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종교의 일부를 갖고서 전체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선을 행하거나, 또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종교 전체의 의미를 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 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사람이 수년 동안 수고해도 마지막에는 종교성이 전혀 없거나, 처음에 가졌던 믿음 이상의 것을 갖지 못하는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 중 어느 한 쪽이 훨씬 덜하거나, 또는 어느 한 쪽에 겨우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춘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고결한 여성으로 착각하는 여자나, 도둑질이나 절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꿈꾸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 조상들의 주님인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하고 무능력한 종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우 이런 것들이 감리교인의 표식이라면, 나는 차라리 성실한 유대인이나 터키인 또는 이교도가 되기를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전집, VIII, 341)

‘믿음—도덕’ (FAITH—MORAL)

반면에 믿음은 행위 철학이 무시하거나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승인과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를 추구하지만, 비인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철학은 행위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율법 제정자의 이면을 봅니다. 또는 객관적인 법이 없다면 인격을 보고 그 인격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그 인격의 완전성을 존중합니다. 어떤 명제나 사상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믿음은 그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받아들여야 할 명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켜야 할 계시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순종으로 표출되었고, 가장 온전한 순종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행동이 아닌 관념으로 끝나는 믿음은 기독교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의의 본보기가 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행동을 위해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도덕적 요소를 더해 진정으로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믿음과 행위’ (FAITH AND WORKS)

의에 이르는 길로서의 성경적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형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의와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로마서 2-4 장에서는 전적으로 외적이고 도덕적인 예전적 의와 주로 영, 즉 내면의 사람에 속한 의의 영적 본질이 절대적으로 대조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율법의 문자에 대한 순종에 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된 율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쪽은 문화적인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만 국한시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보편적 경험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장점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과 기회에 수반되는 책임감으로 인해 보충되었으며, 이방인이라는 단점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의의 기본 법에 의해 보충되었습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의 기준과 동일한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11: 32).

로마서 (2: 5)의 이 부분을 주로 죄에 대한 철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은혜의 혜택을 받는 보편적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협력을 "행위"와 동일시하고 믿음과 대조하는 것 또한 실수입니다. 이 구절에서 행위에 대한 폄하는 인간의 활동과 반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행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믿음을 단지 행위와 대조적으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 또는 수동적인 "허용"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성경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하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 줍니다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순종이 그의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 저자의 의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기위해 이 문제를 "혼동"시킵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1-22).

웨슬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차별성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의 대답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Q. 14.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A. 아니요: (1)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칭의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이십여 년 전인 일흔다섯 살이 되었을 때의 칭의를 말하고, 야고보는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의 칭의를 말합니다.

(2) 그들은 같은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선행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야고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해 말합니다. (전집, VIII, 277)

믿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정도로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너무 큰 신뢰를 두면 칭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믿음에 대한 믿음' (faith in faith), 즉 '우리의 믿음' (our faith)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일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또는 "내 믿음은 너무 약해서 구원을 얻지 못해"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칭의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faith in God)이며,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논하면서도 무심코 '행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랑, 믿음의 역동성

웨슬리는 믿음을 기독교의 역동성의 전체 복합체와 적절한 관계에 두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믿음조차도 예배의 대상으로 왜곡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거룩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산출하는 것이 되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 자체, 심지어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조차도 여전히 사랑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계명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에만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 인간이 원래 창조된 거룩한 사랑을 회복하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다른 어떤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 (end), 즉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법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집, V, 462-64)

웨슬리가 보기에 믿음의 역동성은 우리 마음과 삶에 사랑의 법을 세우는 일이며,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쟁과리와 같다"(고전 13:1)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 우리는 거룩함의 길로 신속히 나아갑니다" (전집, V, 464).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같은 책, 465).

흥미롭게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힌트를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의미를 담아 그분을 믿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쌍무적인 화해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롬 12:1의 엄청난 권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존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4:18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집"에 있는 "산 돌", 즉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벧전 2: 5).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2:28)라고 권합니다.

여러 곳에서 죄인에게 단순히 지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고후 5:10, 엡 1:6, 빌 4:18). "받아들이다" (accept)를 "믿다" (believing)와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역사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은 "심판 날에 하늘나라"에 있으며,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실 때 나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도덕적인 요구와 권면이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수용 신학" (acceptance theology)은 위험할 정도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요? 적어도 그 생각에 대한 신중한 경계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됩니다.

덧붙이자면, "인간의 수용"이 적절한 의미체계를 지닌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만이 제공할 수 있으며 사람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자신이 한 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도덕적 책임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순종/사랑 증후군’ (THE FAITH/OBEDIENCE/LOVE SYNDROME)

믿음의 도덕적 구조는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로 나타납니다. 순종만으로는 칭의에 필요한 믿음의 의미적 또는 도덕적 동의어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순종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믿음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에 순종이 포함되어야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생생하고 극적인 가르침은 바울의 신학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의는 순종의 길에 있다고 쓰면서(6: 16), 그들이 "마음에서 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6: 17)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같은 편지에서 바울 자신(1: 5)과 복음 메시지(16: 26)에 대해 한 번씩 두 번 언급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고후 10:5). 히브리서 기자는 5:8-9에서 믿음과 순종을 사실상 동일시합니다 -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로 대체해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 전체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중요한 구절에서 순종이 선택된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도덕 지향적이며,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마술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분리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간의 태도와 관련된 또 다른 고려 사항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마술 (magic)'이란 말이나 생각, 또는 행동이 초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나 적절한 원인 없이

효과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믿음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미래에 관한 정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믿음을 마술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술은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비도덕적이고 인과율 적입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은 초자연주의를 마술에 대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장은 학문적 조사를 통해 입증될 수 없지만, 인간 경험의 도덕적 차원을 간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초자연주의는 마술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진리의 왜곡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의 초자연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진리에 대한 인간적 경험의 개입에 의해 일체의 비도덕적 사변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초자연주의는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과 믿음

믿음의 도덕적 구조는 또한 마음과 사랑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인격의 도덕적 중심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느낌에 중점을 두는 생각의 자리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고려 사항을 시험하고 인격의 전체적 "여건" (atmosphere)을 결정하는 "내면의 사람" (inner man)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의 자리이며 행동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호소를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역시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어둡고 어리석고 정욕적이고 완악하고 불순한 마음(로마서 1-2 장)과 성령께서 사랑을 부으시는 마음(로마서 5 장)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분께는 순종하는 마음(6:16)과 의를 믿는 마음(10:9)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속에 거하게 해 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3:17)였으며, 이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근거를 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5: 6)이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믿음은 사랑의 맥락에 놓여 있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영구적인 "미덕"(virtue)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장 놀랍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오히려 율법 전체를 성취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이 도덕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횡수가 놀랍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기쁨으로 들었고(1:15),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6:23)라는 축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살전 5: 8)을 붙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딤후 1:14)라고 했으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딤후 6:11)라고 썼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높은 칭찬을 받았습니다(5).

믿음이 도덕적 행위이고 그것의 유지가 도덕적 관심사라면, 믿음이 가져다주는 의는 도덕적 삶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의 또는 칭의를 가리켜 순전히 율법적이고 종말론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1) 속죄는 객관적일 뿐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의 변화나 실제 죄 또는 인간의 의지나 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 (Donald Barnhouse)는 *Eternity* (영원, 1958 년 1 월)에서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옛 죄 된 본성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개혁에 관심이 없습니다"(26 쪽). 그리고 (2) 미래의 심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 어떤 죄책도 물을 수 없으며, 다음 생은 단지 완전한 구속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현대적 은유로 표현하자면, 신자는 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유혹의 힘이 사라지는 일종의 '어설픈 천국' (premature heaven)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반대했던 유형의 완전주의입니다.

칭의의 본질. 그것은 때때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무죄선언을 의미합니다. (마 8:37)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과 강론에서 말하는 칭의는 현재의 용서, 죄의 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접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선포하며,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롬 3:25; 히 7:12).

나는 이것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롬 4:5 등) 그 말은 믿음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이 믿음을 따르지만 그보다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 (눅 6:43)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선행 과정을 의미하는 성화는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화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칭의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히 12:14.) (전집, VIII, 46-47)

믿음을 유지하는 법

도덕적 관련성은 성경의 문법과 동사 형태보다 더 흥미로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성경에서 믿음을 지칭할 때 현재적 지시어 또는 분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정적인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역동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합니다. 요 1:12 은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에는 이러한 구절(예: 15 절과 36 절)이 여러 개 있으며, 익숙한 16 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계속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가정법),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은 믿음의 지속에 달려 있습니다. 헬라어는 영어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극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지속적 자격부여에 대한 이러한 우발적 효과는 여러 구절에서 표현됩니다(예: 요 6:35, 40; 20:31). 사도행전에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랐으며(10:45),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행 13:39)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롬 1:6 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3:20-26 참조), 롬 4:5 와 24 에서도 같은 시제가 사용됩니다. 열 번째 장은 믿음과 행함의 긴장에 대한 주석으로서, 의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는 마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에서는 "믿는 마음"(계속 행함)이 없는 순종은 아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화의 동행’ (FAITH AND THE WALK OF SANCTIFICATION)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믿음으로 걷는 일, 즉 믿음의 동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비도덕적이고 지적인 신앙의 정의에 의존하는 것을 막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확실히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 성결 신학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우연성’ (contingency)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사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일의 ‘지속성’ (continuance)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만약에...하면’ (if you do...), 즉 "내가 그 안에 거하면"(15:6) 이라는 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끊어집니다. 로마서 8 장과 11 장에 나오는 바울의 "만약"을 단순히 수사학적 가설로 간주하는 해석은 이 구절의 도덕적 진지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 11:21-22).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골 1:21-23).

성경 구절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단 한 번의 믿음의 행위(지적인 동의보다 더 깊지 않은)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은 도덕적 행위인 동시에 지속적인 도덕적 헌신이어야 합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반하우스가 어떻게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Eternity*, 1958 년 1 월)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은혜의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칭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칭의가 실현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신앙의 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만일 "우리는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전혀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긍정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허용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저항할 수만 있고 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전체 일꾼이시므로 사람의 일을 전혀 배제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서 시작된 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이에 위배됩니다. (전집, X, 230-31)

요약 관찰

믿음은 모든 노력을 중단하거나 모든 도덕적 긴장을 완화하거나 개인적인 진실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의존성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존성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믿음으로"는 삶의 모든 활동과 사랑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것은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도덕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덕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 태도의 변화, 즉 애정의 대상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자아, 율법의 문자로 측정되는 개인의 정결함에 대한 자부심을 위해 사는 대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너머, 온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승인이나 비승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구속으로부터의 명백한 자유를 이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적 의무와 성경의 가르침, 인간의 일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적절한 인간성을 구성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삶의 교차로에 놓이게 합니다. 우리는 온갖 관습에 맞서 날아갈 수 없으며,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구하는 손을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순종의 동기, 의도,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철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할 것' (faithful)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고전 4:1-5). '신실함' (faithfulness)은 다른 사람이 호의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양심이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갈보리 언덕에서 제공된 것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도덕적 연결 고리입니다. 그것은 칭의라는 법적인 용어를 구속받은 삶의 진정한 근거로 만듭니다. 그것은 도덕적 관련성을 옹호함으로써 도덕적 안일을 방지합니다. 영적 교만이나 종교적 특권의 가능성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금지하고 완전한 참여를 강요합니다. 언어적 상징이나 지성주의가 주는 위안을 빼앗고, 지속적이고 충실하며 인내심 있고 기도하며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상 생활에 대한 그분의 지시에 대한 인식이 커지도록 강요합니다. 모든 유형의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대안이므로, 우상 숭배는 죄의 본질입니다. 칭의가 우상 숭배자에게 전가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야 할 명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분, 즉 인격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규정하기 위한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것처럼 단순한 정의로부터 지켜주고, 매사에 더욱 흘러넘치는 삶, 즉 사랑의 동력으로 충만하게끔 하는 개방적인 "성장 모서리" 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의 모든 혜택과 구원의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여건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모든 것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전유할 때까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유는 도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사랑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도덕적 경험으로 연결되며 "거룩함의 역동성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입니다.

“‘청결함’(cleansing)이란 인격적인 만남의 역동성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청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청화는 침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킴킴 더 깨끗해지는 것’(getting cleaner and cleaner) 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 즉 영혼의 실체에 각인된 성품이나 도덕적 관계와는 별개로 객관적 존재를 갖는 형이상화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일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서로에게 침투하여 완전함을 보존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함의 원리, 즉 순간순간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최고의 인간도...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305 쪽)

제 13 과: ‘청결한 마음’ (The Clean Heart)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모든 욕망이 드러나며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ook of Common Prayer* /공동 기도서, 1695 년)

‘청결’ (cleansing) 또는 정화를 위한 기도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특별한 문구는 웨슬리가 성만찬에서 그 은혜의 상징을 취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웨슬리는 정식으로 교회에 갈 수 있을 때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는 성만찬을 베풀고 또한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의 삶을 특징짓는 영적 탐구의 일부였습니다. 웨슬리의 영적 자녀들은 "성경적" 강조에 걸맞게 청결함을 성결 교리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강조는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청결함”은 평신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기술적이고 신학적인 단어일 수도 있고, 또한 매우 풍부하고 온화한 종교적으로 중요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칭의가 속죄의 객관적인 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청결과 정결’ (cleansing and purity)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인 측면의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청결함 (수단으로서의 정결)과 정결함 (결과로서의 정결)은 좋은 성경적 용어이며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적절한 신학적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결함의 의미는 종교적 신념 및 실천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결 신학에서의 청결함’ (CLEANSING IN HOLINESS THEOLOGY)

성결 신학에서 청결함은 이 전통에서 체험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용어의 의미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결 신학은 전통적으로 성결의 두 가지 측면, 즉 서로 다르지만 대등하게 중요한 ‘구별’ (setting apart) 또는 ‘성별’

(consecration), 그리고 ‘정결케 함’ (making pure)을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강조할 때, 헌신과 구별되는 정결함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이 즉시 제기됩니다.

청결함 또는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완전함, 그리고 사랑이나 순종과 같은 말과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너무도 밀접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화하면 그것의 실체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청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관점을 드러내며, 이는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청결의 “행위” (the act)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영적 존재론” (spiritual ontology)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주관적인 ‘혁신’ (renovation)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혁신 또는 청결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는 죄의 개념과 그것의 “제거”(removal)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일과 관련된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정결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파생하며 주관적인 거룩함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정결함의 본질과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결함이 일정한 상태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존재”케 하는 어떤 것인가? 정결함이란 사람의 영혼에 심어진 성품을 말하는가? 요일 1:7 은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 (continues to cleanse)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 한 저명한 웨슬리안 설교자가 웨슬리안 신학자에게 한 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만약 그것이 계속 정결케 한다는 뜻이라면, 그 말은 정결케 해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이 점차적으로 더 깨끗해진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이어 문법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 말쑥은 헬라이어의 문법 상 “계속적인 정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종종 그 말의 신학적인 개념과 충돌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 설교자는 죄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제거될 수 있는 일종의 물질이며, 죄가 제거된 후에는 영혼이 정결해지고 또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정결함은 하나의 실체, 또는 오히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에 내재된 특성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영혼이 무엇이며 은혜가 영혼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중 한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표현은 사람의 영혼 또는 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것” (things)이라는 해석을 허용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기저에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함은 ‘탐욕’ (concupiscence)이며 탐욕은 곧 성이고 성관계는 부정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정결함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아이디어가 전체를 설명합니다. 한편으로 정결함은 ‘지위’ (status)의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이는 무죄에 대한 법적인 선언이나 의식적인 관행으로 구성되며, 또는 그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격의 가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가 하면 지위는 도덕적 삶과 관련하여 인격적 정결함에 종속됩니다. 정결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행위 또는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종에 의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입장에서 정결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식욕, 때로는 모든 미적 쾌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도덕주의적인 어조입니다. 하나는 ‘예식적 정결함’ (a cultic purity)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주의입니다. 하나는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인 수단이나 자기 부정 또는 법에 대한 순종에 의해 수행되는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둘 중 하나를 변형한 여러 종류의 속죄가 존재합니다.

‘웨슬리의 정결 개념’ (WESLEY’S CONCEPT OF PURITY)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웨슬리는 극단을 피하고 가장 건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의 양쪽에서 많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해석자들은 정결에 대한 매우 실용적이고 성경적인 이해를 주장했습니다. 정결함이 하나님의 행위라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람은 없으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분리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은혜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 "나를 떠나서는 (또는 나와 분리되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쥬, XI, 395)

후대의 영국 성결 작가인 토마스 쿡 (Thomas Cook)은 이 점을 더욱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즉 순간순간의 순종과 신뢰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은 항상 바로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⁷⁰

웨슬리에게 있어서 정결함은 "한 마음" (single heart) 또는 '정직함' (integrity)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테일러 주교 (Bishop Taylor)의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칙' (Rules for Holy Living and Dying)이라는 책에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단순함과 순결은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두 날개: 단순함은 의도에 있고, 순결함은 애정에 있다" 라는 대목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쥬, VII, 297). 정결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단일한 눈이며, 부정은 악한 눈, 즉 "단일하지 않은 눈" (같은 책, 299)의 결과이며,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웨슬리는 "단일한 눈과 악한 눈 사이에는 어떤 매개체도 있을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낮은 수준에 대해서도 정결함과의 관련성을 전혀 분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목표"와 연관시켰습니다. 그 반대인 죄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탐욕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며, 이에 대해 어거스틴 자신이 보다 많은 성경적 사례들을 인정하였습니다.

⁷⁰ Thomas Cook, *New Testament Holiness*, 14th ed. (London: Epworth Press, 1950), 43.

웨슬리는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 중 하나에서 청결함과 사랑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실 마음의 정결함은 그 자체로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과 활동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전집, V, 298).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방으로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십시오; 한 가지 관점에서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질을 지배하는 하나의 욕망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물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마음의 활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즉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충만함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집, X, 444)

신학적 의미를 고려하기 전에 청결함과 정결함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단어의 어원 및 문화적 배경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된 관심사가 무엇이든 추가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각 구절에서 저자의 명백한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성서 연구는 이번 과의 내용과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관찰 및 결론, 그리고 이번 과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신학적 적용과는 주의 깊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단어 공부

신약성경에서 ‘정결한, 정결함, 제함, 깨끗함, 정화’ (pure, purity, purge, clean, cleansing)와 같은 일련의 영어 단어들이 헬라어와 유사한 여러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약성경은 ‘깨끗하다’는 용어의 고전 헬라어의 의미를 차용하여 특정한 필요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깨끗한 물, 바람, 햇빛, 정제된 금속 및 음식과 같이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물질을 가리키는 ‘물리적 청결’ (physical cleanliness)을 의미했습니다. 이 의미는 적절한 인간관계와

채무로부터의 자유, 정직함, 또는 성실함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종적 순혈과 같은 ‘순수성’ (genuineness)이나 교정쇄를 통한 교정 방식에 의해 수정 표기된 ‘참된’(authentic) 진술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미로도 사용되어서, 예배 장소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의식적 준비’ (Ceremonial preparation)를 암시합니다. 예배자의 경우, 사업 문제나 여행 계획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양심에 어긋나거나 단지 재미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즉 정결함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분간 제쳐 두어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두 가지 명사는 katharós 와 hagnós,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동사 katharízō 와 ekkatháiro 입니다.

명사 katharós 는 정결함이나 정화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로 번역됩니다. 신약성경의 표준 번역본은 이러한 단어의 선택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분석은 단순히 친숙함과 정리를 위해 KJV 를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번역보다 더 정확하거나 덜 정확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다’ (clean)로 번역된 구절은 (1) 깨끗한 잔(마 23:26), 깨끗한 수의나 이불(마 27:59), 깨끗하거나 순수한 세마포 (은유적, 계 19:8 및 14)와 같은 물체를 가리킵니다. (2) 도덕적 자질과 관련한 의미로는 세 번 등장합니다(행 18:6, 20:26, 눅 11:41). 이 구절들 각각은 범죄와 관련하여 완전히 충족된 의무 또는 무죄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3) 일반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요 13:10-11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 의식은 스승으로서의 자신과 동료 친구로서의 제자들 사이의 교제에서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했습니다. "다는 아니니라"라는 말씀은 그들 중 한 사람인 유다를 가리키는데, 그는 (아마도 그의 발도 씻겨졌지만) 그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 장)에서 청결함은 신자와 주님과 생명이 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도 받습니다. 우리의 완전은 자신의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변성하는

나무의 완전함과 같지 않고, 포도나무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의 완전함과 같은데, 이는 포도나무와 분리되면 곧 말라서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집, XI, 395-96)

그러므로 "포도나무 안에" (in the vine)있고 거기에 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정결함의 의미와 실체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롬 14:20 에서) "모든 것이 ... 깨끗하다" (all things ... are pure)또는 "모든 것이 참으로 깨끗하다"(everything is indeed clean)는 뜻으로 kathará 라고 말하는데,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형제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katharós 를 마음과 양심과 결합하고 매번 순결을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1) 딤후 1:5 에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진실한 믿음을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2) 집사는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딤후 3: 9); (3) 디모데의 "깨끗한 양심"을 칭찬하며 (딤후 1:3); (4) 젊은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딤후 2:22)고 권합니다. 문맥이 제공하는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개적이고 진실하며 정직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로마서의 언급과 디모데서에 있는 언급은 딤후 1:15 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결한" (pure)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고 속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합니다. 순결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일관되게 사는데 비해, 불순한 사람은 불순종에 의해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합니다.

야고보는 (1:27)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경건, 예배)는 그 봉사 활동에 실용적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실함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신을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벧전 1:22)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순결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움은 "성령" (the Spirit)의 것이지만,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 즉 순종과 의지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순결은 진리에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분위기에서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예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 8)라는 팔복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 신약성경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매우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의미 외에 다른 신학적 개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전적 또는 의식적' (ritual or ceremonial) 의미보다는 도덕적 의미가 "마음" (heart)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며, 이는 즉시 인격적인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순결의 의미는 혼합되지 않은 동기, 진실하고 한결같은 사랑, 인격적 무결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 정결은 katharótes 로 표시되며 속죄 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유익을 말합니다(히 9:12-13). 구약성경의 비유는 이와 유사하지만 더 발전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조명합니다. 희생 동물의 피와 재가 부정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부정한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옛 행위의 방식과 새로운 믿음의 방식을 대조합니다.

Katharismós 는 청결 또는 정결로 번역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히 1:3) 하나님 우편에, 즉 권위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결은 단번에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죄책감을 없애는 '속죄' (an expiation) 또는 객관적인 신적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언급하며(벧후 1:9), 우리 하나님과 구주께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3-4 절). 우리는 그 새 생명에 믿음과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옛 죄로부터의 청결함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이를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추가"하지 못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5-10 절).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나병환자가 성전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적 정결의 취지로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막 1:44, 눅 5:14).

‘순수하고 순결한’/pure, chaste (hagnós)에 해당하는 어근은 네 번이나 발견됩니다.

빌 4:8 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생각의 문제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합니다. 성품의 안정은 절제된 사고방식과 습관을 요구합니다. 참된 것, 의로운 것, 사랑스러운 것, 덕스러운 것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 중에는 거룩함의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의식적으로 허용되고 자발적으로 선택된 생각의 대상인 "순수한 것" (the pure)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유명한 "권면"은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딤후 5:22)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에 대한 권면이며, 자신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강한 대조(3:13-18)를 통해 순결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혀로 쓴 소리와 악마적인 말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특유의 격렬한 태도로 몇 가지 도덕적 요구를 강조합니다. 손의 깨끗함은 katharídzō 로, 마음의 정결함은 hagnísate 로 표현하면서 순수하게 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두 마음' (the double mind)과 대조되는 깊은 '내면의 진실함' (inner sincerity)을 의미합니다 (4: 8).

웨슬리는 "한 눈으로" (On a Single Eye)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순수한 마음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음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 아들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눈이 단일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면, 그에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상의 가장 큰 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일한 눈이 없이는 그 사람 속의 빛은 명백히 어둡습니다. 그 어둠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작은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왜! 당신은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지옥의 저주받은 영이 되기보다 오히려 땅에서 구두 수선공이 되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성인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 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친 사람입니까! (전집, VII, 302)

이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손이 더럽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책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요일 3:3)은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산 소망이 신자 안에서 영감으로 불어넣음으로써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순결의 측면은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세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화의 점진적인 발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Hagnismós 는 한 번(행 21:26) 발견되며, 바울은 이를 통해 모든 선한 유대인들의 특정한 성전 예배 행사를 위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준비하는 의식적 행동처럼 행한 "정화"(purification)를 가리킵니다.

"정결케 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또는 정화하다(katharízo)라는 동사는 약 20 회 정도 발견됩니다.

1.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다른 형태의 질병이 보고되었을 때 치유나 온전함과 대조적으로 나병 환자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눈먼 사람이나 불구자는 '치유'(healed)되지만 문둥병자는 '깨끗해'(cleansed)집니다.

2.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금지된 특정 동물을 먹기를 꺼려할 때 천사가 언급한 것은 의식적인 정결이었습니다."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3. 예수님은 외적인 경건함 뒤에 악한 의도를 숨긴 사람들에게 잔의 안쪽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도덕적 순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도덕적 순결은 마음의 목적에 의해 정의됩니다. 어떤 행위도 그것을 낳은 의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직성'(Integrity)은 '순결'(purity)입니다. '이중적 동기'(Double motives)는 불순함의 증거입니다.

4. 마지막 다섯 구절은 도덕적 결단에 대한 분명한 권면입니다.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후 7:1 에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아오리스트 가정법 능동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현재 분사]"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가정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과 인간의 실패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미완료현재형 (aorist)동사는 단순한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도덕적 결단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함의 완성 또는 성숙은 부정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전체 권면은 분사의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것처럼 거룩함의 과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정결은 몸을 성령의 전 또는 성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절한 몸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고전 6:15-20).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비유를 더욱 발전시켜 교회의 교제와 연합의 확립과 유지를 그리스도의 “몸” (body)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완전성은 고전 3:16 에 “너희 [복수형]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17 절)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이 속한 세속적 문화와 분리될 수 없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정직성이 그들 가운데서 죄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도록 몸과 영의 정결한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권고는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고린도 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2) 엡 5:26 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는 아오리스트 가정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할 경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일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구절에서는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히브리적 성전 봉사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주관적인 정결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유예 기간’ (days of probation)동안 그리스도와 맺는 지위 및 우발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개인의 책임을 추론하거나 추론해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가르침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향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3) 요한 서신(요일 1:7)은 정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제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계속 정결(현재 지시적)하게 합니다. 즉, 교제가 유지되는 한 정결은 유지되며 교제는 빛 가운데서 걷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는 교제의 단절이며, 이는 곧 어둠이며, 어둠은 미움으로 정의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움은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이는 교제를 유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결은 교제의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청결함’(cleansing)이란 인격적인 만남의 역동성과 별개로 존재하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 즉 영혼의 실체에 각인된 성품이나 도덕적 관계와는 별개로 객관적 존재를 갖는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일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서로에게 침투하여 완전함을 보존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의 원리, 즉 순간순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최고의 인간도...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4) 요일 1:9 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용서하다"와 "깨끗하게 하다"는 모두 아오리스트 가정법으로, 문법적으로는 "만약" 이라는 말이 지닌 우발성과 일치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변화의 결정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정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두 번의 행위와 시간으로 분리되어 있느냐는 여기서 요한의 관심사가 아니며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확실한 문법적 요구는 이 구절에 관한 한 어느 쪽이든 주장을 할 수 있는 독단적 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려면 이 구절이 답으로 제시하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는 실재하며 속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속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즉 빛 가운데서 걷는 것만이 이 구절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5) 야고보는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8). 그 두 용어 모두 정직하지 않은 행위와 동기를 가리키며 정직하게 해야 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정화는 결정적이며 (아오리스트)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손은 katharidzo 로 깨끗해지지만, 마음은 hagnísate 로 순수해지며, 이는 ‘정직함’ (sincerity)과 관련된 보다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개념인 ‘결백’ (innocence), 즉 ‘흠이 없음’ (blamelessness)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정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암묵적인 정의와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 장에는 이 용어의 올바른 개념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정결이 언급되는 논의가 있습니다. 회기 중이던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자 공의회 회의에서 바리새파 신자들 중 일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의 근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한창 확장 중인 교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원 또는 정결함은 유대인과 기독교 이방인의 목표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의 보다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지만 모세 율법의 외형적 의식주의에 의존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문제의 실제적인 측면보다 구원의 기본 철학에 대해 더욱 염려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토론에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7-8 절).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의 믿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둘 다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조건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증거하는 정결함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정결함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의 타당성을 인정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중심 질문과 결합되어 전체 논의가 적절한 초점으로 이동합니다. 고려 중인 주제가 공개됩니다. 전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 절) 라는 신학적 교훈에 대해 베드로는 주어진 증거에 근거하여 대답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1 절).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구원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교도들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조건보다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근거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모세의 제사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도 이방인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모든 구원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정결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속한 것임으로 오직 믿음만이 정결함에 이르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율법에 따라 오순절에 유대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승인의 인침이었고, 성령이 바로 그들 모두의 정결한 마음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강조점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당시 자신의 종교적 한계를 인정해야 했던 유대인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 진리는 침례교의 침례가 침례교인에게만 아니라 웨이커교인에게도 요구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경우, 또는 반대로 침례교인이 웨이커교도들의 영적 교제에 대한 견해를 인정하고 자신이 다시는 다른 종류의 상징으로 영적 친교의 중요성을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비슷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했던 이방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내포된 오순절과 성령, 그리고 성령과 정화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의 논의의 중심이 되는 문제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구절만을 근거로 성령의 임재가 마음의 정결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주석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시제는 성령이 오시기 전의 정결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정결함의 사실성에 대한 ‘인침’ (the Seal)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정결함은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정결함은 전체 구절의 의미에 의해 정의됩니다. 정결함이 의존하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의지하는 순종, 즉 ‘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딤후 2:14은 정결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디도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15 절)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10 절) 라는 취지의 윤리적 가르침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4 절). 여기서 순결은 죄악으로부터의 분리와 선한 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12 절)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정결함이며, 거기에는 "선행"이 포함됩니다. 즉 정결함조차도 역동적입니다.

"깨끗하게 하다"(cleanse out/ekkathairo)는 또 다른 형태의 동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제의 명목 하에 근친상간한 남자를 용납하였고 (고전 5 장),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고전 3:17). 죄를 책망하는 책임을 맡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이것이 배경 사상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또는 나쁜 태도와 악한 마음의 성향)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5: 8). 이 권고는 분명히 죄인 자신과 관련이 있지만, 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이 구절의 의미를 소진시키거나 심지어 이 구절의 진정한 추진력을 가리는 것은 구절의 전체 중요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자체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책임이라는 악으로부터 진리 자체에 대한 성숙하고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회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거'(purging)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 있는 진실성을 갖추는 데에 반드시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딤후 2:16, 21) 그릇이 되기 위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 절)고 권면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하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바른 자세를 지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요약 관찰

신약성경에서 정결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검토할 때 몇 가지 관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그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명확하며 종종 회화적 및/또는 의식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결코 신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결케 함은 정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결한가?" 또는 "정결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조건이라기보다 반응입니다.

2. 정결함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구약의 예식주의가 개념적 요소를 제공하는 '의식적' (ceremonial)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속죄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일반적인 물건이나 봉헌되지 않은 물건도 적절히 준비만 되면 성전에서의 봉사에 적합하며,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적합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이지만 '잠정적인' (provisional)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의 다른 측면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마 1:21); 화목하게 하심(고후 5; 에베소서 2); "백성을 거룩하게"(히 13:12);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줌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리심"(롬 4:25);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롬 6: 6),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히 1:

3),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고"(딤후 2:14). 이러한 객관적 또는 사법적 정결함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화에는 또한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경우 의식적 정결함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물로 몸을 씻어 실제로 정결해졌음을 표시했습니다. 정결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과 관련될 때, 그것은 허구적이거나 전가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묘사합니다. 구속의 진리의 경우 정결함의 객관적인 요소는 개인의 주관적인 전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불릴 수 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반드시 정결함이 내포된 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청결함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모두 무언가로부터의 분리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의식적인 정결은 영적인 정결에 대한 회화적 상징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영적 정결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정신의 악으로부터 실제로 분리됨으로써 실현됩니다. 도덕적 함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구약의 개념은 신약에서 철저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 도덕적 개념으로 분명해집니다.

4. *의식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가 청결함의 종교적 측면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정결의 연속성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요한일서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 *지금까지 우리는 청결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 서로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구속의 몇 가지 측면을 다시 조명합니다. 이 단어의 이러한 적용은 의미를 바꾸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나눈 정결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죄 많은 인간에게 허용한 가능성입니다. 유다가 "깨끗한" 사람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책임에 내재된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측면을 지적합니다. 2) 그런 다음 딤후 2:21의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 거룩하고 ...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에서와 같이 성화와 정결은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고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도덕적 완전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이며, 이는 거룩함으로 온전해지기 위한 개인적인 대가입니다. 이 정결은 "믿음으로" (by faith) 이루어집니다. 즉, 믿음으로 가리키는 모든 것, 즉 자기 의와 대조되는 도덕적 지향의 새로운 중심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언제나 정결합니다. 이 믿음은 위에서 언급한 정결함의 전유물이며 그 사람을 실존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합니다.

6. *청결한 마음 또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이런 방식의 정결함이 사람의 임무입니다 -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 4:8), 즉 단일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순결한 마음의 상태라고 언급되며, 일반적으로 사랑의 "근거" (ground)를 나타냅니다. 즉, 순수한 마음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부정한 마음과 대조되는 순수한 마음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7. *마음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함은 "마음"의 특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인격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의 순결은 인격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며, 각 부분은 이 중심의 지향성에서 순결을 이끌어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이 순결을 구성합니다. 순결한 마음의 가장 깊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삶의 중심을 둔 마음입니다. 육체는 결코 더럽거나 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순결은 세속적인 일과 성관계를 물리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순결은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삶의 토대입니다.

8. *정결함 또는 청결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 관계이지 영혼의 본질적 특성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교제 안에 정결함이 있으며, 이는 그 둘 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정결함은 이 관계와 별개로 자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교제가 순종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정결함 역시 "순간순간" (moment by moment) 유지됩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결함은 순종이나 사랑과 별개의 상태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해졌다" (I am cleansed)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별개로 주장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9. 신약성경에는 성령께서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성령은 인간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정결함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며, 이는 사랑이며, 교제이며, 성령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마음입니다. 부정함은 도덕적 완전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교제를 깨뜨리며 사랑을 정욕으로 바꾸며 '이중성' (duplicity) 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죄의 본질입니다.

도덕적 타당성과 거룩함의 맥락에서 정결함은 영혼의 본질에 일어나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진리의 여권 속에서 순종이 마음의 기쁨이며, 사랑을 낳는 올바른 도덕적 관계여야 합니다. 정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즉 "도덕적인 것" (moral)에 대해 제기된 모든 것과 관련성이 있고 그것에 일치합니다. 이 용어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도덕적인 관련성 외에는 어떤 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도덕적 정직성에 대한 설명이며 정직성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질이며, '단일한 마음'(single-heartedness)이 그 근본 특징입니다. 정화는 이중성과 속임수와는 위배됩니다.

또한 정결함 (또는 청결)은 고립되거나 단편적인 가치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와 인격의 다른 요소에 속합니다. 그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동일시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화와 관련된 것은 다른 문제들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밀드렛 와인쿵의 사랑에 대한 거룩함의 근거는 때때로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되고 특정 행동 목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룩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대신 와인쿵에게 사랑의 산화는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녀의 글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무한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인쿵은 웨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순간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진보입니다. 원전은 청결한 '소유'가 아니라 역동적인 '진행'입니다. 사랑은 청결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원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증가해야 하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원전'합니다." 와인쿵은 웨슬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 동안 계속 성장하는 역동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역동성은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거룩함은 이웃과의 상호 작용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계인 합니다. 와인쿵은 웨슬리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거룩을 사회로부터의 도피, 시민적 관심사, '나쁜' 사람들,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물러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거룩함 안에 이러한 분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룩함의 반대편에는 그 핵심을 가득 채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랑/거룩함의 증거는 교케라고 말하며, 그 교케는 기독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기독교 종교가 참이라는 세상의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 거룩한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 결과 이 증거를 통해 세상은 특정 문화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칼라 선버그 (DR. CARLA SUNBERG), 나사렛교단 중앙감독

제 14 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가장 독특한 웨슬리안적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완전함’ (perfection) 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그 결과 널리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완전함은 성경적인 단어이지만, 이 개념에 대한 여러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된 영어 단어들은 성경적 용법의 풍부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슬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절대주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학(특히 요한 웨슬리를 참조하는 신학)을 시도하는 모든 신학은 성경적 완전성을 신학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이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웨슬리가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함에 대한 교회들의 이해(및 오해)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모든 경우에 대한 성경적 조사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몇 가지 결론으로 이 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웨슬리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신학/논리와 삶/경험 사이의 긴장 속에는 예상대로 상당한 의견 차이를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으며, 웨슬리에게서 "웨슬리적인" "해답"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종류의 문제들이 웨슬리 자신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웨슬리안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과 삶에서 "주어진" 것 이상의 절대적인 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이 옳다면, 그리고 웨슬리와 성경 해석이 일관된 것이라면, 이 분야에서도 역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웨슬리의 교리를 이해하는 원리는 성경적 사랑의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학과 경험의 역동성입니다. 거룩함으로 구조화된 사랑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끝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모든 단계의 목표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는 완전함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기와 과정'(crisis and process)의 중요성이라는 어두운 갈등 영역을 통과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함은 그 주제에 내포된 전제의 전체적 배경에 따라 위기 또는 과정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화를 전적으로 '위기/완전 증후군' (the crisis/perfection syndrome)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일단의 사람들은 과정과 완전함을 연관시키는데 있어서 성화와 완전함을 구별함으로써 성화와 관련된 위기를 보존하거나 그 반대로 성화와 완전함을 동일시함으로써 위기를 단지 가능한 신학적 범주 정도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유형의 진보를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바로 "마술적" 유형의 초자연주의와 성경적 초자연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에 대한 일부 해석이 서로 칼을 겨누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러한 성급한 판단이 드러내는 것처럼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충실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곳에서는 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웨슬리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기록과 개인적 지식을 주의 깊게 수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경험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딜레마는 웨슬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완전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모든 실제적인 조언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러 약화시켰습니다. 즉, 그가 완전함을 인간의 상황과 연관시켰을 때 성화의 "절대적" (absolute)인 것이 더 이상 "완전하지"(perfect) 않았습니다. 이러한 식별과 관련하여, 삶의 성장 측면은 기독교적 거룩함의 가장자리에 느슨하고 모호하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달려 있지만,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확신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삶의 관련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수록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완전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였고, 여기에는 거룩함에 대한 재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웨슬리의 기본 토대 위에 머물고자 한다면 굳이 웨슬리보다 신학적으로 더 독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자’ (the Author)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짜릿한 일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의 위기가 무엇이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전체적인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 끈질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은 요한 웨슬리 자신의 진보적인 견해를 요약한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설명)이며, 이 책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현재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테일러(Taylor) 주교의 *Holy Living and Dying* (거룩한 삶과 죽음), 토마스 아 켐피스 (Thomas à Kempis)의 *Christians' Pattern* (그리스도를 본받아), 윌리엄 로우 (William Law)의 *Christian Perfection and Serious Call*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진지한 부름) 등 웨슬리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그의 이해의 원천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그리스도의 형상’ (Christlikeness)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요약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이한 설명에서 발췌한 다음 구절들은 그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Q. 완전함을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성경말씀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설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 즉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과 말, 그리고 행동을 관통하며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Q.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러한 사랑에 도달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A. 처음에는 아마도 그는 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불이 너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의 친절을 선포하고 싶은 열망이 급류처럼 그를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모순과 모독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좋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교만의 여지들을 피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깊은 겸손과 경외심을 갖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전집, XI, 397)

Q. 완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하였을까요? 일반 신자보다 뭔가를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행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고,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고 갈망했겠지만,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많은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사도들처럼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도 않았으며, 그들보다 반드시 큰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 14:1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외적인 일을 측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막 12:43). 진실로 이 불쌍한 사람은 몇 마디의 말로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은 말을 하였으며, 진실로 한 불쌍한 여인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제공한 것이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은 의를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발 “외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고 “의로운 판단”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의 책, 400)

“그러나 그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저의 생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의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단정은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거나 최소한 어긋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단정은 성경의 주장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거나,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완전함은 순수한 사람이 마음을 채우고 모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에 그 이상이나 그것과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많은 요소를 완전한 사람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그 상상 속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렇수록 우리는 단순하고 성경적인 기록을 계속 마음에 새기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과 삶 전체를 홀로 다스리는 순결한 사랑 - 이것이 성경적 완전함의 전부입니다. (같은 책, 401)

웨슬리는 "완전한 사람" (perfect man)의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이 완전한 사람들이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총을 쏘는 표적이 되기로 설정한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책, 391).

‘그리스도인의 완전함과 교회’ (CHRISTIAN PERFECTION AND THE CHURCH)

성화와 완전함은 교회 전체에 속하는 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한 웨슬리의 공헌은 이러한 용어의 창작이나 광범위한 사용에 있지 않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양심적인 ‘교인’ (church-man)이었던 그는 신학의 ‘참신성’(novelty) 여부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거부했으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참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공헌은 교리와 삶을 연결하여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그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경험한 완전에 관한 모든 일탈 행동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매번 삶의 ‘구획화’ (compartmentalization)가 잘못된 견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입장은 누구든지 완전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구획화가 해체되고 삶이 통일되고 강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획화는 사회적 관계나 사업 활동, 종교 활동, 도덕적 삶 등 누군가의 삶의 한 부분이 인격의 자율적인 요소가 됨으로써 각각 다른 신에게 헌신하고, 저마다 고유한 규칙을 만들거나 고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학문적 연구와 경건생활이 충돌하며, 성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삶의 필요성이 서로 충돌합니다. 사업의 영역이나 학교생활에서의 부정 행위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법칙과는 다른 근거로 정당화됩니다. 인간의 복잡한 삶의 모든 부분은 각기 다른 도덕률에 의해 운영되며, 각자의 사적인 전제 위에서 자신의 권위 영역을 판단합니다. 웨슬리가 사랑과 온전함, 거룩함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위배되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거룩은 모든 내적 삶과 활동의 외적 규범을 통합하는 ‘하나의 사랑’ (one love)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전혀 주님이 아닙니다.

웨슬리안적 부흥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또는 경험적 완전함에 있어서의 부흥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자들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게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보편적 교회’ (the Church Universal)가 잃어버렸거나 잊힌 지극히 정당한 유산인 진리를 회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은사주의적 집단들도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신비주의적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 및 삶의 중요한 접촉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웨슬리는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한에서 신비주의적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발은 사회적 관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설교나 간증, 노래 또는 종교적 감정,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에로틱 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이성적, 성경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대 완벽주의’ (CHRISTIAN PERFECTION VERSUS PERFECTIONISM)

은혜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든 신학적 입장을 "완벽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함과 우리가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내재된 의미는 "임의의 법령에 의해" 이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접근하는 매우 다른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신학적 또는 종교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의 원인은 이러한 구별을 인식하거나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말은 생각에 대한 전형적인 철학적 접근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될 것입니다. 완전함이 절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그것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될 때, 그것을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종류의 견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한결같이 인간과 자연을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용어로 묘사합니다. "주권" 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조차도 그분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의 절대성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과 융통성을 빼앗지 않습니다.

"성경적 완전함"에서 이 역동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해석학에 필수적이며, 성경적이라고 불릴 만한 정당성을 가진 신학에 필수적입니다.

웨슬리 신학을 특징짓는 다른 주요 신학 용어들(또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함만을 고려하는 것은 자체의 복음적 의미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신학 적 지위를 가진 추상적 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 체계적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더 큰 진리의 한 측면일 뿐이며, 따라서 반드시 전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완전함”의 역사’ (HISTORY OF “PERFECTION”)

종교적 목표로서의 완전함은 특히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길고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종교적 설득의 정통 분야와 이단에 속한 분야 모두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사회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것이며 완전한 메시아에 의해 통치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죄인"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개념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로움 또는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은 믿음과 행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 즉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그것으로 채우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기될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입니다. 사랑은 그 새로운 사회의 법칙이 될 것이며,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또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는 정경의 가르침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으며 기독교 교회의 주요 이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오류는 실체를 두 가지 모순된 종류의 존재, 즉 '물질'/matter (그림자)과 '실재'/the real (또는 영)로 생각하는 우주론적 이원론을 가르쳤던 헬레니즘 철학에서 발생했으며,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이고 영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혼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원론의 필연적 결과는 지식이 선과 동일시되고 무지가 악과 동일시되는 '영지' (gnosis)의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지식은 미덕이다" (Knowledge is virtue)라는 말은 완전함을 향한 기독교의 '준사도적' (sub-apostolic) 추구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은 미덕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고 종교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세 부류로 나뉘는데, '육적인 사람'/the fleshly people (sarx), 또는 '불신자' (동물적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영혼을 믿는 사람'/soulish people (psyche), 또는 신자 (참된 지식은 없지만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있고 하층 계급보다 우월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the spiritual people (pneuma), 또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gnosis 에 의해 '구원받은' 지적 귀족)입니다. 이 문제의 예고는 신약의 일부 서신서, 특히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의 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전 2:3-4 을 읽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철학으로서의 종교와 특히 철학으로서의 영지주의는 기독교 교회에 의해 일관되게 거부되었지만 영지주의의 그림자는 이후 교회의 역사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리워졌습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한 영적 귀족

그룹이 있다는 식의 교활한 사상은 영지주의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형태의 이단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육체를 정복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것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서 생겨난 금욕주의적 관습의 근간이 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르낙(Harnack)은 수도원 운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완전함을 향한 조직적인 탐구"였다고 잘 표현했습니다. 육체와 그 기능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종교적 탐구가 되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랑으로서의 완전함에 대한 신약성경의 긍정적인 개념은 반전되었고 인간의 몸으로 식별되는 "죄의 몸" (body of sin)을 점진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개념이 우세해졌습니다. 성결에 대한 개념이 교제에서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와 주관주의’ (PERFECTIONISM AND SUBJECTIVISM)

이런 식으로 성경적 거룩함이 완벽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타티안(Tatian)은 ‘포기’ (renunciation)가 필요하고 그것이 성결의 본질이라고 설교했는데, 그의 생각은 말 그대로 악과 선, 부함, 가정, 친구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자제력을 수반하는 체계적인 규율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때가 되자 몬타누스(Montanus)는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면서 세속적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율 대신 황홀한 체험이 거룩함을 위한 수단이자 시험이 되었습니다. 타티안은 ‘외적 순응’ (external conformity)을, 몬타누스는 ‘불순응’ (nonconformity)을 주장했습니다. 둘 다 진정한 개인적 정체성과 영적,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을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거룩함의 개념이 세 가지 주요 이단의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미덕이라면 철학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였고, 둘째는 물질이 악이라면 모든 유형의 자기 수양, 심지어 ‘거세’ 까지도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체험이 신약 종교의 핵심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황홀하고 신비롭고 감정적인 체험이 곧 거룩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식과 자기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모두 신약성경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견되지만 그 세 가지가 모두 건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회 역사를 통해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과장이 선한 감각을 타락시키고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제주의’ (sacerdotalism)와 신비주의의 형태로 나타난 완전함에 도달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 사이의 반응은 중세의 많은 신학 분야의 발전을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은혜와 신앙을 강조한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반작용이었지만, 내적 의와 개인적 거룩함의 중요성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은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경험 방식을 통해 다시 극단적인 방식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이상과 같은 배경 설명이 "완벽주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를 준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과 완벽주의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비판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철학적 절대주의는 완벽주의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정적인 완전함을 제시합니다. 이를 종교 생활의 맥락에 대입하면 인간의 삶 자체의 명백한 불완전성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은 어렵고 때로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됩니다. 성경의 확고한 맥락에서 완전함을 빼고 다분히 인간에게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추구만을 대안으로 삼는 모든 경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인간의 본성을 침해하거나 도덕적 완전함을 희생해야 하며, 혹은 그 둘 다 희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탈에는 독선과 교만, 반 율법주의,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의 상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완전론’ (PERFECTION THEORIES)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경 연구가 추구하는 복음주의적 완전함은 완벽주의와 가장 깊은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적 완전함은 철학적 절대주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완전함이며 인간 존재 자체의 ‘유예적’ (probationary) 상태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책임의 맥락에 놓여 있으며 도덕적 능력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짐에 따라 인간의 삶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감정 상태에 도덕적, 이성적 인식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리적

상대주의나 죄에 대한 인본주의적 양보가 아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정의되는 도덕적 정직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만면 완벽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완전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일종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감정적 ‘휴전’ (truce)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주관주의의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기는 신학계에서조차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디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오류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함에 대한 열렬한 부정이 오히려 실수로 완벽주의를 다루는 것일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도덕적 요소를 간과하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견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는 인간의 삶에서 초자연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이미 논의한 이론 중 하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1. 가장 명백한 오류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종교적 관행에서 발견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뜻이 인간의 의지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올바른 욕구가 됩니다. 모든 충동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완전주의는 맹목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 일체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없이 오히려 서둘러 순종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감정적 충동에 대한 맹목적인 속박과 비합리적인 충성심이 불합리한 행동, 심지어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비합리적인 충성심이 작용합니다. 충동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로 간주됩니다. 오히려 종교적 "자유"를 위해 반사회적이고 비관습적이며 불규칙한 행동을 일삼는 거대한 장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물론 웨슬리가 거부한 것으로서 "신-인간 상호 작용"에 대해 설명한 개념 중 하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2. 영적 가치에 대한 물질주의적 개념은 또 다른 형태의 완벽주의를 야기합니다. 완벽은 자연적 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이것은 미묘한 형태의 환경주의, 즉 거룩한 환경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도덕적 문제 자체의 심각성을 격하시킵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질병이나 가난, 궁핍이 있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일상적인

보살핌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도덕적 규율에 대한 확실한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할만큼 극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은 일상적인 인간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간적 도움에 대한 염려로 인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3. 완벽주의는 도덕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표면적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복의 스타일이나 색상, 여가 활동, 개인 및 기업 생활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규정합니다. 거룩함은 이러한 규정에 대한 가능한 한 철저한 준수로 측정됩니다. 이런 식의 순응과 복종에는 의례히 불쾌하고 가혹한 생각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혹함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함과 거룩함의 표징이자 보증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이 서로를 정결케 하는 성령의 임무를 떠맡을 때, 그 일의 중요성이 너무 커서 무력이 설득을 대체하고 미덕이 됩니다.

4. 온전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코 또는 사건의 본질 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지만 완벽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그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하게끔 한 무언가가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인상이 남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동기에 대해 더 이상 인격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완벽주의가 발생합니다. 그의 "경험"이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과 신중하게 관련되지 않고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실제적인 거룩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완벽주의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적 경험 후 자신의 양심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덜 까다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허용할 수 없거나 선한 양심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고 변명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완벽주의자라는 혐의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의 행동은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때때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도덕한 과장이나 자의적인 정당화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일탈은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완전함이 의미하는 사랑의 긍정적인 내용과는 정반대라는 것이 성결 신학자들의 확신입니다.

5.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또 다른 덜 분명한 형태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견해들만큼이나 확실하게 이원론에 속합니다. 그것은 *법적 지위의 다분히 이상적인 완전함과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을 분리합니다.* 그것은 영적 실재를 인간 본성의 능력과 전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즉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이전' (transfer)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법적인 무죄선고의 배경 하에서 인간의 죄를 재정의한 다음 그것을 숨기고, 인간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실과 허구 사이의 이원론은 도덕적 완전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완벽주의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간의 법적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혼은 죄에 관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구원론에 관한 한 율법과 도덕적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권장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은 인간 존재 자체의 유예 상태를 종료시킵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견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완전함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죄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성령이 인간의 의지를 활성화하고 구속의 전 과정에 걸쳐 인간에게서 죄의 결과를 "제거하여" 그의 죄된 행위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비도덕적입니다.

논리적인 상관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면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발전이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의를 대신하므로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주장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반율법주의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죄의 결과에 대한 양심의 이완은 결국 도덕적 특성과 윤리적 결정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떠한 인간적 관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과실이 아닙니다. 매닝 패틸로 (Manning Pattillo)는 *Christianity Toda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자신의 의를 우리와 나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의 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⁷¹

이보다 더 명확하게 완벽주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의 반율법주의를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내재된 반율법주의가 그들의 주장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완벽주의의 논리의 핵심은 여러 사람들 속에 부족한 도덕적 성품이 다른 사람의 도덕적 성품 안에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보충된다는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에 보면 죄인의 행동이 ‘완전한 인격적 거룩함’ (perfect personal sanctity)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 (the perfect sanctity of Christ)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주의자와 객관주의자 모두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두 그룹 모두 그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성경적 표준에 따라 신중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소홀히 하면 진정한 도덕적 차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그룹 모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규칙을 위해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안전하며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령의 인도"를 성경으로 대체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성경은 주로 단지 종말론적 정보를 얻기 위해 읽습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 도덕적 율법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자동적 ‘수반’ (accompaniment), 또는 은혜의 관점에서 행위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도덕적 책임이 아닌 특권과 자유의

⁷¹ Manning Pattillo, "Good News to a Harassed World," *Christianity Today*, November 10, 1958

관점에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둘 중 어느 쪽도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의무감을 갖지 않습니다.

6. 완벽주의의 불규칙한 변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강조되는 '수도원주의'(Monasticism)는 그것이 발견되는 곳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따릅니다. 인간의 충동을 거부하고 근절할 수 있으면 영은 원래의 자연스런 상태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성에 수반하는 영의 죄 없는 상태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든 신학은 영지주의적 완벽주의의 아류입니다.

"은혜 안에" (in grace) 사는 것과 함께 치유와 경제적 필요로부터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완벽주의이며,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려는 경향도 완벽주의입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의 필요성을 자신의 혀로 막는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내면적 은혜를 다분히 외적이고 비도덕적인 과시로 대체합니다. 광신적인 자선 활동이나 옷차림과 장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금욕적인 생활과 같은 것도 도덕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때문에 핍박을 자청합니다. 또는 일상 생활에서 덜 화려하고 조용한 사랑의 행보를 대체하는 고향과 방언, 환상, 그리고 황홀경과 같은 감정적 표현과 경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 (an evidence)로 제시되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완전함"의 어떤 것도 위조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종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죄의 도덕적 심각성을 무시하는 실용주의적 완벽주의입니다. 영적 교만은 위에 언급한 온갖 유형의 완벽주의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 없음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겸손과 죄를 자랑합니다. 둘 다 똑같이 혐오스럽고 기독교적 완전함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한 마디로 완벽주의는 구원을 비도덕적이며 비역사적 용어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완전성은 그 핵심에 있어서 도덕적이며 거룩함이 삶의 모든 영역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 본성의 가능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요한 플레처 (John Fletcher)는 경고합니다:

모든 극단을 피하십시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불완전한 순종의 공로를 영생의 원인으로 삼는 바리새적 망상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척하면서 순종을 경멸적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하는 반율법주의적 오류에 기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의 잘 모릅니다.⁷²

그 용어에 대한 성경적 연구가 뒤따를 것이므로 많은 출처에서 추출한 복음주의적 완전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이 시점에서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즉 완전한 사랑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없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 뜻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뜻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둔화, 죄에 대한 재해석, 맹목적인 충동과 무책임한 개인주의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최고의 도덕적 성실성과 합리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요한 웨슬리는 이를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용어를 선호했지만 그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도덕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어서 도덕적입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대신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아의 타월함을 언급하는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실히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의심과 무지와 어둠

⁷² John Fletcher, *Checks to Antinomianism*, abridged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48), 22.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빛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 태도입니다.

기독교적 완전함이 완벽주의의 위험에 서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합니다. 기독교적 완전함의 모든 것은 완벽주의와 절대적인 대척점에서 있습니다.

"완전함" (PERFECTION)에 대한 성경적 조사

완전함의 문제를 명확하게 생각하려면 두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경험과의 관련성 ("도덕의 의미"장에 정의 된대로)은 그것을 특징 짓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철학적 추상화를 도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성경 연구에서 영어 단어 '완전한 (perfect)'의 의미가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로 묘사된 것처럼, 신중하게 구별된 여러가지 의미를 모호하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해집니다. 또한 번역자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에 대해 더욱 적절한 다른 영어 단어로 그럴듯하게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영어권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 의미의 뉘앙스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모든 사례들에 대한 간략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그 말의 문맥적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종종 문맥은 저자가 일정한 필요에 따라 단어를 채택하는 구체적이며 독특한 방식을 조명합니다. 신학적 교리는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관습적으로 '완전한 또는 완전함' (perfect or perfection)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Akribós 는 KJV 에서 "부지런한" 또는 "정확한"의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되며, 그것은 구속의 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이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행 18:26) 풀어 설명하였는데, 이 용법이 모든 예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됩니다 (눅 1:3, 행 23:15, 23:20, 살전 5:2).

"적합한" 또는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의 Artios 는 바울이 딤후 2장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3:17 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이 아닌 개인적인 체력 단련과 교육 훈련을 의미합니다 - "성경은 ...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16-17 절).

"완전하다" 또는 "온전케 하다" 라는 뜻의 Pleróo 는 계 3:2 에만 나옵니다. 사데 교회의 행위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pepleroména, 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Katartízo 는 "적절하게 조정되다" 또는 "편안하게 맞물리다" 라는 뜻입니다. 고전 1:10 과 고후 13:11 에서 이 단어는 교회의 독특한 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온전하라"(Be perfect)는 동일한 간구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 안에서의 상호 관련성이 필요하며 부족한 미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축도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벧전 5:10).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사는 불완전하거나 균형을 잃은 그들의 신앙에 관한 것들을 더 잘 집중시키기 위해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살전 3:10-13). 히브리 서(13:20-21)의 축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의 또 다른 형태인 Katartismón 은 엡 4:11-12 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12 절)"라는 구절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증거해야 할 임무를 위해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장비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온전함에 대한 신약성경의 나머지 단어들은 téleios (télos 에서 파생된) 계열의 단어들입니다. teleíoo, teleíos, teleíosis, and teleiotés 등이 있습니다. télos 는 "성숙" 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끝'(end)으로 번역되며 시간, 상황 또는 성격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Téleios 와 그 관련 단어들은 그것의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Téleios 는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 완성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육체적 발달, 윤리적 성숙, 성숙과는 무관한 진정한 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B. F. 웨스트콧 (B. F. Westcott) 은 이 단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형용사는 부분적이거나(고전 13:19), 불완전하거나(약 1:4), 잠정적이거나(약 1:25), 불완전한 것의 대비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완전함에 도달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롬 12:2; 약 1:17; 요일 4:18), 특히 일반적으로(마 5:48; 19:21; 고전 2:6; 빌 3:15; 약 3:2) 또는 어떤 특정한 측면(고전 14:20)에서 미성숙하거나 미발달한 사람들(엡 4:13; 골 1:28; 4:12)과 대조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⁷³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단어를 "완전한" (téleios)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마 5:48).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미래 시제)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한 구절은 명백히 불가능한 의미 때문에 진지한 독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문맥과 관련하여 완전함의 의미를 찾으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우선, 헬라어의 미래는 종종 명령이나 권고를 의미하며 일부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어성경의 경우, ASV 는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야 한다"/Ye therefore shall be perfect 라고 말하지만, RSV 는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야 한다"/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라고 번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권면에 도덕적 특성을 부여합니다. 전체 구절의 일반적인 어조는 단순히 올바른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자질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공평해야 합니다.

⁷³ B. F. Westcott,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n.d.), 64.

즉각적인 맥락에서 공정한 선의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정신에 있어서 비선택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우리의 명성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말은 온 인류에 대한 부성애를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올바른 동기와 행실의 본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구절은 앞부분 (43-47 절)과 분리될 수 없는데, 이 구절에는 이 완전함의 의미, 즉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선의를 베푸는 것, 즉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는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를 모두 사랑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강조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분의 부성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의 자녀 신분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사랑, 즉 예수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범이 되도록 온 인간 관계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웨슬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에 의해 형성되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판단에 따라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 철학 책에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가져갔다가 성경 주석과 신학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것을 다시 가져올 자유가 없습니다. 해설은 문맥에 분명히 내재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 역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6:36)고 말하고 있고, 그것의 윤리적 함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함과 자비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 19:16-21 절에는 영생의 길을 물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답은 십계명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안팎에서 율법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 절). 예수님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순종의 요소를 무시하는 새로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 준수를 복음적 "완전함"(perfection)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완전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즉 율법에 대한 이미 외적으로 완전한 순종에

추가되어야 하는 도덕적 삶의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인격화된 실천적인 선함과 그 행위의 배경이 되는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적 맥락은 언제든지 완전함이라는 단어에서 추상화의 여지를 배제합니다. 바울은 그 단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고린도서에서 그것을 népios ('어린이이다움'/childlike 이 아니라 '유치한'/childish)와 대조함으로써 의미를 더합니다.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헛된 고린도 교인들 (종교적으로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할 사람들"을 의미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전 3:1). 이 구절은 고전 2:6 에서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말한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은 "너희에게 영적인 것같이 말할 수 없느니라"는 뜻을 내포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것은 성숙과 동일시되고, 육신은 어린이 같은 것과 동일시됩니다 (어린 시절을 넘어서 사람들이 분명함에도).

바울이 népios 를 사용하면서 영어 표현에서 놓친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népios 는 바울이 항상 도덕적 미성숙과 결핍을 가리키는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불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지만 몸과 마음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의 다툼은 당신의 본질적인 유치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전 3:3). 이 말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 "내가 어렸을 때 (népios)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11 절). 정상적인 성장은 이런 종류의 정지된 발달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14:20 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 깊숙이 이 단어를 밀어 넣습니다 -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어성경(KJV)의 번역에 따르면, "너희는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되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이해와 어른의 이해를 대조할 뿐입니다. "어린이가

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너희는 유치하다"(nepiádzete)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첫 번째 대조에서 paidía 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것과 대조됩니다. 그런 다음 항상 가르침의 정신과 관련된 어린이에 같은 행동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 "방언을 과대 평가하는 열정으로 실제로는 일종의 유치한 과시와 대조됩니다. 조숙한 아이처럼 과시하려는 욕망의 산물일 뿐입니다."⁷⁴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린도서신 전체의 핵심, 즉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분열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미성숙이 아니라 도덕적 무책임의 징표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엡 4:13-14 에서도 같은 대조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perfect man/τέλειον)을 이루어 "이제부터 '어린 아이' (children/νέπιος)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 대조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5:12-14)에서도 이와 같은 대조적인 표현이 똑같이 깊은 질책과 함께 등장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고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a babe/νέπιος)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that are of full age/τέλειον, perfect)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경우에 완전한 사람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침착하며, 대체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아니라 발달이 정지된 아이, 즉 "유아적" (babyishness)인 아이입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엄마의 치마 뒤에 숨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우유병을 잡아당기는 아이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정지된 발달을 '유아증' (infantilism), '어머니에 대한 집착' (mother fixation), 그리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부릅니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영적 무책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쾌하고 매력적이고 활기찬 젊은이들에 있을 수 있는 미성숙함도 아닙니다. 완전함과

⁷⁴ William Barclay, *Letters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146.

반대되는 유치함은 한심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근면과 영적 성숙을 통해 "버려져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하는 완전함이나 성숙은 정상적인 어린이의 미성숙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소유자 자신의 연령층에 관계없는 도덕적인 성실함입니다.

바울이 *téleios* 라는 단어와 그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에 교훈적인 측면이 추가됩니다. 롬 12:1-2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이 세상에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경험으로 입증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present* (동사), "변화받아야"/*be ... transformed* (현재 시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오랫동안 충실히 적용됨을 나타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마음 속의 가장 깊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애정과 순종의 대상, 즉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엡 4:12-13에서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치와 상호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주시고 (7 절), 어떤 사람을 지도자의 지리에 세우시는데 (11 절), 이는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며, 우리가 다 믿음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 함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Perfecting* (12 절)은 *katartízo* 이며, "함께 엮다, 온전히 연합하다"를 의미하며, "성도들" 또는 거룩하게 된 자들과 서로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하는 관계를 가리키며, 그들이 세상에서 대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13절의 "온전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대상을 가리키며 개인을 그런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는 것, 즉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한 순간의 일도 아니며, 오히려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고자 했던 목표입니다.

재차 말하거니와, 올바른 정의는 문맥 속에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14절의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과 15절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모두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의 우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대인 관계 차원의 거룩함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도들을 교제의 연합으로 "여움"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7).

빌립보서 3 장에서 바울은 그 단어의 명백히 모호한 사용에도 불구하고(또는 아마도 그 때문에) 완전함의 의미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언어 사용법을 특징짓는 융통성 없는 단어의 의미에 속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téleios* 의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12 절에서는 완전함을 부인하고, 15 절에서는 이미 완전케 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넣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부활의 몸, 즉 장차 있을 만물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 언급에서는 개인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바울은 구원론적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주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 불멸과 부활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쳤고,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아 이제 영원한 행복의 확신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리적 책임이나 영적 발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잘못된 유형의 완벽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상"입니다(10, 14 절). 그리스도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끝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순응하여 그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그 부활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고 이생에서는 그럴 수 없었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서의 구절과 같이 완성된 것을 가리키는 *Téleios* 는 고전 2:6 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말씀은 '미국 개정판' (the American revision)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또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바울이 성숙을 소유이자 탐구로 이해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성숙은 진전을 멈추는 순간 노쇠로 증발합니다. 일종의 정적인 상태로써 성숙에 도달하는 시점은 없습니다. 성숙은 변화하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끝나면 죽음이 시작됩니다.

골 1:25 과 4:12 에서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 의미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수고하고, 설교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기도한 것은 그의 사역 아래 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이 영적, 도덕적 성숙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문맥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훈련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인 완성 또는 완전에 이르는 일반적인 개념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Téleios* 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모든 형태는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양한 용법 중에서 한 가지 일반적인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성숙과 발전, 특권, 그리고 지식과 같이 그 앞에 놓인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에서는 부분적인 것이 완전해지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며, 미발달한 아이가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히 2:10; 5: 8-9).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죄에 대한 희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9 절). 인간은 계속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6:1), 즉 "견뎌내라"(H. O. Wiley)는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장엄한 목록이 열한 번째 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은 옛 언약, 옛 제사, 그리고 옛 제사장 직의 한계에 방해받지 않는 탐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이 가리키는 완전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용법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며, 이 용법에는 적절한 기독교론에 대한 힌트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용되는 적용 범위가 많이 제시됩니다 -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2: 10). 한 인간으로서 그는 정상적인 발달을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인간의 경험에 절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분은 죽음과 두려움을 정복하셨습니다. "신/인" (God/man)이신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에 참여하셔서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서약입니다.

아고보는 영적 훈련의 최종 결과를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1:3-4 에서 그는 인내의 발전은 "믿음의 시련"에 의한 것이며, 이것들이 함께 (가정법) 당신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의 목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1:17 과 25 에서 완전하다고 지정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3:2 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전체 장은 혐의 죄에 관한 논의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의 온유함" (3:13)에 비롯된 행동인 선행으로 그 미덕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자라나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일 4:15-21 에서 사랑을 완전함의 궤도로 끌어 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케 되는 반면에, 사랑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초래된 내적 고통으로 인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절에서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사랑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즉 그릇된 정신이나 숨겨진 적대감이나 교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완전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끝납니다. 실제적인 요소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함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행에 옮긴다"는 뜻의 Epiteléo 도 두 번 사용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는데(고후 7:1), 이는 거룩함을 실제로, 즉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오리스트 (aorist)가 아니라 헬라어 현재 시제에서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로 계속되는 삶의 습관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3:3)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도 동사로서의 완전함은 현재 시제로서 행동의 종착역이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삶이 비 영적인 방법으로 성숙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동사 teleiáo, 즉 "온전케 하다"(to make perfect) 또는 "마치다" (to complete)라는 뜻의 동사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부 유사한 구절들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사흘 후에 온전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눅 13:32), 이는 지상에서의 사역이 완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요 17:23 에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는 친밀한 교제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능력은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온전케 되고 효율성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고후 12:9). 히 2:1 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온전케 되심"(5:9)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도덕적 탁월함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한두 구절을 더 보면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완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 따라 해마다 희생 제사를 바치기 위해 희망에 차서 "오는 사람들"(comers)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10: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10:10) 거룩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10:14). "온전케 되다"(Perfected)는 말은 완전 시제이거나 과거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입니다. "영원히", 또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된"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자주 반복되고 효과가 없는 동물 희생과 대조적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14 절) 하는데 항상 효과적입니다.

요일 2:5 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험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요일 4:12 참조). 두 번 사용된 Teleiótes 는 특정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골 3:14 에서 신자들에게 주는 다른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합니다. 동사 더하라 (put on)는 그 구절의 주동사의 확장으로 추가됩니다. 이 완전함의 본질은 그 중심에 있는

응집력, 즉 사랑에 의해 정확하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대인 관계가 강조되고 사랑이 "완전함"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히 6:1-2 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의 문맥에 대한 광범위한 언급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은혜로 시작된 것을 완성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것에 이르는 길은 빠격거리고, 따라서 충실하고, 단호하고, 계속되는 "나아 감"이 필요하지만,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영어성경 중 Amplified Bible 에는 "영적 성숙에 속하는 '완성과 완전함' (completeness and perfection)을 향해 꾸준히 전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 종교의 표면적인 효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해 대표되고 그것이 부르는 영적 삶의 영역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나아 감"은 aorist 가 아니라 가정법 현재, 즉 한 순간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해진 목표에 자기 자신을 적용함에 따라 조건화 된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전진 운동"을 나타냅니다. 전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어서 배교의 결과를 야기하며, 따라서 매사에 전진해야 할 의무가 시급합니다. 저자는 땅에 씨를 심고 경작한 사람이 열매를 기대하며(6:7), 이 시점에서 실패하면 심판의 불에 의한 파괴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는 쓸모없는 식물의 지극히 정상적인 종말입니다. 영적 성장과, 책임, 봉사,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6:9)은 목표의 요소 중 일부입니다. 완전함이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 권면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안일함에 대한 가장 엄숙한 훈계입니다.

완전함에 대한 관찰

1. **완전함은 목적론적입니다.** 복음적 완전함은 철학적 완전함과 매우 다르다는 최초의 진술이 입증됩니다. 완벽함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경우, 즉 특정한 기준에 적합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목표로서의 목적이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의 본질과 가능성과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같은 사실입니다. 완전함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며, 오직 은혜 아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용어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완전함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주어진 은총을 거부하지 않으려면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적 완전함이 인간의 유예상태의 지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유예 상태 하에서 수습의 목표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델버트 로즈(Delbert Rose)는 최근의 성결 지도자인 조셉 에이치 스미스(Joseph H. Smith)에 대한 분석적 연구에서 이 사려 깊은 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 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명의 불완전함과 관련된 유예 상황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적응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안에 있는 힘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이 세상의 모든 장애나 신체적 장애를 영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인간을 위해 고려하신 것"에 한정된 완전함입니다.⁷⁵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온전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의무 모두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완성은 시간의 지속에 의한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시점의 영적 능력과 관련된 깊이입니다. 그리스도인 목사나 교사가 완전함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떻게 완전이 상대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비논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슬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을 떠나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을 때, 거기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으며, 다시 일어서거나

⁷⁵ Delbert Rose, "The Theology of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넘어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낮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꾀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집, VII, 202).

2. 성경에서 완전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구속이 이어집니다. 이 단어는 종종 바울의 펜 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진지한 강조에 있어서 이 단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지한 일의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단지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취미로 탁월함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패의 가능성에 맞춰 목표가 조정될 수는 없습니다.

3. 완전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H. Orton Wiley 가 *The Epistle to the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203 쪽) 에서 지적했듯이, 완전함은 영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경험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에는 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진 법적 성인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 즉 어른 또는 영적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와일리는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의 '거룩한 모든 것' (Holiest of All)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진 완전한 사람의 출현이 세월과 함께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 실제로 연륜의 경험과 함께 오는 더 완숙해진 성숙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깊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기어이 죄와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⁷⁶

⁷⁶ H. Orton Wiley, *The Epistle to the Hebrew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9), 205.

4. 이것은 *복음적 완전함에는 절대적 의미와 상대적 의미가 있다*는 보다 분명한 관찰을 지적합니다. 즉, 완전함의 특성은 삶의 깊이와 표현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는 비합리적 진실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상대적으로 성실성이 요구되는 조건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 충실하게 적응해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특성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안일무사함, 그리고 완벽주의의 파괴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며,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요구에 의해 지켜집니다. 발아하고 자라지 않는 완벽한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썩어질 육신에 거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완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거라" (My son, give me thy heart)라는 친절한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것은 두 번째, 즉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성 전체를 포함합니다 (전집, VI, 413).

5. 와일리 박사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은 속죄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죄의 피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⁷⁷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더 이상의 성장을 배제하지 않으며 특정한 양만큼의 성숙도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단계란 없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서

⁷⁷ Ibid., 209.

성장"해야 하며, 구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발전해야 합니다 (전집 VI, 5-6)

6. 이것은 성경 구절에 제시된 의미의 내용에 따르면 성경에서 *완전함이란 비정상적이거나 부조리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비인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정체나, 왜곡된 육체적 욕구, 불건전한 심리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부 부주의한 비평가들이 상상하는 환상적인 일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완전함이나 질병,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직접적인 인도나 비도덕적인 수단(교회와 성경 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이고 오류 없는 접근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적 완전성과 동일시하거나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합당한 사람에게만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의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이것이 우리의 설교와 우리 삶의 총합이며, 우리의 원수들 자체가 심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허용한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사는 종교가 가장 높은 이성에 합당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집, VIII, 8, 9).

7. 복음주의적 완전은 "현세"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외에는 성경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주석도 완전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내세로 미루는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나 그것을 결정하는 규범은 "이 현세"(this present world)에서 경험하는 능력과 관계, 그리고 은혜의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은 그의 메시지 전체에서 매우 핵심적이어서 그의 저서 어디에서나 이 "현세" (this-life) 종교를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 생에 대한 관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서의 거룩함을 묘사하도록 촉구한 것은 당시의 기독교가 현재적인 기독교적 삶의 의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것을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 (전집, VIII, 267)고 말합니다.

8. 앞서 강조했듯이, *완전함은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파급 효과와 약점, 무지, 판단력 결함, 유혹, 규율 등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면제된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함은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인간적 힘과 욕구를 포함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할까요? ...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중 일부는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고 다른 일부는 더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자신을 그가 어린 아이라고 부른 사람들, 청년이라고 부른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로 적용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 (요일 2:12)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 절). 또는 (후에 그가 덧붙인 것처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14 절).

여러분은 악한 자의 불 같은 화살과 그가 여러분의 첫 번째 평화를 방해했던 의심과 두려움을 진압했으며,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 "아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요 아버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절).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의 영을 모두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perfect men)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랐"습니다.

내가 이 설교의 후반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다양한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특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 문제는 추상적인 결론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끝없이 길게 끌려갈 수 있으며, 그 요점은 이전과 같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즉 특정인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느 쪽이든 아무도 이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전집, VI, 6)

9. 성경에 함축되어 있는 이 모든 관찰들이 성경적 완전함과 완벽주의 사이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한 학문적 시도의 부족과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정직성의 부재로 인해 완전함에 관한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과 함께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매우 다른 입장입니다. 사실 완벽주의는 성경적 완전함에 대한 관점과 모든 면에서 모순되는 입장입니다.

10.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가장 중요한 단일 특성은 그 긍정적 특징입니다. 완전함은 원칙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든 역동적 의미를 내포한 사랑의 임재입니다. 성경적 완전은 인간의 정상적이고 복잡한 교제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소통과 친교의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하나님 및/또는 인간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결정적으로 "완전함"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맥락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성장과 심화의 모든 절묘한 다양성과 가능성은 복음주의적 완전성과 일치하게 됩니다.

1764년에 저는 이 주제 전체를 검토한 후, 제가 관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짧은 명제로 요약하여 기록했습니다.

- 1) 완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거듭거듭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 그것은 칭의만큼 이른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완전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 6:1)
- 3) 그것은 죽음만큼 늦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 3:15)
- 4)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사람이나 천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 5) 그것은 사람을 '무오한' (infallible)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도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 6) 그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용어를 놓고 다투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salvation from sin)입니다."
- 7) 그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일 4:18) 이것이 그 본질이며, 그 속성 또는 분리할 수 없는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전 5:16 등)
- 8) 그것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9) 그것은 실수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 6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 10) 그것은 끊임없이 점진적인 사역에 선행되고 뒤따릅니다" (전집, XI, 441-42)

Q. 사랑은 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A.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롬 13:9, 10)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분은 '천사와 같은 완전함' (angelic perfection)의 방에서 (성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체하셨습니다.

Q. "사랑은 계명의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딤후 1:5).

A.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끝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제도의 전체와 모든 부분이 목표로 하는 요점입니다. 기초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이며, 끝은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사랑입니다.

Q.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요?

A.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 곧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영혼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의 책, 415-16)

11. 완전함이라는 용어의 성경적 사용에 주목하고 웨슬리가 이 용어를 다양하게 언급한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화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동일시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되고 부정확한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똑같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1) "두 번째 위기" (second crisis)의 확실성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모두 변화 불가능한 상태로 끌어들이 수 있으며, 그 과정은 관련성이 없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2) 또는 완전함의 과정이 성화의 '위기 결정성' (crisis decisiveness)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완전함의 역동성이나 온전한 성화의 결단력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 세기에 영향력 있는 성결 작가였던 로버츠(B. T. Roberts)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성결의 가르침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역동적 완전함과 신학적 용어로서의 기독교적 완전함은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완전해진 존재에 대해 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롬 5:1; 9:30; 갈 3:24)는 것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행 15:9; 26:18)는 것을 읽었지만,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는 전혀 다른 요소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 부여하는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함에 있어서 충실함과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완전한 사랑이나 온전한 성화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용어를 결코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⁷⁸

요약하면, 신약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해석하면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사랑의 완전함과 온전한 성화와 적절하게 연관될 수 있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완전해지는 과정 사이의 훌륭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혼동하면 불필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함은 성숙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실함’ (integrity)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태초부터 시작되며 완전함이 사랑에 필수적인 한 계속됩니다.

⁷⁸ B. T. Roberts, *Holiness Teachings* (North Chili, NY: “Earnest Christian” Publishing House, 1893), 211-12.

“웨슬리는 성화는 칭의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전혀 구속 사업을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끌어 올립니다. 한계가 없는 무엇인가가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수반하는 그리스도와 의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의 새로운 차원의 인격적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깊이와 전망을 열어줍니다. 가장 최근에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아들이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361 쪽)

제 15 과: ‘성화 — 실체’ (Sanctification—the Substance)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지나 실수, 연약함, 유혹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룩함의 또 다른 용어일 뿐입니다. 같은 것에 대한 두 가지 이름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룩한 사람은 성경적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지상에 절대적인 완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 또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든,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구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전집, VI, 5-6)

이 인용문은 성화에 관한 장을 논의 중인 일련의 주제와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에서의 성화는 모든 유사한 용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의 구절에서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웨슬리는 성화라는 말보다는 다른 용어를 선호했으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의 생각의 중심에서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용어를 추상화하려는 압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진리의 ‘실체와 상황’ (the substance and the circumstance)을 신중하게 구분했습니다. 실체는 진리의 내용을, 상황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가리켰습니다. 실체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상황은 은혜의 인간적 전유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상황은 실체와 동일한 권위를 명령할 수 없음).

웨슬리에게 성화의 정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일하게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이 "감리교인들에게 일어난 방식"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추종자들이 사실상 성화를 어떤 질서 정연한 방법론과 동일시할 때, 그들은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급격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건전한 웨슬리안적 강조점을 추구하는 것이 명확성과 학문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웨슬리가 ‘성화’ (sanctification)와 ‘성결’ (holiness)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많은 용어 중 하나의 용어일

뿐입니다. 그는 "용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단순히 남들과 다르거나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자유롭게 용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변화시키는 힘에는 너무나 많은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인간 존재의 수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영광스러운 색채로 빛났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언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활기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각 상황에 맞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이 신적인 생명은 삭막하고 패배적인 삶에 새롭고 창조적인 경이로움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보다 더 유연한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용어 상의 환원주의’ (REDUCTIONISM IN TERMINOLOGY)

아마도 웨슬리안적이며 성경적인 연구에 앞서서 고려 중인 단어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몇 가지에 대한 지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웨슬리 이후 수년 동안 ‘성결과 성화’라는 한 쌍의 용어는 이상한 변형을 겪었습니다. 성경과 웨슬리 자신의 풍부한 의미에서 매우 제한된 의미로 바뀌었고, 온전한 구원의 성경적, 실존적 의미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웨슬리안들과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대화나 설교, 그리고 간증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타협으로 간주합니다. 제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말을 사용하여 간증하는 것을 마땅히 져야하는 “십자가”로 여겼고, 거기에는 분명히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든 풍부한 뉘앙스가 한두 마디의 단어로 축약되어 전달될 때, 먼저 영적 생명에 대한 의사 소통에 있어서 긴장이 생기고, 마침내 생명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경이로움이 빈곤한 어휘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단어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일에 수반하는 다소 거창하고 시적인 방법을 버리면 소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아마도 더 심각한 환원주의는 그 한 쌍의 용어를 전체 성경적 의미의 한 측면, 즉 두 번째 은혜의 사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초기 경험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웨슬리와 그의 설교자들은 칭의와 구별되는 두 번째 경험을 성화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신약성경에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도’ (saints) 또는 ‘거룩케 된’ (sanctified) 사람들로

불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그와 그의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하기 위해 '전적'(entire)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집, XI, 388, 1747년 6월 16일에 열린 설교자 회의 참조). 하지만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선택된 용어입니다.

3. 이러한 점진적인 개념 축소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한때 활기차고 극적이며 역동적이었던 이 단어의 빈약하고 "추상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다시 반응하여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화 또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거룩한 구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4. 추상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성화를 칭의와 관련하여 사실로서뿐만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완전히 떼어내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성화된 사람(두 번째 은혜의 역사를 받은 사람)만 인가, 아니면 "칭의만 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논쟁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필수적인 본질적인 인격적 관계의 모든 흔적은 아예 사라지고, 마치 배고픈 사람을 괴롭히고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 같은 방법론적 껍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신학에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신학 교리들에서 따로 떨어져서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의 상호 연동 관계는 다른 모든 교리의 삶과 의미에 필수적입니다. 믿음, 사랑, 정결, 칭의, 성화, 위기 또는 과정 등을 복합체에서 분리하는 것은 그것을 "추상화"하는 것이며, 그런 교리를 가리켜 추상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 몸의 심장을 떼어내어 거기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은 그토록 생명력 있게 연결된 몸의 연결체계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은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심장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불필요한 오해가 성화의 길을 흐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관계에서 무엇이 제거될 때 발생하는 특이한 재평가가 이 단어와 관련하여 신학에서 일어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 자연적 환경을 벗겨내면 그 본성과 의미에 맞지 않는 다른 지지대가 여기저기서 붕괴되고 원래의 의미가

뒤바뀝니다. '성화'를 성경의 문맥에서 떼어내어 문맥에서 분리된 다른 용어와 연결할 때, 인위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러한 인위적인 것이 전혀 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감정 상태나 신념의 표현, 복장 스타일, 사회적 관습, 또는 개인적 특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 교리를 구성할 때 의미가 불분명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여러 구절을 조합하여 문맥과는 별개로 준논리적 구조로 연관시킬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것을 "증명"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상호 연관성이 단절되고 칭의가 성화 아래서 호화로운 상층 주거 공간 아래 있는 일종의 초라한 지하실 아파트로 전락하거나 일류와 이류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질 때, 이 두 용어의 의미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화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웨슬리안적이며 또는 성경적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그 모든 사랑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제한된 단어의 의미를 성경에 강요하고, 문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성경적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내포하는 인위적인 도덕주의에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제한하는 교리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자 하는 나름대로 진지한 신자들의 마음 속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성경의 의미를 되찾고 그것이 신학과 삶 전체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의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신학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인 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거룩함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과 거룩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두 가지가 아니며, 실제로는 거룩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은 단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활성화된 성결의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 교제, 기쁨, 평화, 능력, 봉사, 제자도,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성화, 실체’ (SANCTIFICATION, THE SUBSTANCE)

이 장의 제목은 "성화—실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사용에서 신학적으로 필수적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전유를 가리키는 상황(다음 장) 사이의 웨슬리적 구별을 인정합니다. "실체"는 웨슬리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과 그 내용에 대한 성경적 연구를 검토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웨슬리의 성결 신학은 한 가지 특별한 점, 즉 현세에 대한 성화의 도덕적 관련성에 있어서 독특합니다. 이 확신은 신학의 모든 측면을 채색하고 전체적인 강조점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본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인 전체로 통합한 것입니다. 웨슬리안주의에서 성화는 ‘전가와 분여’ (an imputation and an impartation) 둘 다입니다. 그 안에는 위기와 과정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와 연합, 정결케 하는 것과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객관적이며 또한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신학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과 이론,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경험의 한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의 통일된 경험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모순을 하나의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논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삶이 논리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모순이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해결되는 반면, 교리적 표현과 신학 논문에서는 삶과 논리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접근법보다 어떤 한 가지 접근법을 선호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의 명백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웨슬리안 교인들 사이의 관점 차이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적 강조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교리라기보다는 주로 삶이며, 따라서 종교와 헌신이라는 보다 비과학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왔으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으로 쓰여진 엄청난 양의 문헌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불경건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전통의 전체 틀 안에서 웨슬리안 교리에 두 가지 뚜렷한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것들은 웨슬리 자신이 언급한 방식에 따라 가장 잘 표현됩니다. 초기 Beacon Hill Press 판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 완전함에 대한 평이한 설명)의 첫 단락에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의 "실체"와 "상황"을 신중하게 구별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확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을 채우는 사람의 사랑에 의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연옥의 불에 의해 연단되기 전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영혼과 몸이 갈라지자마자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는 너무 늦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즉, 모든 죄된 기질과 욕망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이 해결됩니다 (이텔릭체는 저자의 강조를 위한 것임).⁷⁹

"상황" (circumstances)은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진적입니까 아니면 즉각적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그는 "둘 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전파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강조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인 변화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관된 체험은 이것을 더 간절히 바랄수록 하나님의 점진적인 사역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더 빠르고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반면에, 이 기대가 멈출 때마다 반대 효과가 관찰됩니다. 그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희망을 파괴하면 구원이 멈춰버리며 오히려 매일 감소하므로, 신자들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순간적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⁸⁰

웨슬리가 느낀 "실체"(substance)는 성경적이었고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또 다른 문제였으며 그의 손에서 다른 방식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한

⁷⁹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0), 3.

⁸⁰ Ibid. 3.

은혜의 주관적인 전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웨슬리는 결코 독단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호소는 "끊임없는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수년에 걸쳐 조사한 종교적 경험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세심하게 조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에게 중요한 일반적인 패턴과 그 패턴에 대한 중요한 변형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전한 충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연구해 보면 이 판단이 확증됩니다). 그는 특히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현대적 학문의 방법을 예상했습니다.

웨슬리는 심리학자로서의 능력과 더불어 현저하게 유능한 "의사"로서, 복잡한 인간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증상과 원인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 간의 그럴듯한 관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 의사들과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가 건전한 신학적 원칙을 세운 것은 종교적 체험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와 부수적인 요소들을 구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리 자체와 교리가 가르치는 경험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인들에게는 그 일이 이러한 식으로 일어난다" (It happens this way to Methodists)라는 그의 결론은 신학적 독단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진리를 결코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교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설교한 은혜를 인간이 전유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관심은 깊은 그 두가지를 영적 실체와 내면성의 차원에서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진리와 그것의 상속자인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모든 복잡성과 약점, 그리고 무지에 종속된 사람들에 의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한한 변화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웨슬리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은 중심 쟁점, 즉 "실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금 논의한 요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와 같은 방식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깊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완전한 사랑이 암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향해 나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웨슬리안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교리의 핵심을 반영하는 경험의 심리적 패턴을 강조합니다. 전자는 보다 더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고정 관념의 용어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자는 심리학적 표현의 일부를 표준화했으며, 그것들의 상실은 웨슬리

신학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반전의 경우에 있어서, 심리적 증후군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개인적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즉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차지하셔야 할 보좌를 차지하는 격입니다.

웨슬리와 성화

웨슬리의 작품 중 일부를 잠깐 살펴보면 그의 입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와 뿌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은 이 구원이 즉각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 안에서 의롭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겨자씨 한 알처럼 점차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으나 나중에는 큰 가지를 내며 큰 나무가 됩니다. 또 다른 순간에 마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자라서 우리의 머리이신 이에게로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커집니다. (전집, VII, 507)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성화, 우리의 내적, 외적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도의 이 표현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석으로 탁월하며, 어느 한 순간에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적어도 아이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태어나며, 그 후에 그는 서서히 자라서 어른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서서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과 성장 사이에 동일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과 성화 사이에도 동일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집, VI, 74-75)

웨슬리에게 있어서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확립된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칭의는 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의 열린 문입니다. 신앙과 회개와 기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성경적 표현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묘사합니다. 성화는 이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또 다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연구는 칭의에 대한 일시적인 언급 이상을 허용하지 않지만, 성화와 그것의 구별이 개신교 신학뿐만 아니라 웨슬리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성화의 완전한 의미를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약화시키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깊은 영적 관계성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칭의는 단지 성화를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격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황폐화된' 칭의는 완전한 성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Q.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토록 위대하고 행복한 칭의의 상태를 잘 반영할까요?"

A. "아닐지도 모릅니다. 빛 가운데 걷는 신자들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행복합니다."

Q.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상태를 높이기 위해 칭의를 평가절하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A. "물론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우리가 온전한 성화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의롭게 된 상태의 축복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집, VIII, 298)

웨슬리의 칭의의 개념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며, 각각의 약점에 대해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말한 것처럼). 칭의에 대한 그의 높은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가장 낮은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조차도,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롬 6:1-2).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5 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즉 죄의 몸이 멸망되어 이제부터 그들이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6, 7 절). 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11 절)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며," 이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14, 18 절)이 된 것입니다 (전집, VI, 6-7).

Q. 22.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타고난 죄를 끊임없이 숙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A.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비록 더 큰 은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일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전집, VIII, 298).

칭의에 대한 웨슬리의 개념은 매우 높는데, 너무나 높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의 요점입니다* (BUT THIS IS JUST THE POINT.) 웨슬리는 성화는 칭의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의 전체 구속 사업을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끌어 올립니다. 한계가 없는 무엇인가가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수반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안내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새로운 차원의 인격적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깊이와 전망을 열어줍니다. 가장 최근에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이등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YOU IN CHRIST AND CHRIST IN YOU)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절대적인 구별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성, 즉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신자"와 "거룩한 자" (the believer and the sanctified)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은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갈 2:20; 엡 3:14-19; 요일 3:23-24; 4:4, 12-13, 15-16 등도 참조).

이 짧은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확장된 연구를 통하여 칭의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문일뿐이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성이라는 전체적인 복합체로서 결코 실생활에서 "추상화" 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성화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중한 구별에 유의하십시오.

[칭의]는 실제로 정의롭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다른 성품에 의한 즉각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암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몇몇 드문 경우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의롭게 됨'(justified) 또는 '칭의'(justification)라는 용어는 성화를 포함할 정도로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사도 바울과 다른 영감어린 저자들에 의해 서로 충분히 구별됩니다. (전집, V, 56)

Q. 7. "모든 사람은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들 역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까?"

A.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모순되게 행하지 맙시다. 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까?" (전집, VIII, 291)

누군가에게 용서 또는 칭의가 성령에 의해 증거되자마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과 그가 걸었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믿음을 파선시키지 않는 한) 그의 영혼에 구원이 점차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전집, VIII, 48)

(웨슬리의 설교, "그리스도의 재림의 끝" (The End of Christ's Coming), 전집, VI, 275 참조.)

Q. 내적 성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A.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입을 때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예, 죄의 씨앗입니다. 그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그때부터 신자는 점차 죄에 대해 죽고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전집, XI, 387)

나는 [거듭남]이 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적 사악함에서 내적 선함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이 마귀의 형상(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창조주께 대한 사랑으로의 변화; 즉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것에서 하늘과 거룩한 애정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둠의 영의 기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기질로의 변화입니다. (작품, I, 225)

웨슬리는 그의 설교,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성령의 첫 열매, 전집, V, 87-97))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급진적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합니다. (2) 그들은 한 영으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3) 그들은 그분 안으로 점목되었습니다.

(4) 그들은 머리의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5) 바울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구절 (갈 5:16-19)에서 웨슬리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육체가 영을 이긴 것처럼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은 사도의 원문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의 전체적인 주장을 아무 가치도 없게 만들고, 즉 그가 증명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집, V, 88).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정과 정욕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7) 쓴맛의 뿌리는 그들 자신에게서 느껴지지만,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것을 계속 밟아 아래 짓밟을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8) 그들은 마음과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9)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10)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참된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11)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 과거의 죄, (나) 현재의 죄, (다) 내면의 죄(비록 그것이 현재 남아 있고 점점 더 의식하고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더라도), (라) 연약함의 죄, 또는 (마) 도울 힘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참조: 전집, V, 88-93)

이것들은 웨슬리의 사상을 표본화한 것일 뿐이며, 대부분 그가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별히 지정한 작품들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1. 웨슬리는 칭의에 대해 실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웨슬리가 혼동하기 쉬운 문제들을 얼마나 지루할 정도로 극도로 세심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준다.

4. 온전한 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웨슬리는 결코 사람들을 충동하지 않고 항상 그들을 이끌었다. 그는 사람들의 "타고난 죄" (inbred sin)를 정죄하지 않고 내면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격려했다).
5. 웨슬리의 해석학-‘사랑’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이다.
6. 위기와 과정이 모두 의미를 갖는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 축복"의 의미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것은 거룩함과 성화라는 용어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요약한 것입니다. 웨슬리에게서 날카롭고 명확하며 독단적인 정의와 주장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에서 사랑의 역동적인 강한 박동을 듣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긴급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와 성결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용법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가 발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검토는 이 연구에 필수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임의로 선택 내지 거부하거나, 또는 문맥에서 구절을 떼어냈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성화

간단히 말해서, 구약에서 성화는 특정 사물이나 개인 및 국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분리되어 있고, 빛나고, 접근할 수 없고, 무시 무시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에 대해 끔찍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는 철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속의 도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로 개념을 구축하는 데는 수세기에 걸친 신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한 규정을 통해 세속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사물과 시간, 그리고 인간과 국가가 거룩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특정한 의식 행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도덕적, 윤리적 고려 사항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순종이 강조되었습니다. 완전함은 신체적, 윤리적 행동의 측면에서 정의되었습니다. 정결함은 금지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였습니다. 도덕적 의미가 항상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 준수가 더욱 두드러지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배제된 의식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함은 동기와 의도 상의 문제였습니다. 욕이 "완전"(perfect)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직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사야는 올바른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과 의복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화에는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인 개인적 순종과 사회적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조지 A. 터너(George A. Turner)는 구약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개념이며, 그 중심 사상은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닮음' (the God-likeness)이었습니다. 거룩은 '타고난'(natural) 미덕이 아니라 '파생된' (derived) 미덕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상실될 수도 있었습니다. 터너는 "거룩은 경건과 같고, 경건은 선과 비슷하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본질적으로 경건 또는 선입니다"⁸¹라고 덧붙입니다.

신약성경의 성화

⁸¹ George Allen Turner, *The More Excellent Way* (Winona Lake, IN: Light and Life Press, 1952), 31.

보다 비판적인 분석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맥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의미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 *의식적이며 대체적으로 비인격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과 제단 안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 장; 믿는 배우자의 신실함으로 결혼이 거룩해지고 자녀가 합법화된다는 고린도전서 7 장; 감사함으로 먹는 고기가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전서 4 장과 같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의 주된 목적은 교회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다른 모든 요소는 이 한 가지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는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엡 5:25-26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형태가 영어로 완전히 표현되지 않아서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미완료현재] 이미[또는 먼저] 말씀[미완료현재]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가정법은 목적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미완료현재]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미완료현재] 포기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특정한 관습을 언급하든,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이며, 신부로서의 완전한 적합성이 목표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 (27 절)이 없는 것은 부정-긍정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흠 없는]"과 유사하며, 바울이 의도한 도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주요한 강조점이 두드러집니다: (1) 그리스도의 관심사였던 공동체, 즉 교제였습니다.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 생각은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개인을 넘어 신자들의 총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제공된 것을 개인이 어떤 맥락에서 경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히 13:12 에서도 같은 사상이 편지 전체의 주된 의도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 매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듯이, 이제 단번에 "예수께서 ...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중심 목적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집단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성화의 의미에 흔히 포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니다. 사실 구속의 은혜의 전체적 범위는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물론, 전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도 성화라는 용어에 속합니다.

이 구절들은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재조명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핵심 신자 그룹과 *그들의 말을 통해 그분을 믿고자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들의 증거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됨이 그 적합성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영적 일치 그 특징이며, 그것의 효과적인 증거는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실망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의 칭찬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관련하여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19 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구속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룩함을 개인적으로 비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 10:36)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 17:18 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17 절과 19 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성화를 앞서 언급된 신적인 임무와 연관시킵니다. 주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임무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의 임무를 위해 기름을 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구절 중 하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신을 신성 모독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행적은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 장에서 세상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 편의 준비의 요약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기술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 14:12). 이 구절에서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비밀스러운 지위를 간직한 특별한 신자들의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한 증거에 의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유추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도덕적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가져다주는 교제는 구조적으로 도덕적이며 영적입니다.

성화의 의미가 각 구절마다, 즉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서의 의미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의미가 각각 달라야 한다는 식의 주석적 요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에서 저 구절로 이어지는 비유가 그 구절의 요점입니다. 성경 주석은 단어에 형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 구절이 그것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본문의 의미와 강조점에 의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허용되면 이 단어에는 실로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병행 구절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 1)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1). 이것은 21 절과 22 절에서 반복됩니다.
- 2) 아버지께서 ...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21 절).
- 3)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것이 두 번 언급됩니다 (14, 16 절).
- 4)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니" (18 절).
- 5)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함은 그들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19 절).
- 6) "주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나이다" (22 절).
- 7)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23 절).
- 8)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 저희도 사랑하셨나이다" (23 절).
- 9)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 절).

예수님 자신과 그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또는 도덕적 완전성과 관련하여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모습 사이에 어떠한 대비적인 표현이나 암시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걸쳐 비교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의도하신 대로 성화라는 단어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자격 외에 아무것도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초자연적인 경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기도의 목적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분석을 통해 성화의 의미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 1) 예수님에게 성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 2)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은 객관적입니다.
- 3) 또한 성화에는 성화된 사람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의 응답이 포함됩니다.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4) 이 헌신은 값싸고 대중적인 의미가 아닌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반대되는 목적이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자아의 매우 진정한 헌신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결합입니다. 이 구절은 이 점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특히 강렬합니다.
- 5) 그리스도께서 도덕적 교감과 사랑과 목적의 단일성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의 하나됨, 그리고 서로서로 하나됨이 성화를 구성하는 도덕적 완전성을 구성합니다.
- 6)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화는 하나님에 의한 안수나 교제의 내적 충만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항상 사랑의 의미를 완성하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 특성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성화는 단순한 만족의 '웅덩이'(pool)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오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는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7:38).

요컨대,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학이 외부에서 해석으로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 장의 평행 요소에서 파생됩니다. 여기서 성화의 의미에 신학적으로 추가된 문구인 "정결하게 하다" (to make pure)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이 요소를 삭제하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문맥이 뒷받침하는 정결함의 개념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정결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결케 함'(Cleansing)은 본문에 의해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정결함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바로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성화의 의미입니다. 성화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예표된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도덕적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주관적이며 도덕적인 혁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화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여건 속에서 모든 우상은 버려지고, 인격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교제는 정결함입니다. 이 교제에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은 문법이나 의미에 있어서 성화를 형식적으로 "서 있는" (standing) 것으로 이해하여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해석도 예수님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관련성이 매 구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추상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윤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관계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중보적인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입니다 (헬라어 동사의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17 장은 에베소서의 구절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1)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된 신자들의 몸을 염두에 두셨고, (2) 그 몸은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3)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구속의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부수적인 것입니다. (4) 성화는 말씀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word)은 일차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살아 계신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발견됩니다. (5) 이 위임에는 도덕적 적합성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에 나타난 정신의 일치는 도덕적으로 분명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은 성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성화를 성령의 임재와 동일시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이 기도문에서 성령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관 짓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 성구에 관한 한 오순절의 체험이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것(20:22)을 성령의 임재와 동일시합니다. 사실 성화를 그날 성령의 임하심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인용된 구절의 의미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시된 성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위임받은 사명을 위해 온전케 된 교회가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진리는 조직신학에서 다른 진리들에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 진리만큼은 예리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화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헛되이 이루려고 했던 이상, 즉 지혜와 의, 성결, 그리고 구속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고전 1:30). 이것은 속죄의 요소가 이 네 가지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철학과 종교에서 추구하지만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제공되는 덕목들을 전부 요약한 것입니다. 고전 6:11 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에 빠져 있던 모습과 대조하여 그들의 분열된 정신과 행동이 변명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화의 의미를

"두 번째 은혜의 역사" (고전 1:2 및 3:1-4)로만 제한하면 고린도서 내에서 이미 제기된 어려운 신학적 문제, 즉 그들을 동시에 성화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부르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3.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전 계획*은 진리를 거부함으로 인한 죄(불의)의 증가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에 있었습니다(살후 2:13). 베드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벧전 1: 2)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성화,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순종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윤리적 반응이라는 신적인 구속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케 하심"에는 순종과 "피 뿌림"이 포함되고 이어집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았습니다. 문맥이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영"(the spirit)을 '신자의 영' (the believer's spirit)으로 번역하는 것도 허용되며, 아마도 그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W. R. Nicoll의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의 경우처럼). 이것은 신적인 구원의 방법, 즉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과 절대적인 대조를 이루게끔 합니다. 여기서 성화는 두 경우 모두 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요점이자 더 큰 의미입니다. 전체 구속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4. *신약 성경에서 모든 신자는 영적 성숙도나 다른 자력에 관계없이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 (called holy), '거룩하게 된 자' (sanctified), 또는 '성도' (saints)라고 불립니다.* 고전 1:2, 고후 1:1 및 13:13, 엡 1:1 및 기타 여러 구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신자를 성화된 신자와 구별하여 언급한 적 없는 성경의 명시적인 진술이 진행되는 한 성화되지 않은 신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어떤 식으로든 성화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 행 20:32; 26:18; 롬 15:16에 나타난 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성화된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각 사례에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성결한 자의 유업은 유대 민족 밖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성화를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로 만듭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보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구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개인적이고 신적인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받는 유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구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유업에 대해 말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성령 안에서 이 성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에 포함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받는 사람의 적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특정 구절들 중 어느 구절도 성화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 성화는 "가장 넓은 의미, 즉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성도'(거룩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⁸²

6.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화*를 위한 두 가지 기도가 모두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청원이었습니다(요 17:17 및 살전 5:23). 둘 다 집단을 대신한 기도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으며, 또한 둘 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칭찬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영적 일에 있어서 비난받을 수 없는 집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한 불완전한 믿음에 대한 언급은 미성숙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성화의 문맥적 의미와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2)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의 기도인 5:23 은 온전한 성화라는 용어가 유래된 구절이며, 영어에서도 성화의 정도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음의 본문 분석은 온전한 성화라는 구절의 신학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제대로 이해될 때 성경에 깊이 근거한

⁸² Charles W. Carter and Ralph Earle, *The Acts of the Apostles, Evangel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312.

개념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결 신학에서 '전체' (entire)라는 단어가 성결에 부연될 때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완성된' (completed)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화의 목적에 도달하고 성화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취되었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암시적으로 누군가의 삶 속에 그 이상의 '과정'(process)의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앞부분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 절)라는 기도와 모순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거룩함의 확립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의 '완성된' (finished) 본질을 고린도교회에 대한 권고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현재형]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1)는 말씀과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함의 정도나 양이 달라지거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관련하여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함은 결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를 조금만 받거나 더 많이 받거나 모두 받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적어도 이 구절은 이런 종류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전 5:23 은 4 장의 이중적 권면을 배제하고는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 다 3 장에서 이어지며, 사랑의 증가로 거룩함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4:1) '행보'(walk)에 있어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했습니다 -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거룩함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증가" (10 절)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해 그들이 탁월했고(10 절) 그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9 절) 그 문제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3-8 절에서 말한 거룩함의 "행보"(walk)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에게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 철학입니다.

이 철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언급되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a. *거룩함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행보"(walk)는 일상적인 행동의 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리를 더 잘 이해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b. *거룩함과 도덕적 부정은 상반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도덕적 정결은 거룩함으로 정의되고 부정함은 도덕적 진실성 또는 거룩함의 부재입니다. 헬라 문화권 출신의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육체적인 죄는 충만한 삶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임으로 죄가 아니며, 어차피 육체는 영적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기독교적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추론의 결론은 육체적 죄는 은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또는 영지주의 이전) 이단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구절 (또는 다른 구절)에 따르면 은혜의 '부여'(bestowal)로서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성적인 죄를 예방하는 필수 장치는 아니지만, 그러한 죄는 그리스도인의 행보에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죄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인적인 참여가 포함되었습니다. 헬라식 이원론은 거부되었습니다.

c.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성령은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으로 거룩함 가운데 일관되게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용 가능한 대안은 없습니다. 부정함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반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룩해졌지만 무지하여 부정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진리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죄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있지만 거부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심각한 결과와 함께 하나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에서 부르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실제적인 일관성, 즉 '정결함' (cleanness)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이란 육체의 모든 힘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전 5:23 에 언급된 바울의 두번째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의 기도는 두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성화를 구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완전성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고 모든 사람의 인격이 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7. 이 관계에 대한 인간 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벧전 3:15).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합니다. 구주께서 그에게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의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봉사, 즉 "선한 일"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2 장에서 열거한 온갖 합당하지 않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집의 귀한 그릇에 대한 비유에서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부엌 도우미나 하찮은 노예와 대조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헌신과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 즉 다른 모든 충성심을 제거한 사람만이 성화되거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위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깊은 도덕적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때 '의식적 인물' (the ceremonial figure)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고후 7:1)은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완성하거나 성숙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 장에 열거된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동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완성 (현재형, 지속적 행동)하기 위해 신자들의 삶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덕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살전 3:12-13) 상태로 세우시기 위해 사랑에 더욱 더 풍성해지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 장에서 바울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자아가 의로 인도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지속적인 태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태도가 정착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거룩함과 영생입니다.

8. *삶의 질로서의 거룩함이 거룩함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는 엡 1:4 에 나오는데, 바울은 "사랑 안에서 그[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거룩하다"는 추상적인 엄격함은 흠 없는 사랑의 모습에서 구체화됩니다. 이것들은 서로를 수정합니다. 종종 복음적 의미를 흐리게 하는 철학적 추상성은 "그 앞에" 라는 개념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의와 판단을 우리 손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도 실존적인 단어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주의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도덕적인 단어이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초역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유예'(probation)상태의 삶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사랑과 결합될 때 특정한 행동 규범이나 양적 우수성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모든 단계에 걸쳐서 "완전한" 헌신의 특성이며 정신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함께 진행됩니다. 거룩은 사랑에 의해 깊어집니다. 사랑은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특성만큼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엡 5:27)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골 1:22 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흠 없이 보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전 5:23).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1:15-16)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변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악한 삶과 대조적입니다.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 부합하는 행동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논의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를 규정하는 인간 경험의 구체적인 영역과는 별개로 거룩함을 신학화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 문맥은 사랑을 거룩함에 대한 시험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단어를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없이 문맥에 비추어 단어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내린 판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각각 즉각적인 문맥에 비추어 살펴볼 때 흥미로운 사실이 제기됩니다. 즉 은혜의 행위의 '수' (numbers)나, 은혜의 "단계들"(levels), "축복"(blessings)의 시간적 계승, 또는 모든 단계에서 허용되는 죄의 상대적 척도나 심리적 반응을 조사하여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분류하거나, 그와 유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개인적, 실천적 의무는 이러한 모든 주변적인 관심사를 옆으로 밀어냅니다. *다만 도덕적 명령이 모든 지점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성화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전체는 한 가지 주요 관심사, 즉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분의 공급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공급, 그리고 그의 초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과 관련하여 추상화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책임의 척도를 포괄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종교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 또는 구획화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 침투하고 모든 책임의 순간에 직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화라는 단어는 제한된 신학 용어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화는 다분히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이라는 의미에서 학문적인 단어를 요구하는 식으로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여건은 사랑이며 그것의 삶은 봉사 또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 내의 성화의 복잡한 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 때때로 전체적인 구원 계획의 전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때때로 성화는 구속의 유일한 목적, 즉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됩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덕적으로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종 방법의 한 측면이지만,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할 때 분류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성화는 때때로 부여되는 지위이며, 때때로 발전하고 완성해야 할 삶입니다. 인간은 결코 성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지만 인간에 의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도덕적 진실성과 그 안에서 진보를 향한 사랑의 성장과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지위이자 삶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a given)이며 또한 '과정' (a process)입니다. 그것은 죄의 대척점에 있지만 또한 모든 오류와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의 틀에 맞습니다.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성화에 관한 성경적 용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합리적 문제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히 비신학적 의미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거룩한 결혼'/holy marriage 과 같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말의 원어에는 특정한 도덕적 의미, 즉 실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 양심을 압박하며 도덕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성화의 실천과 관련된 권면은 거의 전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결코 비인격적인 것, 즉 심리적 경험이나 형식적인 신학적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에 있어서 인격적입니다.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 지킬 의무는 도덕적 의무이므로 단호하고 포괄적인 도덕적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성화는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는 관계를 시작하고 보존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제공을 인간의 인격과 관련시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실제적이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전체 과정입니다. 특히 성화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편의 모든 단계와 하나님 편의 승인, 그리고 내적 갱신이 포함됩니다. 성화는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거나 은혜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행위로만 제한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율법주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도덕적 정직성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way)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죄에 대한 다른 '태도'(attitude)입니다. 도덕적 구분이 결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성화는 현재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고 구별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화에 관한 관찰

1.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꿈쩍함"을 가장 대비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죄의 용서나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신비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를 오해하거나 가볍게 또는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확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결코 속죄의 의미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2. 우리의 성화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가장 긴급하고 심오한 통찰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거룩한 터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모든 목적은 세상이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든 구절 뒤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정결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세상의 신뢰(서로의 연합에서 영감을 얻은)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종결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진전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확신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의 위엄과 범위는 우리를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에 처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가장 깊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7 장을 마주 대함에 있어서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일체의 천박하고 사소한 관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소유하고 지배하시는 사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성화를 이루지만 성화는 개인주의나 귀족적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성화는 결코 후광을 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미덕이 아닙니다. 성화는 결코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개인의 양심이 성화의 교제를 가능케하는 분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교제입니다.

3. 세 번째 관찰은 이 두 가지에서 이어집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로 인해 인간이 처한 상황의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희생 제사가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으로 대표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성화에는 도덕적 필연성에 따라 교제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즉 하나됨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만,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최대한의 응답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의 지극히 인격적인 특성이 지극히 영적인 관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각 사람의 자기 헌신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강요할 수 없으며 자유롭고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제의 조건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모든 혜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충당되며, 믿음이 충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충당됩니다.

4. *성화가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얻거나, 노력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단계에는 도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 내부 과정에는 삶의 모든 관계의 유형에서 성화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적입니다. 성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때 우리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 있고 생명력 있는 관계입니다.* 위기와 과정은 이 언약의 우리 자신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 안에서 우리는 영적 삶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개인적인 헌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본성 상 위기적이며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완료되면 반드시 시간적 시점이 아닌 ‘위기’ (a crisis)가 제대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이고 형성적인’ (crucial and formative) 행위이며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다시 경험하거나 더 깊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화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교제에 내포된 도덕적 의무에 순응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5. 우리가 성화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도덕적 완전성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도덕적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도덕적 경험에는 중립적인 "무인도"가 없습니다. 헌신은 도덕적 인간에게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헌신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분이 주님이신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땅의 법"입니다. 이 주권에 대한 인격적인 비준을 대체할만한 기독교적 대안은 없으며, 이 주권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롬 12:1-2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헌신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합리적이란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올바른 생각이 이끌어내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자동화가 아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주되심은 우리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의 왕국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롬 12:1-2 에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고는 칭의에 대한 "상위 이야기" (upper story)가 아니며, 은혜의 더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도 아니고,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거의 광신적인 열광주의자가 누리는 사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전체적인 주장의 신학적 요점입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성취가 아니라 최소한의 헌신입니다.* 로마서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문제와 변덕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특정 지점 너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경험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과정의 모든 단계는 다른 모든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은혜가 성경적으로 더 변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적인 자기 희생의 단위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주의자는 두 종류의 은혜, 즉 일반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또는 비슷한 용어)에 대해 말합니다. 일반은총은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지도 않고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러한 분리의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하게 받아들일 때 회개와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안주의는 "구원의"(saving) 은혜와 "성화의"(sanctifying) 은혜를 마치 두 종류의 은혜인 것처럼 너무 날카롭게 구별할 때 기본 전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불가능한 논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그럼 대체 언제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는가?'; 또는 '성화가 칭의와 함께 시작되고 이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결코 이러한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바울은 적절한 은혜의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단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전유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마음 속 깊은 곳의 영적 적대감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깊은 헌신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유지되기 전까지는 버림받을 위험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은혜의 연속성과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보존할 뿐, 결코 무시하거나 위반하지 않습니다.

6. 성화가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종류의 은혜라는 것은 신약성경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공하는 속죄의 모든 혜택이 우리의 경험의 단계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의 본질적인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심리적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제공은 인간의 도덕적 재조정에 의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척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속의 궁극적인 의미는 거룩함 속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으며, 둘 다 빛 가운데서 걷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제공은 여러가지의 은혜의 '수준들'(levels)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

(a unit)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 은혜의 총당은 도덕적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치합니다. 처음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도덕적 의무감은 인간의 인격에서 내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도덕적 피조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즉 자아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지만, 그 때 은혜의 총당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뭔가 그릇된 습관의 속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풍성한 영적 생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둘 다 하나님 편의 '유예' (probation), 즉 보호관찰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 통찰력은 도덕적 경험이 요구하는 전인적인 헌신과 함께 두 번째의 독특한 종류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웨슬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예시할 만한 사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전적인 헌신에 내포된 지극히 인격적인 특성은 대개 천천히, 그리고 다소 고통스럽게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혜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우리 자신의 위치는 칭의를 통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은 인격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지극히 도덕적인 문제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7. 이 은혜에 대한 설교적 접근 방식은 신약의 접근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중심 진리는 온 사람을 통합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도덕적 조정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정당한 영적 생활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옳으며 그것은 빛 가운데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행하고, 이 "행보"를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깊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목표가 마음에 박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의 온전한 척도가 제시될 때 "축복"을 세는 것에 대한 교제가 단절되지 않을 것이며, 방법론에 대한 비성경적인 장벽이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신학적으로 강화된 사람 안에서

자기 의로움의 숨겨진 요새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성화'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 특히 성화를 칭의와 구별되는 은혜에 의존하는 상태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험성은 성화를 일시적인 소유로 제한한 나머지 그것이 또한 지속적인 탐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성화에 대한 정적인 견해가 내포되지 않도록 이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현재의 내적 성품과 외적 행동 전체에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다"(전집, VIII, 338)고 말했습니다. 요한 플렛처는 그 요점을 다음과 같이 더욱 설득력 있게 말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신도회'(societies)에서는 한 순간에 의롭다 함을 받거나 성화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그 순간에 행해진 일을 신뢰하여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내로써 기도에 힘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⁸³

그는 웨슬리의 말에 대해 "매 순간"(every moment)이라는 단어에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도 "매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웨슬리]는 그의 추종자들을 반율법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 심지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의롭다거나 성화된 상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내적 및 외적 행위, 즉 그들의 내적 성품과 외적 행동 전체에 대한 그들의 주의력을 이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⁸⁴

웨슬리안주의에 대한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진 후대의 한 성결교리 교사이며 설교자, 그리고 저술가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⁸³ Fletcher, *Checks*, 61. 6.

⁸⁴ Ibid., 26.

우리는 ‘상태가 아니라 행보’ (not a state, but a walk)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고속도로는 ‘장소가 아니라 길’ (not a place, but a way)입니다. 성화는 우리 경험의 특정 단계에 도달한 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시간마다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⁸⁵

현대의 한 성결론 작가는 웨슬리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성결을 "추구가 아닌 상태" (a state instead of a quest)로 보는 관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사용될 때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영적 위기와 승리에 대한 강조는 종종 종교를 은혜의 질이 아닌 은혜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⁸⁶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위기와 과정을 구분하고 그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 부적절한 관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니다. 설교는 결코 이 미세한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8. 이것은 시점에 관한 문제를 남깁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정결한 교제에 들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는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의 암시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직접적으로 제기되거나 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실의 중요성은 그러한 요구 사항 자체의 절대적인 도덕적 특성을 상기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방법과 시간적 순서, 그리고 은혜의 수준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흔적이 없습니다. 새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보다 도덕적 책임이 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비해 대등한 능력이나 통찰력, 또는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결단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올바름은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모든 도덕적 결정의 시점은 항상 지금입니다.

⁸⁵ Hannah Whitall Smith, *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 (1875; repr.,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1968), 130.

⁸⁶ Turner, op. cit., 249, 256.

“성화는 거름냄에서 시작하여 결코 끝나지 않는 거룩함의 삶입니다. 그 인에는 도덕적 경험에 요구하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은 문케의 끝이 아니라 문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유예’(probation)의 종료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를 갖는 여건입니다.” (405 쪽)

제 16 과: '성화 — 여건' (Sanctification—the Circumstance)

이 책의 모든 조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삶의 연단의 도가니에 직면한 교리의 실체는 그 추상성을 삶의 역동성의 흐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웨슬리 신학은 성화는 "이 땅 위의 삶"에서의 경험이며; "칭의"와는 논리적으로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중생에 뒤따르는 것이며; 위기 지향적이면서도 삶 지향적이며; 적절한 의미에서 "제 2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신학적 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물통 안의 곧은 막대기가 불안정한 액체와 변화하는 관점에 따라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신학의 논리적 단순성이 인간의 삶의 복잡성과 만날 때 항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 자체에 대해서 만큼이나 은혜에 대한 인간 정신의 반응에 대해서도 독단적일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성화와 관련하여 두 번째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떤 식 으로든 적절하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성화의 "여건"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미 논의한 여섯 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것들은 제기된 물음에 대한 대답과 관련시켜 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기본 요소 요약

1. 도덕적 (Moral)

"거룩함"을 구성하는 단어인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1) 도덕적이라는 것은 이 땅 위의 삶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며, (2) 도덕적 삶은 위기/결정시점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3) 도덕적 경험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만큼이나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며, (4) 도덕적 책임은 구속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위임되며, (5) 성령께서 존재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삶과 신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성령의 사역 (The Holy Spirit's Ministry)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도덕적 인식에 내포된 모든 것을 통해 가능하며 도덕적 완전성을 목표로 일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믿음과 정결, 완전함, 그리고 성화*와 같은 용어들이 역동적인 영적 실재로 관련성을 갖습니다. *믿음*은 도덕적 경험이며 은혜를 삶과 관련시킵니다. 성경의 진리는 도덕적 경험의 언어로 표현되며, 도덕적 책임의 측면에서 양심에 호소합니다. *정결함*은 전인, 즉 자아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분이 실제 중심이 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합 요소로 하는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3. 정결함 (Purity)

정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반면에, *죄*는 이러한 완전성의 부재, 즉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자기사랑의 중심성 때문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입니다. *완전함*은 소극적인 의미의 깨끗케 함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정화와 비슷합니다. 온전함은 통합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며, 그것은 완성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성숙을 향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결정적인 단계에 의해 구조화된 구속의 과정 전체의 복합체입니다.

4. 심리학 (Psychology)

성서 심리학에서 이해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인된 인간의 인격은 핵심적으로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육과 영의 이원론이 아니라 통일체이며 하나의 통일체로 작용합니다. 은혜는 그 일치를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창조하고 강화하며, 자족적이고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라, 일치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진정한 도덕적 통합체로서 일치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격은 성장하고, 때로는 퇴보하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확장되고, 성숙해지며, 또한 버려지고, 깊어집니다. 인생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린 아이는 성인이 되어야 하며, 유치함은 책임감으로 변하고, 무지는 극복되어야 하며, 편협함은 넓은 마음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편협함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없으며 시야를 넓히고 이해와 사랑, 그리고 공감을 확장하는 데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영적, 문화적 지역주의는 사랑에 의한 확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자기 이익 사이의 '조형 효과' (molding effect)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성을 잃지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아만이 위대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성경적 권면 (Biblical Exhortations)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강조합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믿어야 하며, 신자는 순종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며, 사랑이 커지고 거룩함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하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버려야 하며, 여기에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6. 그리스도인의 경험 (Christian Experience)

위의 도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의 경험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회심 후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또는 이름이 없든 새로운 영적 활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경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병적인 이기심과 "방황하는 성향"으로 인한 존재론적 부적절함이 성령의 의식적인 임재로 인해 신선하고 활기찬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쇠약해진 영적 기운은 활기차고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열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무는 사랑의 역동성으로, 도덕적 무능력은 개인의 의지로 미쳐 설명할 수 없는 승리로, 유지한 흔들림은 거룩한 확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끄는 발은 날개 달린 발 뒤꿈치를 얻고, 초라한 눈은 생생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같은 진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신학 전통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현상입니다. 이 새로운 활력은 영적 자만심을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과 부드러움, 그리고 힘이 우세합니다. 칙칙했던 사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영적 관심에 대한 각성이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의 항상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와 증거와 관련된 일에서 실패하여 영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봉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면의 주저함에 대한 의식이 깨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자존심과 이기적인 자립심에 대해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한 다음 하나님께 대해 더할 나위없이 새롭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가장 깊은 차원의 인격적 순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경험은 공적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연관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사역으로 여겨짐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책임이 명확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개인적으로 덜 원했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방식의 영적 만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 안에서의 안식”을 강화하고 확증합니다. 추상적인 이상은 성령의 충동과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항상 순종의 위기는 외부의 어떤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헌신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마음의 중추 신경을 건드리고, 그 자체로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항상 외형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내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하나의 통일된 목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을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욕구가 없는 “깨끗한 마음”(clean heart)입니다. 그것은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과 비전, 목적의식과 추진력, 겸손,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가져다줍니다.

이 모든 생각의 흐름들이 한 지점으로 수렴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경직된 형식주의로 변하여 생명력을 왜곡하거나, 기본적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 요소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 인격적 관계와 도덕적 관계의 유지; (2) 도덕에 내포된 위기에 대한 인지; (3) 성령의 증거를 확증하는 영적 경험의 사전과 사후의 구별; (4) 인간 정신의 무한한 변화 능력, 즉 항상 철학적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 정신의 오류와 불완전성, 그리고 약점에 대한 인식; (5) 우리의 영혼이 신적인 은총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성화에 대한 반대 견해’(Antithetical Views of Sanctification)

개신교는 극단적이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주요 성화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구속의 본질적인 도덕적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해결책은 죄로부터의 효과적인 구원은 죽음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원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거나(죽음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 또는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죄의 몸”이 거룩함의 “새 사람”으로 점차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밀려나고 선으로 대체됩니다. 그 사람은 성화로 성장합니다. 개신교는 죽음이 모든 변화를 끝내고 구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잉태된 성화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기를 찾아야 하는 논리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합니다.

다른 극단적인 입장은 또한 구속의 중요한 도덕적 차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 정신의 타락성에 대한 인식을 거의 배제할 정도로 경험의 위기 요소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위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악의 유혹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거룩함과 함께 완성된 성품이 즉시 부여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위기가 없는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능력이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에게 완전함을 부여합니다. 이 견해는 영적 삶의 과정에 대한 적절한 근거 없이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어느 쪽도 전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아니며, 둘 다 가장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둘 다 완벽주의의 한 유형입니다.

웨슬리안주의는 위 두 가지 신학 사상 체계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위기와 과정 중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를 의미 있게 관련시키면서 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중재적 위치에서 *두 번째의 위기*라는 용어가 항상 만족스럽게 설명되지는 않으며 과정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시도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은 거룩함의 신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구분되지 않고, 그 결과 둘 중 하나에만 적합한 용어군이 무비판적으로 혼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적 가치 대 양적 가치’ (Quality Versus Quantity Values)

도덕적 요소와 다른 모든 요소를 근본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도덕*은 시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입니다. 양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용어는 도덕적 가치에는 부적합합니다. 도덕적 또는 영적 자질에는 직선형 요소가 없으며, 육체적인 것을 규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류의 실체도 없습니다. *도덕*의

본질에 관한 한 과거나 미래 식의 수학적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도덕적이며 영적인 인격은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공간적 구조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으면 도덕을 이해하기는커녕 도덕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결정론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자유로운 것만이 무엇에나 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성과 별의 행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텔레비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적인 생명체만이 질적인 가치 판단의 대상이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이 시공간의 연속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거나, 시간을 의식하면서 합리적이고 연속적인 형태로 사고하는 사람은 그 본질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덕의 관련성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한 친화성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물”에 대한 측정이 도덕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무게를 달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결 교리의 수학,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의 구분은 거룩함 자체의 의미를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 그리고 이후로 모든 사건을 구조화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바로 ‘지금’ (now) 도덕적 경험에 들어갑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이전’(a before)이 있었고 그 앞에 ‘미래’(a future)가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수학적 계산은 전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진리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으며,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순종은 직선형이거나 시간적, 또는 연대기적이며, 심지어 수학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다른 것도 할 것입니다” 식입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 19:20)라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 삶은 여전히 시공간적 측정으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질이 양을 영적 가치로 바꾸는 도덕적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거룩성의 확언이 제기하는 기본적인 의문은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와의 시간적 관계에서만 존재하고 서열적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도덕적 진리는 "해체"되고 무력해집니다.

도덕적 진리는 항상 진리에 의해 구조화되기 때문에 항상 관련성이 있습니다. 도덕적 진리는 지금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 폐기되거나 더 높은 진리로 대체되어 덜 영구적인 요소에서 더 영구적인 요소로, 즉 질적으로 다른 궁극적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상은 초기 영지주의에서 신자들을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somatic, soulish, and spiritual) 인 존재로 계층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종의 영적 귀족주의가 쉽게 발전하며, 이 철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될 때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과 심지어 성경으로부터 점차 분리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너머의 소위 '더 높은'(higher) 진리를 찾고 감정적 상태에 있어서 일반적인 "무리"로부터의 해방, 즉 신비주의나 육체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식의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정신 과학의 "경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삶의 모든 요구는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항상 참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의 첫 번째 미약한 단계조차도 영구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며 영적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모든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잘 취해야 합니다. 단지 과거의 위기상황에 적합한 진리라고 해서 이후의 진리를 위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의 도덕적 단계라고 해서 결코 구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의 모든 진리는 모든 상황 속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가지의 도덕적 단계를 거쳐 다른 단계로 진입하면서 과거의 단계는 더 높은(또는 더 깊은) 진리를 위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완전함의 원칙은 은혜 안에서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들"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코 진리를 기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경 주석의 권위에 근거하여 종교적 경험을 수학적 명칭으로 계층화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역사는 결코 두 번째 은혜를 위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속죄의 유익을 전유함에 있어서 심리적 구조가 없다거나 성경 저자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방법론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보다 핵심적인 도덕적 문제를 놓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와 정신의 차이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버리지 않고 영구적인 도덕적 관계에 놓이게 하는 식의 구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7 장은 로마서 8 장으로 *대체되지* (superseded) 않으며, 성화가 칭의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회개가 믿음으로 격하되지도 않고, 믿음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 3:16 은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숙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무의미한 것으로 버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시작하는 "믿음"은 안정된 삶의 태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는 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7 장과 8 장의 "동시성 이론" (concurrent theory)이 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이론은 7 장의 갈등과 8 장의 평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동시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참이며,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 사이의 전쟁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규범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죄는 육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성령의 사역에 대해 항의해야 하며, 그러한 갈등의 사실성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 장에 묘사된 '자기 의'는 아무리 많은 "경험"(experiences)이 있더라도 그것이 발견되는 곳에서 항상 정죄되며, 로마서 8 장에서와 같이 의는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7 장은 8 장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수동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새로움" 안에서 *계속 행하지 않는* 한, 로마서 7 장에서 8 장으로 올라온 다음 문을 닫고 우리의 문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 장의 진리는 로마서 8 장으로 이어지며 무기력과 부주의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며, 이 경고는 부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경험에 대해 경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된 사람들은 로마서 7 장의 관통하는 영적 진리의 필요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나 읽어야 하는 "경건"의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결 신학과 그 두 가지 은혜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참된 도덕적 경험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소진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불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경험에는 다음 세 가지 지속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1. 회개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적 격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고한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즉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죄는 과거의 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죄입니다. 죄에 대한 증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삶의 모든 무게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슨해지면 개인의 도덕적 구조 전체가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끝없이 회개하는 태도의 진정성 없이는 그 이후의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도덕적 민감성과 겸손을 증가시키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간순간 의존을 의식하게 합니다.

2. 믿음

믿음은 또한 영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는 부정적이지만,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신앙은 사랑의 새로운 방향이며, 잘못된 애정의 중심을 막아주는 회개만큼이나 안정적입니다. 도덕적 삶의 이 두 가지 요소는 단순히 첫 번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사실, 이 회개-믿음 복합체는 은혜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펼쳐지는 여건입니다. 이것들은 도덕적 정직성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들의 시작을 은혜의 첫 번째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와 인간 경험에 대한 양보이며 즉각적인 의미론적 필요 이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책임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도덕적 경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격체로서의 책임*이 즉각적으로 수반됩니다. 신약성경은 결코 믿음과 순종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간적 순서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도덕적 경험의 두 운동이 혼동되거나 서로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적 관점은 구속의 추상적 요소를 구체화하는 실존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이며, 필연적으로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에 내재된 도덕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칭의는 성화가 의미하는 도덕적 올바른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용서는 구속의 진정한 목적, 즉 교회의 거룩함과 세상 가운데의 사명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헌신에 의해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고 도덕적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성화의 모든 잠재력은 의롭게된 관계에 있습니다.

‘왜 두 순간인가?’ (Why Two Moments?)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 이상의 "순간"으로 구조화하는 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확정적인 "많은 축복"이 아닌 **확실한** 숫자는 웨슬리의 사고 방식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숫자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점입니다: "둘째"의 의미는 축복의 수학적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라고 불리는 것은 구속의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단계, 더 나은 용어를 원한다면 "깊이"있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안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상호 작용에 참여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도덕적 완전함을 유지하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해설입니다.

"둘"(Two)은 단순히 은혜의 도덕적/영적 차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 행위를 통해 우리를 그 이상의 의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덕스러운 행위에 무언가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측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뜻을 전적으로 지향하는 과업을 위해 인간이 모든 책임 있는 본성을

발휘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는 새로운 궤도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나침반을 셋별에 "고정"시키는 중요한 중간 지점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 비유는 더 멀리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 길의 단계들"의 근본적 관련성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수학적 순서로서 "하나"와 "둘"의 개념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의 두 가지 반응, 즉 특권과 책임으로 이해할 때 은혜를 비역사적으로, 즉 실제 인간 경험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둘' (One/two)은 성경이 가르치고 인간의 정신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적응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는 크고 작은 모든 위기의 순간과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특징짓는 은혜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성화와 "그 여건" (Entire Sanctification and "The Circumstance")

이제 온전한 성화라는 용어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면 적절한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성화의 모든 의미가 완전히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화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제 15 장 참조).

성화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정결함이고, 마음의 정결함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또는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면, 성화는 정적이고 비인격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본질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전 존재를 다 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은 사랑의 양적 척도나 완벽한 표현 양식이 아니라 사랑의 질 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성화와 관련하여 온전하(entire)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언급됩니다(살전 5:23).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자격이 아니라 성화가 가리키는 것,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종류의 도덕적

반응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육체적 부도덕은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으며, 영과 혼과 몸 등 전인격이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연합에 이르지 못하는 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모든 관계와 함께 이 땅 위의 삶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은혜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중성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령을 경멸하고 거부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자신의 전 인격을 은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철저히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이고 자발적이며, 또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써 실로 매우 어렵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심의 경험보다 더 높은 진리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히 회심에서 예상되는 더 포괄적인 진리, 즉 전적으로 포괄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두 경험의 중요성은 양적 가치나 추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위 레벨이 하위 레벨에 열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쳐야 하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상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수정이나 부분적으로 실현된 은혜의 역사의 완성이 아닙니다. 영적 엘리트를 일반 군중으로부터 끌어올려 일종의 “하늘의 400 인”으로 격상시키는 계층화가 분명히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적 경험 중 어떤 것이 두 번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한가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합리적이고 “점점 가능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1과 2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하여 평행하고 상호 침투하는 도덕적 경험입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기본적 특성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원형의 두 반쪽, 또는 물질(예: H₂O)의 두 원소입니다. 이 둘은 같이 함께 진정한 도덕적 경험을 구성하며, 둘 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첫째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완성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정상”으로 간주될만한 장소의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특권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매우 개인적인

진리이며, 각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한 측면을 설명하지만 삶에서는 분리할 수 없고 신학적으로만 분리할 수 있는 평행 진리입니다.

이 두 요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약점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증명일 뿐입니다. 도덕적 경험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나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생에서 통합될 수 있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성취감과 온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영적 정신분열증이 치유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통합이 바로 거룩함 또는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며, 삶의 모든 전개는 이러한 도덕적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심을 갖고 고통스럽고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덕적 완전함은 단순히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합된 자아, 즉 참된 자아의 실현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 거룩해지며*, 성령은 이러한 도덕적 여건 속에서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위기 경험에 대한 강조는 1과 2가 암시하는 시간적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교적 경험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착점으로서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상태로서의 경험이 아닙니다. 위기의 경험이 한두 번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비합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테스트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험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테스트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도덕적 경험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경험에 대한 강조는 그 특징 중 하나이며, 이 논의에서 종교적 경험의 위기 지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의 살아있는 구조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원받으며, "마음"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리키는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구원받습니다.

경험

반복될 위험이 있지만, *경험과 위기*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논의 중인 주제에 적합해야 합니다.

웨슬리언이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종교적 권위를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거나 종교적 믿음을 어떤 심리적 상태, 어떤 느낌 또는 특정 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적인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웨슬리 신학의 의도의 진정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선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신학이지만 은혜는 단순히 인과율 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으로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구속의 중심을 모든 인간의 중심에 정직하게 놓습니다.

웨슬리안에게 *경험*이란 사람의 전 인격이 구원의 신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는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감 있는 본성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에 따른 내적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관여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영생은 지속적인 믿음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패턴 전체를 변화시키는 내적 헌신의 혁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순종의 행위를 시작하거나 인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것들이 인격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활동하는 삶의 모든 사랑과 동기의 방향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인간 존재의 핵심에 관여합니다. 한때 죄를 섬기는 데 사용했던 동일한 능력과 역량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안적 의미에서의 경험이며, 성경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위기와 두 번째 위기’ (Crisis and Second Crisis)

*경험*은 웨슬리 신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신학적 용어, 즉 ‘위기’ 경험과 두 번째 *위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대로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이나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해 웨슬리언은 도덕적 특성에 필요한 결단력을 삶에 부여하는 위기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히 그리스도인의 지위로 *성장하지 않으며*, 도덕적 결단의 시점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진보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미 논의한 두 번째 위기는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second)는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연합되고, 분열된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나가 되며, 이중적인 마음의 동기가 정화되는 지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결함(수단)과 정결함(목적)은 각각 여기에서 그 정의를 찾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통합의 지점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도달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누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들 각자의 자기 의지와 교만, 그리고 이중성의 숨겨진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자신과 그리스도에 관한 도덕적 결단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하지만, 온전한 헌신에 도달했을 때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에서 자아나 성령에 대한 육체적 개념은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침입”(invasions)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일 뿐입니다.

첫 번째 위기와 두 번째 위기는 숫자적인 구분 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위기가 제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르게 말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 공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도 임의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응이 필요하며 이 인간의 반응에는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상호 작용은 도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용서와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구속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인간의 헌신이 지적으로 완전하여 성령이 어떤 의식적 수준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지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그분의 도덕적 요구에 비추어 행하는 한 내주하시는 성령은 정결함(또는 하나 된 마음)을 유지해 주십니다.

이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기에 대해 한 마디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기는 “시간적” 단어가 아니라 도덕적 단어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험 속의 단어에 내포된 시간적 가치가 아니라 강조되는 삶의 변화된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요한 플레처, 그리고 그 후의 성결 저술가들은 "영적 기념일" 내지 경험의 명확한 심리적 시점이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조되지 않거나 완전히 누락되며, 적어도 매우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확실히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경험적 패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념일"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이자 유일하게 진정한 확신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기이며, 또한 위기의 결과인 삶의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요약

그렇다면 "전체" (*entire*)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적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의 인격 전체입니다. 성화에는 초기 또는 전체 라는 설명적 용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누군가의 영적 진보를 구별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며, 그렇게 이해될 때만 정당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경험" (*second experience*)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 있는 헌신에 의해 충족되는 도덕적 경험, 즉 특권의 완성 또는 인증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나 정점이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것은 임의의 숫자가 아니라 도덕적 맥락에서 그보다 더 적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도덕적 연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죄의 본질을 상쇄하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something*)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행보를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순간순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함' (*perfection*)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한 시점의 상대적인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사랑과 관련이 있을 때 역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성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Christian perfection*)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비인격적이거나 단순히 법적인 의미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양분을 공급받고 깊어져야 하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정’ (process)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결코 끝나지 않는 거룩함의 삶입니다. 그 안에는 도덕적 경험이나 요구하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유예’ (probation)의 종료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를 갖는 여건입니다.

랄프 얼 박사(Dr. Ralph Earle)는 1958년 8월 6일자 *성결의 전령* (Herald of Holiness)에 실린 객원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crossed over Jordan) 여리고를 빠르게 정복한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첫 승리의 기쁨이 패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룩함이 너무 자주 제시되는 방식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성화를 천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텔릭체는 내 것].

진실은 성결은 현재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여우를 쫓는 것처럼 끈질기고 끈질기게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히 12:14 참조].... 히 6:1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웨슬리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완전은 자신의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번성하는 나무와 같지 않고 ... 포도나무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와 분리되면 말라 시들어 버리는 가지와 같다"(전집, XI, 380)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때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능력이 없다면 현재의 모든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 순간에는 마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교, II, 393)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웨슬리는 1789년 11월 16일 런던에서 포슨 여사(Mrs. Pawson)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관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열망하지 않는 한*나는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편지, 8, 184, 이탤릭체 내 것)

우리는 이미 토마스 쿡(Thomas Cook)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결한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순간순간’(moment by moment)의 구원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항상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⁸⁷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사랑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하고, 삶처럼 역동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육체적 혈류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피처럼 우리의 변화하는 인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What’s in a Name?)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물과 감정, 신념, 그리고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는 필요성이 종교적 경험과 신학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실재가 공유하지 않는 도덕적 실재에 관한 문제점은 경험의 영역의 실재를 가리키는 단어의 상징으로 옮기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결학" (holiness scholasticism)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된 표현의 경직성은 특히 성경적 신앙에 대한 영적이고 역동적인 해석의 필요성에 있어서 개탄할 만한 것입니다.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여 신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제한한 다음 아예 삶 자체를 이러한 좁은 범주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⁸⁷ Cook, op. cit., 43.

웨슬리도 분명히 같은 문제에 직면했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웨슬리는 성화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화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용어만으로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거의, 아니 전혀 없습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⁸⁸

웨슬리 이후, 성결 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비판적 경험에 대해 선호하는 용어는 '완전한 사랑'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입니다. 웨슬리는 완전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전함, 즉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결 신학자들이 사용한 다른 용어들도 이러한 선호도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J. A. 우드(J. A. Wood)는 그의 저서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에서 "성화된 영혼들은 그들의 감정적 경험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원리적인 감각 [이텔릭체는 그의 것]을 따라 축복을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⁸⁹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서 '믿음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의 충만함, 거룩함, 완전한 사랑, 성령 세례,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등의 용어를 각각 설명과 함께 제시합니다.

미국 성결운동의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스틸(Daniel Steele)은 용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경험을 표현하는 매우 다양한 용어와 문구를 연구했으며, 이는 모든 교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스물여섯 개를 세어 보았지만, "성령의 세례(또는 성령과 함께)"와 "성령의 충만함"은 그가 사용하지 않은 문구들인데, 아마도 도덕적 본성의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일시적인 성격의 감정적 충만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온전한 성화의 의미에서 이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의롭게 될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⁹⁰

⁸⁸ Wesley, *Plain Account*, 11.

⁸⁹ J. A. Wood, *Perfect Love; or Plain Things for Those Who Need Them Concerning the Doctrine, Experience, Profession and Practice of Christian Perfection* (Chicago: Christian Witness, 1904), 125.

⁹⁰ Daniel Steele, *Steele's Answers* (Chicago: Christian Witness, 1912).

아마도 웨슬리의 글에서 웨슬리 자신의 "두 번째 경험"을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가 모든 고정관념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애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온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웨슬리안 또는 성결의 입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정의는 모든 토론에서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대해 웨슬리는 평이한 설명으로 대답했고, 그 대답은 우리가 그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A.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떤 그릇된 기질이나, 그러한 사랑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영혼 속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순수한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Q. 순수한 사랑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A. 1. 많은 실수는 순수한 사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2. 일부는 실수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사랑 자체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 성경을 지키고 성경만큼 높게 설정함으로써입니다.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기질과 말과 행동을 통해 실행되는 사랑, 이보다 높지 않고, 그것보다 낮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기질을 지배하는 하나의 욕망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⁹¹

⁹¹ Wesley, *Plain Account*, 15, 18.

한나 휘틀 스미스 (Hannah Whitall Smith)는 공식적인 신학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Upham 은 그것을 "내적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복음 전도자인 A. B. Earle 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안식"이나 "깊이있는 삶"과 같은 것이 오늘날 더욱 일반적인 용어이며 "충만한 구원"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조지 앨런 터너(George Allen Turner)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말합니다:

많은 반대는 만족스러운 ‘명명법’ (nomenclature)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부분적이거나 모호함 없이 전체 교리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 문구나 다른 어떤 용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웨슬리 자신의 중심적인 강조는 결코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Perfect Love)조차도 거룩함의 범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부분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웨슬리안적 모형의 근본적인 위험은 그 자체의 근본적인 오류가 아니라 모든 모형에 내재된 위험, 즉 문자를 영으로 대체하는 위험입니다... 새로운 정신에 의해 재차 취해진 형태는 필연적으로 다시금 고정관념과 독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⁹²

다니엘 스틸은 그의 저서 *Half Hours with St. Paul* (성 바울과 함께 하는 반 시간)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보여준 신중하고 겸손하며 다양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자신의 논지를 옹호합니다. 그런 다음 책의 내용을 광범위하고 다양한 바울의 표현에 따라 체계화하였습니다.

용어 사용에 관한 결정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각 문맥에 드러난 단어의 성경적 의미에 비추어 내려져야 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함께 시작되며 칭의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위기가 있지만 이생이나 내생에서 어느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과정의 측면도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이익을 제기할 성결 교리의 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풋말을 세우는 식으로 다소 일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회심 이상의 경험"이라는 말이 유용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자는 이 용어를 현대의 대표적인 성결 설교자로부터 빌려왔습니다. 이 용어는 신자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⁹² Turner, op. cit., 261.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암시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기 지점에 도달했음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주목할 만한 시점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자 발전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와 같이 실제 도덕적 내용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설교를 통해 얼마나보다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우리를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누구도 이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철저한 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일은 뭔가 다른 유형의 삶으로 강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와 기회, 그리고 책임을 동반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면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의 요구에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기독교 신자에게 요구하는 인격적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이 없이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깊이 헌신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결한 사람들이 성화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용어 또한 매우 유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의 전형이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의를 위한 다른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율법 전체를 성취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롬 13:8-10).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6:11) 라는 말씀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6:17 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구절의 순종은 의와 거룩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8:2)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화의 의미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는 바울의 증언은 "나는 성화되었다" (I am sanctified)라는 산문적이고 비효과적인 말을 실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신약성경의 어떤 저자도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간증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주 간증하고 특히 성결 교리를 체계화한 바울은 말씀 자체로 성결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자신의 행적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지만 -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옹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살전 2:10) - 여기에서도 헬라어 원문은 성화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성화를 추구하라는 권면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오히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마음을 품으라"(골 3:9, 엡 4:24, 고후 7:1, 빌 2:5)는 요청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히게"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고후 10: 5).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 버리고"(12:1)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롬 12:1)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긍정적인 권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룩함의 위기와 지속적인 삶에 대한 매우 많은 동의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빛을 비춰줍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다른 것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하나라도 전체 진리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범위의 신선함과 연관성에 의해 고정관념적이거나 단조로운 접근 방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화가 핵심 단어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화의 전체 의미가 유지된다면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단 한 번의 위기 체험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천재성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의미는 구원의 경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성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존중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동의합니다. 성화는 헌신 또는 분리,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분리는 순결 또는 도덕적 올바름입니다. 사랑은 순결로 정의되며 사랑은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것도 정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부터 끝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 가지 다른 속성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결코 거룩함을 물건처럼 소유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정의나 사랑에 반대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그분의 존재의 모든 요소가 완전한 균형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입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의 모든 색의 합인 백색광입니다. 거룩은 부차적인 것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적입니다. 거룩은 인격적인 것만이 그 명칭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생명력, 즉 생명 자체입니다. 건강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의 상태이지만, 이 경우 상태는 몸의 각 기관의 상호 연관성, 즉 관계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 이상입니다. 그러한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수해야 하는 표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거룩은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도덕적 건강, 즉 완전한 성실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거룩함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학의 은총처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에 도덕적 이원론을 창조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임재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개념인 영혼의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가된 사법적 지위 그 이상입니다. 건강은 측정하거나 계산하거나 더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적절한 관계라는 점에서 육체가 건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덕적 건강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경험은 인간 인격의 내재적 자원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통합의 초점 중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호 동의하는 것이 거룩함을 구성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양은 항상 이것의 부산물이며, 중심에서 해결된 부차적이고 현세적인 문제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입니다.

거룩은 *도덕적 통합*이므로, 인간에게는 도덕적 삶의 진정한 중심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합에 대한 분열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응집력의 부재입니다. 요소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도덕적 분권화로서, 소외와 소원함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도덕적 삶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도덕적 연합의 재구축 가능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도덕적 성실함을 전가하실 수 없습니다. 전가된 의로움은 제한된 개념이며, 그것에 자주 가해지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화해는 도덕적 소외의 치유이며, 결합은 도덕적으로 상호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증여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상호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모든 요구는 도덕적 성실함을 위한 것입니다. 도덕적 성실함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건전함이며, 완벽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이며 자기 중심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전인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적인 것, 지적, 감정적인 것, 도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입니다. 즉 상태가 아니라 "길"이며, 정적인 선함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일차적으로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합법적 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항상 도덕이 한낱 비도덕적 자연주의로 변질되는 위기 지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 (THE LOST CHAPTER)

데이빗 맥판 (Dr. David B. McEwan), 브리스번 나사렛신학대학 Brisbane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학장

1970년대 초 호주의 나사렛 성경 대학(Nazarene Bible College)에 재학 중이던 저는 주로 미국 성결 운동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성결 교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결과 헌신, 그리고 규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종종 피해야 할 죄악된 행동의 긴 목록과 함께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제 자신의 영적 투쟁은 제가 이해했던 성결의 교리와 그 실제적인 생활과 설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강조를 담은 에버렛 루이스 캐텔 (Everett Lewis Cattell)의 ‘성결의 영’(The Spirit of Holiness)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나사렛 출판물들이 확실히 미국 성결 운동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탐구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 조지 콕스(Leo George Cox)의 저서,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요한 웨슬리의 완전함의 개념)조차도 사랑과 관계보다는 청결함과 정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1980년에 저는 대학에서 시간제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제 강의의 일부로 거룩함의 교리를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초에 캔자스시티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원(NTS)에 가서야 비로소 저는 요한 웨슬리 자신이 세운 신학적 틀과 씨름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Rob Staples 박사의 수업 중 하나에서 Mildred Bangs Wynkoop의 *A Theology of Love*를 처음 읽었으며 그것은 제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은 사랑이며 이것이 모든 신학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그의 신학적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이어지는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저에게 거룩함, 즉 죄를 쫓아내는 사랑의 충만함을 위한 긍정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변화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강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 특정한 행동을 삼가는 방식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을 촉구하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7년 브리스번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을 때 신학 수업에서 Wynkoop의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제공하는 통찰력이 제가 가르친 주제 중 하나인 거룩함을 설교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웨슬리 신학 대화 그룹에 참여했고 나사렛 교단의 목회자로서 현재 인디애나 웨슬리안 대학교의 교목인 Darrell Poeppelmeyer 목사 역시 와인쿵의 책에 대한 저의 글을 읽고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와인쿵박사가 강의할 때 NTS의 학생이었고 실제 Beacon Hill Press가 출판한 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장의 내용이 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와인쿵 박사가 "거룩함의 설교" (The Preaching of Holiness)라는 제목의 강의 내용이 그 책에 수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히 슬퍼했으며, 그 결과 그녀는 그 사본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Darrell은 여전히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내 수업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부 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맙게도 저에게 그 강의안 사본의 복사본을 한 부 보냈는데 글자가 심하게 번색되어 일부 내용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사서인 Mrs. Heather Griffiths에게 새로운 디지털 사본을 타이핑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후로 저의 가르침과 목회 사역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함의 설교"는 거룩함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중심성,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은혜로운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이웃(그것이 누구이든 간에)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에 의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은 바로 신약성경과 웨슬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설교자를 위한 많은 실용적인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경험이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경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2008년 10월에 저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교단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캔자스시티의 비컨 힐 출판사(Beacon Hill Press)의 이사인 보니 페리(Bonnie Perry)와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출판된 책 '사랑의 신학'의 내용 중 일부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으며,

Darrell Poeppelmeyer 의 도움으로 “기록함에 대한 설교”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었으며, Beacon Hill 이 책의 재판을 발행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락된 내용이 훌륭한 보충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작업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그 누락된 내용이 포함된 책의 재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이 훌륭한 작품에 실로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와인쿱과 ‘거룩함에 대한 설교’

T. 스콧 대니얼스 (Dr. T. Scott Daniels), 나사렛 교단 중앙감독

*사랑의 신학*을 처음 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와인쿱의 "신뢰성 격차"라는 제목의 장은 저의 생각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을 통해 제가 거룩하다고 받아들였던 것의 대부분이 도덕주의였으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와인쿱의 책의 원본에는 누락되었던 "거룩함에 대한 설교"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녀의 글이 얼마나 현대적 관련성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인쿱은 처음부터 당대의 설교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명제적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개인적이며 체험 위주의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염려했음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만 믿는 죽은 신앙으로, 두 번째는 주관적이고 비성경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글의 내용은 설교가 종종 성경에서 발췌한 신학적 명제들의 목록이 되어 사람들이 (머리로) 믿도록 권장하지만 기독교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현대적 우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는 설교가 관련성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청중의 삶이 중심이 되어 복음의 메시지를 역지로 개인적 경험에 짜 맞추기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웨슬리안주의의 성결교리 설교자들은 회중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성화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깨닫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제대로 된 거룩함에 관한 설교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만큼이나 크고, 인간이 온전히 탐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능력보다 더욱 더 도전적입니다” (와인쿱, "성결에 대한 설교" 중에서).

기록 보관소의 메모

밀드렛 와인쿱은 자신의 논문을 나사렛 문서보관소에 보내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소장품에는 *사랑의 신학*의 원고 원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 하나가 "거룩함에 대한 설교"라는 제목의 글이 될 것을 구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글의 제목이 원고의 목차에 나와 있으며, 원고의 다른 장과 같은 줄이 그어진 종이에 해당 내용의 활자 원고도 있었습니다. 이 책의 초판에 왜 그 내용이 실리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편집자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내용의 사본을 몇몇 학생들에게 건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이 책을 공유한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라도 이 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탠 잉거솔 (Stan Ingersol), 나사렛 기록 보관소, 2015년 2월 5일

제 17 과: 거룩함에 대한 설교

내적 또는 외적 거룩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이것을 단지 율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가장 엄한 어조의 설교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리스도의 마음과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도록 당신을 가장 많이 압박하는 그 설교를 가장 사랑하십시오. ["뿌리에 대한 타격" (A Blow at the Root), *전집*, X, 369 쪽].

훌륭한 설교와 그 설교에서 비롯된 공식적 신학의 관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는 삶의 관용구에 가까워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설교를 구성하는 세심한 신학적 공식보다 더 보편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하나는 필수적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웨슬리안적 설교와 신학은 이 명백한 모호성을 취합니다. 다른 어떤 신학 전통과 달리 웨슬리안적 설교는 인간의 삶의 경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또한 현실적입니다. 이 점이 바로 웨슬리안적 설교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종교로서 웨슬리의 신학은 성경에 치중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실존적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게 있어야만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인간의 공통된 경험에 가깝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성경과 기독교적 경험에 종속됩니다.

경험적 종교는 주관주의의 위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험은 기독교적 근거를 잃고 비기독교적 신비주의와 비합리주의, 그리고 감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경험적 종교도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지적이고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순전히 외면적이며 도덕적인 방식, 또는 율법주의적 방식 외에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웨슬리안적 교리는 성경에 대한 언급에서 그 안정성을 찾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경험의 책입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과 깊이 관련되어 일어났습니다. 계시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랑받고, 미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질병, 가족 문제, 노동, 사회적 참여, 죽음의 그물망에 얽혀 있는 실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경험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경험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같은 방식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주관주의의 위험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적 경험의 책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성경과 자신을 관련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웨슬리안적 신학은 매우 독특한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적 경험의 모든 측면을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역사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 경험의 일부가 될 때에만 충분해집니다.

경험적 신학과 비경험적 신학이 모두 자칭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릅니다. 한 유형은 성경 기록에서 생생한 경험을 발견하며, 신학은 그러한 기독교적 경험을 분석하고 합리화하며 촉진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유형은 성경의 표현을 전제로 "양식화"한 다음 논리적 구조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경적 표현이 신학을 자극하고 수정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신학을 경직시키고 신학적 기반이 되는 성경 본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이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데 비해,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표현을 안정화시키고 객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웨슬리 신학은 성경과 삶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 논리로 경직될 때 그 취지가 무산되기 쉽습니다.

웨슬리안적 전통 안에 책임감 있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자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웨슬리 신학의 독특한 통찰이며, 모든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유대를 깊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의 "설교자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거룩함에 대한 설교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해진 제자들은 분명히 거룩함에 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내용과 호소력은 이 위대한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강요하는 대신에 (1)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2)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3) 그리스도의 도덕적 주장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님이자 구세주라고 불렀고 사람들이 그를 신들의 전당에 포함시킬 것으로 기대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 주장의 설득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많은 민족을 통합하는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심과 안위의 문제였습니다. 반대자들은 불매운동을 통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으로 존경받는 자리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면 신에게 하는 식으로 시저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회는 기만과 가식의 토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묻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 18:38) 그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아부를 통해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메시아시라는 진리는 진리의 혁명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실질적인 차원의 충성심의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인간의 삶의 중심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는 온통 그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생명의 왕을 죽였지만,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한때 "건축업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는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습니다(행 4:11 참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들이 믿어야 할 역사적 인물로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설교에서 가장 철저한 도덕적

요구, 즉 삶의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개인의 죄에 대한 가장 깊은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강조점이 바로 성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도덕적 의무를 그의 서신에서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성경적 설교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라면, 거룩함에 대한 설교는 그것이 성경적인 한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것처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중심이라고 여겼던 것이 거룩함에 대한 설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면하는 것이므로, 성화에 대한 설교는 인간을 성화시키는 것이 중심 목적이었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권면은 거룩함이나 성화라는 단어가 중심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준비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도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칭의"나 "중생", 심지어 "거듭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의롭다 하소서"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만드소서"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고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과 동의어인 단어들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성과 책임감 있는 제자도에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올바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거룩함과 인간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진리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진리만큼이나 거룩함의 중심입니다. 둘 다 실제 생활에 속합니다.

성화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에는 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 제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입고, 사랑에 풍성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모든 권면은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종일관 실용적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권면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의미에서 궁극적인 도덕적 요구를 강요합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갈 4:19)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태만, 그리고 배교로 인해 영적 생명을 잃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호소를 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화되지 않은 신자"에게만 해당됨으로, 소위 "성화 된 신자"는 "나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장했고 이미 더 높은 다음 단계로 올라섰음으로 더 이상 그 구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일까요? 적어도 이런 식의 판단이 옳다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버리거나 예외 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설교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지에 대한 적절한 제시 하에 죄인의 심정이 구주께로 향하도록 하며,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확신에 처하며, 매사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강력하게 흔들며 헌신적이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수 도전과 격려를 경험하고, 축복과, 비판, 격려와 깨달음, 자극과 경고, 심지어 징계와 위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봉사의 삶에로의 부르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설교자들이 죄인을 향해 설교할 때 사용하는 많은 본문이 신자들을 향해 쓰였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마 16:24-25 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26 절을 죄인을 위한 말씀으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24 절 참조)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죄인이나 오래된 신자나 할 것없이 항상 사실이며, 특히 오래된 신자들이 더욱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는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불순종과 악한 삶으로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31-32 절)는 말로 중요한 권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형제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1, 7-8)고 말합니다. 이 충고는 죄인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신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면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지점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할 때는 다른 모든 본문과 함께 이 본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 2:3)라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롬 12:3-21 에 나오는 "악을 미워하라",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와 같은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간섭"(meddling) 명령은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 한 말이며, 모든 수준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마술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 원인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룩함을 전파하는 데에 "모든 권면" (whole counsel)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 20: 27). 진리를 전체 주장의 작은 부분으로 제한하고 그 부분을 전체 진리로 만드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전파하는 것" (preaching holiness)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없는 권면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용어의 내용인 거룩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룩함에 대한 설교

"거룩함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만 설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설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 차제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뭔가 다른 음식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정화'에 지쳐 무관심해졌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룩함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신학적 뼈대만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식의 건조한 교리 설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너머의 미래에 대한 암시 없이 특정한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권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된 어려움은 거룩함의 의미를 단지 "두 번째 경험"으로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한 모든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의 관련성이 거의 가려질 정도로 거룩함 자체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 그 설교는 위기에 관한 요점을 강조하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권고는 삶의 가장 깊은 영역에 이르는 구체적인 도덕적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 지점을 넘어 실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설교는 성경적 거룩함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함에 대한 설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 요구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단어 사용의 모든 측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의 거룩함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호소력 중에서 어느 한 요소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이며 역동적인 접근 방식만이 생명을 연장하고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도덕적 요구만이 결코 낡지 않는 적절한 설교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성숙해지며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식지 않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은 "막다른 길"에서 끝납니다. 가능성은 곧 소진되고 관련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주의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거룩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가지 부분적인 진리

도덕주의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히브리적 도덕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쉽지만, 옳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방관자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실망감을 주는 독선으로 끝납니다. 성결 신학의 역동성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가장 몰입해야 할 삶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고립시키는 도덕주의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결국 영적 파산으로 끝납니다.

지성주의 또는 합리주의는 "너무 낮은 천장" (too low a ceiling)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천재성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리적인 공식과 정확한 표현으로 포착하고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언어는 기독교 교회에 보편적인 기독교론의 신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유의 범위 안에 실제적인 관심사를 내포하지 못하자 동방 교회는 무익한 논쟁의 막 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결 신학을 무덤 속에서 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룩함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행할 의무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실패하면 교리란 한낱 그것을 배신한 사람들의 무덤의 묘비명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행위’(Works)는 막다른 길입니다. 천주교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개신교도 똑같이 좋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자기 부인의 취지로 행해지는 고행이나 참회, 또는 의도적인 선행을 통해 얻는 완전은 기독교적 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이며,

영적으로 불모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도덕적 파산에 이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공로 의식의 율법주의적 제도로 끝납니다. 한 마디로, 영적 천장이 너무 낮습니다.

‘심리적 정형화’ (Psychological patterning) 역시 그 천장이 매우 낮습니다. 경험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진리의 원천인 자유주의가 되거나 진리에 대한 비이성적 시험의 도구인 감정주의로 전락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규범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경험, 즉 구원의 진리와 삶의 관련성이 특별한 감정 상태에 대한 집착이라는 위험스러운 혼란으로 끝나고 맙니다. 심리 상태에 대한 집착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시험과 사실상 도덕법에 대한 부정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거룩함의 메시지를 건전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경험의 심리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도덕적 관련성을 거의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 중 어느 것도 신약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의 영적 역동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각각 부분적인 진리에서 시작하면서 논리의 절정에 너무 일찍 도달하기 때문에 필경 생존을 위해 ‘비영적인’ (unspiritual) 방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역시 천장이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부족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약성경의 메시지의 특징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접근 방식만이 보다 더 기적적으로 모든 개인의 확장된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의 메시지는 정신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버려지는 문제점들에 의해 소진되지 않습니다. 성숙은 결코 그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룩함에 관한 설교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만큼이나 크고, 인간이 온전히 탐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능력보다 더 도전적입니다.

도덕적 명령 대 정형화된 방법론

거룩함에 대한 설교는 도덕적 문제와 씨름하며, 도덕적 명령을 인간의 경험과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방법론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 특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죄는 오직 성령께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다른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화를 설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말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약속의 방식으로 말하며, *강요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항상 끌어당기십시오*.⁹³ (이탤릭체 내 것)

또한 이 내면의 정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마치 "결과"를 셀 수 있는 듯한 열심 속에서 "당신이 지금 제단 앞에 나오면 '성화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삶의 실질적 문제를 위협스럽고 긴박한 어조로 압박하듯 말하는 정형화된 방법론이 유행했습니다. '서두르는 영' (A spirit of haste)은 '깊이의 영' (the spirit of depth)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1958년 6월호 *Preacher's Magazine*에 드웨인 힐디(Dwayne Hildie)가 이 중요한 점에 대해 말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우리가 제단 주변에서 관찰한 몇 가지 경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제단초청은 적절한 가르침과 격려, 그리고 찬양을 포함하는 거의 정해진 패턴을 따르는 열정적인 제단 봉사자들에 의해 더욱 실행되었으며, 거의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도자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을 투사한다면, 우리는 그를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48시간 이내에 그의 삶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때 그의 반응과 실망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⁹⁴

'제단 심리학'(Altar psychology)은 비교적 최근의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영적 거인들은 특정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제단 초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뚜렷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적 제단은 하나의 유용한 보조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식은 아닙니다. 도덕적 헌신은 매우 깊고 개인적이며 친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깊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⁹³ Wesley, *Plain Account*, 10.

⁹⁴ Dwayne Hildie, "The Power of Pentecost," *The Preacher's Magazine*, June 1958, 16.

구조화된 서두름은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성령의 견고하고 힘든 길을 방해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나"(I), 즉 자아가 독선적인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을 바꾸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비인격적인 것들을 지나쳐 자아의 전체를 변화시킬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헌신이 가능한 별거벗은 자기 인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웨슬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분명했지만, 피비 팔머 (Phoebe Palmer)의 "제단" 신학과 함께 미국 성결 운동에 변화된 사고의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문맥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경우 이 개념은 매우 유용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신학화되면서 웨슬리안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거룩함을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판에 새기듯 강조한 진리를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곧은 사고' (straight thinking)에 대한 주장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흔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세 있는 자' (the authority)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교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 베이커(John Baker)가 *The Expository Times* (1956년 3월)에서 말했듯이,

그의 고의적인 정책은 사람들을 기존의 태도, 즉 편견과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습관을 넘어 자기 성찰의 지점으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했습니다.⁹⁵

베이커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수용 가능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동기를 재평가하도록 강요하는 행동과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요점마다 거의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 즉 행동에 선행하는 내면의 생각과 동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느슨한 사고를 공격하기 위해 좋은 규칙(식사 전 손 씻기)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은 거짓된 구실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통째로 삼킬 이론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⁹⁶

⁹⁵ John Baker, *The Expository Times*, March 1956, 179.

⁹⁶ Ibid. 5.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드러내신 것은 더 미묘한 형태의 자기기만, 즉 부정된 동기를 그럴듯한 이상으로 덮는 자기기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과 그에 수반되는 인격적인 헌신을 배제한 경건한 소망은 위선이라는 것을 비유와 설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고 변명을 그만두고 가식을 버리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정직한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⁹⁷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말(아무리 형식적일지라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깊고 지속적인 도덕적 책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함의 분위기이며, 사랑은 자아의 소비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거룩함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순간에 시작되지만, 표현 없이는 사랑이 성숙할 수 없듯이, 사랑의 표현인 거룩함도 삶의 표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THE CRISIS POINTS)

성경은 영적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대해 강조합니다.

성결 신학에서 "두 번째 은혜의 역사"라고 부르는 위기에 대한 성경적 접근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론이나 신학적인 용어, 또는 수학적 명칭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의미하는 분명한 도덕적 의미를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구하거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또는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구절은 가벼운 훈계가 아니라 복음적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단지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주로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 자신에게 큰 위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첫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기 정화와 성결의 추구, 거룩함의 완성, 하나님께 대한 굴복,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에 사로잡힌 생각, 그리고 다른 많은

⁹⁷ Ibid., 181.

것들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 등 그 모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긴급한 권면은 사람을 완전한 도덕적 헌신의 자리로 이끕니다. 인간의 유예 상황과 관련된 위험성은 그 자체로 부정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의 근원이 되는 헌신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추가적인 위험 없이도 충분히 큼니다. 그러한 유예 상태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유예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의 책임입니다.

도덕적 경험을 완성하고 도덕적 통합을 가져오는 헌신은 영적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원수의 유혹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감옥 생활의 고문 속에서도 정절을 지킨 독일 기독교인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인생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기다리는 장기적인 시험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도덕적 깊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 자신의 '워털루'(waterloo)에 도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얇은 헌신을 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돈, 섹스, 편안함에 대한 사랑, 인기,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리스도 중심의 목적과 개인적 정직성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유혹할 때, 그들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의 깊이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빛에 도달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정직성을 최고 입찰자, 즉 유혹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끈질기게 탐색하실 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충성심에 있어서의 시험을 겪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유발된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연단된 마음의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추한 자기애의 깊이와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할 더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의존하게 됩니다. 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의 자비에 대한 관심과 민감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가 초래하였을 방종과 자기 확신을 대체합니다.

그 자유의 지속적인 대가는 인격과 인격의 능력의 새로운 확장에 상응하는 더욱 깊어지는 헌신입니다. 웨슬리가 "매 순간의 청결함"(moment by moment cleansing)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의 깊은 일치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 뜻이 붕괴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예는 주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혹에 대한 경험은 친히 배우고 익힌 순종의 일부였습니다. 주님은 광야 시험의 경험에서 자신의 공생애 사역의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접근방식의 요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서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한 그의 구속 사역의 취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마 4:1) 나아가 극한까지 시험을 받지 않은 채 완전한 봉사의 책임에 들어가기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단순히 복음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책임이기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 설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1.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장과,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되심이 실제 삶에서 살아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를 담아 이것을 강조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서도 우리를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위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성경적 설교도 그리스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검증하고, 관점을 제시하며, 그 경계를 설정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 하나님과의 인격이며 도덕적 만남을 촉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의 절차에 대해 명하거나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순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인간의 충고와 승인 규범에 따른 모든 상충되는 소란은 우리가 함께 하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져야 합니다. 도덕적 삶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며 영적 완전함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도하시는 친밀한 만남에 감히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길을 닦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의 발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했을 때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19 참조)는 말씀이 우리의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십자가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진정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자신이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올바른 십자가가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이타적이며 승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양쪽 모두를 베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의무가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무비판적인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종종 사실입니다. 청중을 위한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장벽이 허물어져 죄의 장벽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4. 명확하고 선명하고 예리한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도덕적 삶의 구조 자체가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 중 어떤 것이 "두 번째" 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해 가장 깊은 자아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아의 책임 있는 결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동기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예가 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동의와 함께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상하게도 그 ‘두번째’ 것이 적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첫 번째와는 다른 종류의 반응입니다. 그 두가지 모두 각각 도덕적 삶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5. 지속적인 헌신을 촉구해야 합니다.

점점 더 커지고 중대한 도덕적 위기에 처하여 결단의 필요성은 끝이 없습니다. 인격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이 확대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때, 유혹이 미묘한 힘으로 다가올 때, 확대된 자아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 때, 삶 전체가 영성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일 때, 처음에 만났던 것과 같은 방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긴장이 생깁니다. 부주의한 첫 번째 순간부터 영적, 도덕적 악화가 시작됩니다. 정결은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거룩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삶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나니"(롬 8:2)라고 말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영역에서의 죽음은 생명이라는 기이한 통합의 힘에 의해 능히 억제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멈추면 자연 세계와 도덕적 세계에서도 붕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인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갈 5:16).

6. 사랑의 성장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실제적인 차원인 사랑의 차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활용함으로써 확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인격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거룩함도 사라집니다. 사랑은 인간 관계의 접착제입니다. 그것은 증가하거나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의 시험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시험이며 성령의 서원에 자주 적용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자신의 간증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진보 또는 거룩함의 부재의 징후를 드러냅니다.

거룩함에 대한 성서적 표현으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와 관련된 질문들은 도덕적 호소의 역동성 속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두 번째"의 결단력과 승리의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완전성과 관련된 질문은 인격의 확장과 성숙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요구의 도덕적 본질이 이해될 때 사라집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함"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성령의 내주하심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잡하고 물질주의적이거나 오만한 인본주의적 특징이 그 의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마음의 필수적인 분위기로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묘사될 때, 거칠고 율법주의적이며 독선적인 가식은 거부되고 거룩함이 하나님 자신의 바람직하고 간절한 뜻이 됩니다.

나 자신의 그리스도와의 논쟁

"마지막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저는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자들에 대해 깊은 반항심, 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기독교인이 되려면 생명과 활력, 창의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실패, 잘못된 이상, 낮은 천장/한계, 작음과 개인주의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역동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의 충동을 질식시키며, 은혜는 정상적인 인격의 적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인격은 불가능한 자기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충동에 있습니다. 불순한 충동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동을 억누르지 않으시며, 두 마음을 품는 식의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자아의 끝이 아니라 자아를 속박하고 선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죄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삶의 시작에 있습니다. 실제 삶의 모든 것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적 발전을 억제하는 대신 전 인격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해야 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결코 쉬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게으른 방식으로 그분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에 안주하는 식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제의 최선이 아니라 오늘의 최선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분은 항상 나에게서는 너무 큰 더 큰 일로 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적일 때, 그분은 깨달을 때까지 나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무감각할 때, 그분은 내 양심이 활동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저만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작은 천국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직 천국에 갈 때가 아닙니다.

정결함은 결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헌신의 힘이며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로 소중한 사람’ (SOMEONE RATHER IMPORTANT)⁹⁸

다이앤 르클레르 (Diane Leclerc)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교(Northwest Nazarene University 역사신학 교수

Mildred Bangs Wynkoop 은 1905 년 시애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위스계 이민자였고 아버지는 노르웨이 출신이었습니다. 밀드렛은 여섯 명 중 맏이였는데, 그녀에게는 네 명의 자매와 한 명의 남동생 (밀드렛과 마찬가지로 종교 학자가 된) Carl 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시애틀의 구세군 교회에 다녔지만 새로 시작된 나사렛 교회를 알게 된 후 한 지역 나사렛 교회의 헌신적인 창립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유명한 감리교 목사 인 Nathan Bangs 와 어떻게 든 관련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밀드렛은 교단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 북서부 지역은 교단 초기에 매우 중요한 전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밀드렛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나사렛 교회의 첫 번째 "진정한" 신학자인 H. 오토 와일리였습니다. 그는 밀드렛이 새로 입학한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 (Northwest Nazarene College)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스웨스트 지역 전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대학의 사중주 단원으로 그와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와일리가 패서디나 나사렛 대학(Pasadena Nazarene College, 몇 년 후 Point Loma Nazarene College/University 가 됨)의 총장으로 이사하게 되자 밀드렛은 그를 따라 갔습니다. 그녀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문학 분야와 목회 리더십 분야에서 매우 활동적이었고, 그 두 가지 다 그녀의 후기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밀드렛이 남편 랠프 와인콕을 만난 곳은 패서디나였습니다. 랠프는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밀드렛과 함께 찬양 연주 그룹의 일원으로 여행했습니다. 구애 기간을 거친 후 랠프와 밀드렛은 1928 년에 결혼하여 함께 복음 전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에서 설교했고 많은

⁹⁸ Adapted from Diane Leclerc, "Someone Rather Important," *New Horizons, Clergy Development, Church of the Nazarene* (September 2006), 3. Used by permission.

곳에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한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도 봉사했는데, Mildred 는 실제로 Ralph 보다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밀드렛은 자신이 전파하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개인적으로 성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930 년대 후반의 그녀의 일기장에 보면 그녀가 몸이 쇠약하고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야기하는 "병"을 앓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갑자기 일기를 멈추고 몇 년 동안 다시는 집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녀가 유산을 겪은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의학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드렛은 어릴 때부터 만족할 줄 모르는 학습자였습니다. 1940 년대와 1950 년대 초반에 그녀는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오레곤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웨스턴 복음주의 신학교 (Western Evangelical Seminary/WES)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50 세에 시카고 노던 침례 대학교 (Northern Baptist University in Chicago)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또한 교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교인 WES 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의 그녀의 교제의 경험이 그녀에게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키웠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대만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단기 선교 경험 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 랠프는 일본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일본 기독교 전문 대학(Japan Christian Junior College)과 일본 나사렛 신학교(Japanese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총장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60 년부터 1965 년까지). 그녀는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결 신학을 아시아인의 마음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 자신의 신학적 어휘를 확장시켰고, 나중에 그녀의 거룩함에 대한 "전체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끼친 심오한 영향력의 밑거름이 되었이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윌리엄 그레이트하우스 (Dr. William Greathouse) 목사의 지도 아래 트레베카 나사렛 대학의 종교학 분야 교수진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가르침을 통해 대학에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갖고 대학의 역사를 쓰기로 동의했으며, 그녀의 노고의 결과물이 *The Trevecca Story* 로

출판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교수 스타일과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일일이 개인적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재임 기간 동안 ‘올해의 교수’ (Professor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레이트하우스 박사가 나사렛 신학대학원(NTS)의 총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와인쿵 교수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일른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가 1976 년 신학대학원의 전임 교수진에 합류하기까지 불과 몇 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최초의 여성 교수). 그 두 사람은 다시 함께 했지만 극히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상하리 만치 “섭리적인” 사건 속에서 Greathouse 는 와인쿵 교수가 Kansas City 로 이사한 직후 교단의 중앙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NTS 에서 그녀가 가르친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은퇴하였지만 1997 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했습니다.

신학자로서 그녀는 교단 안팎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인기를 얻는 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르치고 글을 쓰는 동안 적대자도 많았습니다. 1972 년에 출판된 그녀의 놀라운 책, *A Theology of Love: The Dynamic of Wesleyanism* 은 거룩함을 표방하는 나사렛 교단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요한 웨슬리의 ‘완전한 사랑의 신학’ (theology of perfect love)에 대한 그녀의 해석입니다.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절충적이었고, 창의적이고, 종합적이었고, 따라서 독특했습니다. 이 책이 기여한 바는 완전한 성화에 대한 교회의 “유일한” 관점을 대표하는 모델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그들이 말한 것의 영적 현실과 동등한 것으로 잘못 오해한 사람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급진적인 (심지어 이단적)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와인쿵은 ‘동족애’를 경험하도록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이 자신들을 교단에 머물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말로 “적기에” 찾아왔습니다. 40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책은 나사렛 교단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여전히 깊이 있는 대화를 청하고 있습니다.

와인쿵의 신학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인간 경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그녀의 강렬한 초점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녀의 신학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그녀의 이해와 거룩함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관계성의 관점에서 표현됩니다. 관계, 즉 사랑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방식이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관계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나온 사랑이 그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죄는 단순히 정제된 율법주의로 쉽게 변질되고 축소되는 규칙과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죄는 ‘반 관계’(anti-relationship) 내지 ‘반 사랑’(anti-love)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에 대한 와인쿱의 해석에 의해 정의되는 사랑으로서의 거룩함은 역동적이고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녀가 몇 번이고 말한 것처럼 실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점이 바로 그녀에게서 확실하고 믿을만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와인쿱과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의 도전

스탠 잉거솔 (Dr. Stan Ingersol), 나사렛교단 기록 보관소

Mildred Bangs Wynkoop의 신학적 관심은 그녀가 아는 사람들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녀에게 신학자의 삶을 소개한 신학자 H. Orton Wiley는 그녀에게 가장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와인쿱의 관심은 와인쿱의 *웨슬리안-알미니안 신학의 기초* (Foundations of Wesleyan-Arminian Theology, 1967)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주의 철학에 대한 그의 몰입은 Wynkoop에게서도 표현됩니다. 그러나 와인쿱은 그녀 나름의 독특한 신학적 의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웨슬리안-성결 신학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녀 세대의 신학적 관심사 안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그녀의 책, *A Theology of Love*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Wynkoop의 신학 경력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복음주의의 중요한 시점에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초의 근본주의 운동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웨슬리안 성결 교회의 교도들은 근본주의에 깊이 몰들었고, 이것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근본주의가 웨슬리안의 자기 이해와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은 Carl F. H. Henry와 그의 동료들이 주도한 ‘포스트 근본주의’(post-fundamentalist)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그룹은 풀러 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과 *Christianity Today*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신학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J. 카넬(Edward J. Carnell)은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과 ‘탈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post-fundamentalist evangelicals)의 차이점을 잘 요약했습니다. 그는 근본주의가 정통 그리스도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이단적인 견해를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근본주의의 이단적 정통성의 주된 특징을 “그 자체로 고안해 낸 관습과 상징들,” “보편 교회들”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호전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정통 개신교’

(Protestant orthodoxy)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종파주의적 잡담에 대해서 참지 않으며, 역사적인 주제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갈망합니다"⁹⁹라고 말하였습니다.

와인콧은 칼 헨리의 지성에 감탄했고 개신교 복음주의를 반동적인 자세에서 역사적 기독교와 더욱 일치시키는 복음주의 르네상스를 육성하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동료 학자들로는 Wiley, W. T. Purkiser, William Greathouse, Rob Staples, Paul M. Bassett 및 기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늘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렸습니다. 근본주의가 웨슬리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전 개신교 정통과 구분하려는 노력은 웨슬리 교단의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과제였습니다.

부분적으로, 탈근본주의 프로젝트는 교단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 이야기의 일부는 조지 마스덴 (George Marsden)이 저술한 *Reforming Fundamentalism* (개혁적 근본주의, 1987)과 몰리 워then (Molly Worthen)의 *Apostles of Reason* (이성의 사도들, 2014)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자신들만의 조건과 전략을 통해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와인리는 1928 년 교단의 성경 조항인 제 IV 조를 작성함으로써 나사렛 사람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와인콧은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20 세기 중반 성결 운동의 신학의 측면들에 대한 "교정"의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웨슬리 연구에 대한 관심의 광범위한 부흥은 Albert Outler, Robert E. Cushman, 그리고 1960 년대에 정통 신학으로 돌아선 연합감리교회의 다른 '탈자유주의' (postliberal)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Outler 는 그들의 비전을 '웨슬리에게로 돌아가고' (back to Wesley), 다시 웨슬리의 뒤를 이어 그의 근원으로, 그리고 우리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와인콧은 이 의제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을 향해 일했습니다. 웨슬리에 대한 그들의 재발견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교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와인콧은 웨슬리안적 근본주의 형태에 대한 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웨슬리가 전도자의 사명과 가난한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복지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결합한 사람의 모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삶은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공동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의 관행과 훈련에 의해서도 양육되었습니다.

⁹⁹ Edward John Carnell, "Orthodoxy: Cultic vs. Classical," *The Christian Century* (March 30, 1960), 377.

웨슬리에 대한 와인쿱의 재평가는 그녀가 탈근본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근원을 재평가하고 역사적 주제에 따라 복음주의적 대화를 새롭게 했던 헨리, 카넬,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와인쿱은 웨슬리안들을 위한 유사한 프로젝트가 웨슬리안-알미니안 전통의 근원에 대한 재검토를 수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칼 뱅스(Carl Bangs)는 알미니안 연구 분야에서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웨슬리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웨슬리는 미국의 여러 개척지의 부흥 경험을 통해서 분리된 신학적 가치를 하나로 묶은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웨슬리라는 사람과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신학을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본 것은 잘 균형 잡힌 ‘완전한 구형’ (full-orbed)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의 신학’으로 이끕니다.

와인쿱이 오랜 생애 동안 다룬 주요한 신학적 질문은 인간의 삶 속에서의 기독교적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룩함이 평범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거듭거듭 숙고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거룩함의 신뢰성 격차"를 성결 신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리와 삶 사이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교리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성화와 해방과 같은 과정을 가르쳤고 "거룩함: 인간화의 경험" (Holiness: The Humanizing Experience)과 같은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의 신학에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책의 기원 중 일부는 마틴 부버(Martin Buber)와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Daniel Day Williams)의 저술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철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극은 대만과 일본에서의 그녀의 삶을 통해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6년 동안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국 성결 신학의 전통적인 언어가 아시아인의 마음에 잘 전달되지 않는 서구 철학적 범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아시아의 문화적 맥락을 들고 관계적 관점에서 웨슬리 신학의 핵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성경적 교리가 서구인들의 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책, *사랑의 신학*의 배후에 있는 이러한 선교적 의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사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설교자가 사물을 설명하기를 원했고," 그녀가 사역에 임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교사 같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책은 문화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성결 신학을 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북미 대륙의 웨슬리안 성결 교단 내에서 발생한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A.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작품

Collection of Hymns for the Use of People Called Methodists, A. London: Thomas Cordeux, 1821.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A Farther Appeal. 14th ed. London: Wesleyan Conference Office, n.d.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New York: Eaton and Mains, n.d.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The. Edited by John Telford. London: Epworth Press, 1931. 8 vols.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A.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0.

Poetical Works of John and Charles Wesley, The. Edited by G. Osborn. 14 vols. London: Wesleyan Methodist Conference Office, 1868.

Wesley's Standard Sermons. Edited by Edward H. Sugden. 2 vols. London: Epworth Press, 1921.

Works of John Wesley, The. Kansas City: Nazarene Publishing House, n.d.; an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8, concurrent editions.

B. 일반 저작물

Barclay, William. *Letters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_____. *More New Testament Word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Barnes, Albert. *Notes, Explanatory and Practical on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866.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1963.

_____.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London: SCM Press, 1967.

Brataan, Carl. *History and Hermeneutics, New Directions in Theology Toda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Buber, Martin. *I and Thou*. Edinburgh: T. and T. Clark, 193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1936.

Carter, Charles W., and Ralph Earle. *The Acts of the Apostles, Evangel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Cave, Sydney. *The Christian Estimate of Man*. London: Gerald Duckworth and Company, 1949.

Cook, Thomas. *New Testament Holiness*. 14th ed. London: Epworth Press, 1950.

Deschner, John. *Wesley's Christology*.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69.

Dolby, James R. *I, Too, Am Man*. Waco, TX: Word Books, 1969.

Ebeling, Gerhard. *The Problem of Historic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Ferré, Nels F. S. *Evil and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7.

Filson, Floyd. *One Lord, One Fait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3.

Fletcher, John. *Checks to Antinomianism*. Abridged.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48.

- _____. *The Works of John Fletcher*. London: New Chapel, City Road, 1802.
- _____. *The Works of the Reverend John Fletcher*. 4 vols. New York: Methodist Episcopal Conference Office, 1836.
- Hill, Wesley. *John Wesley Among the Physicians*. London: Epworth Press, n.d.
- Jacob, Edmond.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and Row, 1958.
- Kierkegaard, Søren.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New York and London: Harper and Brothers, 1938.
- Knight, George A. F. *A Christia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59.
- Kuhns, William. *Environmental Man*.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 Morgan, G. Campbell.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9.
- _____. *The Teaching of Christ*. New York: Fleming H. Revell, 1913.
- Murray, Andrew. *Holiest of All*. New York: Fleming H. Revell, 1894.
-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 Ramsey, Paul. *Fabricated M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0.
- Rees, Paul. *Don't Sleep Through the Revolution*. Waco, TX: Word Books, 1969.
- Roberts, B. T. *Holiness Teachings*. North Chili, NY: "Earnest Christian" Publishing House, 1893.
- Sangster, W. E. *Why Jesus Never Wrote a Book*. London: Epworth Press, 1952.
- Sareno, Jacques. *The Meaning of the Bod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Smith, Hannah Whitall. *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 1875. Reprint,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1968.

Steele, Daniel. *Steele's Answers*. Chicago: Christian Witness, 1912.

Stewart, James. *A Man in Christ*.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54.

Taylor, Jeremy.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and 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Dying*. Cleveland: World, 1956 and 1952.

Tresmontant, Claude. *A Study of Hebrew Thought*. New York: Desclee, 1960.

Turner, George Allen. *The More Excellent Way*. Winona Lake, IN: Light and Life Press, 1952.

Westcott, B. F.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n.d.

White, William Luther. *The Image of Man in C. S. Lewi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Whitehead, Alfred North.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1933.

Wiley, H. Orton. *Christian Theology*. 3 vol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2.

_____. *The Epistle to the Hebrews*.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59.

Williams, Daniel Day. *The Spirit and the Forms of Love*.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Williams, Roger J. *You Are Extraordinary*. New York: Random House, 1967.

Wood, J. A. *Perfect Love*. Chicago: Christian Witness, 1904.

C. 계시물

Culbertson, Paul. "The Dynamics of Sanctification." An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Nazarene Theology Conference, December 1969.

Earle, Ralph. A guest editorial, *Herald of Holiness*, August 6, 1958.

Graham, Billy. "My Answer." *Nashville Banner*, July 24, 1968.

Harris, Sydney. "Strictly Personal—Psychiatric Flaw." *Nashville Banner*, July 30, 1968. Copyright 1968 by Prentice Hall Syndicate.

Hyatt, J. Phillip. "The Old Testament View of Man." *Religion in Life*, Autumn 1945.

Ingles, Wesley J. "Hollow Words." *Christianity Today*, October 27, 1958.

Pattillo, Manning. "Good News to a Harassed World." *Christianity Today*, November 10, 1958.

Rose, Delbert E. "The Theology of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Squire, Cyril J. *Lythograph of Wesley*. Bristol, England: New Room, New Chapel.

Stewart, James. "A First Century Heres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November 1971.

Wiley, H. Orton. "Psychology." Unpublished lecture notes, n.d.

D. 사전

Davidson, B. *The Analytical Hebrew and Chaldee Lexicon*.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1848.

Geseniu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1893.

Moulton, James Hope, and George Milligan. *The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49.

Nicoll, W. Robertso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n.d.

Richardson, Ala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New York: Macmillan, 1951.

Thayer, Joseph Henry.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1886.

사랑의 신학한글 판 발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

오클라호마시티 제일한인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현훈

김동귀 권사, 김정애 권사, 배정순 권사, 윤경순 장로, 이옥화 권사